



꼭 한 번 가 볼 우리 100대 명산

도전해 볼 100대 명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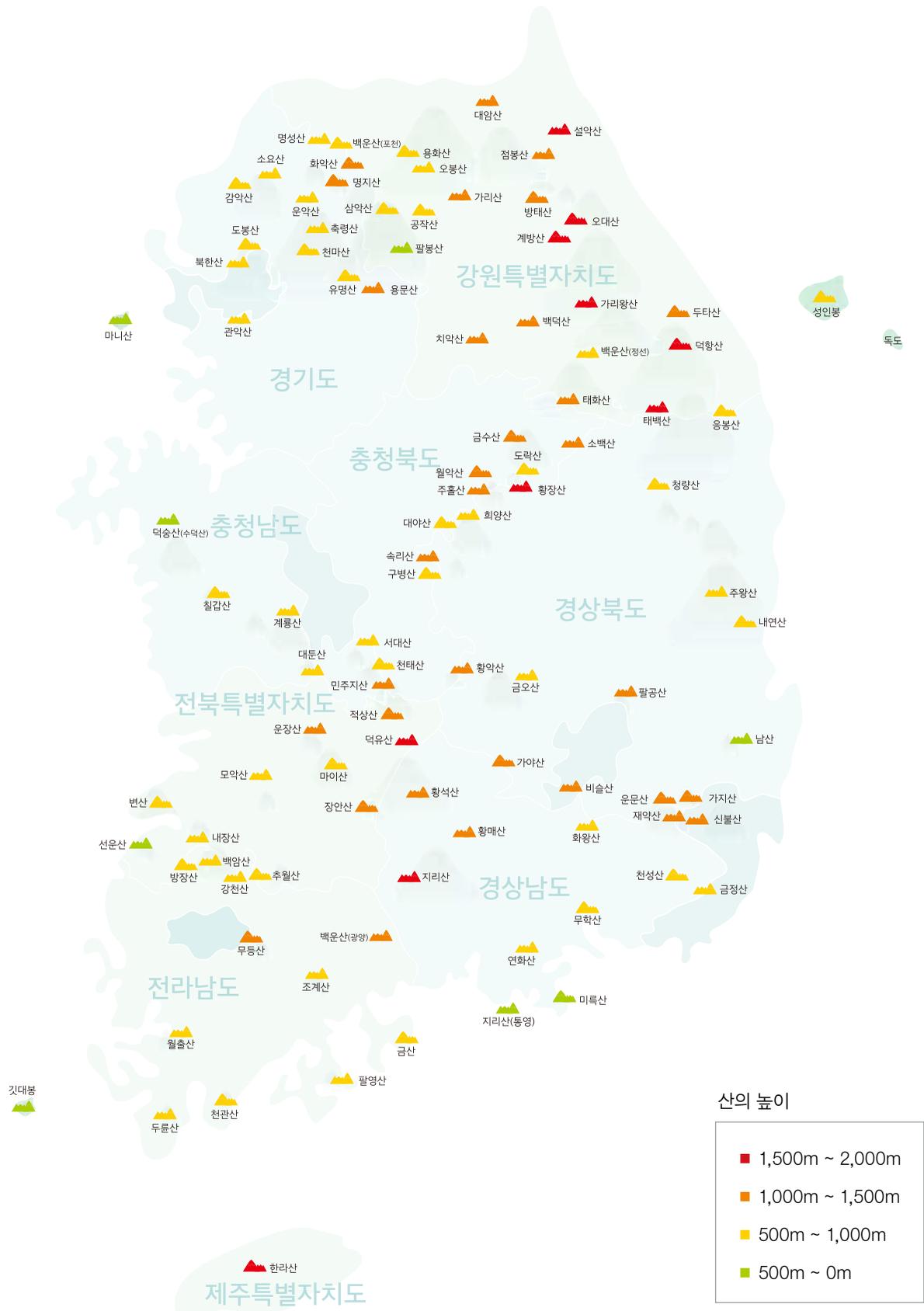
꼭 한 번 가 볼 우리 100대 명산

도전해 볼 100대 명산



일러두기

- 산의 게재 순서는 가나다순을 따름
- 산의 높이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등록된 공공데이터 개방 자료, 정상석 표기를 참고하였음
- 산의 지리적, 행정적 정보를 돕기 위하여 산의 위치 표기와 관리주체 표기 순서는 대상 산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기관 순으로 기재하였으며, 1차 관리주체의 QR코드를 삽입하였음
-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2021. 11. 19.)에 따라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국가 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번호는 표기하지 않음. (2024. 5. 1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 산에 대한 기본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관리주체의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고도표는 산림청 제공 정보를 기준으로 표기하되, 구간 상 거리는 여러 조건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주변 관광지와 함께 가 볼 만한 곳 정보, QR코드와 사진 자료는 주변 지역 지자체 누리집을 바탕으로 작성함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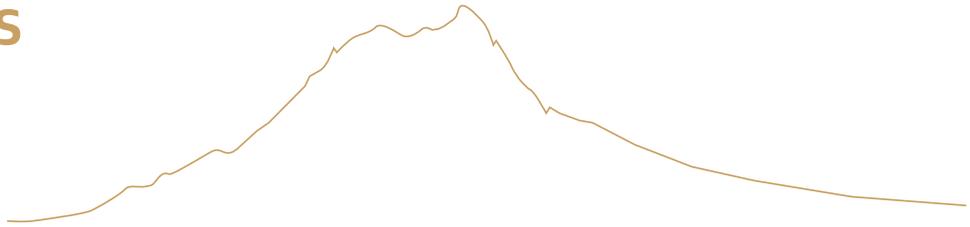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암산, 설악산, 점봉산, 오봉산, 용화산, 명지산, 화악산, 화악산, 명성산, 소요산, 백운산(포천), 용화산, 감악산, 운악산, 삼악산, 공작산, 가리산, 방태산, 오대산, 도봉산, 축령산, 천마산, 팔봉산, 계방산, 오대산, 북한산, 유명산, 용문산, 지악산, 백덕산, 가리왕산, 두타산, 마니산, 관악산, 지악산, 백운산(정선), 덕덕산, 관악산, 태화산, 태백산, 응봉산, 덕덕산, 태백산, 금수산, 도락산, 소백산, 월악산, 주흘산, 황장산, 청량산, 대아산, 회양산, 속리산, 구병산, 주왕산, 내연산, 철갑산, 계룡산, 서대산, 대둔산, 천태산, 황악산, 금오산, 대둔산, 천태산, 황악산, 금오산, 민주시산, 적상산, 덕유산, 팔공산, 운장산, 모악산, 마이산, 가야산, 비슬산, 운문산, 가지산, 변산, 장안산, 황석산, 황매산, 회왕산, 제약산, 신불산, 선운산, 내장산, 백암산, 추월산, 방장산, 강천산, 지리산, 지리산, 천성산, 금정산, 무등산, 백운산(광양), 무학산, 무학산, 연화산, 천성산, 금정산, 월출산, 조계산, 조계산, 지리산(통영), 미륵산, 두륜산, 천관산, 팔영산, 깃대봉, 한라산

Contents



ㄱ - ㄴ

1. 08 가리산
2. 12 가리왕산
3. 16 가야산
4. 20 가지산
5. 24 감악산
6. 28 강천산
7. 32 계룡산
8. 36 계방산
9. 40 공작산
10. 44 관악산
11. 48 구병산
12. 52 금산
13. 56 금수산
14. 60 금오산
15. 64 금정산
16. 68 깃대봉
17. 72 남산
18. 76 내연산
19. 80 내장산

ㄷ - ㄹ

20. 86 대둔산
21. 90 대암산
22. 94 대야산
23. 98 덕숭산(수덕산)
24. 102 덕유산
25. 106 덕향산
26. 110 도락산
27. 114 도봉산
28. 118 두륜산
29. 122 두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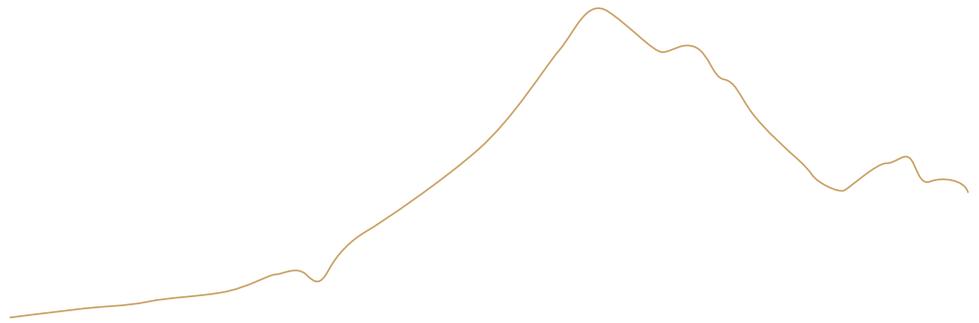
ㅁ - ㅅ

30. 128 마니산
31. 132 마이산
32. 136 명성산
33. 140 명지산
34. 144 모악산
35. 148 무등산
36. 152 무학산

37. 156 미륵산
38. 160 민주지산
39. 164 방장산
40. 168 방태산
41. 172 백덕산
42. 176 백암산
43. 180 백운산(포천)
44. 184 백운산(광양)
45. 188 백운산(정선)
46. 192 변산
47. 196 북한산
48. 200 비슬산

ㅇ - ㅎ

49. 206 삼악산
50. 210 서대산
51. 214 선운산
52. 218 설악산
53. 222 성인봉
54. 226 소백산



55. 230 소요산	73. 304 점봉산	91. 378 팔봉산
56. 234 속리산	74. 308 조계산	92. 382 팔영산
57. 238 신불산	75. 312 주왕산	93. 386 한라산
58. 242 연화산	76. 316 주흘산	94. 390 화악산
59. 246 오대산	77. 320 지리산	95. 394 화왕산
60. 250 오봉산	78. 324 지리산(통영)	96. 398 황매산
61. 254 용문산	79. 328 천관산	97. 402 황석산
62. 258 용화산	80. 332 천마산	98. 406 황악산
63. 262 운문산	81. 336 천성산	99. 410 황장산
64. 266 운악산	82. 340 천태산	100. 414 회양산
65. 270 운장산	83. 344 청량산	
66. 274 월악산	84. 348 추월산	
67. 278 월출산	85. 352 축령산	420 안전수칙
68. 282 유명산	86. 356 치악산	426 출처
69. 286 응봉산	87. 360 칠갑산	

부록

ㄷ - ㄸ

70. 292 장안산
71. 296 재약산
72. 300 적상산

ㅋ - ㆁ

88. 366 태백산
89. 370 태화산
90. 374 팔공산



가 지 산

가리산 / 가리왕산 / 가야산 / 가지산 / 감악산 / 강천산 / 계룡산 / 계방산
공작산 / 관악산 / 구병산 / 금산 / 금수산 / 금오산 / 금정산 / 깃대봉
남산 / 내연산 / 내장산

부석사에서

무량수전 처마 끝에 매달려
온종일 하늘을 유영하는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댕그랑 댕그랑, 풍경이 울 때마다
가을은 그만큼씩 서둘러 깊어졌지만
저 아득한 부처님 나라에는
과연 언제쯤이나 다다를 수 있을는지요
오늘도 제 마음은
무던히 허공을 떠다녔습니다

밤이 되어도 눈감지 않는 어안을 지녀야
실로 좋은 시를 쓸 수 있다지만
정작 제게 필요했던 것은
저를 향한 따스한 눈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 목어처럼
두 눈 부릅뜨고 평생을 용맹 정진한다 해도
결코 얻을 수 없을 깨달음 같은 것이
혹시 시에도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여태껏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여 우리네 인생살이가
안양루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 한 점시 같기만 했다면야
어찌 짐체만 한 바윗돌이 공중에 뿔까마는
예불 시간을 알리는 범고 소리가
산사에 가득하고 보니
이곳이 바로 영락없는 극락이었습니다

서둘러 절에서 내려오는 길,
미처 거두지 못한
주변 과수원의 사과들이
어둠 속에서 빨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찌면 시를 쓴다는 것도
저렇게 홀로 빛나는 열매같은 것을
남몰래 찾아내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승준



산 정상에서
소양강 비경에 마음을 뺏기다

가리산 加里山



홍천군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화촌면과 춘천시 동면·북산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높 이 1,050.9m

관리주체 홍천군, 춘천시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화촌면과 춘천시 동면·북산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태백산맥의 줄기인 내지산맥에 속하는 산이다.

자연환경

우리나라 산의 전형적인 모습
전체적으로 포근한 느낌의 산세

산 정상에 서면 탁 트인 시야와 발 아래로 펼쳐진 소양호 풍경이 등산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곳이다. 산의 제1봉 남쪽 정상 아래 바위 벽면 사이에서 샘물이 솟아나와 400



가리산 전경



가리산 바위



가리산 2봉의 겨울

리 홍천강으로 흐르는 작은 석간수는 목마름에 지친 등산객들에게 청량감을 더해주는 가리산의 특색 있는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산자락 밑에 위치한 조그마한 폭포의 물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며, 이곳에서부터 계곡과 능선을 따라 등산이 시작된다.

진달래가 많이 피는 산으로 알려져 있고 참나무 중심의 울창한 산림과 부드러운 산줄기 등 우리나라 산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홍천강의 발원지 및 소양강의 수원(水源)을 이루고 있다. 야생화가 많이 서식하여 자연관찰학습에도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대체로 육산을 이루고 있는 산세이나 정상부는 거대한 3개의 바위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북서쪽에 자리잡은 소

양호의 조망이 일품이며 서쪽으로는 대룡산 어름이 보인다. 또 정상 아래의 바위 절벽에서 사시사철 솟는 석간수가 유명하다. 가리산은 홍천9경 중 2경으로 꼽힌다.

명칭유래

산 이름인 가리는 '단으로 묶은 곡식이나 딸나무 따위를 차곡차곡 쌓아둔 큰 더미'를 뜻하는 순우리말로써 산봉우리가 노적가리처럼 고깔 모양으로 생긴 데서 유래한다.

가리산의 사계

- 봄 : 능선길 좌우에 펼쳐진 진달래 꽃길
- 여름 : 산 정상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내려다보이는 소양호 풍경
- 가을 : 낙엽송을 밟으며 걷는 등산로 흙길
- 겨울 : 완만한 산세가 만들어내는 설경

사진명소

- 가리산 큰바위 얼굴 : 가리산 2봉 정상의 큰바위 얼굴 전설을 가진 바위
- 가리산 연리목 : 무쇠말재로 내려오는 길에 위치, 침엽수인 소나무와 활엽수인 참나무가 세 번씩이나 휘감고 있는 연리목
- 용소계곡 : 우거진 숲과 곳곳에 펼쳐지는 소와 너래바위들이 어우러져 비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내설악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계곡

주요등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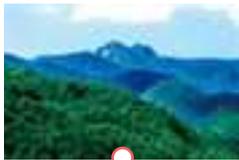
- ① 가리산자연휴양림 매표소 → 정상
가리산자연휴양림 매표소 → 해병대 가리산 전투전적비 →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 삼거리 → 새득이봉 → 가삽고개 → 정상
- ② 가리산자연휴양림 관리소 → 합수곡
가리산자연휴양림 관리소 → 가리산등산로 입구 → 삼거리 → 가삽고개 → 정상 → 가리산 제1봉 석간수 → 무쇠말재 → 합수곡

산행 tip!

예상치 못한 폭설로 산길이 눈으로 덮였을 시, 비상 아이젠을 착용하여야 하나 준비하지 못한 경우 대용으로 신발 위에 양말을 벗어 신고 산행

📷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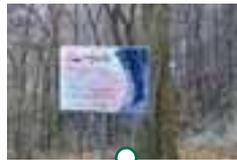
📷 명소



가리산의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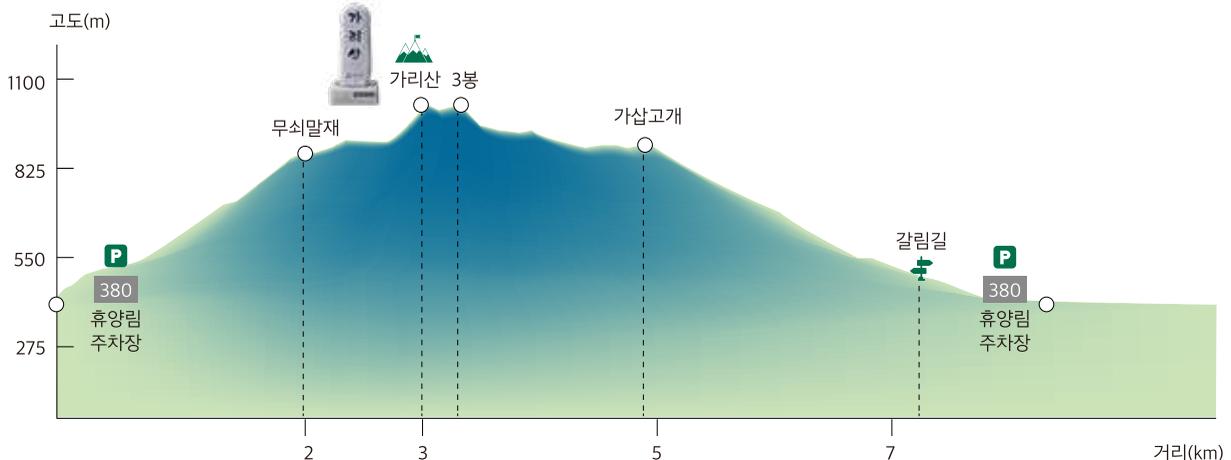
가리산 큰바위 얼굴



가리산 연리목



용소계곡



👁️ 주변관광지

📍 수타사

공작산 끝자락에 자리한 천년 고찰



신라 33대 성덕왕 7년(서기 708년)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짐

대적광전 팔작지붕과 1670년에 만든 동종, 고려후기에 세워진 3층석탑이 보존. 보물 『월인석보』를 비롯한 대적광전, 범종, 후불탱화, 홍우당부도 등 수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영서 내륙 최고(最古) 고찰

📍 가리산 레포츠파크

다채로운 레포츠 시설물로 즐기는 레포츠파크

숲 속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체험하며 신개념 친환경레저인 포레스트 어드벤처, 플라잉짚과 함께 경찰, 군 훈련 시스템과 동일한 서바이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



📍 무궁화공원

강원특별자치도 등록 제5호 무궁화 명소 1호 선정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 사랑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 중앙광장의 무궁화 조형물, 무궁화 품종원, 무궁화 미로원 등 무궁화를 소재로 한 테마원 외 16개의 주제원과 숲속 산책길인 무궁누리길, 어린이 놀이터, 온실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

함께 가 볼 만한 곳



굴지리·장항리 강변



가리산자연휴양림

● 굴지리·장항리 강변

홍천강에 위치하는 굴지리·장항리 강변은 거리가 조금 먼 탓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 조용한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곳. 산 사이로 강이 굽어 흐르고 있어 주변 경치를 즐기기에 좋음

● 가리산자연휴양림

가리산 기슭에 위치한 가족 단위의 심신휴양지. 산책로, 다목적광장, 놀이시설, 체육시설, 물놀이장, 맨발로 걷는 건강로, 구내매점 등의 부대시설이 조성되어 있음

● 수타사 산소길

수타사 안으로 이어지는 공작산의 자연을 만나는 트래킹 코스. 홍천의 아름다운 길로 꼽힘. 홍천 수타사 산소길은 수타계곡과 천년고찰 수타사를 잇는 4~6km의 계곡 물길로, 거리도 짧은 편이고, 길도 평탄한 편이어서 가족 나들이 산책코스로 제격



정선아리랑의 고향에서
고산준령이 시작되다

가리왕산

加里王山



산림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정선읍 회동리
평창군 진부면

높 이 1,561.8m

관리주체 정선군, 평창군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정선읍과 평창군 진부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우람하게 솟아 있는 가리왕산은 인근의 고산준령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산으로 꼽히고 있다.

자연환경

태백산맥의 중앙부를 이루는 아름다운 경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가리왕산은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름난 곳이다. 특히 장구목이 계곡 코스는 가뭄의 영향이 적어 단풍과 이끼가



가리왕산 전경



가리왕산 계곡



가리왕산 케이블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산 능선에는 고산식물인 주목과 잣나무, 단풍나무 등 수목이 울창하다. 또한 고산의 준봉답게 첩첩산중에 일대의 산들이 밀집해 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림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는 등 경관·생태적으로 가치가 크다.

가리왕산은 태백산맥의 중앙부를 이루며, 상봉 외에도 주위에 중봉(1,433m)·하봉(1,381.7m)·청옥산(1,256m)·중왕산(1,371m) 등 높은 산들이 있다. 가리왕산에는 희귀식물 1백여 종, 멸종위기 종 포유류 4종과 희귀조류 10여 종을 포함한 야생동물 수집 종이 서식한다. 가리왕산8경이 전해질 만큼 경관이 수려하고, 활엽수 극상림이 분포해 있으며 전국적인 산나물 자생지로도 유명하다.

명칭유래

옛날 맥국(緬國)의 갈왕(葛王 또는 加里王)이 난을 피하여 숨어든 곳이라 하여 갈왕산(葛王山)이라 불리다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가리왕산(加里王山)으로 불리고 있다. 북쪽 골짜기에 그 대궐터의 흔적이 남아 있다.

가리왕산의 사계

- 봄 : 능선을 따라 펼쳐지는 초원지대
- 여름 : 남동쪽 기슭의 가장 깊은 골짜기 회동계곡
- 가을 : 정상 부근 주목과 천연 활엽수 경관
- 겨울 : 계곡 코스의 겨울 풍경

사진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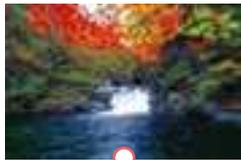
- 망운대 : 주변의 오대산, 두타산, 태백산, 소백산, 치악산 등 명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절경
- 벽파령 : 성마령, 마전령 등 겹겹이 둘러싸인 산맥의 장관 감상 가능
- 가리왕성터 : 동심(東深)과 서심(西深) 샘터의 자연경관
- 장자탄 : 가리왕산 북쪽 기슭의 여울 장자탄 위의 용굴계곡·회동리계곡·비룡중유굴 등 삼림과 계곡 경관

주요등산로

- 1 날머리휴양림 매표소 → 장구목이골 입구
 날머리휴양림 매표소 → 가리왕산자연휴양림 → 어은골폭포 → 어은골 → 정상 → 이끼바위 → 간이 자연터 → 이끼계곡 9폭 → 이끼계곡 6폭 → 이끼계곡 1폭 → 장구목이골 입구
- 2 가리왕산자연휴양림 → 발심사 입구
 가리왕산자연휴양림 → 중봉 → 장구목이 → 정상 → 정선 강릉부 삼산봉표 → 마항치 → 장전리이끼계곡 → 발심사 입구
- 3 가리왕산자연휴양림 → 상봉(정상)
 가리왕산자연휴양림 → 안부 전 갈림길 → 안부 → 상봉(정상)

📷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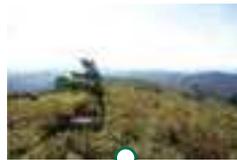
📷 명소



가리왕산의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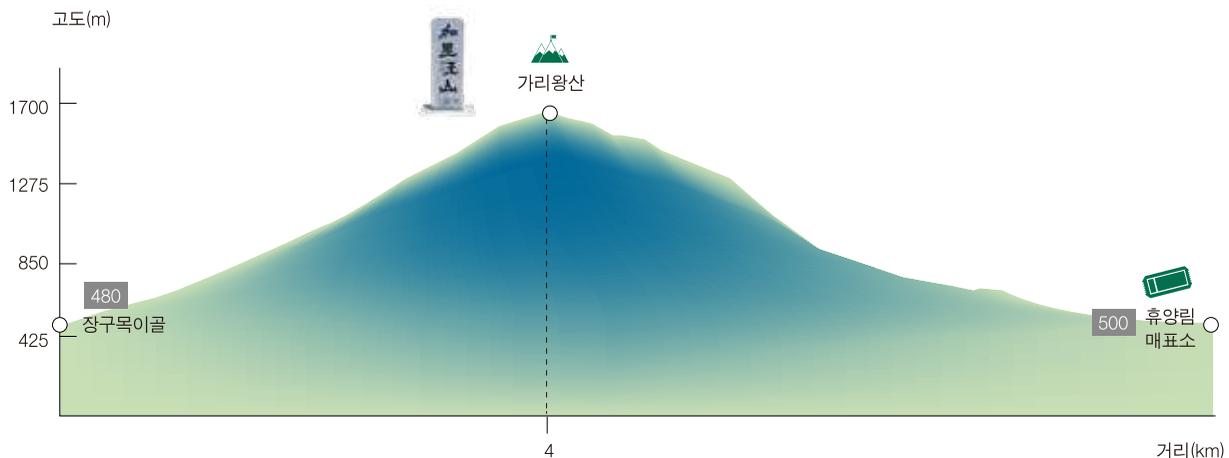
가리왕산 겨울 운해



가리왕산 상봉



정자탄(회동계곡)



👁️ 주변관광지

📍 화암동굴

‘금과 대자연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단장한 국내 유일의 테마형 동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지가 아니라 동굴 생태 관찰, 금 채취 과정 및 제련 과정 등 동굴체험의 교육현장으로도 활용 가능. 강원특별자치도기념물(1980. 02. 26.), 천연기념물(2019. 11. 01.)로 지정. 총 길이 약 1,803m로 관람시간 약 1시간 30분 소요. 금광맥의 발견에서부터 금광석 채취까지의 전 과정 재연, 금광석의 생산에서 금제품의 생산 및 쓰임까지 전 과정이 전시

📍 삼탄아트마인

삼척탄좌 시설을 창조적 문화예술단지로 재탄생시킨 곳

150개국에서 수집한 10만여 점이 넘는 예술품 및 선진적인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2013년에 설립된 국내 첫 예술광산



📍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생태테크로드 등 다양한 편의시설



케이블카 상부에 2,400㎡의 생태탐방 테크 로드를 비롯해, 여러 편의시설이 설치됨. 남녀노소 및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쉽게 접하고 지친 심신을 달래며 치유할 수 있는 장소로 케이블카 주위에 레일바이크, 정선5일장 등 관광명소가 인접

함께 가 볼 만한 곳



덕우리 대촌마을



정선 아리랑열차

• 덕우리 대촌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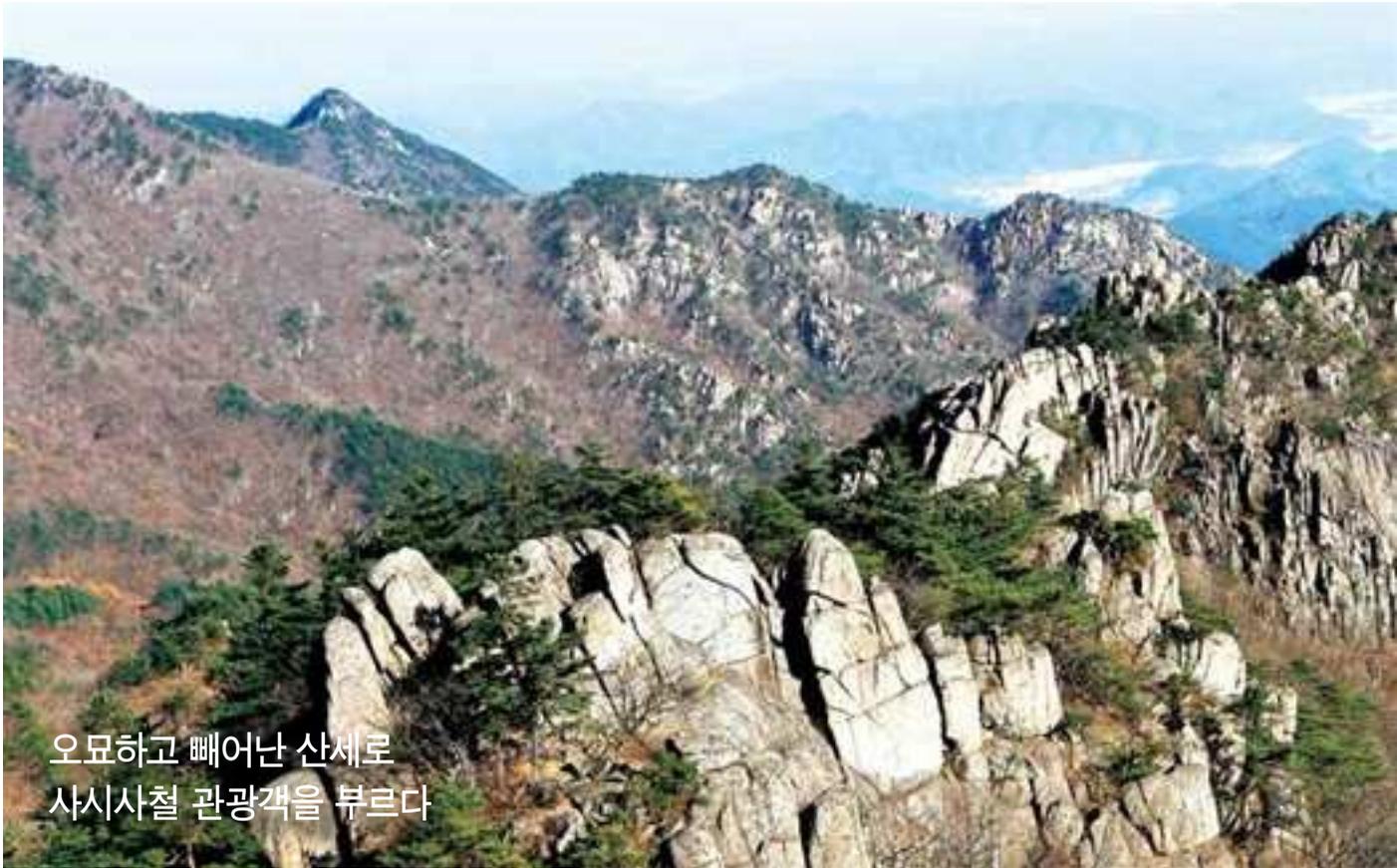
정선의 숨어 있는 비경을 간직한 곳. 옥순봉, 반선정, 구운병과 마을을 감아 돌아 내려가는 어천이 한데 어우러져 멋진 전원 풍경 감상 가능. 옥순봉, 제월대, 구운병, 반선정, 삼합수 등을 거쳐 가는 걷기 코스로 TV 프로그램의 배경지로 유명. 재충전하고 갈 수 있는 그루터기 같은 마을

• 정선 아리랑열차

코레일 주관으로 태백선, 정선선, 중앙선을 왕복하는 관광 열차. 레일 크루즈 해방으로 사용되던 무궁화호를 개조 후 사용하며 새마을호 특실 등급으로 운행. 장거리 열차로는 최초로 개방형 전망 창이 설치되어 모든 좌석에서 정선의 경치를 관람

• 타임캡슐공원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촬영지. 정선군민의 차별화된 상징적이고 개성적인 관광명소.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해발 850m 지점에 홀로 있는 소나무를 중심으로 12개월을 의미하는 12개 방사형 원형블록(1블럭 400여 개 캡슐실체)이 설치됨. 희망하는 블럭(月)에 타임캡슐을 저장하는 공간



오묘하고 빼어난 산세로
사시사철 관광객을 부른다

가야산

伽倻山



가야산국립공원

위 치 경상남도 합천군·거창군, 경상북도 성주군

높 이 1,432.6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가야산국립공원)

개요

경상남도 합천군·거창군, 경상북도 성주군에 걸쳐 있는 산이다. 가야산은 예부터 해동의 10승지 또는 조선팔경의 하나로 이름나 있는 곳이기도 하며, 우리나라 화엄종의 근본 도량으로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범보종찰 해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자연환경

명승고적과 자연경관 갖춘 가야의 진산

주봉인 상왕봉을 중심으로 톱날 같은 두리봉, 남산, 비계산, 북두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고봉들이 마치 병풍



가야산 전경



가야산 바위



가야산 소나무

을 친 듯 이어져 있으며 남북으로 경상북도 성주군과 경상남도 합천군의 경계를 이룬다. 합천 쪽으로 드리운 산 자락은 부드러운 육산을 이루고 성주군 쪽은 가파르고 험하다.

1972년 국립공원 제9호로 지정되었으며 주봉인 상왕봉이 소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우두봉(牛頭峯)으로 불리기도 하며 가야산에는 회장암으로 이뤄진 산악경관과 화강암으로 이뤄진 하천경관이 공존하고 있다. 불교의 성지인 가야산은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홍류동 계곡 등의 뛰어난 명승고적과 자연경관 덕에 예로부터 뛰어난 지덕을 갖춘 산으로 여겨졌다.

명칭유래

가야산 지명의 유래에 관하여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옛날 가야국이 있던 이 지역에서 가장 높고 훌륭한 산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야의 산'이라는 뜻으로 부른 것이라 전해진다. 다른 하나는 인도의 불교 성지 부다가야 부근 부처님의 주요 설법처로 신성시되는 가야산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본다는 설이 있다.

가야산의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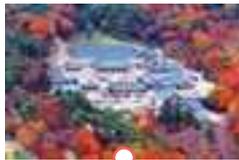
- 봄 : 푸른 능선 사이로 펼쳐지는 운무의 장관
- 여름 : 가야산 정상에 활짝 핀 야생화들의 합창
- 가을 :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단풍
- 겨울 : 한쪽의 풍경화를 닮은 눈 덮인 산 설경

사진명소

- 홍류동계곡 : 계절마다 경관을 달리하여 주위의 천년 노송과 함께 제3경 무릉교로부터 제17경 학사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절경이 10리 길에 널려 있음
- 해인사 : 가야산을 뒤로 하고 매화산을 앞에 두고 있어 그 웅장한 모습과 주변 경관이 어우러져 송림과 산사가 연출하는 설경이 장관
- 만물상 : 2010년까지 40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원시 그대로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가야산의 대표 자원

주요등산로

- ① 해인사 정보박물관 → 상왕봉
해인사 정보박물관 → 해인사 길상탑 → 너럭바위 조망 → 봉천대 → 상왕봉
- ② 가야산국립공원 청량동지구(청량동탐방안내소) → 남산제일봉
가야산국립공원 청량동지구(청량동탐방안내소) → 청량사 → 전망대 → 가위바위보 바위 → 매화산방향 → 정상부 철계단 → 남산제일봉
- ③ 가야산국립공원 → 서정재
가야산국립공원 → 가야산등산로(만물상코스) → 샷갓바위 → 상아덤(서장대) → 서정재
- ④ 돼지골탐방지원센터 → 남산제일봉
돼지골탐방지원센터 → 오봉산중턱 → 남산제일봉



가야산 해인사 단풍



홍류동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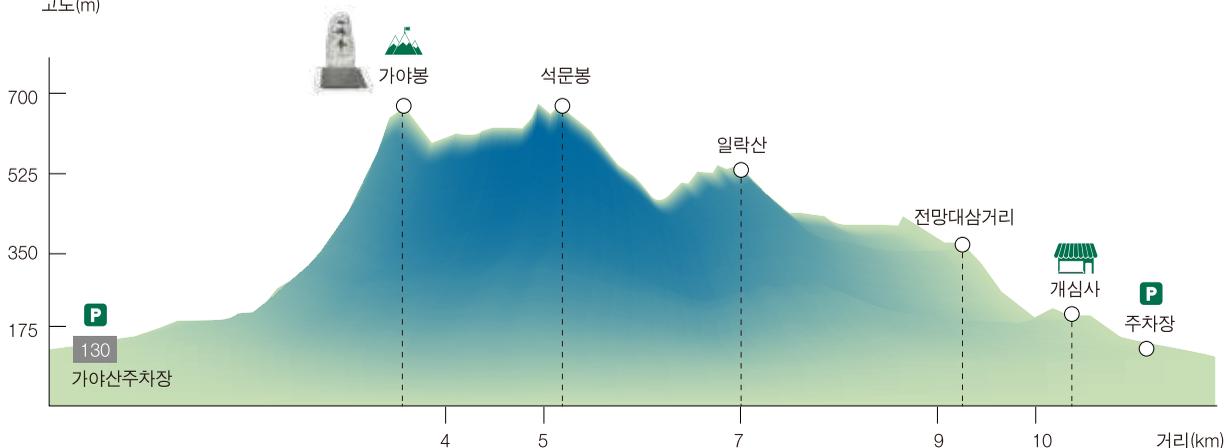


해인사



만물상

고도(m)



주변관광지

대장경테마파크

역사의 시·공간적 대장정 감상



유네스코 세계문화재에 등록된 고려 '재조대장경(팔만대장경)'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을 개최하면서 조성. 천년을 이어왔던 장경관전의 숨겨진 과학에 이르는 역사의 시공간적 대장정을 감상할 수 있음

대가야 유적

다양한 가야 시대의 문화

520년 동안(A.D.42 ~ 562) 번영하였던 대가야국의 도읍 고령에 있는 유적지들로 고대 문화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곳. 200여 기의 고분이 밀집되어 있는 지산동 고분군과 대가야 시대의 대표적인 산성인 주산성, 대가야 시대의 유일한 벽화인 고아동 벽화고분 등 다양한 가야 시대의 문화를 접할 수 있음



가야산야생화식물원

성주군에서 조성한 군립식물원으로 야생화를 주제로 하는 전문식물원



총 660여 종의 나무와 야생화를 식재하여 야생화 자원보전과 자연학습, 학술연구발전 및 가야산 자생식물의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야생화 문화공간

함께 가 볼 만한 곳



정양늪 생태공원



성주 한개마을

정양늪 생태공원

황강의 지류인 아천천의 배후습지이며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 생물학적, 생태학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 2007년부터 5년간 계속 사업으로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여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이어주는 생명의 터로 재탄생

성주 한개마을

국가민속문화재(2007. 12. 31.)로 지정된 성주 한개마을은 세종조(世宗朝) 진주목사를 지낸 이우(李友)가 개척해 후손이 대대로 거주하는 성산 이씨 집성촌. 대산동 교리택, 대산동 한주종택, 성주 응와종택, 성주 극와고택 등 8채가 경북민속문화재로, 성주 침경재가 문화재자료로 지정·보호되며, 고택 숙박 체험 가능

독용산성과 성주호 둘레길

해발 955m의 독용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성. 여러 코스로 조성된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서 발 아래 성주호를 시원하게 조망하며 정상에 다다르게 되어 한 폭의 풍경화를 감상하는 기분이 들게 되는 곳





탁 트인 시야로
영남알프스를 관망하다

가지산

迦智山



밀양시청

위 치 경상남도 밀양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청도군

높 이 1,241m

관리주체 밀양시, 울주군, 청도군

개요

태백산맥은 남단에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커다란 산군(山群)을 형성시켜 놓았는데 태백산맥을 한반도의 허리에 비한다면 그 골반에 해당한다. 흔히 이 산줄기를 통틀어 ‘영남의 알프스’로 부른다. 해발 1,000m 이상 7개의 산이 좁은 지역 내에 몰려 있다.

자연환경

10여 개 고봉들이 만드는 웅대한 경관
바위봉과 억새밭이 어우러진 산줄기 능선

주산인 가지산을 비롯하여 운문산(雲門山 1,188m), 재약산(載



가지산 전경



가지산 정상석



가지산 쌀바위

藥山(1,108m), 신불산(神佛山 1,208m), 취서산(鷲棲山 1,059m), 고현산(高獻山 1,032m), 간월산(肝月山 1,083m) 등을 영남의 7산이라 부르는데 유럽의 알프스와 풍광이 버금간다는 뜻에서 '영남알프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 밖에도 10여 개의 고봉들이 어우러진 장쾌하고도 웅대한 경관이 일품이다.

가지산과 운문산은 경상남북도의 경계지역으로 이러한 산군 중에서 가지산이 가장 높다. 가지산에는 곳곳에 바위봉과 역새발이 어우러져 운문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능선을 따라 종주할 수 있다. 가을이면 석남고개에서 정상에 이르는 역새발이 장관을 이루고, 기암괴석과 쌀바위는 등산객의 눈길을 이끈다. 가지산 정상 주변에는 암릉이 많다. 나무가 별로 없는 대신 시야가 환하게 트인다.

바로 앞에 있는 듯한 백운산, 호박처럼 생겼다는 연못 호박소가 있다.

명칭유래

가지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석남산(石南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기암괴석이 많은 데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명칭인 가지산은 신라 흥덕왕 때에 가지선사가 이곳에 와서 석남사터를 잡은 데서 유래하였다. 광복 당시 국군이 오래 주둔하여 성과가 좋아 이 산이 지혜가 더욱 늘어난다는 의미로 가지산이라 하였다는 유래도 있다.

가지산의 사계

- 봄 : 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천연기념물)이 장관
- 여름 : 등산로를 따라 드러나는 얇고 넓은 계곡
- 가을 : 곳곳의 기암괴석 봉우리와 억새밭이 어우러진 풍경
- 겨울 : 가지산 정상과 쌀바위 일대에 눈꽃처럼 핀 상고대

사진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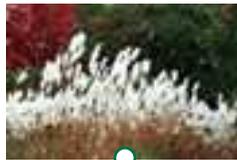
- 억새밭 : 석남고개에서 정상에 이르는 은빛 전령사 억새밭 장관
- 쌀바위 : 미암(米岩)의 전설을 간직한 태화강의 역사적, 상징적 발원지
- 석남사 : 울산의 대표사찰.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禪)을 도입한 도의국사가 호국기도 도량으로 창건한 사찰

주요등산로

- ① 가지산 석남사 → 공비도벌작전기념비
 가지산 석남사 → 석남사 계곡 → 청운각 → 쌀바위 → 정상 → 중봉 → 쌀바위 → 영남알프스 2구간둘레길 → 공비도벌작전기념비
- ② 석남사 주차장 → 능동산 입구
 석남사 주차장 → 상운 → 쌀바위 상운산 귀바위 → 정상 → 중봉 → 석남터널 위 → 중봉 가지산 → 입석봉 → 능동산 → 능동산 입구
- ③ 호박소 입구 → 얼음골 케이블카
 호박소 입구 → 백운산 백련사 → 오천평반석 → 석남터널 → 중봉 → 정상 → 백운산 재약산 천황산 → 백운산 정상 → 백호바위 → 얼음골 케이블카



가지산 철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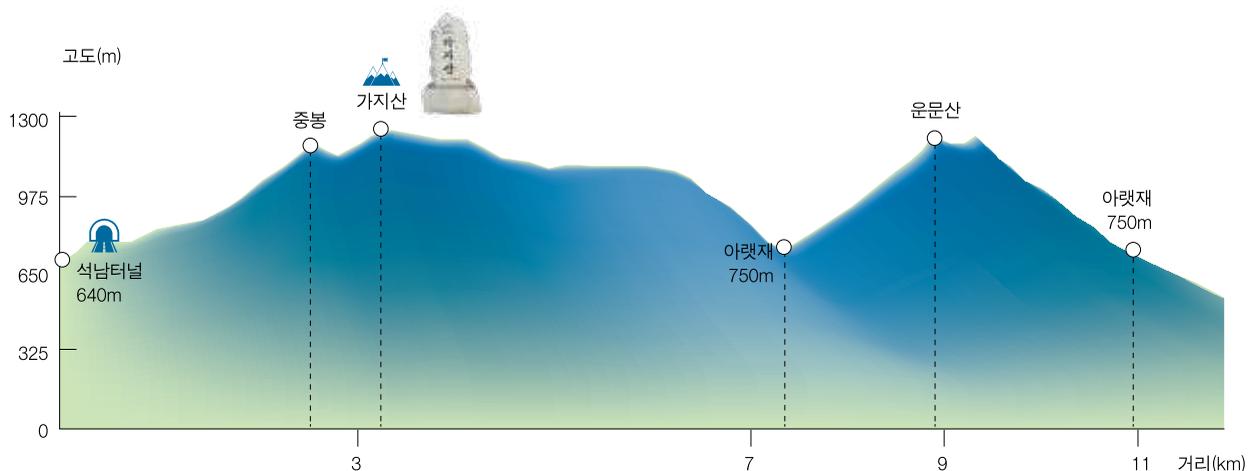
억새밭



쌀바위



석남사



👁️ 주변관광지

📍 국립대운산치유의숲

계곡물 활용 물치유 등 프로그램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 시설로 요가와 명상, 반신욕, 계곡물을 활용한 물 치유 등 대상자 특성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지구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그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석기시대 신석기의 고래 사냥 관련 바위그림. 1971년에 발견되었고 1995년에 국보로 지정. 사냥·어로와 관련된 300여 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그 중 고래를 사냥하는 사실적인 그림은 신석기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그림으로 평가

📍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

선로 길이만 1.8km

현존 국내 최장거리 왕복식 케이블카로 선로 길이만 1.8km에 달하며, 상부역사 해발 1,020m 고지까지 10분만에 도달



함께 가 볼 만한 곳



자드락숲



신불산 역사평원

● 자드락숲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자연 속의 한적한 숲으로 자연관찰 연못 여러 종류 수목과 초화류, 산책로 등 한적한 시골의 정취를 느낄수 있는 공간

● 신불산 역사평원

울산12경 중의 하나로 봄이면 억새밭의 파릇파릇한 새순을, 가을이면 은빛 물결이 일렁이는 억새 감상

● 시레호박소

가지산과 백운산에 걸친 백운산 자락 계곡에 위치. 백옥 같은 화강암이 수십만 년 동안 물에 씻겨 커다란 소(洞)를 이루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절구(臼)의 호박갈이 생겼다하여 호박소라 부름. 밀양8경 중 2경에 해당. 영화 '방자전' 촬영지로도 유명

● 쇠점골(오천평반석)계곡

가지산에서 발원한 물결이 단숨에 달려 내려오면서 빗어낸 비경을 그대로 간직한 계곡으로, 옛날 밀양과 울주군을 오가던 사람들이 말의 편자를 갈았다고 해서 쇠점골이라 부름. 계곡이 비교적 평탄하고 길며 수량이 풍부하고, 얼음골 인근이라 여름에도 시원해 산행 초보자도 트래킹이 용이한 힐링산책길. 쇠점골 가을 단풍길은 버킷리스트에 올려도 좋을 만큼 멋진 경관을 자랑



바위 사이로 검은빛과
푸른빛이 동시에 쏟아지다

감악산

紺岳山



파주시청

위 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양주시 남면, 연천군 전곡읍

높 이 675m

관리주체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개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양주시 남면, 연천군 전곡읍에 걸쳐 있으며 경기 5악의 하나로 정상에서는 임진강과 개성의 송악산 등이 조망되며, 반대편 봉우리인 임궽정봉의 산세 또한 수려하다.

자연환경

험한 산세의 파주 최고봉

감악산은 한북정맥의 한강봉과 연결되어 그 지맥을 이루고 있다. 가평의 화악산, 개성의 송악산, 안양의 관악산, 포천의 운악산과 더불어 경기 5악의 하나로 지정되어



감악산 전경



감악산 정상석



감악산 바위

봄·가을 국가에서 제를 지냈다. 산세가 험하고 폭포, 계곡, 암벽 등이 발달했으며 파주시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하다.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출렁다리, 폭포, 계곡, 범륜사 등 주변의 볼거리도 많다.

정상에 오르면 강 건너편으로 휴전선 일대의 산과 들이 눈앞에 펼쳐지며 맑은 날에는 개성의 송악산과 북한산도 보인다. 산 정상에는 흔적도 없이 마모되어 글씨를 찾아볼 수 없는 감악산비가 석대 위에 우뚝 서 있다.

감악사, 운계사, 범륜사, 운림사 등 4개 사찰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현재는 1970년 옛 운계사 터에 재창건한 범륜사만 남아 있다. 장군봉 아래는 조선 명종 때 의적 임궽정

이 관군의 추적을 피해 숨어 있었다는 임궽정 굴이 있다. 6.25 전쟁 때는 격전지로 유명했는데 설마리 계곡에는 영국군 전적비와 대한의열단 전적비가 있다.

명칭유래

감악산은 검푸른 바위산이라는 뜻인데 바위 사이로 검은빛과 푸른빛이 보인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에게는 감박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다.

감악산의 사계

- 봄 : 감악산 출렁다리와 어우러진 자연의 조화
- 여름 : 임꺽정봉에서 펼쳐지는 산하
- 가을 : 검푸른 바위 사이로 단풍 든 풍경
- 겨울 : '감악산 신비의 숲' 운계폭포 암벽을 이용한 3D 라이팅 쇼

사진명소

- 감악산 출렁다리 : 설마리 골짜기를 연결하여 150m로 늘어진 출렁다리로 맑은 하늘과 푸른 숲이 조화를 이루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한 곳
- 보리암 돌탑 : 여러 가지 재미있는 모양으로 멋지게 쌓은 돌탑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음
- 운계폭포 : 실마천을 끼고 있는 20m의 아기자기한 계곡.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며 비룡폭포라고도 불림

주요등산로

- ① 감악산등산로 입구 → 운계폭포
감악산등산로 입구 → 보리암 입구 → 악귀봉 → 장군봉 → 정상 → 까치봉 → 사방댐 → 운계폭포
- ② 조소양선생기념관 입구 → 초록지기숲속 체험장
조소양선생기념관 입구 → 봉암사 → 임꺽정봉 → 정상 → 감로사 → 월당저수지 → 초록지기 숲속체험장
- ③ 신암삼거리 → 신암뉘시터(신암저수지)
신암삼거리 → 신암골1교 → 테마공원 설립지 → 촛불바위 → 장군봉 → 수월사 → 신암숲길입구 → 신암뉘시터(신암저수지)

📷 사계

📷 명소



감악산의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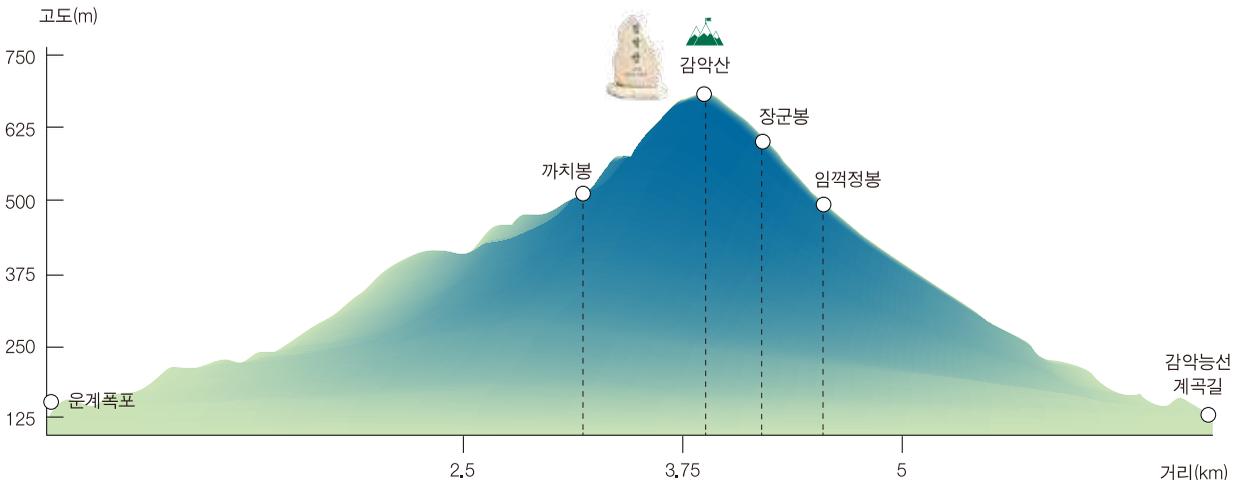
감악산 출렁다리



보리암 돌탑



운계폭포



👁️ 주변관광지

📍 오두산 통일전망대

안타까운 남북 분단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



서울의 젓줄인 한강과 북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임진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해발 118m의 오두산 정상에 통일 염원을 담아 건립. 옛 『삼국사기』나 『고려사』에 나오는 오두산성터(사적)가 남아 있는 곳으로 고대로부터의 군사적 요충지. 지금은 서부전선의 최북단으로 남과 북이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2km의 짧은 거리를 반세기가 넘도록 왕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남북분단의 현장으로 통일에 대해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의 장

📍 공릉관광지(하니랜드)

자연의 품 속에 파묻힌 듯한 놀이동산

수도권 북부지역 종합관광 레저시설로 삼면은 녹음 짙은 산 병풍에 둘러싸여 있고, 다른 한 면은 39만7,000여 m²(12만 평)의 광활한 호수를 끼고 있어 자연의 품속에 파묻힌 듯한 놀이동산



📍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광탄면 용미리 장지산(長芝山) 용암사(龍岩寺) 경내에 위치한 석불입상



고려시대에 제작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쌍미륵 석불입상으로 거대한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고 그 위에 목, 얼굴, 갓 등을 따로 만들어 얹어놓아 위압감이 느껴지도록 만들

함께 가 볼 만한 곳



임진각 평화누리



마장호수

● 임진각 관광지

6.25전쟁과 그 이후의 민족대립으로 인한 슬픔이 아로 새겨져 있는 곳. 임진강지구 전적비, 미국군 참전비 등 각종 전적비가 있으며 남북 분단 전 한반도 북쪽 끝 신의주까지 달리던 기차가 이곳에 멈추어 전시되고 있음

● 임진각 평화누리

2만 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잔디 언덕과 수상야외공연장으로 이루어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대륙과 장르를 넘어선 다양한 공연 감상 가능

● 마장호수

깔끔하게 조성된 공원과 분수대를 감상하며 야생화가 가득한 하늘계단, 호수 둘레길이 낭만적인 곳으로 주말 가족, 연인들의 나들이 장소로 제격. 산과 호수를 끼고 있어 물빛과 낙조가 주변 군락목과 푸른산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파주의 대표적인 자연관광지



호남의 금강,
곳곳에 절경이 펼쳐지다

강천산 剛泉山



순창군청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높 이 585.8m

관리주체 순창군, 담양군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과 전라남도 담양군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전국 최초 국립공원 1호로 지정(1981. 01. 07.)되었다. 강천산의 주봉인 왕자봉은 호남정맥에서 동쪽으로 약간 벗어나 있으며, 강천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산성산(해발 603m)이다.

자연환경

사계절 산의 경관이 한결같이 수려

전북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일대에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강천산 왕자봉(해발 585.8m)과 광덕산 선녀봉(해발 578m)을 비



강천산 전경



강천산의 겨울



현수교

롯하여 산성산 연대봉(해발 603m)을 중심으로 세계의 산 사이에 병풍을 둘러치듯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작은 협곡을 이룬다. 사방이 모두 바위산으로 빼어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위는 육산, 아래는 골산(骨山)이어서 바위들이 거의 산중턱 아랫녘에 몰려 있다. 5km 압벽협곡으로 비룡계곡의 비룡폭포, 물통골의 약수폭포, 소목골 용두폭포, 계곡 본류로는 병풍바위의 인공폭포, 장대한 구장군폭포가 쏟아져 내리고 있다. 골골마다 발원하여 흐르는 맑은 물이 중천으로 합류하여 바위와 바위, 돌과 돌에 부딪히는 물소리는 계곡을 울리며 강천호로 들어간다. 여기에 용바위, 호두암, 투구봉의 바위들과 금강굴, 수좌굴, 형제굴의 동굴

이 어우러지고 강천사와 삼인대의 전설까지 깃들여 있다.

명칭유래

골짜기마다 단단한 암반 위로 깨끗하고 맑은 물이 샘처럼 솟아 흐른다하여 강천이라 불렀고 그 주변의 모든 산을 강천산이라 하였다. 예전에는 두 마리의 용이 하늘을 향해 꼬리를 치며 승천하는 형상이라 용천산(龍天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강천산의 옛 이름을 간직한 광덕산은 호남 정맥에 위치하고 있다.

강천산의 사계

- 봄 :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어우러진 풍경
- 여름 : 더위를 씻어주는 시원한 폭포와 계곡
- 가을 : 일곱가지 단풍나무 속 애기단풍이 즐비함
- 겨울 : 백설이 휘날리며 고드름이 열린 강천의 풍경

사진명소

- 맨발산책로 : 총거리 2.5km 폭 3m의 웰빙 산책로. 기암절벽과 청정한 계곡 사이로 펼쳐지는 모래 산책길을 맨발로 걸으면 강천산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
- 강천사 :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의 말사(末寺)로 도선국사가 창건
- 병풍폭포 : 높이 40m, 물폭 15m의 인공폭포. 자연형상을 최대한 활용한 병풍폭포는 자연미와 웅장함이 살아 있고 병풍바위에 조성된 높이 40m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함

주요등산로

- ① 강천산 입구 → 강천사
강천산 입구 → 병풍폭포 → 너털등산로 → 깃대봉 → 강천호 댐 → 강천산 성 테마공원 → 구장군폭포 → 강천산국립공원구름다리 현수교 → 강천사
- ② 강천산 입구 → 강천산능선
강천산 입구 → 병풍폭포 → 강천사 → 강천산국립공원구름다리 현수교 → 팔각정 → 옥호봉 → 강천산 능선
- ③ 강천산 입구 → 강천산국립공원구름다리 현수교
강천산 입구 → 병풍폭포 → 강천사 → 왕자봉 → 금성산성 북문 → 송낙바위 → 금성산성 산성산(연대봉) → 운대봉(북바위) → 구장군 폭포 → 강천산국립공원구름다리 현수교

📷 사계

📷 명소



강천산의 가을



맨발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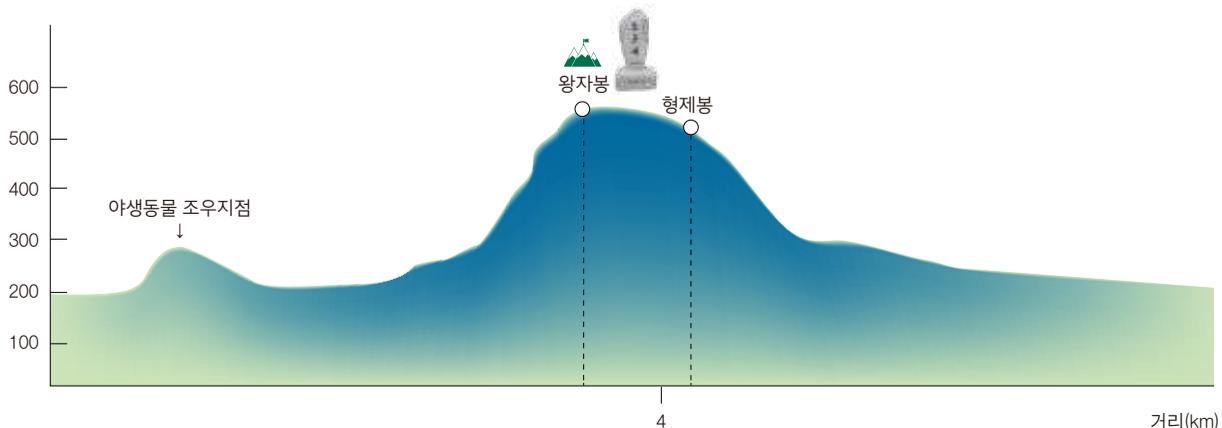


강천사



병풍폭포

고도(m)



거리(km)

👁️ 주변관광지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발효테마파크)

순창전통고추장의 명성과 전통적 제조비법을 이어가기 위해 조성한 마을

순창군 곳곳에 흩어져 있던 고추장 제조 장인들을 아미산 자락에 있는 순창읍 백산리 일대에 모아 전통고추장민속마을을 형성시켜 관광지로 탈바꿈



📍 추령장승촌

여러 가지 테마 장승과 야생화를 감상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



매년 10월 추령장승축제가 개최되며, 전시회를 비롯하여 북홍면 사진전시회, 야생화 전시회를 같이 하고 있음

📍 채계산 출렁다리

길이 270m의 산악 현수교

국도 24호선 사이에 있는 적성 채계산과 동계 채계산으로 나뉘어지는 채계산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길이는 270m, 높이 최고 75~90m인 산악 현수교



함께 가 볼 만한 곳



메타세쿼이아길



장군목유원지

● 메타세쿼이아길

순창군 팔덕면 구룡리 지방도 792호선 도로 3.1km 구간에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순창농고 (현 순창제일고) 학생들이 식재한 길. 최근에는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사계절 모습이 각기 달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로수길로 추억에 남길 만한 사진 찍기 좋은 명소

● 장군목유원지

영화 <아름다운 시절>의 촬영지. 수만 년 동안 물결이 다듬어 만든 모습이 신비함을 자아내고, 계절별로 연출되는 독특함이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섬진강 상류에 위치. 장군목 한가운데 놓여 있는 요강바위는 마을 주민들에게 수호신 같은 존재

● 향가유원지

자연발생유원지로 섬진강의 중간지점, 강물이 산자락을 휘감고 도는 곳에 위치. 섬진강의 강물을 향기로운 물이라 하고, 근처의 옥출산을 가산 (佳山) 즉, 아름다운 산이라 하여 향가 (香佳)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함



금강의 풍치와 어울려
독특한 산의 경관을 이룬다

계룡산

鷄龍山



계룡산국립공원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논산시 상월면·계룡시 신도안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높 이 846.5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계룡산국립공원)

개요

충청남도 공주시와 계룡시, 논산시 그리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걸쳐 있는 산이다. 1968년 12월 31일 두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민족의 영산이자 명산

차령산맥 중에서도 비교적 험난한 계룡산은 유연히 흐르는 금강의 풍치와 어울려 독특한 산악 경관을 이루고 있다. 풍수지리에서도 우리나라 4대 명산으로 꼽힐 뿐 아니라 특히 계룡8경은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이 찾아



계룡산 전경



계룡산 천황봉 풍경



계룡산 암용추

든다. 수려한 산세와 승지 신도안, 여러 고찰들을 품은 충남 제일의 명산으로 불릴 만하다. 이미 신라시대 5악의 하나였고 조선시대에는 묘향산, 지리산과 함께 산신제를 올리던 영산이었다. 주봉인 천황봉에서 깎개봉으로 이어지는 능선미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삼국시대부터 큰 절이 창건되었으며 지금도 감사·동학사·신원사(新元寺) 등 유서 깊은 대사찰이 있다. 남매탑, 청량사지오층석탑, 천진보탑 등 많은 불교문화유산이 있으며 특히 철당간·부도·범종·각종 석불·『월인석보』의 판목 등은 현전하는 중요한 불교 문화재이다.

명칭유래

계룡산이라는 산 이름이 갖는 의미는 조선조 초기에 태조 이성계가 신도안(계룡시 신도안면 일대)에 도읍을 정하려고 이 지역을 답사하였을 당시 동행한 무학대사가 산의 형국이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 금닭이 알을 품는 형국)이요, 비룡승천형(飛龍昇天形 : 용이 날아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이라 일컬었는데, 여기서 두 주체인 계(鷄)와 용(龍)을 따서 계룡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계룡산의 사계

- 봄 : 동학사 진입로변의 벚꽃터널
- 여름 : 한여름 동학사 계곡의 숲
- 가을 : 감사 계곡을 온통 붉은색으로 수놓은 단풍
- 겨울 : 삼불봉을 덮는 설경

사진명소

- 남매탑 : 남매탑은 계룡산에 있는 두 개의 탑으로 동학사에서 감사로 넘어가는 연천봉 중턱에 있는 상원암 근처 해발 615m 지점(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18번지)에 위치. 계룡8경 중 제8경인 '오늬탑의 명월'로 꼽힐 만큼 풍광이 뛰어난 곳
- 은선폭포 : 물줄기가 떨어지면서 운무가 피어나는 경관이 빼어나게 아름다워 '은선폭포 운무(雲霧)'라 부르며 계룡8경의 제7경으로 꼽힘
- 금잔디고개 : 연천봉, 문필봉 등 계룡산의 이름난 봉우리들이 조망되고 멀리 푸른 금강 줄기도 관망 가능

주요등산로

- ❶ 병사골 입구 → 삼불봉 정상
병사골 입구 → 계룡산 장군봉 → 계룡산 갓바위전망대 → 남매탑 → 삼불봉 정상
- ❷ 계룡산 등산로(동학사) → 동학사 사하촌
계룡산 등산로(동학사) → 계룡산천정골담방센터 → 남매탑 → 삼불봉 정상 → 계룡산 자연성룡 → 계룡산 관음봉 → 동학사 은선폭포 → 동학사계곡 → 용수천 → 동학사 사하촌
- ❸ 감사 매표소 → 대성암
감사 매표소 → 감사계곡 → 대한불교조계종 계룡산 감사 → 연천봉 → 계룡산 관음봉 → 계룡산 자연성룡 → 삼불봉 정상 → 금잔디고개 → 신흥암 → 용문폭포 → 대성암



계룡산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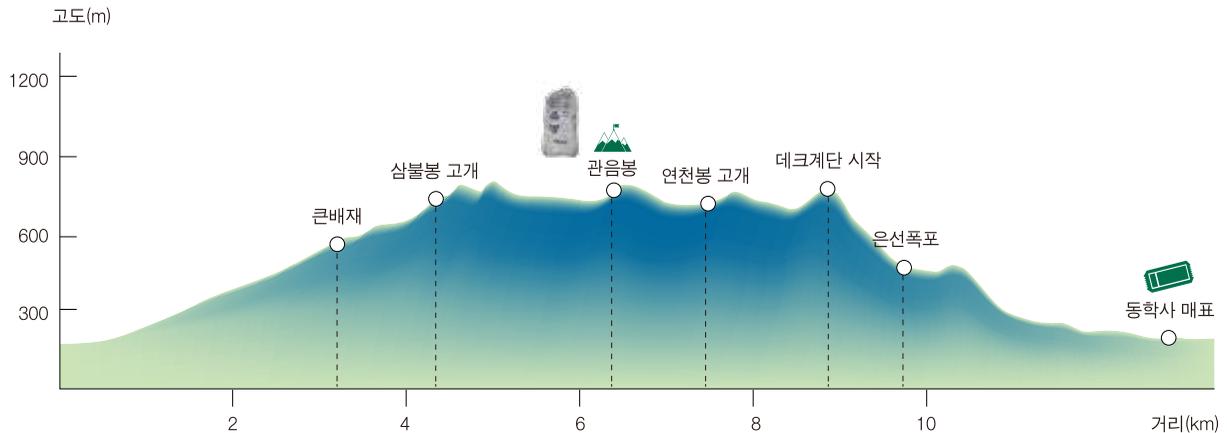
남매탑



은선폭포



금잔디고개



👁️ 주변관광지

📍 마곡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마곡사

7~9세기에 창건되어 고대 한국불교와 종교적 의례의 지속적인 중심지가 되어 왔으며, 각각의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다른 종파와 역사적인 관계를 맺으며 많은 역사적 건축물, 유물 등을 갖추고 있음



📍 갑사

산사의 정취를 품은 천년 고찰로 마곡사의 말사



백제 때 창건된 화엄종 10대 종찰 중 하나. 으뜸 또는 첫째란 뜻의 갑사는 18세기 말 산 이름을 따서 계룡갑사로 부르고 있고, 경내에는 15동의 불전과 승당, 부속, 전각들이 있으며 주변 산골짜기 여러 곳에 산내 암자를 두고 있음. 갑사 철당간 및 지주(보물), 갑사부도(보물), 갑사동종(보물), 월인석보판목(보물) 등이 있음

📍 공산성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성곽으로 웅진백제(475~538)를 지킨 왕성

금강이 흐르는 해발 110m 능선과 계곡을 따라 흩으로 쌓은 포곡형(包谷形)산성



함께 가 볼 만한 곳



공주한옥마을



석장리 선사유적지

●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 웅진성과 연관된 공산성과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부여 사비성과 관련된 관북리 유적(官北里遺蹟 관북리 왕궁지) 및 부소산성(扶蘇山城), 정림사지(定林寺址), 능산리 고분군(陵山里古墳群), 부여 나성(扶餘羅城), 그리고 사비시대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익산시 지역의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등으로, 475년~660년 사이 백제 왕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지

● 공주한옥마을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한옥마을. 가족단위 숙박동이 밀집해 있는 곳. 짧은 고샅길이지만 한옥이 주는 우리 고유의 멋을 흠뻑 느낄 수 있음

● 석장리 선사유적지

공주에서 구석기 시대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유적지 금강과 접한 산의 완만한 경사면이 만나는 지대에 위치. 구석기시대부터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으며 여러 문화층이 단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구석기 유적의 조사·발굴·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선사유적지임



백두대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를 제공한다

계방산

桂芳山



평창군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진부면, 홍천군 내면

높 이 1,579.1m

관리주체 평창군, 홍천군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진부면과 홍천군 내면에 걸쳐 있는 태백산맥의 한줄기이며 오대산국립공원의 최고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산이다.

자연환경

완만함과 가파름을 고르게 갖춘 산

백두대간 제26구간 두로봉에서 오대산을 거쳐 한강변까지 뻗어내린 한강기맥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며 백두대간의 오대산에서 걸가지를 쳐 남한강과 북한강을 가르는



계방산 전경



계방산 정상



계방산의 겨울

지릉의 최고봉이다. 평창군의 유명한 가리왕산의 모산이기도 한 오대산 비로봉보다도 더 높아 백두대간을 바라보는 최고의 전망대를 제공한다. 운두령에서 정상까지의 표고차는 488m로 초보자도 쉽게 오르면서 고도감을 한껏 만끽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계방산은 완만함과 가파름을 고르게 갖춘 산으로 겨울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추천하는 코스이다. 그러나 산행시간은 눈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눈이 있을 때는 보통 때에 비해 능선이든 골짜기든 2배 이상을 예상해야 한다. 봄에 피는 열레지 군락지에서부터 겨울에 피는 아름다운 눈꽃까지 사계절 내내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명칭유래

계수나무 계(桂)에 꽃부리 방(芳)을 써 계수나무 향기가 나는 산이라는 뜻이 있다. 그러나 『대동여지도』, 『해동지도』, 『1872년 군현지도 - 강릉부지도』 등을 보면 전부 제비 연(燕)자를 쓴 연방산(燕方山)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계방산이란 이름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지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계방산의 사계

- 봄 : 얼레지 군락지, 회귀목인 주목, 철쭉나무 군락
- 여름 : 계수나무 향 가득한 숲
- 가을 : 작은 단풍들이 만드는 정취
- 겨울 : 많은 적설량이 만드는 눈꽃풍경

사진명소

- 운두령 : 계방산 서쪽 자동차로 오를 수 있는 높은 고개(해발 1,089m)
- 주목군락지 :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아름답리 끈게 자란 주목 경관
- 권대감바위 : '권대감'이라는 산신령의 전설을 가진 바위
- 방아다리약수 : 계방산 남동쪽 기슭에 위치, 1987년 한국의 명수(名水)로 지정

주요등산로

- ① 계방산가는길 주차장(아랫삼거리) → 정상
계방산가는길 주차장(아랫삼거리) → 삼거리 → 정상
- ② 계방산등산로 입구(운두령) → 정상
계방산등산로 입구(운두령) → 오대산국립공원 계방산2코스 → 계방산 군락지 → 정상
- ③ 운두령 → 방아다리약수
운두령 → 1166봉 → 1492봉 → 정상 → 1276봉 → 계방산장 삼거리
- ④ 아랫삼거리 → 아랫삼거리
아랫삼거리(방아다리약수) → 이승복생가터 → 주목군락지 → 안부 → 정상 → 아랫삼거리

📷 사계

📷 명소



계방산의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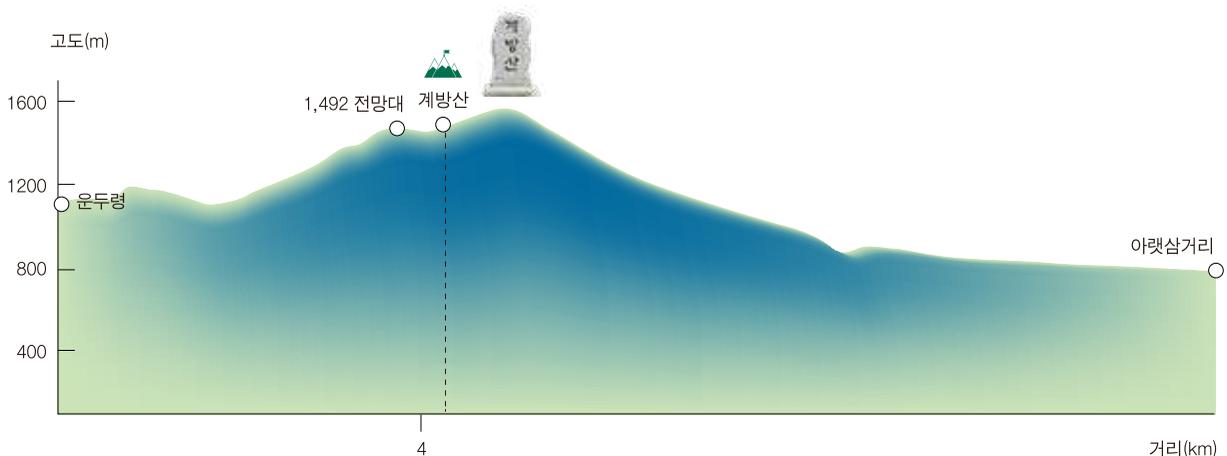
운두령



주목군락지



방아다리약수



👁️ 주변관광지

📍 백룡동굴 생태체험 학습장

천연기념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에 위치한 석회동굴로 천혜의 비경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음. 오랜 기간 개방되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훼손되지 않은 동굴의 다양한 생성물이 보존되어 학술적, 경관적, 고고학적,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바위공원 & 평화길 & 돌문화체험관

다양한 수석을 만나볼 수 있는 곳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된 수석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여러 기증자들의 도움으로 대략 120여 점의 귀중한 수석이 전시되고 있음



📍 대관령양떼목장

푸른초원 광활한 파란하늘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푸르른 초원에 파란 하늘이 광활하게 펼쳐지는 공간으로 동물들을 가까이서 보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양떼목장, 하늘목장, 삼양목장, 순수 양떼목장 등 다양

함께 가 볼 만한 곳



육백마지기



이효석문화예술촌

● 육백마지기

‘범씨 육백 말을 뿌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평원’을 뜻하며 산 정상에는 대형 풍력발전기가 돌아가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는 자연친화적 관광명소

● 이효석문화예술촌

이효석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전시실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문학교실, 학예 연구실 등

으로 구성. 달빛언덕은 이효석 생가 주변에 구성된 공간으로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 등장하는 달빛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조성됨

● 월정사 & 오대산 전나무 숲길

천년의 숲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나무 숲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한 곳. 숲길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추억을 쌓기에 좋은 곳. 총 1.9km로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잘 조성되어 있음

● 뮤지엄답다이브

모나 용평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발왕산 관광케이블카, 천년주목숲길 등 대자연 속의 체험과 더불어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 12가지 테마 전시 공간으로 꾸며진 곳 (2023년 7월 21일 개관)



암봉과 노송의 조화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킨다

공작산

孔雀山



홍천군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영귀미면

높 이 887.4m

관리주체 홍천군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및 영귀미면에 걸쳐 있는
높이 887m의 산이다. 이곳 산기슭에 수타사가 있다.

자연환경

수타계곡의 비경을 담은 홍천의 명산

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홍천군 일원이 한눈에 들어오며 서
남쪽 능선 약 6km 아래에 있는 수타사와 노천리까지 이
어지는 수타계곡은 갖가지 암벽들로 장관을 이룬다. 높이
에 비해 산세가 아기자기하고 암봉과 노송이 이루는 조화
가 한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답다. 이 산의 가장 큰 특징은



공작산 전경



공작산 계곡



공작산 수타사

정상 부분의 암봉미와 조망에 있지만 산을 오르내리며 암릉을 포함한 여러 갈래의 능선에서 보는 산골짜기의 상쾌한 조망과 코스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봄에는 철쭉,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덮인 산이 등산객들을 매료시킨다. 정상은 암벽과 암릉으로 되어 있으며 정상 일대의 철쭉군락지에 꽃이 필 때면 지리산의 세석평전을 연상케 한다. 여름에는 멋진 암봉과 암릉이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녹음이 우거지기 전에 오르는 것이 좋다. 정상에 닿기 전 궁지기골과 문바위골이 보이는 전망대가 있으며 정상부의 복사관 같은 곳으로 두 개의 암봉으로 이루어져 골짜기가 시원스럽게 조망된다.

명칭유래

정상에서부터 뻗어나간 능선이 마치 공작의 날개처럼 펼쳐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공작산의 사계

- 봄 : 정상 일대의 철쭉 군락지
- 여름 : 기암절벽이 어울려 장관을 이루는 비경
- 가을 : 수타사와 어우러진 단풍절경
- 겨울 : 분재 모양의 노송 군락에 눈 덮인 풍경

사진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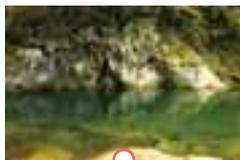
- 수타사 : 수타사는 홍천군 영귀미면 덕치리 공작산에 있는 절로서, 영서지방의 사찰 중 가장 오래된 고찰
- 수타사 계곡 : 공작산에서 발원하여 신봉리를 거쳐 덕치리로 이어 흐르는 계곡. 봄에는 철쭉, 가을엔 단풍이 어우러짐
- 공작산 생태숲 : 수타사 일원 163ha의 넓은 산림에 자생식물 및 향토 수종을 식재·복원한 역사문화 생태숲. 다양한 숲속의 주제를 체험·탐구할 수 있는 교육·체험 생태숲으로 기존 숲의 유전자원을 보호하는 숲으로 구성

주요등산로

- ① 공작동(버스정류장) → 노송군락지
공작동(버스정류장) → 공작산저수지 → 공작산 자연휴양림 → 정상 → 노송군락지
- ② 공작동(버스정류장) → 굴운리(버스정류장)
공작동(버스정류장) → 노송 군락지 → 정상 → 콩뿌리프랜차이즈 양지점 → 굴운낙시터 → 굴운리(버스정류장)
- ③ 수타사 입구 대형 주차장 → 수타사 주차장
수타사 입구 대형 주차장 → 수타사 생태숲 입구 → 노송군락지 → 약수봉 정상 → 소출렁다리 → 수타사홍우당부도 → 수타사 주차장

📷 사계

📷 명소



공작산 기암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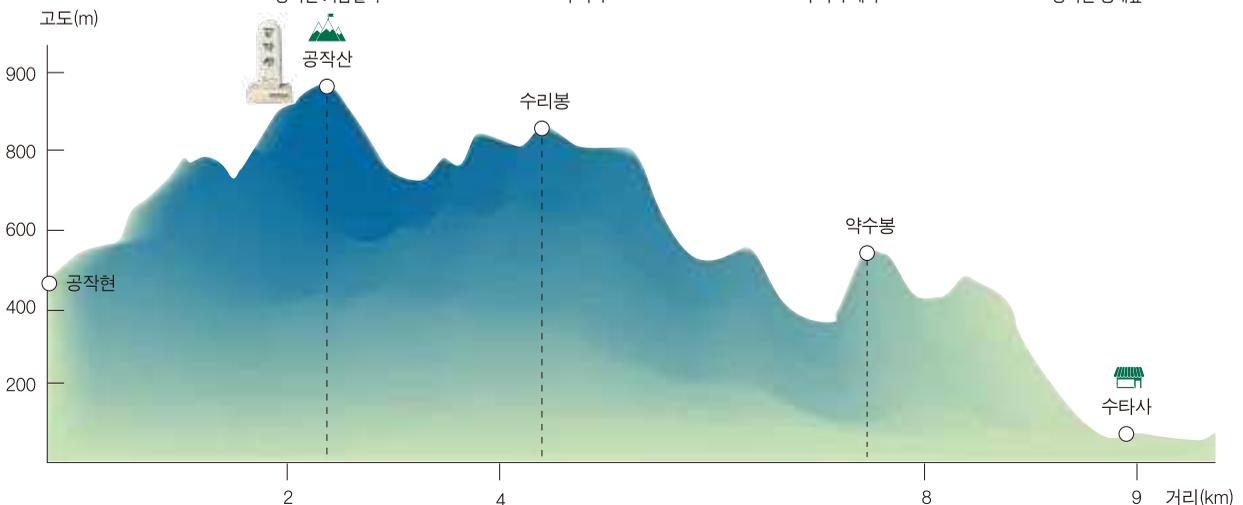
수타사



수타사 계곡



공작산 생태숲



👁️ 주변관광지

📍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한국 전통음악 우수성 알리고, 계승발전 산실



2007년 11월 16일 건립. 약 100여점의 국내 외 악기들이 각각 분야별, 시대별로 분류되어 각종 악기에 관한 자료들과 함께 전시되어 있어 한 자리에서 악기에 관한 역사를 볼 수 있음

📍 가칠봉삼봉약수터

백두대간 제 27구간 갈전곡봉에서 남서로 뻗은 능선상 2.5km 지점의 첫 번째 봉

태고의 원시림 속에 숨겨진 오지의 산으로 전나무와 활엽수가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산자락에 있는 삼봉약수로 더 유명한 산



📍 홍천 물걸리 사지(物躰里 寺址)

내촌면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사찰터, 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홍천강의 최장지류인 내촌천 중류의 알려지지 않은 유적 마을. 석조여래좌상(보물, 1971년 지정), 석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1971년 지정), 석조대좌(보물, 1971년 지정), 석조대좌 및 광배(보물, 1971년 지정), 삼층석탑(보물, 1971년 지정) 등 유물 5점 보물로 지정

함께 가 볼 만한 곳



개야리유원지



삼봉약수

● 개야리유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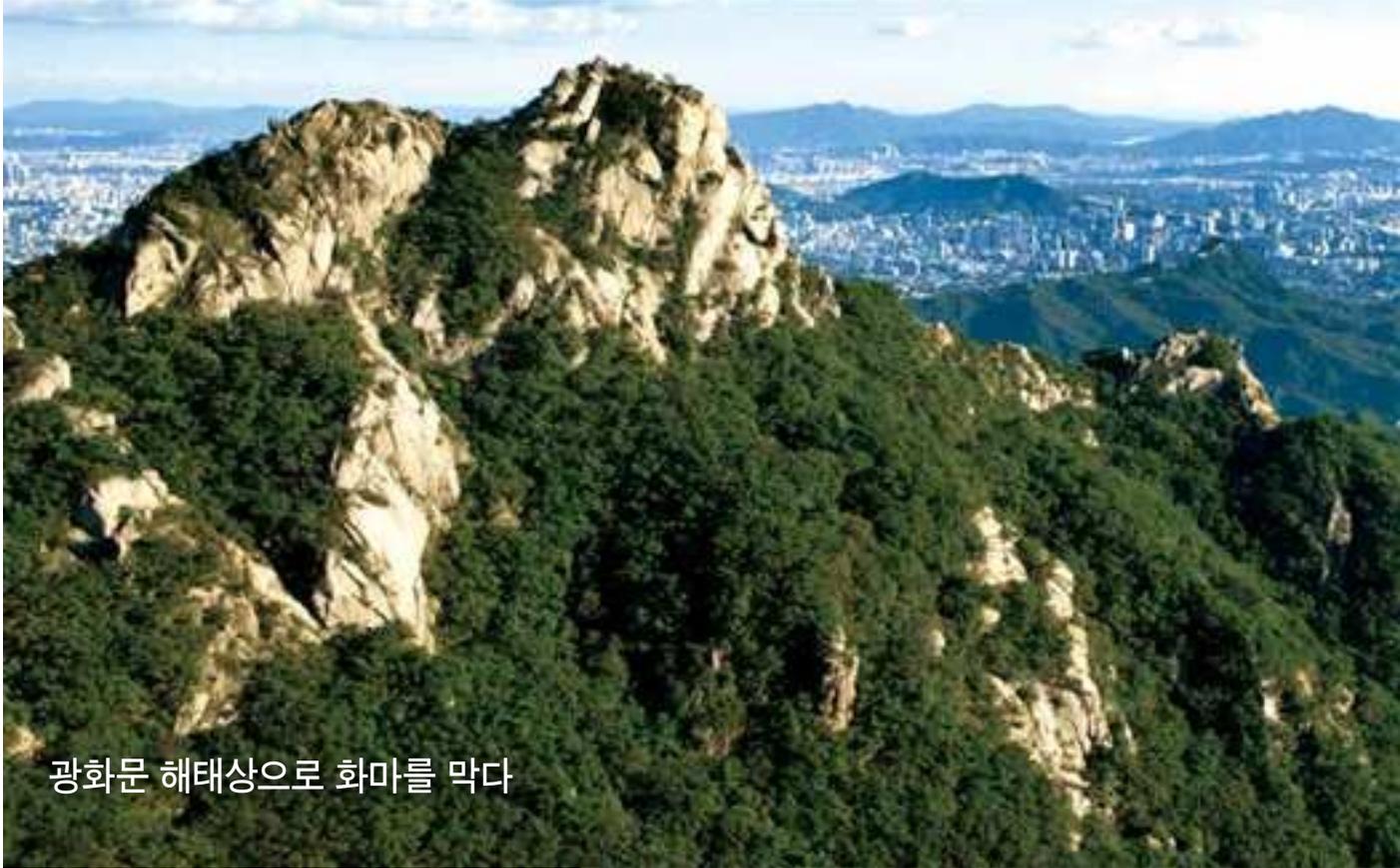
홍천군 서면 개야리에 위치한 개야 강변 유원지. 여행자 센터, 인도교,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트레킹 코스가 있음. 밤나무길, 처녀 뱃사공길, 강물소리길 등 지역 문화를 살린 스토리텔링형 코스로 조성. 강변을 따라 너른 자갈밭이 펼쳐져 있어, 낚시 및 물놀이에 좋은 노지 캠핑의 명소

● 삼봉자연휴양림

열목어 서식지로 약수 주변에는 숲이 울창하고 계곡이 깊어 경관 수려하며 등산로 주변에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고목이 즐비. 숙박시설, 수련장, 자연관찰원, 체력단련장, 캠핑장 등 편의시설이 제공

● 삼봉약수

홍천군 내면 광원리에 있는 약수터로 삼봉약수는 조선시대 실론약수(實論藥水)라 불렸으며 주위에 가칠봉, 사삼봉, 응복산의 세 봉우리 가운데 위치한다 하여 삼봉약수라 불림. 전국에서도 드물게 수질이 우수하여 한국의 명수 100선에 선정. 홍천9경 가운데 제9경. 세 봉우리의 정기를 받은 삼봉약수는 특소한 텃텃함과 상쾌함을 선사하는 무색의 탄산수가 나옴



광화문 해태상으로 화마를 막다

관악산 冠岳山



관악구청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천구,
경기도 과천시·안양시 동안구

높 이 632.2m

관리주체 관악구, 금천구, 과천시, 안양시

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금천구와 경기도 과천시·안양시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한남정맥이 수원 광교산에서 북서쪽으로 갈라져 한강 남쪽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우뚝 솟아 있다.

자연환경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서울의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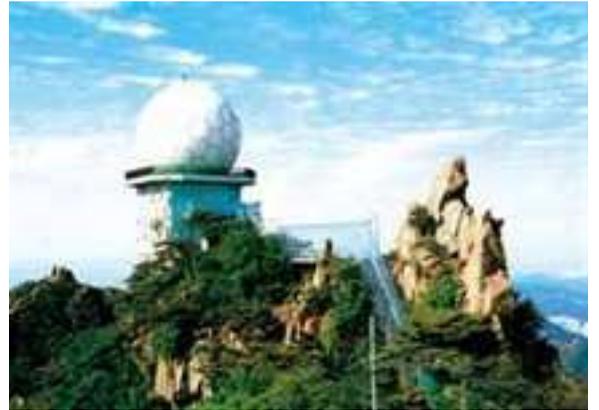
관악산은 옛날부터 개성 송악산(松岳山), 가평 화악산(華岳山), 과주 감악산(紺岳山), 포천 운악산(雲岳山)과 함께 경기도 오악(五岳)의 하나로 불려져 왔다. 빼어난 수십 개의 봉우리



관악산 전경



관악산 정상석



관악산 기상대

와 바위들이 많고 오래된 나무와 온갖 풀이 바위와 어울려서 철따라 변하는 산 모습이 마치 금강산과 같다 하여 소금강(小金剛) 또는 서쪽에 있는 금강산이라 하여 '서금강(西金剛)'이라고도 한다. 또한 관악산은 서울 경복궁의 조산(朝山) 또는 외안산(外案山)이 되는데, 산봉우리의 모양이 불과 같아 풍수적으로 화산(火山)이 된다. 따라서 이 산이 바라보는 서울에 화재가 잘 난다고 믿어 그 불을 누른다는 상징적 의미로 산꼭대기에 못을 파고,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옆 양쪽에 불을 막는다는 상상의 동물인 해태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고 한다.

예로부터 경기 5악의 하나로서 경관이 수려하며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도심지 가까이 위

치한 도시자연공원(1968년 지정)으로 선정되었다. 주봉은 연주대(戀主臺)로서 시종일관 정상부의 레이더 돔과 방송탑을 보면서 올라가는데 막바지는 상당히 가파르다. 그렇게 갈딱고개에 올라서서 보면 정상은 북쪽의 레이더 돔이 아니라 남쪽의 조그만 바위무더기다. 신라시대 의상이 창건하고 조선 태조가 중수(1392년)한 연주암과 약사여래입상이 유명하다.

명칭유래

산의 모양이 마치 삿갓(冠)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관악산의 사계

- 봄 : 도립천과 어우러진 벚꽃
- 여름 : 산림욕장 사색의 숲, 잣나무의 푸르름
- 가을 : 기암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단풍
- 겨울 : 연주대 정상에서 보는 겨울왕국

사진명소

- 연주대 : 관악산의 봉우리 중에 죽순이 솟아오른 듯한 모양을 한 기암절벽이 있는데, 그 위에 석축을 쌓고 자리잡은 암자를 연주대라 함. 원래는 의상대사가 문무왕 17년⁽⁶⁷⁷⁾에 암자를 세우면서 의상대라 불렀는데, 고려 멸망 후 조선을 반대하던 유신들이 이곳에 모여, 지난 시절을 그리워했다고 하여 '연주대(戀主臺)'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함
- 서울 남현동 요지 : 관악산 줄기의 한 야산 동쪽 경사면에 위치한 가마터로 1976년 사적으로 지정

주요등산로

- ① 한국수자원공사·과천중앙고(버스정류장) → 과천청사역
한국수자원공사·과천중앙고(버스정류장) → 보광사 → 용운암 → 이단폭포 → 문원폭포 → 관악산 국기봉 → 관악산 말바위 → 대한불교 조계종 연주대 → 대한불교조계종 연주암 → 향교전 → 과천향교 계곡 → 과천청사역
- ② 건설환경종합연구소앞 → 사당역
건설환경종합연구소앞 → 관악산 자운암 국기봉 → 관악산 촛불바위 → K11 관악산 3헬기장 → 관악산 마당바위 → 관악산 하마바위 → 관악산 관음사 전망대 → 서울둘레길 5코스 관악산코스 1 스탬프 → 먹자골목 → 사당역

📷 사계

📷 명소



관악산의 봄



관악산의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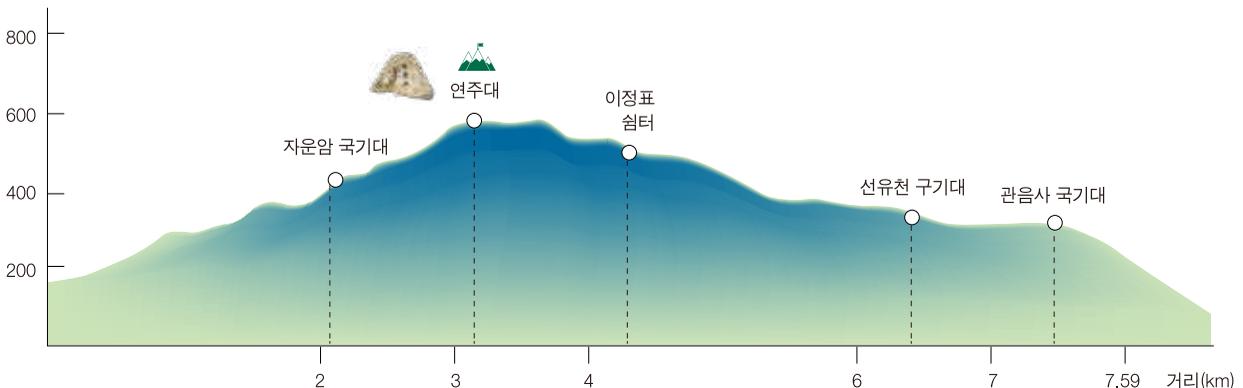


연주대



서울 남현동 요지

고도(m)



👁️ 주변관광지

📍 서울랜드

테마파크형 놀이공원



청계산의 푸르른 자연 속에서 다이내믹한 어트랙션, 야간 빛축제 루나파크와 시즌별로 모습을 달리하는 다양한 축제, 뮤직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최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

📍 과천향교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조선 시대의 향교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1983년 지정). 조선 태조 7년(1398년)에 처음 세워진 옛 과천현의 향교로 지금 건물은 병자호란 이후의 것으로 명륜당과 대성전이 주요 당우(堂宇)



📍 안양예술공원

2005년 도입된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탄생한 역사, 문화, 예술공원



25개국 90여 작가의 종합전시장으로 20만 여㎡의 대지에 조경, 그림, 디자인, 건축, 조각작품 전시 및 관람시설과 50여 점의 야외 미술작품, 그리고 다양한 문화재 소장. 네덜란드 건축가의 '천상의 다락방' 전망대와 벨기에 조각가의 '물고기의 눈물이 강으로 흐른다'는 물고기 모양의 '분수'로 유명

함께 가 볼 만한 곳



국립현대미술관



관악산 무장애숲길

●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근현대미술과 세계 미술의 맥을 짚어볼 수 있는 국내 최고의 미술관

청계산의 수려한 경치와 잘 어울리는 옛 성곽과 봉화대, 전통마을의 담장과 계단 등 전통양식을 가미한 독특한 건물 외관. 백남준, 이중섭, 천경자 등 국내 거장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으며 전시·수집·교육 등 다

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품의 50% 이상을 첨단연출 매체를 이용한 체험 및 참여공간으로 구성하여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과학문화의 전당(2008년 11월 개관)

● 관악산 무장애숲길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도 부담없이 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경사가 완만한 데크형 숲길



수려한 산세,
아홉 폭 바위병풍을 두르다

구병산

九屏山



상주시청

위 치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속리산면

높 이 876.3m

관리주체 상주시, 보은군

개요

경상북도 상주시의 속리산 국립공원 남쪽 국도변과 충청북도 보은군에 자리잡은 산이다. 주능선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이어지면서 마치 병풍을 두른 듯 아홉 개의 봉우리가 연이어져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다.

자연환경

웅장하고 깊은 산세
기암절벽의 능선이 주는 긴장감

구병산은 호서의 소금강인 속리산에서 뚝 떨어져 나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와 경상북도의 도계에 응



구병산 전경



멀리서 바라 본 구병산



구병산의 가을

장하고 수려한 아홉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이다. 특히 기암절벽과 어우러진 가을단풍이 멋들어진 곳으로 가을산행지로 적격이다. 구병산은 속리산의 남단에 위치하여 속리산의 명성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산 전체가 깨끗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예로부터 보는 지방에서는 속리산 천왕봉을 지아비 산, 구병산을 지어미 산, 금적산을 아들 산이라 하고 이들을 묶어 삼산이라고 불렀다.

구병산은 웅장하고 깊은 산세에 크고 작은 암릉 구간들이 이어지며 오르내림이 심하고 밧줄을 잡고 올라야 하는 구간도 몇 군데 있다. 정상에 오르기 전 수직에 가까운 암벽이 있어 암릉 산행의 묘미를 맛볼 수 있다. 정상에서는

평평하며 넓은 보은평야를 내려다볼 수 있다. 보은군청에서는 속리산과 구병산을 잇는 43.9km 구간을 ‘충북알프스로 출원 등록(199년) 하였다.

명칭유래

산 전체가 9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명 구봉산이라고도 하며 『한국지명총람』에 “구병산은 산 모양이 아홉 쪽 병풍을 쳐 놓은 것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산 남쪽에 있는 마로면 관기리에서 산을 조망하면 구병산 능선이 병풍처럼 동서 방향으로 약 10km이상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지명유래집 충청권 지명, 2010, 02.)

구병산의 사계

- 봄 : 우거진 숲에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
- 여름 : 풍혈(風穴-여름철에 땅 속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 나오는 산 기슭에 뚫린 구멍)의 시원한 바람
- 가을 : 기암절벽과 어우러진 단풍
- 겨울 : 돌밭에 내린 눈꽃과 긴장감 조성하는 칼날 같은 암봉

사진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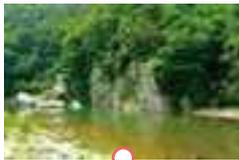
- 정상석 앞 고사목 : 구병산 정상의 대표 상징
- 가파른 암릉 : 구병산의 최단코스로 정상을 오르기 전 마지막 관문
- 풍혈지 : 여름에는 냉풍, 겨울에는 훈풍이 부는 장소

주요등산로

- 1 구병리 마을회관 → 정상
구병리 마을회관 → 쌀개봉 → 정상
- 2 구병리 마을회관 → 정상
구병리 마을회관 → 구병산 백운대 → 정상
- 3 적암리 마을회관 → 정상
적암리 마을회관 → 위성기지국(원골) → 정상
- 4 구병산관광단지 → 정상
구병산관광단지 → 절터 → 853봉 → 정상
- 5 구병산관광단지 → 정상
구병산관광단지 → 신선대 → 853봉 → 정상
- 6 적암리·구병산관광단지(버스정류장) → 정상
적암리·구병산관광단지(버스정류장) → 구병산 신선대 → 구병산 백운대 → 정상 → 원골 → 적암리·구병산관광단지(버스정류장)

📷 사계

📷 명소



구병산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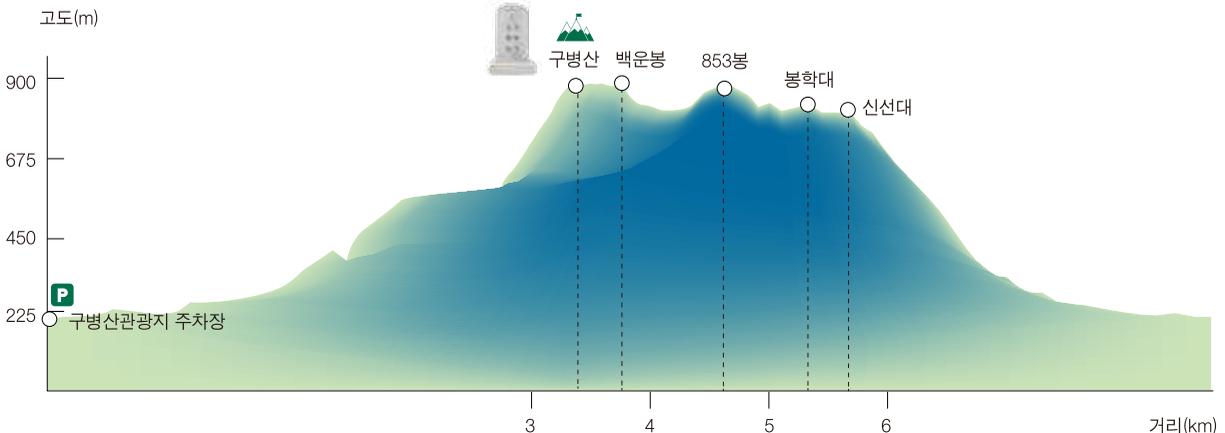
정상석 앞 고사목



가파른 암릉



풍혈(風穴)지



👁️ 주변관광지

📍 동학농민 혁명기념공원

동학운동의 이념과 역사적 가치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형 생태공간



동학농민운동의 중요 유적지인 보은의 동학유적지 유래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조성. 동학농민혁명군위령탑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연표와 동학농민혁명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통곡의 계단, 동학농민혁명이 사건별로 새겨진 하늘계단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솔향공원 식물원

보은군 식물원(2014. 03. 27. 개장)으로 4,458㎡ 규모의 온실

야외전시원, 편의시설 및 탐방로 655m 조성. 식물원 안에는 관목류 및 산야초류를 비롯하여 야생화 등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 보은군 농경문화관

보은군 농경문화관 농업문화전시실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나라 전통의 농경문화 변천사를 한눈에 보고 농경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을 위해 건립. 계절별 농경 생활에서 사용했던 농기구를 전시하고, 전시 농기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체험의 장 마련

함께 가 볼 만한 곳



오리숲길



만수계곡

● 오리숲길

천년의 숲 오리숲길은 지금의 상가거리부터 범주사까지 2km 구간에 우거진 숲길로 아름다웠던 옛 오리숲길을 재조성(2015. 02.)하여 사내리 상가의 중간쯤 용머리폭포에는 자연 그대로의 암벽에 인공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여 옛 모습을 재현

● 만수계곡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만수리에 위치. 속리산 천왕봉 남쪽자락 깊이 숨어 있는 계곡으로 만수를 누린다 하여 '만수계곡'. 속리산 천왕봉에서 발원한 삼가천에서 삼가저수지에 이르는 4km의 계곡으로 맑은 물이 사철 끊이지 않고 흘러 여름 피서지로 유명

● 서원계곡

속리산국립공원 남쪽 삼가저수지를 중심으로 상류에 만수계곡, 하류에 서원계곡이 위치. 아름다운 산수와 어울려 한 폭의 산수화를 방불케 할 정도여서 제2의 화양계곡이라 불림. 그늘이 시원하고 평지형인 서원계곡은 하천폭이 넓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음



남해를 굽어보며
온 산을 비단으로 두르다

금산

錦山



남해군청

위 치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이동면·삼동면

높 이 704.9m

관리주체 남해군

개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금산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이동면·삼동면에 걸쳐 있다. 1974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기암괴석으로 뒤덮인 38경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유일한 산악공원

남해에는 비단으로 몸을 감싼 산이 있다. 비단 금(錦)자에 피 산(山)자를 이름으로 한 금산이다. 금산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 있는 유일한 산악공원으로 온통 기암



금산 전경



쌍홍문 일출



금산의 봄

괴석들로 뒤덮인 38경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지질은 중생대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암괴석을 형성하여 금산 삼십팔경(錦山三十八景)이라 불릴 정도로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다.

금산에 오르면 원효대사가 신라 신문왕 3년에 창건했다는 강화도 보문사, 낙산사 흥련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기도처의 하나인 보리암과 가야의 김수로왕 부인인 허태후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가지고 온 돌로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삼층석탑이 있다. 뿐만 아니라 관음봉, 화엄봉, 일월봉, 자라바위, 좌선대, 상사암(相思巖), 부소암, 쌍홍문(雙虹門), 사선대(四仙台)·음성굴(音聲窟) 등의 바위와 망월대가 있어 해마다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는다. 금산

정상에서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금산 38경이 모두 보인다고 할 정도로 조망이 뛰어나 삼남지방의 경승 명산지로 손꼽힌다.

명칭유래

신라 원효대사가 기도처로서 보광산(普光山)이라 하였는데, 태조 이성계가 등극하기 전 이 산에서 수도하면서 기원한 결과 그 이상을 달성하여 왕좌에 오르게 되자 은혜를 갚기 위하여 비단 ‘錦(금)’자를 써서 ‘普光山(보광산)’에서 ‘錦山(금산)’으로 바꿔 부르게 되면서 지금의 이름이 붙게 되었다.

금산의 사계

- 봄 : 바위 절벽과 어우러진 초록
- 여름 : 보리암에서 보는 남해 절경
- 가을 : 쌍홍굴 사이로 보이는 단풍
- 겨울 : 망대에서 조망하는 남해 바다

사진명소

- 보리암 : 상주면 상주리 금산 남쪽 봉우리 해발고도 681m 절벽 위에 자리한 절.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쌍계사의 말사로 우리나라 전국 3대 기도처이자 관음도량
- 금산바래길 : 남해 금산의 아름다움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지선3코스 '금산바래길'은 보리암주차장에서 출발해 보리암 → 금산산장 → 단군성전 → 화엄봉을 거쳐 다시 보리암주차장으로 회귀하는 2km의 구간으로 금산의 절경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코스임

주요등산로

- ① 한려해상국립공원 금산탐방지원센터 → 정상 한려해상국립공원 금산탐방지원센터 → 보리암 → 정상 → 상사암 → 부소암 → 남해양아리 석각 → 두모입구 → 한려해상국립공원 금산탐방지원센터

산행 tip!

낙석이 자주 일어나는 경사진 곳과 바위벽 아래를 지날 때에는 낙석에 각별히 유의. 산행 중 조난 또는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계곡을 피하고 능선을 따라 이동

📷 사계

📷 명소



보리암의 벚꽃



보리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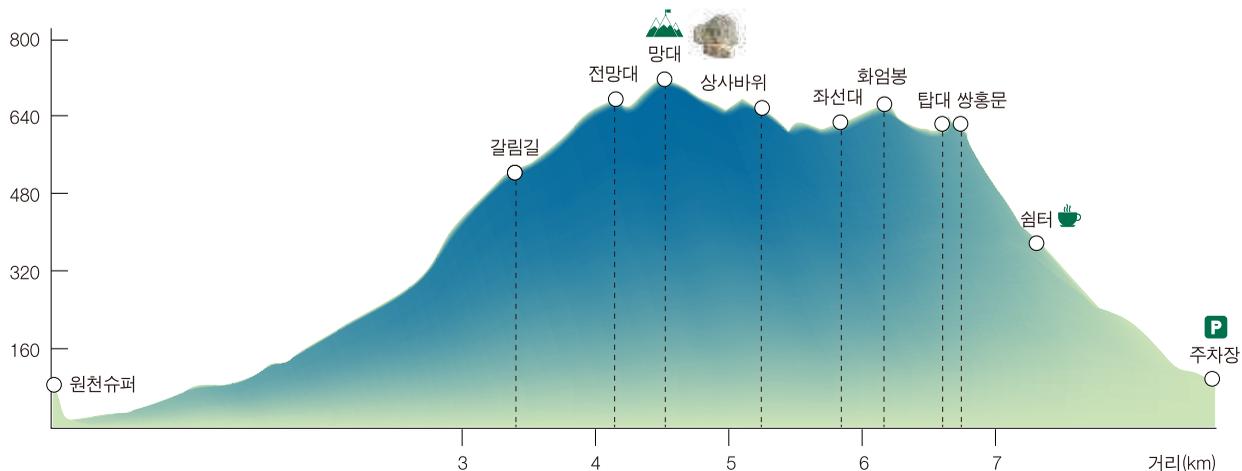


금산바래길



상사바위

고도(m)



👁️ 주변관광지

📍 지족해협 죽방렴

지족해협은 남해군 삼동면과 창선면 사이의 좁은 바다



시속 13~15km의 거센 물살이 지나는 좁은 물목.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은 우리나라 전통적 어업경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경승지로 2010년에 명승으로 지정. 대나무 어살이라고도 부르는 죽방렴은 어살의 한 종류로 '전통어로방식-어살(漁箭)'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2019. 04.)

📍 상주은모래비치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에 있는 해수욕장

남해읍에서 남쪽으로 21km 떨어진 이곳은 맨발에 닿는 모래의 감촉이 좋은 곳이라서 해마다 여름이면 100만여 명에 달하는 여행객이 찾는 2km에 이르는 반달형 백사장. 경사도가 완만한 데다 수온도 높아 가족들의 피서지로도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



📍 남해대교

보물섬 남해의 최초 관문이 되어준 남해대교



현존하는 국내 최초의 현수교(1973년 개통)로, 보물섬 남해로 향하는 크나 큰 빨간 대문으로 상징됨.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잠시 모셨던 남해 충렬사는 규모는 작지만 사적(1973. 06. 11.)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청해루와 장군의 가묘가 잘 정리되어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설리 스카이워크

●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 유허지는 남해대교와 충렬사, 관음포 이충무공 유허로 자연스레 이어지는 삼각의 꼭짓점 같은 곳. 포근한 바다와 함께 평안을 구하기 좋은 곳

● 물미해안전망대

삼동면 대지포 마을 인근에 조성되어 지역민들에게는 '대지포 전망대'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며 남해바다를 밝히는 등대 콘셉트로 지어진 이곳은 360도 조망이 가능한 원통형 구조

● 설리 스카이워크

물미해안전망대에 이은 또다른 매력의 전망대이자 관광명소. 백사장이 하얀 눈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설리(雪里) 바닷가의 강렬한 코발트빛 물색과 이국적인 휴양지를 닮은 풍광에 연인들이 즐겨 찾는 바닷가 마을. 마치 하늘을 걷듯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하늘그네'로 색다른 힐링 모먼트를 경험할 수 있음



청풍호반을
비단 물결로 수 놓다

금수산

錦繡山



제천시청

위 치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제천시 수산면

높 이 1,015.8m

관리주체 제천시, 국립공원공단(월악산국립공원)

개요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과 제천시 수산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단양에서 서쪽으로 33km 지점에 있으며 치악산으로 이어진다. 국망봉·도솔봉과 함께 소백산맥의 기저를 이루며, 단대천(丹垓川)이 발원하여 남한강으로 흘러든다.

자연환경

기암절벽을 이룬 능선과 어울리는 산세

금수산은 가을 경치가 빼어난 바위산으로 월악산국립공원 최북단에 자리잡고 있다. 정상부의 원경은 길게 누운 임산부의 모습인가 하면 사자의 머리 형상 같기도 하고



금수산 전경



금수산 운무



바위와 조화를 이룬 소나무

남쪽 능선에서는 뽕죽하게 보이는 등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주봉은 동서 양쪽이 깊은 골짜기여서 깎아지른 바위 절벽으로 정상에서 멀리 동북 쪽으로 소백산 능선이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망덕봉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다. 남쪽으로는 질푸른 청풍호와 청풍문화재단지가 뚜렷이 시야에 들어온다.

금수산 아래 적성면 상리, 하리와 현곡리에 걸쳐 있는 긴 골짜기는 산자수명한 경승지이고 이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을들을 통틀어 품달촌이라고 하였다. 단성면 지역에서 바라보면 산 능선이 마치 미녀가 누워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치녀봉’이라고도 부른다. 산중턱에는 가뭄이나 장마를 가리지 않고 바위틈에서 일정한 수량이 용출되는 용소와 삼복더위에도 얼음이 언다는 얼음골이 있다.

명칭유래

본디 이름은 백운산이었으나 조선 중기 단양 군수로 있던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 비단에 수를 놓은 듯 몹시 아름다운 이곳의 가을 경치에 감탄하여 금수산(錦繡山)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단양군조에 인용된 김일손(金駟孫 1464~1498)의 기문에 금수산의 지명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조선 전기 이전부터 금수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수산의 사계

- 봄 : 멸종위기 종 2급으로 지정된 왕제비꽃 외 풀꽃들의 향연
- 여름 : 얼음골의 시원한 녹음과 폭포소리
- 가을 :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단풍터널
- 겨울 : 청풍호의 물안개로 찬란히 피는 눈꽃

사진명소

- 얼음골 :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금수산 능강계곡에 있는 피서지. 능강구곡의 하나인 취적대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얼음구멍(일명 빙혈)이 있어 유명
- 남근석 : 금수산 정상에 있는 남근 모양의 바위인 금수산 남근석의 모습으로 화강석으로 된 바위.

주요등산로

- 1 자드락길5코스(옥순봉길) → 금수산(정상)
자드락길5코스(옥순봉길) → 상천 → 용담폭포 전망대 → 망덕봉 → 금수산(정상)
- 2 금수산 상학주차장(버스정류장) → 금수산(정상)
금수산 상학주차장(버스정류장) → 금수산 등산로입구 → 왕제비꽃 서식지 → 전망대 → 금수산(정상) → 금수산 등산로 입구
- 3 구담봉 주차장 → 구담봉
구담봉 주차장 → 등산로 입구 → 옥순봉 → 구담봉 → 구담봉 주차장
- 4 가은산등산로 입구 → 가은산(정상)
가은산등산로 입구 → 옥순대교 전망대 → 너털길 → 오솔길 → 가은산(정상)

📷 사계

📷 명소



왕제비꽃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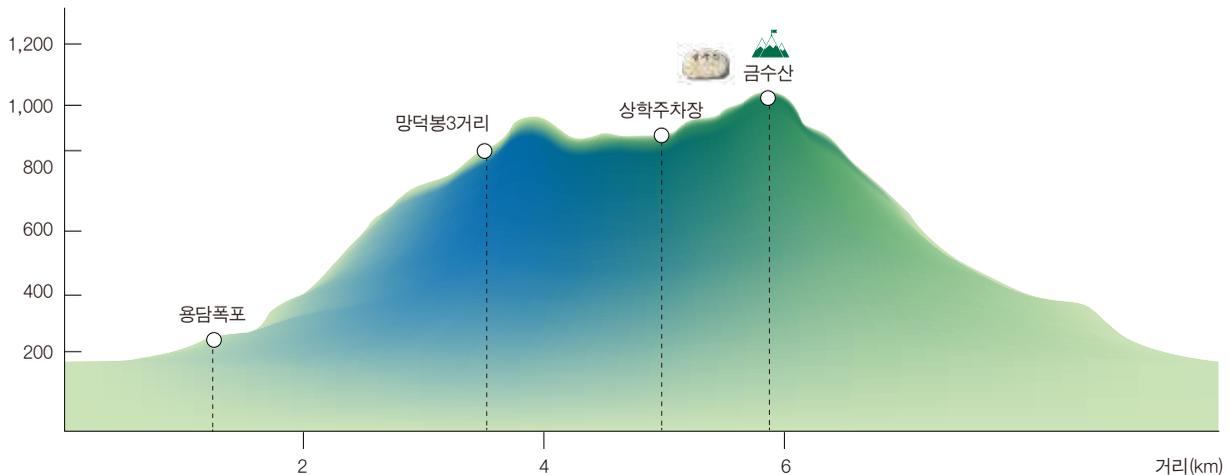


얼음골



남근석

고도(m)



👁️ 주변관광지

📍 청풍호반 케이블카

청풍면 물태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2.3km 구간 운영



케이블카 정상의 비봉산은 봉황새가 알을 품고 있다가 먹이를 구하려고 비상하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청풍호 중앙에 위치한 해발 531m의 명산

📍 청풍문화재단지 (제천유물전시관)

비봉산 정상에서 청풍호를 조망할 수 있는 청풍호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번지점프 등 레저체험, 산악체험, 한방건강체험 등 각종 테마체험시설로 제천의 대표 종합관광지



📍 옥순봉 출렁다리

대한민국 명승이자, 제천10경 중 제8경 옥순봉



출렁다리는 2021년 10월 22일 개장, 길이 222m, 너비 1.5m의 연결다리 및 408m 길이의 생태탐방 데크로드와 야자매트로 이루어진 트래킹길까지 더하여 호반과 옥순봉을 둘러볼 수 있도록 조성

함께 가 볼 만한 곳



탁사정



배론성지

● 탁사정

백사장과 맑은 물, 노송이 어울린 아름다운 계곡으로 제천의 대표적인 여름 피서지. 제천9경의 탁사정은 정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자 주위의 절경을 뜻함. 차령산맥과 태백산맥이 갈라져 남서로 달리는 남서쪽 골짜기에 자리 잡은 탁사정 유원지는 서늘한 골바람과 계곡의 길푸른 물빛, 낮은 폭포가 어우러져 주위의 노송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

● 국립제천치유의숲

금수산 자락 해발 530m에 있는 국립제천치유의숲에서는 퇴계 이황 선생의 건강 비법인 ‘활인심방 숲테라피’와 몸에 좋은 ‘사상체질 차테라피’ 등 건강과 힐링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

● 배론성지

‘배론’이라는 명칭은 지형이 마치 배 밑바닥과 같은 모양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조선시대 천주교가 박해당하던 때 신자들이 피신하여 신앙촌을 이루어 살았던 곳. 배론성지는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천주교 정신을 이어온 곳으로서 국내 최초의 신학당,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묘소, 황사영 백서 토굴 등 국내 천주교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채우고 있는 신앙유산으로 가득한 성지



금까마귀 신화가 입혀진
비범한 풍모를 지니다

금오산

金烏山



구미시청

위 치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칠곡군 북상읍, 김천시 남면

높 이 976.5m

관리주체 구미시, 김천시

개요

금오산은 구미의 대표적인 산으로 칠곡군과 김천시의 경계에 걸쳐 있으며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자연환경

빼어난 자연과 인위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초의 도립공원

금오산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안동의 풍산에서 흘러온 낙동강이 내성천과 합류하여 상주를 지나면서 의성에서 흘러온 위천과 합쳐지고, 다시 선산에서 감천과 만나 해평과 교야를 지나 구미를 흐르며 금오산을 뒤로 하고 칠곡



금오산 전경



금오산 돌탑



금오산 약사암

의 약목을 끼고 왜관으로 흘러간다. 따라서 낙동강을 끼고 있는 마을들은 비교적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다. 금오산은 이렇게 주변이 비교적 평탄한 평지로 둘러싸여 있고 해발고도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 험준한 산세로 인하여 야산(野山)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금오산은 경사가 급하고 험난한 편이지만 산 정상부는 비교적 평탄한데 이곳에 금오산성(金烏山城)이 있다. 고려시대에 자연 암벽을 이용해 축성된 2km의 고성지(古城址)인 금오산성은 그 절반 이상이 암벽으로 이루어져 몹시 험준하다.

명칭유래

금오산이라는 명칭은 이곳을 지나던 아도화상(阿道和尚)이 저녁놀 속으로 황금빛 까마귀가 나는 모습을 보고 금오산이라 이름 짓고, 태양의 정기를 받은 명산이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 금오산의 능선을 유심히 보면 ‘왕(王)’자처럼 생긴 것 같고, 가슴에 손을 얹고 누워 있는 사람 모양으로, 조선 초기에 무학대사(無學大師)도 이 산을 보고 왕기가 서려 있다고 한 것이 전해진다.

금오산의 사계

- 봄 : 케이블카로 즐기는 금오산의 비경
- 여름 : 시원한 물소리에 더위를 식혀주는 대혜폭포
- 가을 : 약사암과 조화 이룬 단풍
- 겨울 : 마애여래입상을 한 폭의 그림으로 채운 설경

사진명소

- 대혜폭포 : 금오산에 자리한 대혜곡의 폭포. 금오산 정상 근처 산성 안에는 1595년경 임진왜란 당시 만들어진 아홉 개의 우물(九井)과 일곱 개의 못(七潭)이 있어 거기서 비롯된 큰 계곡에서 형성된 폭포
- 금오산 마애여래입상 : 금오산 정상 아래 자연 암벽에 조각되어 다른 마애불과 달리 돌출된 암벽 모서리 부분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조각.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
- 약사암 : 천하절경을 보여주는 금오산 약사봉아래 암자로 구미 시내가 한눈에 조망됨

주요등산로

- ① 금오산도립공원 잔디광장 → 금오산(성안전위봉) → 금오산(현월봉)
금오산도립공원 잔디광장 → 칼다봉 → 금오산(성안전위봉) → 성안산림습지 → 금오산(현월봉) → 대혜폭포 → 영흥정약수터 → 야은역사체험관 → 금오산도립공원 잔디광장
- ② 금오산도립공원 잔디광장 → 금오산(현월봉) → 범성사
금오산도립공원 잔디광장 → 야은역사체험관 → 영흥정약수터 → 금오산(현월봉) → 범성사
- ③ 금오랜드 → 형곡금호어울림건너(버스정류장) → 금오랜드 → 금오산야영장 → 형곡전망대(금오산전망대) → 호령봉 → 감은산 → 대관정 → 형곡금호어울림건너(버스정류장)

📷 사계

📍 명소



금오산 케이블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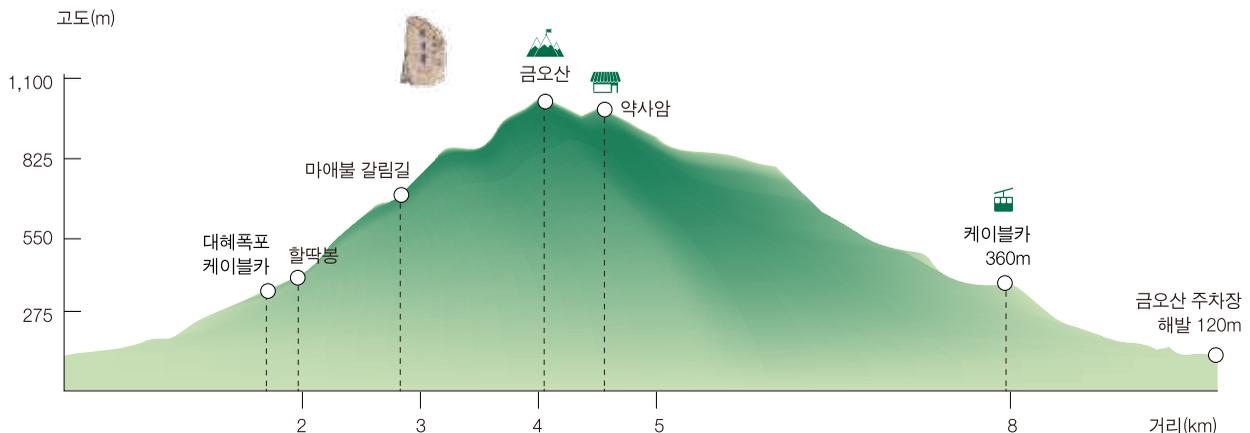
대혜폭포



금오산 마애여래입상



약사암



👁️ 주변관광지

📍 구미에코랜드

구미시 산동읍 인덕리 일원에 위치한 구미시산림문화관



생태탐방 모노레일, 산동참생태숲, 자생식물단지, 어린이테마교과숲, 문수산림욕장 등의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총칭. 산림휴양공간으로서 산림, 문화, 전시, 체험을 함께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

📍 금오산 케이블카

시원한 바람과 탁트인 전망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케이블카

운행구간은 대혜교 위 50m 지점에서 해운사가 자리한 산중턱까지로 길이는 805m. 케이블카를 타면 해운사, 대혜폭포, 도선굴 등 많은 볼거리와 뛰어난 풍경 관람 가능



📍 채미정

야은 길재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기 위해 지은 정자



길재가 고려가 망한 후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벼슬에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은거 생활을 한 것을 중국의 백이 숙제가 고사리를 캐던 고사에 비유하여 이름을 지은 것. 채미정 뒤에는 숙종의 어필 오언절구(五言絶句)가 보존되어 있는 경모각과 유허비각이 배치되어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금오산 올레길



신라불교초전지

● 금오산 올레길

9년 간의 조성공사로 2016년에 준공된 총길이 2.43km의 올레길, 제당산책로, 부잔교, 아치고, 데크로드, 콘크리트구간, 흙길 산책로 등 다양한 구간이 이어지는 길. 걷는 재미와 금오지와 금오산의 풍경을 즐기면서 걸을 수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음

● 옥성자연휴양림

옥성자연휴양림 저수지 주변으로 수변데크, 야외무대, 잔디광장을 시설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음. 휴양림 안에는 숲속의 집 10동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신라불교초전지

고구려 승려 아도화상(阿道和尚)이 신라에 불교를 처음으로 전한 신라 불교역사의 성지. 1600년 역사가 되살아난 불교문화를 배우고 전통가옥 숙박체험과 다양한 불교문화체험



도심 한가운데서
부산을 보듬어 안다

금정산

金井山



산림청

위 치 부산광역시 금정구·북구, 경상남도 양산시

높 이 800.8m

관리주체 부산광역시, 양산시

개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북구 그리고 경남 양산시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있다. 주봉인 고당봉을 중심으로 북으로 장군봉(727m)과 남으로 상계봉(638m)을 거쳐 백양산(642m)까지 길게 이어져 있다.

자연환경

부산을 지키는 산성명산

금정산은 주봉인 고당봉을 기점으로 북동-남동-남서로 이어지는 초승달 모양의 산릉을 이루고 있으며, 중앙부는 전형적인 침식 분지를 나타내고, 북동-남동-남서 사면은



금정산 전경



금정산 금샘



금정산 능선

비교적 급한 사면을 이룬다. 산 정상과 산 능선에는 치밀한 절리와 기계적 풍화 작용에 의해 파쇄된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어 토르(Tor, 지하의 암괴가 오랜 풍화 작용으로 동글동글한 핵석이 되며, 이후 오랜 침식으로 주변의 층이 제거되면서 핵석이 높게 쌓여 돌담처럼 드러나게 되는 지형)와 타포니(Tafoni, 암벽에 마치 벌집처럼 구멍이 파여 있는 지형)같은 지형을 관찰할 수 있다.

산록을 따라 산정과 산릉 사이에는 너덜 지대와 같은 거대한 자갈 혹은 바위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금정산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은 경상계 퇴적암층과 이를 관입 또는 분출한 화산암류, 그 후 이들 암석에 관입한 불국사 화강암류 및 마산암류로 되어 있다. 금정산지를 따라 낙동강과 수영강의 분수계를 이루고 있으며, 금정산에서 발원한 온천천은 수영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명칭유래

『세종실록지리지』에 “산정에 바위가 있어 높이가 3장 가량인데 그 위에 있는 우물의 둘레가 10여 척이며 깊이는 7촌 쯤 된다.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빛은 황금색이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한 마리의 금빛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범천(梵天)에서 내려와 그 우물에서 놀았다고 하여 금빛 우물(金井)이라 하였고, 산 이름이 금정산(金井山)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금정산은 금빛 우물인 금샘(金井)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금정산의 사계

- 봄 : 금샘 너머로 피어오르는 봄기운의 아지랑이
- 여름 : 하늘을 가릴 정도로 뻗뻗한 나무가 주는 상쾌함
- 가을 : 구불구불 금정산성 성곽과 함께 하는 단풍길
- 겨울 : 산과 산 사이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부산의 설경

사진명소

- 범어사 : 금정산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승려 의상이 창건한 사찰로 영남 3대 사찰로 꼽힘
- 금정산성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산 정상부에 있는 조선 시대 석축 성곽. 돌로 쌓은 산성으로 낙동강 하구와 동래 일대가 내려다보이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
- 4망루 : 낙동강이 보이는 풍경 뿐 아니라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짐

주요등산로

- ① 화명수목원 → 금정산 고당봉
 화명수목원 → 도원사 → 금정산 고당봉 → 금정산탐방지원센터 → 금정산성 북문 → 서울슈퍼(버스정류장)
- ② 범어사역 → 다방삼거리(버스정류장)
 범어사역 → 금정산 둘레길 → 다방삼거리 (버스정류장)
- ③ 범어사(버스정류장) → 경동아파트(버스정류장)
 범어사(버스정류장) → 범어사 일주문(조계문) → 대성암 → 금정산성 북문 → 금정산탐방지원센터 → 금정산 고당봉 → 계명봉 → 경동아파트(버스정류장)

📷 사계

📍 명소



금정산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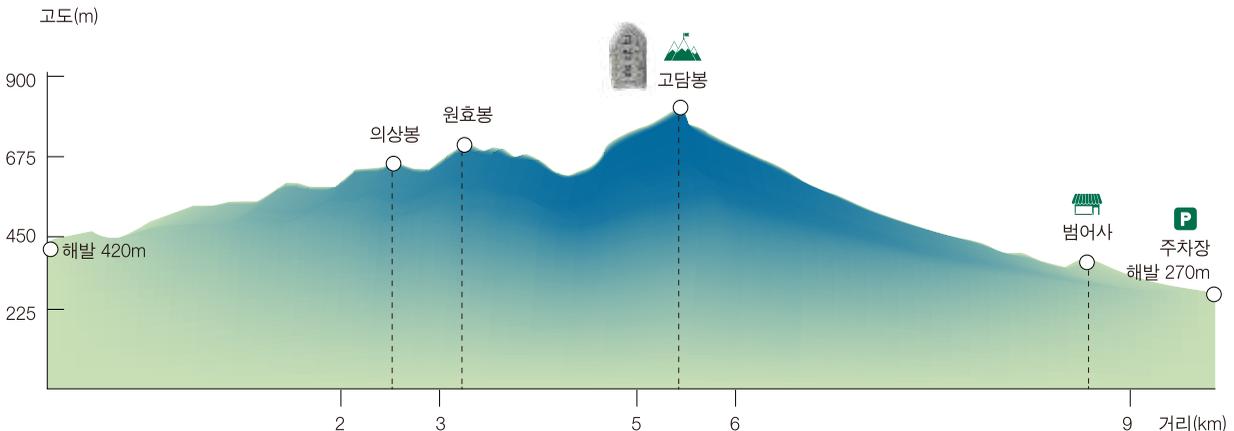
금정산의 겨울



범어사



금정산성



👁️ 주변관광지

📍 금강공원과 식물원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의 조화가 아름다운 도심 속 공원

금강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공원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는 산책로. 금강공원의 다양한 문화시설과 함께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금강공원 케이블카도 빼놓을 수 없는 명물



📍 송도 해상케이블카

송도의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가운데 그림처럼 하늘 위를 가로지르는 해상케이블카



바다 한가운데에서 느끼는 짜릿함은 물론 송도해수욕장, 영도대교와 남항대교, 송도 해안둘레길, 파도치는 기암절벽까지 한눈에 감상 가능

📍 해동용궁사

부산 기장의 시랑리 해안에 위치한 해동용궁사

정암화상(殿庵和尙)이 바닷가에서 용을 타고 승천하는 관세음보살을 꿈에 보았다는 이야기에서 이름이 유래됨.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이라 불릴 정도로 경내 전체에서 바다를 볼 수 있어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아홉산 숲



해운대수목원

● 아홉산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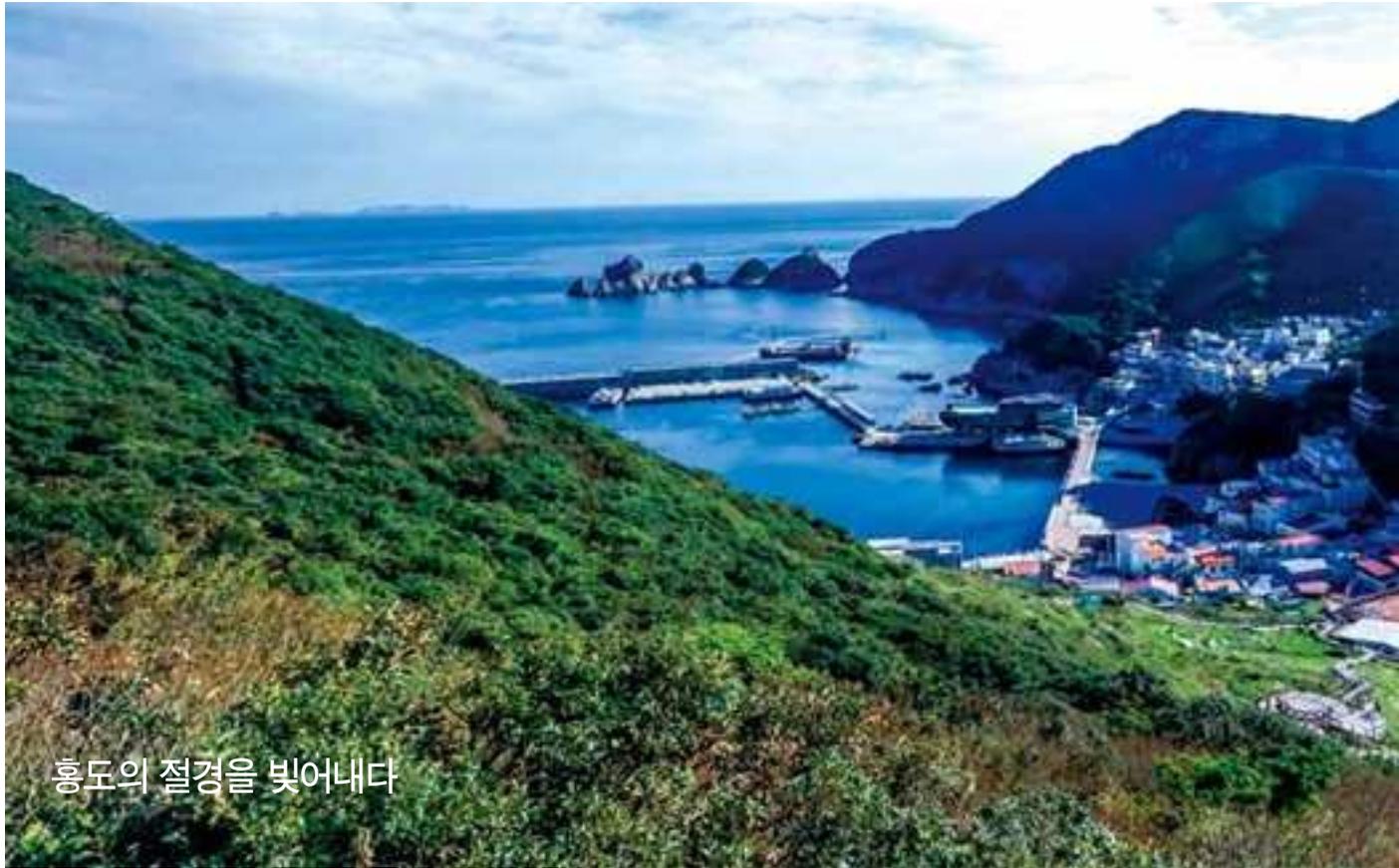
40여 년 간 세상에 공개되지 않고 자연 본연의 모습을 간직한 숲. 아홉산 숲의 아홉산은 아홉 골짜기를 품고 있다는 뜻의 순 우리말 이름. 2014년 영화 <군도>의 촬영지가 되며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오랜 시간 그린 벨트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에 건장한 자연환경과 생태를 그대로 간직

● 대저생태공원

부산의 대표적인 자연생태 친수공간으로 대도시에선 보기 힘든 드넓은 땅에 봄이면 유채꽃, 여름에는 해바라기가 끝도 없이 피어나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가을에는 감성을 자극하는 핑크물리도 볼 수 있어 부산여행의 필수 코스

● 해운대수목원

형형색색 야생화가 어여쁜 자태를 뽐내고 산책로를 따라 상큼한 허브향 가득한 곳. 초록의 싱그러움 가득한 해운대수목원에는 시원하게 뻗은 편백숲과 종류도 다양한 나무들, 향기 가득 향기원, 허브길, 생태습지원 등 테마별 정원이 산책길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수목원



홍도의 절경을 빚어내다

깃대봉



산림청

위 치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

높 이 381.8m

관리주체 신안군

개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에 있는 산이다. 덩굴사철과 식나무, 동백림 등이 자생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커서 1965년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홍도 천연보호구역에 속해 있다.

자연환경

홍도 최고의 봉우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작은 섬이자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홍도는 동경 125°12', 북위 34°41'에 위치한다. 목포에서 서쪽으로 113km, 대흑산도에서 서쪽으로 22.5km 지



깃대봉 전경



홍도와 어우러진 깃대봉



멀리서 바라본 깃대봉

점에 있다. 면적 6.42㎢이고, 해안선 길이는 20.8km이다. 섬 전체와 부속도서 20여 개를 포함하여 홍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965년 지정)으로 지정되었으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대표적인 경승지로 손꼽히고 있다.

어미섬의 주봉인 깃대봉과 남쪽의 양상봉 주변에는 아름다운 동백나무 숲, 후박나무, 식나무 등 희귀식물 5백여 종이 있으며 2백여 종의 동물과 곤충이 함께 서식하고 있다. 홍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 풀 한 포기, 돌 하나도 가지고 나올 수 없다. 특히 바닷바람을 받으며 자라는 홍도 풍란은 아주 귀한 난이다. 등산은 홍도 초등학교 후면으로 난 길을 따라 오르는데, 중턱의 제1, 2전망대를 지나 정상까지 약 2.5km를 올라야 한다. 초입

등산로는 자연보호를 위해 설치한 목책로를 따라 올라가며 이후 중턱에서 동백나무 군락을 만나게 된다. 정상부 인근에 이르면 1940년대까지 사용했던 솟가마터가 나오고 약 0.2km를 더 오르면 깃대봉에 도착하게 된다. 깃대봉에서는 흑산도와 태도, 가거도, 만재도가 보인다. 남서로 양상봉의 연봉이 한 폭의 동양화를 펼쳐 놓은 듯하고 동쪽으로는 설봉서전의 울창한 숲이 장관이다.

명칭유래

봉우리가 깃대 모양의 바위로 이루어져 깃대봉으로 부르며, 홍도의 최고봉인 깃대봉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국가 발전에 공로가 있는 백성에게 나라에

서 사패지(賜牌地)를 하사하면 그곳에 깃대를 세워 공적을 기렸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함안 조씨의 사패지가 있는 회문산 동쪽 자락에 있는 임실군 덕치면의 깃대봉이 그 예다.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에 가장 전망이 좋은 산에 삼각점을 설치하고 그곳에 빨간 깃대를 꽂아 측량을 하였던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깃대봉이라는 이름이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깃대봉의 사계

- 봄 :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룬 수려함
- 여름 : 운무에 싸인 깃대봉
- 가을 : 일몰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홍도
- 겨울 : 한 겨울에도 푸른 숲길을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비경

사진명소

- 독립문바위 : 독립문바위는 홍도10경 중 제8경으로 아

름다운 볼거리. 옛날에는 중국으로 가는 배들이 드나드는 북문이며 그 모형이 서울에 있는 독립문과 똑같아서 3·1만세 이후 독립문으로 부름

- 깃대봉 정상 : 큰 나무가 없어서 사방이 두루 조망되고 홍도 바다의 절경을 감상 가능
- 일몰전망대 : 들머리를 지나 깃대봉 정상으로 가는데 큰길 중간에 아름다운 홍도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저녁노을 명소

주요등산로

- ① 홍도연안여행센터미널 → 홍도등대
홍도연안여행센터미널 → 홍도 깃대봉 → 홍도등대

산행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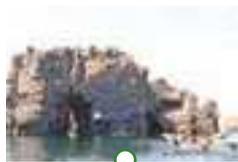
등산로를 미리 파악하고 통신장비 등 기본 등산장비를 휴대하며 음주 또는 단독산행 삼가

📷 사계

📷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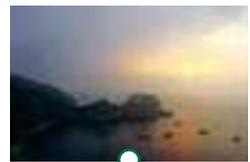
깃대봉의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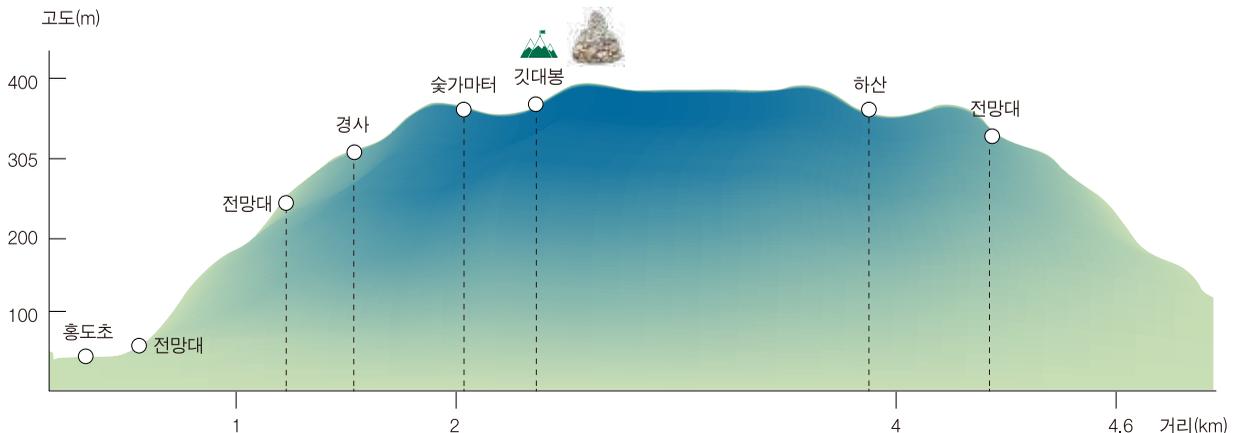
독립문바위



깃대봉 정상



일몰전망대



주변관광지

남문바위

홍도 해상관광의 절경, 홍도1경



홍도1경 홍도의 남쪽에 위치한 바위섬에 구멍이 뚫려 소형선박이 내왕할 수 있는 석굴석문으로 홍도의 관문. 굴문을 지나가면 일년 내내 더위를 먹지 않으며 재앙을 없애고 소원이 성취되며 고깃배가 이 석문을 지나가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짐. 일명 구멍바위로 불려짐

공작새바위

홍도10경으로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

세 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바위로서 우측에서 보면 모자상 같고 정면에서 보면 공작새 같으며 좌측에서 보면 말이 하늘로 치솟는 형상을 지닌 천마상과 같음. 아름다운 공작새에 비유하여 공작새바위라 불리어지고 있음



서부해안일주도로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흑산도 전경과 함께 예리항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뒤돌아서면 탁 트인 다도해를 배경으로 대장도와 소장도가 펼쳐짐. 상라봉 정상에의 제사터(봉화대) 아래로는 해상왕 장보고가 해상 무역을 왕성하게 벌일 때 전진기지로 삼았다고 하는 반달모양의 '상라산성'이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백길 해변



안좌도 김환기 고택

● 백길해변

자은면 백길해수욕장의 광활한 모래밭에 서면 이국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짐. 3km가 넘는 광활한 해안선을 따라 고운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지며,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밭과 연도교 위에서 바라보는 낙조 또한 일품

● 안좌도 김환기 고택

신안이 낳은 한국의 피카소 서양화가 1세대 김환기 생가. 추상미술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한 수화 김환기의 혼이 담긴 곳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 또한 20세기 초 한옥건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실존자료라는 점에서도 다른 가치를 찾을 수 있음. 1992년 지방기념물로 지정, 2007년 국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

● 1004섬 분재공원

다도해의 아름다운 바다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송공산 남쪽 기슭 10ha의 부지에 조성한 자연친화적 분재정원. 다양한 분재와 쇼, 조각을 전시하고 있음



보물찾기하듯
신라의 문화유적을 둘러보다

남산

南山



산림청

위 치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 내남면

높 이 495.1m

관리주체 경주시

개요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불교 유적과 관련된 산이다. 경주 남쪽에 솟은 남산은 신라인들의 신앙의 대상이었다. 금오산(金鰲山)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북쪽의 금오산과 남쪽의 고위산(高位山) 두 봉우리 사이를 잇는 산들과 계곡 전체를 통칭해서 남산이라고 한다.

자연환경

천년의 도읍지
시선 머무는 곳마다 유적과 유물

정상의 높이는 495.1m이고, 동서너비 4km, 남북길이



남산 전경



신선암 마애보살 반가상



역세가 어우러진 남산의 전경

10km의 타원형을 이루는 경주 남산에는 왕릉 13기, 절터 50개소, 불상 129체, 탑 99기 등 694점에 달하는 귀한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 높지 않은 산이지만 구석구석 볼거리가 많은 덕에 산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등산로만 수십 코스에 달한다.

또한 남산은 신라 사령지(四靈地) 가운데 한 곳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이곳에서 모임을 갖고 나라일을 의논하면 반드시 성공하였다고 해서 남산에 얽힌 전설과 영험의 사례가 풍부하고 다양하다. 신라 시조인 박혁거세의 탄생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나정과 신라 8대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의 왕릉이 같이 모여져 있는 삼릉 등 남산 전체가 신라박물관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수많은 유

적이 산재해 있다. 불교가 공인된 528년(법흥왕 15) 이후 남산은 부처님이 상주하는 신령스러운 산으로 존송되었다.

명칭유래

옛 서라벌 남쪽에 있는 산이라는 뜻의 남산은 금오봉(468m)과 고위봉(494m)의 두 봉우리에서 뻗어 내려오는 40여 개의 계곡과 산줄기들을 통칭하여 부르고 있다.

남산의 사계

- 봄 : 능선에 도달해서 만나는 바둑바위에서 느끼는 바람
- 여름 : 울창한 소나무 군락지를 이룬 삼릉숲
- 가을 : 칠불암 내 암벽에 조각된 마애불상으로 비치는 노을
- 겨울 : 황량한 빈 절터 용장사지의 고즈넉함

사진명소

- 용장사곡 삼층석탑 : 석양과 일몰이 아름다운 곳. 매월당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쓰던 곳이라 전함. 현재는 몇 곳의 석축만이 남은 절터의 절을 감싸는 뒷봉우리 정상부에 용장사곡 삼층석탑이 세워져 있음
- 칠불암 : 국보로 지정된 칠불암 마애불상군과 속세를 굽어보는 듯한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등 신라 불상을 만날 수 있는 곳
-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 칠불암 바로 위의 거대한 바위(신선암) 남쪽면에 조각된 불상

주요등산로

- ① 용장1리·배양골 → 경주국립공원 삼릉탐방지원센터
 용장1리·배양골 → 용장골계곡 → 남산 고위봉 →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 →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 경주 남산 삼릉계 선각 육존불 → 경주국립공원 삼릉탐방지원센터
- ② 포석정지 → 경주 남산 약수계곡 석조여래좌상
 포석정지 → 포석곡 제7사지(큰늪비절터) → 삼릉계곡마애석가여래좌상 → 경주 남산 약수계곡 석조여래좌상
- ③ 상서장 → 이요당
 상서장 → 장창지 → 포석곡 제7사지(큰늪비절터)석조유물 → 이요당

📷 사계

📍 명소



남산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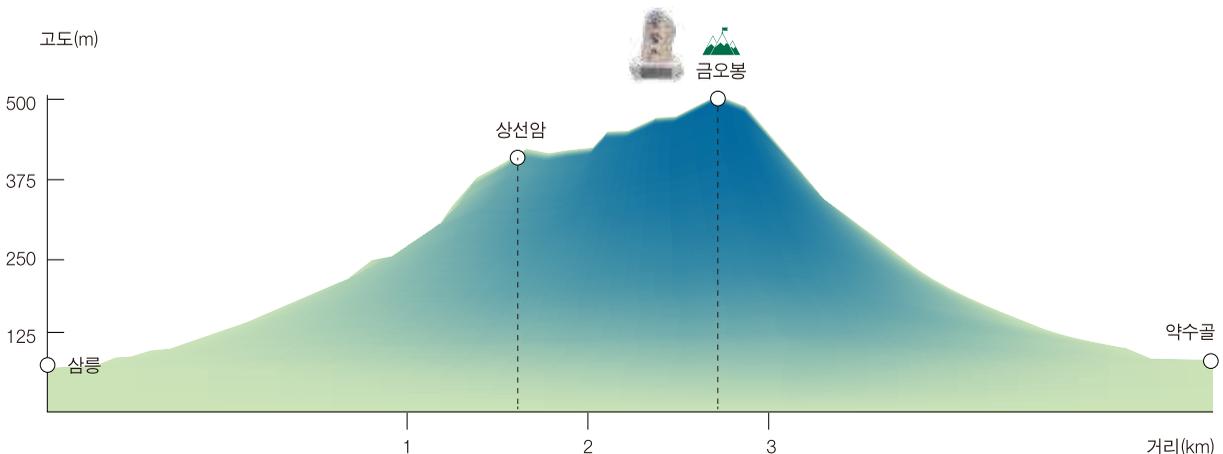
용장사곡 삼층석탑



칠불암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 주변관광지

📍 국립경주박물관

신라 천년의 압축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



신라역사관을 비롯해 신라미술관, 월지관 등의 상설전시관 3관과 기획전시가 열리는 특별전시관으로 구성. 야외전시장의 성덕대왕 신종과 고선사지 삼층석탑 등도 빠트리지 말고 보아야 할 유물

📍 첨성대

동양 최고(最古)의 천문대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 받침대 역할을 하는 기단부(基壇部) 위에 술병 모양의 원통부(圓筒部)를 올리고 맨 위에 정(井)자형의 정상부(頂上部)를 얹은 모습. 바깥쪽에 사다리를 놓고 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사다리를 이용해 꼭대기까지 올라가 하늘을 관찰했던 것으로 보임



📍 불국사

토함산 기슭의 사찰



석굴암, 서울의 종묘,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과 함께 1995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함께 가 볼 만한 곳



동대봉산 무장봉



동궁과 월지

● 동대봉산 무장봉

정상부에 넓게 조성된 역사 군락이 있어 가을철 명소. 드라마 <선덕여왕>,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등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됨. 보물 경주 무장사지 아미타불 조상 사적비와 보물 경주 무장사지 삼층석탑을 만날 수 있음

● 동궁과 월지

경주 야경 제1의 명소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곳으로 신라 조경예술의 극치를 보여 줌.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문무왕 14년(674)에 연못인 '월지'가 조성되었고, 삼국통일이 완성된 이후인 679년에 '동궁'이 지어졌다고 전함

● 대릉원

12만 6,500㎡의 넓은 땅에 23기의 신라시대 고분이 모여 있는 고분공원. 그 중 제13대 미추왕릉과 거대한 표형분(塼墳)이 눈길을 사로잡는 황남대총, 고분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천마총 등은 주목해 보아야 할 고분임



12폭포와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대자연의 작품을 만나다

내연산

內延山



포항시청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 청하면·죽장면
영덕군 남정면

높 이 711.3m

관리주체 포항시, 경상북도, 영덕군

개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증산리, 죽장면 하옥리 그리고 영덕군 남정면 화리에 걸쳐 있다. 내연산은 그리 높지 않지만 여러 형태의 기암괴석과 12폭포가 형성되어 있다.

자연환경

기암절벽과 조화를 이룬 12폭포 비경

낙동정맥 줄기가 주왕산을 옆으로 지나쳐 내려오다가 동해안 쪽으로 뺏어가 솟은 산이 바로 내연산이다. 내연산은 해안 가까이에 솟아올라 있어 내륙의 옛비슷한 높이의 산보다는 훨씬 더 높고 우뚝해 보인다.



내연산 절경



내연산 연산폭포



내연산 맑은계곡

문수산(622m), 삼지봉(711.3m), 향로봉(932.4m), 우척봉(774.8m)으로 능선이 이어져 있다. 완만하게 능선이 이어지는 육산이라 밋밋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굽이굽이 20리나 되는 긴 골에는 12폭포가 자리하고 있다.

청하골은 천년고찰 보경사(寶鏡寺)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어느 심산유곡 못지않게 깊고 그윽하다. 특히 이곳에는 폭포와 소(澗)가 많기도 하거니와 이곳처럼 다양한 형태의 폭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도 달리 찾기가 어렵다.

내연산의 백미는 기암절벽과 조화를 이뤄 절경을 자랑하는 청하골의 12폭포이다. 청하골(내연골) 초입의 상생폭포를 제1폭포로 하여 보현폭, 삼보폭, 잠룡폭, 무룡폭을 거

쳐 제6폭포인 관음폭과 제7폭포인 연산폭 일대에서 계곡미의 진수를 보여준다.

명칭유래

『대동여지도』에 내연산과 삼동석이 표시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삼용추(三龍湫)도 묘사되어 있다. 삼용추는 보경사 계곡에 있는 폭포들을 가리킨다. 내연산은 원래 종남산(終南山)이라 불리다가 신라 진성여왕이 이 산에서 건훤의 침범을 피한 뒤에 내연산이라 개칭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내연산의 사계

- 봄 : 보경사 길을 따라 걷다 만나는 야생화
- 여름 : 정상에서 감상하는 동해의 푸른 물결
- 가을 : 활엽수가 많아 풍성한 단풍
- 겨울 : 협곡 사이 내려앉은 얼음꽃

사진명소

- 관음폭포 : 내연산 제6폭포로 쌍폭인 관음폭포 주변에는 천인단애가 장성처럼 둘러쳐져 있고, 폭포수가 만 들어 놓은 못 옆에 뚫린 커다란 굴
- 연산폭포 : 내연산 폭포 중 수량이 풍부해 그림 같은 포토존을 연출
- 보경사 : 신라 진평왕 때 지명대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팔면보경을 묻고 세웠다는 절로, 경내에는 고려 때 이 송로가 지은 원진국사비(보물, 1963년 지정)와 포항 보경사 승탑(보물, 1965년 지정)·숙종어필 등이 있음

주요등산로

- 1 보경사 주차장 → 내연산(정상)
보경사 주차장 → 보경사 → 내연산 12폭포 → 문수암 → 문수봉(내연산) → 내연산(정상)
- 2 경상북도수목원 → 우척봉
경상북도수목원 → 전망대 가는길 입구 → 샷갯봉 → 우척봉
- 3 보경사 매표소 → 보현암
보경사 매표소 → 보경사 → 내연산 12폭포 → 상생폭포 → 보현폭포 → 삼보폭포 → 선일대 → 잠룡폭포 → 보현암
- 4 하옥계곡 매점 → 내연산삼지봉
하옥계곡 매점 → 내연산삼지봉, 동대산 조망권 → 천남성 → 내연산삼지봉

📷 사계

📷 명소



내연산의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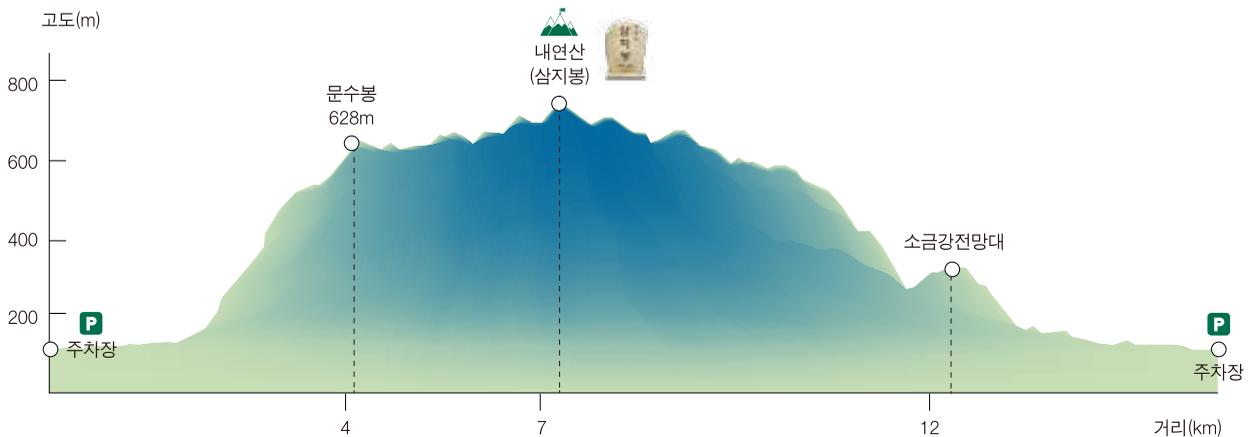
관음폭포



연산폭포



보경사시립공원



👁️ 주변관광지

📍 포항운하

생명의 물길을 달리는 도심 속 관광레저형 운하

포항6경. 포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항구. 육지 내 항구인 동빈내항. 옛물길과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생명의 물길로 재탄생. 새로운 이 물길을 따라 크루즈가 운행되고 있음



📍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포항의 설화를 스토리텔링화하여 조성

포항8경. 천혜의 절경 동해면 해안에 위치. 연오랑세오녀 이야기 벽을 시작으로 한국들과 방지 연못, 영일만을 조망할 수 있는 일월대, 나루쉼터, 산마루 정자, 연오랑세오녀가 타고 간 듯한 거북바위, 초가집으로 조성된 신라마을, 철예술들의 예술작품 등 다양한 테마로 조성



📍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과거의 아픈 역사를 보존하고 기억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훈의 장소

100년 전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가옥이 고스란히 남아 있음. 인기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의 일본 거리 촬영 때 이곳 구룡포 읍내 장안동 골목이 촬영 세트로 이용



함께 가 볼 만한 곳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영일대 & 포스코 야경

●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해맞이와 석양이 아름다운 천혜의 해안을 따라 파도소리를 들으며 걷는 힐링로드, 포항4경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한반도 지도에서 일명 호랑이 꼬리 부분으로 영일만을 끼고 동쪽으로 쭉 뻗어 나와 있는 동해면과 구룡포, 호미곶, 장기면까지 해안선 58km를 연결하는 트레킹 로드

● 영일대 & 포스코 야경

포항5경으로 백사장 길이 1,750m, 너비 40~70m, 면적 38만㎡로, 포항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음. 포스코와 영일만이 보이며, 백사장의 모래가 고와서 가족단위 피서지로 추천

● 장기읍성 & 유배문화체험촌

포항시 장기면 일대는 조선 시대 선비 100여 명이 유배를 다녀간 곳. 우암 송시열, 다산 정약용과 같은 석학과 거물학자들이 고난속에서도 서책을 탐구하고 시문과 저서를 쓰고 지역 선비들을 교육했던 유배문화 체험지



최고의 단풍명산
환상적인 붉은 빛에 취하다

내장산

內藏山



내장산국립공원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동
순창군 쌍치면·북흥면

높 이 763.5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내장산국립공원)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동과 순창군 북흥면 봉덕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1971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내장사, 원적암, 도덕암 등 크고 작은 사찰이 있다.

자연환경

애기 단풍 고운 호남의 명산

내장산은 크게 내장산, 백암산, 입암산으로 이루어졌으며, 내장산과 입암산의 북쪽사면은 동진강의 상류가 되고 입암산과 백암산의 남쪽사면은 영산강의 상류인 황룡강으로 흘러 들어가며 내장산과 백암산의 동쪽사면(순창군 북흥면



내장산 단풍터널



내장산 우화정



내장산 전경

일대는 섬진강의 상류가 된다. 노령(蘆嶺)이란 이름이 유래된 갈재의 서쪽에 있는 고창 방장산(해발 710m) 동쪽에 있는 입암산·백양사의 뒷산인 백암산을 연결한 능선은 곧 전북 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의 경계이기도 하다.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은 남원 지리산, 영암 월출산, 장흥 천관산, 부안 능가산과 함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호남 5대 명산으로 꼽아놓았다. 또한 전국8경의 하나이자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린다. 특히 단풍이 절경을 이루는 10월 하순과 11월 초순 무렵이면 많은 관광객이 몰린다. 내장산의 단풍은 잎이 얇고 작아서 단풍이 잘 들며 빛깔이 곱고 아름답다. 금선폭포, 도덕폭포 등 두 개의 폭포와 금선계곡, 원적계곡 등 두 개의 계곡, 신선봉,

서래봉, 불출봉, 연지봉, 망해봉, 까치봉, 연자봉, 장군봉, 월영봉 등 아홉개의 웅장한 봉우리로 이루어졌고 굴거리나무, 비자나무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명칭유래

내장산은 원래 영은사(靈隱寺)의 이름을 따서 영은산이라고 불리었으나 산 안에 숨겨진 것이 무궁무진하다하여 내장(內藏)산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지명도 내장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내장산의 사계

- 봄 : 고운 벚꽃 물결의 화사함
- 여름 : 원적골 자연관찰로에서 느끼는 싱그러움
- 가을 : 일주문에서 내장사까지 108주의 우거진 단풍 터널
- 겨울 : 서래봉부터 연자봉까지 산봉우리에 쌓인 눈 병풍

사진명소

- 서래봉과 백련암 : 서래봉 중봉 330m고지에 있는 백련암과 뒤쪽으로 보이는 서래봉의 조화
- 원적암 : 내장산 불출봉 중턱에 자리한 대한불교조계종 내장사의 산 내 암자
- 용굴 : 내장산 금선계곡 내 기름바위 못미처 오른쪽 절벽 위 까치봉으로 오르는 산벽 위의 암굴

주요등산로

❶ 내장산 제1주차장 → 내장산(정상)

내장산 제1주차장 → 내장산국립공원 내장탐방지원센터 → 정읍시관광안내소 → 우화정 → 내장사 일주문 → 내장산 단풍터널 → 내장사 → 내장산 용굴 → 내장산(정상)

❷ 내장산국립공원 내장탐방지원센터 → 내장산(정상)

내장산국립공원 내장탐방지원센터 → 유근치 → 연자봉 → 내장산(정상) → 내장산 불출봉 → 백련암 → 내장산 단풍터널 → 우화정

❸ 내장사 일주문 → 내장산 불출봉

내장사 일주문 → 내장산 단풍터널 → 내장사 → 원적계곡 → 원적암 → 내장산 불출봉 → 백련암

📷 사계

📷 명소



내장산의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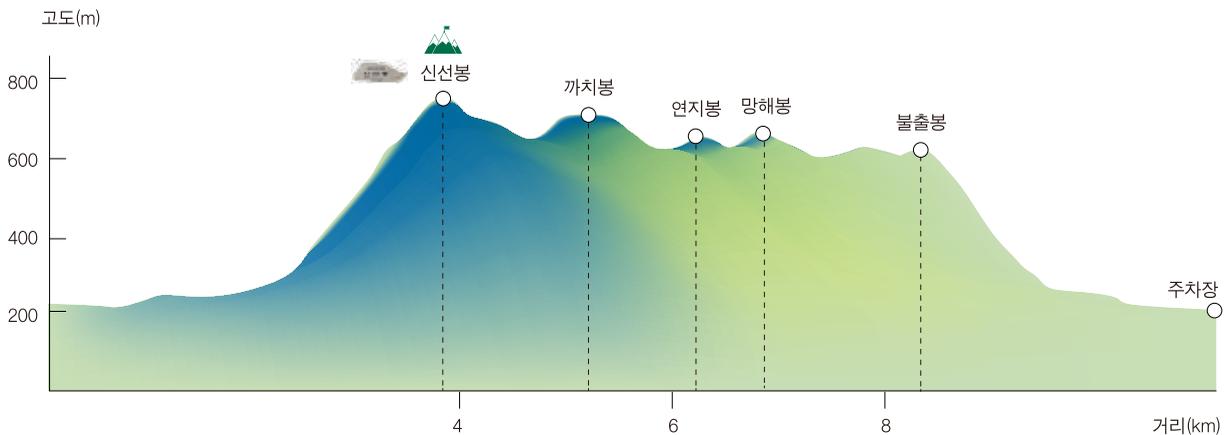
서래봉과 백련암



원적암



용굴



 주변관광지

 내장산 케이블카

탐방안내소부터 연자봉 중턱 전망대까지 운행

케이블카에서 내려 300m정도 거리에 전망대가 위치.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동안 내장산 전체 산세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 단풍 풍경을 비롯한 내장산의 모습을 감상



 내장산 워터파크

내장저수지 아래 위치한 내장산 워터파크

 음악의 리듬에 맞춰 14종의 다양한 분수공연 관람 가능. 특히 야간공연에는 화려한 조명 및 워터스 크린을 이용한 공연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쉼터 제공

 피향정 연꽃

호남 제일의 정자로 널리 알려진 피향정(披香亭)

1963년 보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원래 이 정자 앞뒤로 상연지(上蓮池)와 하연지(下蓮池)라는 연못이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었으나 상연지는 일제강점기 때 메워지고 현재는 하연지만 남아 있음. 연못에 연꽃이 피면 향기가 주위에 가득하다 하여 '피향정'이라 함



함께 가 볼 만한 곳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구절초의 낭만적인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동화 속 꽃동산. 솔숲 사이로 옹기종기 피어 있는 구절초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어 보는 자연휴식공원. 매년 10월이 되면 솔숲 아래로 옥정호의 새벽안개가 밀려들어 솔숲 아래에 새벽이슬 머금은 구절초 꽃의 고매한 자태를 볼 수 있음

●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정읍시 내장동 내장호 주변에 조성된 내장산 단풍생태공원(6만㎡)으로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단풍나무 중 11종과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특히 잎이 아기 조막손처럼 작다하여 애기단풍이라 부르는 단풍나무의 아름다운 빛깔을 볼 수 있음

● 솔티숲

내장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솔티숲은 인간을 품은 자연과 자연이 깃든 인간의 아름다운 공생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반세기를 국립공원과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생태보물로 가득한 지역

2 — 2

대둔산 / 대암산 / 대야산 / 덕숭산 / 덕유산 / 덕향산
도락산 / 도봉산 / 두륜산 / 두타산

산길에서

산길을 걷는데
들꽃들이 말을 건넨다

바람이
약수를 청한다

나뭇가지가
머리를 쓰담는다

산에 사는 모두가
나를 반겨준다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이 열린다

권순형



짜릿한 구름다리에서
자연의 위대함을 만나다

대둔산 大菴山



완주군청

위 치 충청남도 논산시 별곡면, 금산군 진산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운주면

높 이 878.9m

관리주체 논산시, 금산군, 완주군

개요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며 천여 개의 암봉이 6km에 걸쳐 이어지며 수려한 산세를 자랑한다.

자연환경

기암 마천대와 폭포 어우러진 호남의 금강

노령산맥의 북부에 위치하는 대둔산은 충청남도 논산시와 금산군 및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경치가 좋다. 대둔산 부근의 오대산·월성봉·천등산 등과 함께 노령산맥의 북부 산지군을 형성하며 수십 개의 봉우리가 6km에 걸쳐 솟



대둔산 전경



대둔산 소나무와 기암괴석



대둔산 구름다리

아 있다. 대둔산은 북쪽으로 흐르는 유등천, 서쪽으로 흐르는 장선천, 남쪽으로 흐르는 벌곡천 등 금강의 여러 지류에 의하여 화강암반이 동·남·북 3면에서 오랜 두부침식을 받아 기암괴석을 이루고 있다.

겹겹의 암봉으로 이루어진 이 산은 경치도 빼어나지만 주봉인 마천대와 제2봉인 낙조대의 경관이 빼어나며 다양한 암벽등반 코스가 있어서 산악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남과 북으로 두 얼굴을 지닌 대둔산은 등산로 역시 양쪽 지형이 상반된다. 완주(남) 쪽은 기치창검(旗幟槍劍, 예전 군대에서 쓰던 깃발, 창, 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을 든 암봉들이 석림을 이뤄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대둔산의 명물인 케이블카, 금강구름다리 등이 설치

되어 있다. 반면에 논산(북) 쪽은 협곡을 거느린 깊은 숲을 이뤄 완주 쪽보다 수량이 풍부하고 폭포가 장관을 이룬다. 군지골의 제1폭포와 화랑폭포, 금강폭포는 피서지로는 제일이다.

명칭유래

대둔(大陂)이라는 명칭은 '인적이 드문 벽산 두메산골의 험준하고 큰 산봉우리'를 의미한다.

대둔산의 사계

- 봄 : 기암괴석 사이 봄꽃들의 향연
- 여름 : 깊고 깊은 수락계곡에서 느끼는 무더위 속 한기
- 가을 : 가을 풍악(楓嶽)이라는 금강의 자태
- 겨울 : 대운해를 뚫고 마천대를 휘감아 돌아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겨울바람

사진명소

- 금강구름다리 : 현수교. 올라서서 아래쪽의 까마득한 협곡을 보면 저절로 다리가 후들거리며 짜릿함을 선사. 대둔산의 명물로 꼽힘
- 삼선계단 : 금강구름다리와 더불어 으뜸가는 볼거리인 대둔산 196철탄. 실제 경사도는 50도라지만 체감은 60도 이상 가파르게 느껴지는 철탄. 난간을 꼭 잡고 조심조심 오르다보면 어느새 정상
- 낙조대 : 해발고도 859m에서 바라보는 낙조가 아름다워 낙조대라 명명. 동쪽, 북쪽, 서쪽으로 풍광들이 파

노라마처럼 펼쳐짐

- 태고사 : 대둔산에 위치하고 있는 태고사는 대둔산 최고봉 마천대 다음 제2봉우리 낙조대 아래 동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금산의 고찰

주요등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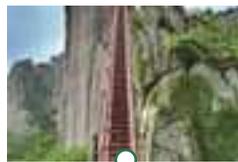
- 1 수락리(버스정류장) → 대둔산 칠성봉
수락리(버스정류장) → 대둔산도립공원 탐방지원센터 → 대둔산 승전기념탑 → 논산 수락리 마애불 → 대둔산도립공원(충남) → 대둔산 마천대 → 대둔산 칠성봉 → 석천암

📷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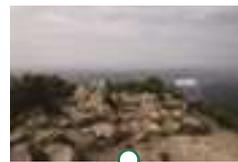
📷 명소



금강구름다리



삼선계단



낙조대



태고사



👁️ 주변관광지

📍 대둔산 케이블카

2대가 서로 교행하는 왕복식 케이블카



상부역사까지 최대 50명이 약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케이블카(1990년 11월 운행 시작).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이는 대둔산의 웅장한 산세와 기암괴석은 병풍처럼 펼쳐져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림

📍 월영산 출렁다리

금강 위에 놓인 아찔한 출렁다리

월영산과 부영산 사이를 잇는 높이 45m, 길이 275m, 폭 1.5m의 무주탑 형태로 설계됨. 특히, 출렁다리 아래로는 금강 상류 물줄기가 흘러 산과 강이 조화된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한눈에 조망



📍 산림문화타운

중부권 최고의 산림힐링단지



숲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금산군의 명소로 남이자연휴양림, 느티골산림욕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목재 문화체험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적벽강 비단물길



탐정호 출렁다리

● 적벽강 비단물길

금강의 또 다른 이름 적벽강. 붉은색 바위벽을 뜻하는 적벽(赤壁). 그 아래 적벽을 적시며 강이 흘러 그 강의 이름을 ‘적벽강’이라 함

30여 미터 높이의 깎아지른 기암절벽 아래 도도히 흐르는 적벽강은 적벽과 마주보는 자리에 물놀이하기에 좋은 자갈밭이 넉넉하게 펼쳐져 있어서 여름철 물놀이 장소로 적격. 산의 남서쪽 수통리 강가의 거대한 기암절

벽인 적벽을 비롯하여 그 위쪽 이름 없는 기암절벽과 함께 양각산의 ‘한바위’ 기암절벽까지 세 개의 기암절벽이 금강과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자아냄

● 적벽강 비밀의 섬 마을

마치 병풍을 둘러친 것처럼 절벽과 숲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아래로 금강이 흐르고 있어 멋진 절경을 만들어냄. 마을 입구 방우리 습지에는 멸종 위기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어서 생태학습을 하기 좋음

● 탐정호 출렁다리

탐정호는 충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호수로, 물이 맑기로 유명. 이곳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길이 600m의 출렁다리가 2020년에 준공. 논산11경 중 하나. 낚시는 물론 윈드서핑과 수상스키 등 수상 레포츠를 즐기기에 적합한 곳



용늪을 감싸는
신비한 안개에 매료되다

대암산 大巖山



양구군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인제군

높 이 1,312.6m

관리주체 양구군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과 인제군에 걸쳐 있는, 고층 습원(高層濕原)으로 잘 알려진 명산이다. 토심이 두꺼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산정부(山頂部)에 거대한 암릉(巖稜)과 암괴(巖塊)가 솟아 있다.

자연환경

고층 습원의 생태보고

대우산(大愚山 1,179m)과 함께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된 지역은 분지·습원 등 지형적으로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기후 조건이 특이하여



대암산 용늪 전경



대암산 전경



대암산 용늪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식물의 종류는 총 59과 123종으로 그중 고층 습원의 특유종이 19종, 미기록종 15종이 알려져 있는 생물의 보고이다. 또한 동식물의 남북한계·동서 구분의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식물생태학·식물지리학·식물분류학적 연구 가치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상, 특이한 지형·지세 및 기후적 특성 등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정상은 통제구역으로 등산은 생태식물원을 들머리로 한 정상 서남쪽 능선 코스만 가능하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자락부터 정상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바위들이 펼쳐져 있는 험준한 산이지만, 정작 정상 가까이 올라가면 신기하게도 엄청난 크기의 자연습

지가 펼쳐져 있다. 이 자연습지는 ‘용늪’이라 불리며 현재 남한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고층 습원이다. 이곳에 자생하는 식물들과 퇴적층을 연구하면 식생의 변화 과정, 자연의 변천사는 물론, 나아가 한반도의 기후변화까지도 알 수 있는 ‘살아 있는 자연사 박물관’ 같은 곳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명칭유래

정상 부근이 커다란 바위 덩어리로 이뤄져 있어 대암산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1759년(영조 35)에 쓰여진 『기묘장적(奇妙帳籍)』에 대암산(大巖山)이라는 기록이 있다.

대암산의 사계

- 봄 : 5월 중순이 지나서야 피는 야생초
- 여름 : 안개에 싸인 사초의 풍경
- 가을 : 산속의 늪에 온 가을 정취
- 겨울 :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겨울왕국

사진명소

- 대암산 용늪 : 대암산 정상 부근 해발 1,260m 위치한 고층 습원으로 순수습원식물 등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 1997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국제습지조약에 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 천연기념물
- 전망대에서 바라본 탐방길 : 대암산 용늪을 걸어서 탐방할 수 있도록 해놓은 아기자기한 길
- 용늪의 탐방길 : 1997년 경남 창원군의 우포늪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랍사르협약 습지로 등재된 대암산의 용늪으로 향하는 데크길

주요등산로

- ① 월학1리·넣강마을(버스정류장) → 약천사
월학1리·넣강마을(버스정류장) → 약천사 → 상촌(버스정류장)
- ② 광치자연휴양림 → 대암산(정상)
광치자연휴양림 → 양구수목원 → 산양증식센터 → 대암산 생태탐방로 출입문(팔랑리 산 10-4) → 버스대기소 → 전망대 → 선점소대 위병소 → 대암산용늪 → 정상

산행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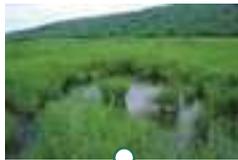
휴대용 랜턴, 라디오, 로프, 구급약 등을 준비하고 호우주의보 발령 시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기상상태를 주시. 빨리 하산하거나 급히 높은 지대로 피신하되, 물살이 거센 계곡은 절대로 건너면 안됨

 사계

 명소



야생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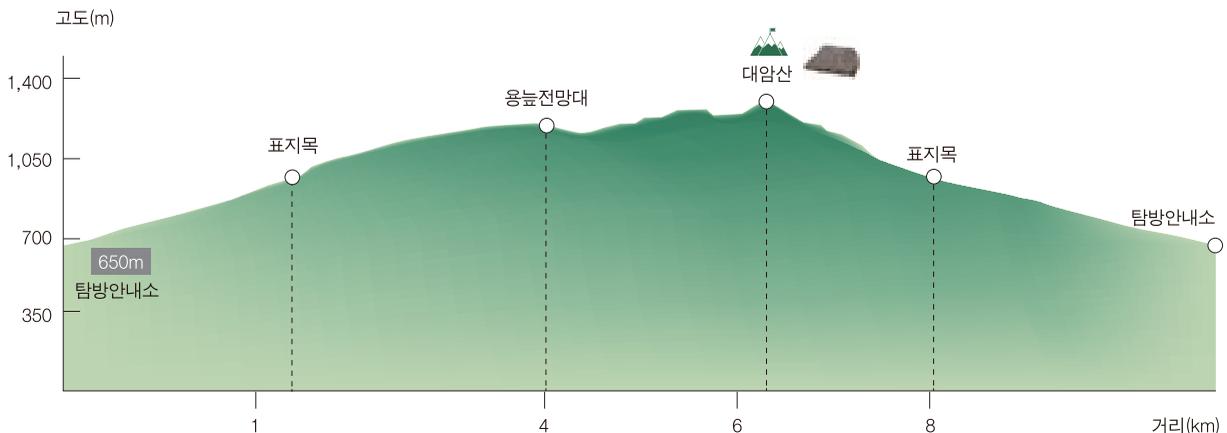
용늪



전망대에서 바라본 탐방길



용늪 탐방길



👁️ 주변관광지

📍 백담사

내설악에 있는 대표적인 사찰



가야동 계곡과 구곡담을 흐르는 맑은 물이 합쳐지는 백담계곡 위에 있음. 신라 제28대 진덕여왕 원년에 자장율사가 건립하여 처음에는 한계사라 불렀으나 그 후, 대청봉에서 절까지 웅덩이가 100개 있다 하여 백담사라 명명됨.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내 외국인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국토정중앙천문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한반도 정중앙 부근의 천문대

우리나라의 중심에서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 국토정중앙 부근에 위치. 주망원경의 80cm 반사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신의 천문 정보와 더불어 여러 학습 체험이 가능한 전시실과 디지털 가상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천체투영실이 있음



📍 양구 백자박물관

양구 백자의 600년 역사를 보여주는 백자박물관



조선백자의 마지막 꽃인 청화 백자를 중심으로 양구 백토가 빚어낸 조선백자의 고고한 자태를 감상할 수 있음. 야외 및 실내 가마체험이 가능하며 백자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인제 내린천



박수근 미술관

● 인제 내린천

양양군에 있는 북룡산에서 발원하여 소계방산에서 흘러나오는 계방천과 현리의 방태천이 합류하여 소양강 상류 합강까지 흐르는 천.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모래밭, 자갈밭 위를 흐르는 시원하고 맑은 물에서는 물놀이와 함께 낚시도 즐길 수 있음

● 양구수목원

강원특별자치도 내 여섯번째 공립 수목원으로 등록되어 천연 종의 나무와 식물을 한곳에서 감상 가능. 2004년 생태 식물원 조성을 시작으로 DMZ야생동물생태관, DMZ야생화분재원, 목재문화체험관 그리고 DMZ무장애나눔길과 생태 탐방로가 한군데 어우러진 자연 중심의 수목원

● 박수근 미술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박수근의 고향인 양구에 2002년 개관한 미술관. 단순히 한 화가의 작품만을 전시해 둔 곳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로 자연과 예술 그리고 사람을 품어냄



용추폭포의 장관에 압도되다

대야산 大耶山



문경시청

위 치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높 이 931m

관리주체 문경시, 괴산군

개요

백두대간을 경계로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산으로 백화산과 회양산을 지나 속리산 사이에 솟은 대야산은 속리산국립공원 내에 포함된다.

자연환경

깎아지른 암봉과 기암괴석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양쪽에 내외 선유동을 두고 있을 정도로 계곡이 특히 유명하다. 대야산 자락에서 흘러내린



대야산 용추폭포



대야산 선유동계곡



대야산 정상

물은 용추계곡을 형성, 문경8경의 하나가 된다. 용추골은 대야산과 이웃한 둔덕산에서 흘러내린 물과 합류하여 넓은 암반이 아름다운 선유동 계곡을 빚어 놓았다. 특히 깎아지른 암봉과 기암괴석이 산세를 더욱 아름답게 한다.

대야산은 아름다운 용추계곡과 선유동계곡의 넓은 반석과 맑은 물이 자랑이다. 특히 문경8경 중 하나인 용추의 모습은 대야산 제일의 명소로 친다. 거대한 화강암반을 뚫고 쏟아지는 폭포 아래에 하트형으로 패인 소(沼)가 매끈한 암반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여러 개의 소를 만들어 놓았다. 또한 달뜨는 밤이면 바위와 계곡에 달빛이 비친다 해서 월영대(月影臺), 숙종 때의 학자인 이재를 기리기 위해 1906년에 세운 선유동 계곡의 정자인 학천정 등이 대

야산을 더욱 기기묘묘한 아름다움으로 가득차게 한다.

명칭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대야산(大野山)으로 표기하면서, 홍수가 날 때 봉우리가 대야만큼 남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야산은 대화산(大花山), 대하산(大河山), 대야산(大治山), 대하산(大河山), 대야산(大耶山), 대신(大山), 선유산(仙遊山), 상대산(上臺山) 등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산이 크다는 뜻 혹은 큰아버지 산이라는 설과 정상이 대야를 엮어놓은 모습과 비슷하다는 설, 산이 꽃봉오리 같다는 뜻 그리고 물이 많다는 뜻의 이름들이다.

대야산의 사계

- 봄 : 기암괴석과 선유동계곡의 조화
- 여름 : 무더위를 잊게 하는 용추폭포
- 가을 : 월영대에 내려앉은 가을 단풍
- 겨울 : 얼음폭포가 된 계곡

사진명소

- 용추폭포 : 비대칭이지만 깊게 파인 소(澗), 암수 두마리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과 함께 용추 양쪽 화강암엔 이들의 용트림이 남긴 용비늘 흔적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전해짐
- 대야산 정상 : 대야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의 계단과 그 뒤로 시원하게 펼쳐지는 전경
- 버섯바위 : 정상을 향하는 길에 펼쳐지는 여러 기암괴석들의 끝에 손으로 밀면 툭 옆으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의 바위

주요등산로

- ① 대야산 주차장 → 대야산(정상)
 대야산 주차장 → 대야산자연휴양림방문자안내센터 → 용추계곡 → 대야산(정상) → 중대봉조망터 → 대문바위 → 용추계곡
- ② 대야산자연휴양림 → 둔덕산(정상) → 대야산(정상)
 대야산자연휴양림 주차장 → 둔덕산 등산안내도 → 둔덕산(정상) → 마귀할미통시바위 → 밀재 → 대야산(정상) → 월영대 → 탐방안내소 → 용소바위 → 용추계곡 → 대야산자연휴양림
- ③ 대야산 주차장 → 마귀할미 통시바위
 대야산 주차장 → 대야산자연휴양림 → 용추계곡 → 월영대 → 마귀할미통시바위 → 복주머니바위 → 젓꼭지바위 → 손녀마귀 통시바위 → 용추계곡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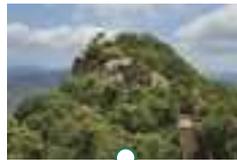
 명소



대야산의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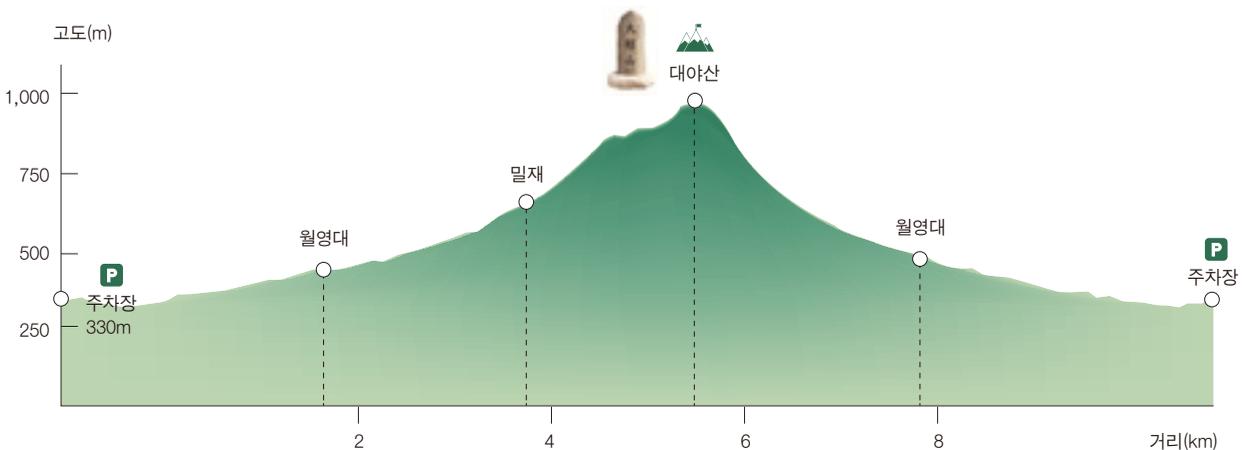
용추폭포



대야산 정상



버섯바위



👁️ 주변관광지

📍 문경생태미로공원

체험과 함께 생태를 배우는 공원



문경생태미로공원은 기존 문경새재 자생식물원 형태로 유지되어 오던 생태 공원을 2020년 5월 도자기, 연인, 돌, 생태를 주제로 한 4개의 미로와 전망대, 산책로, 연못 등으로 구성. 체험학습장이나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힐링 여행지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지

📍 문경온천

경상북도 지정 온천지구

문경온천과 문경종합온천 두 군데에서 칼슘 중탄산탕과 알카리탕 모두를 즐길 수 있음. 칼슘 중탄산 온천수로 온천수에 용해되어있는 탄산 성분 때문에 약간 붉고 끈끈한 느낌이 나지만 만성질환 류마티스나 만성 피부염, 심장병 치료에도 효능이 있다고 함



📍 문경새재오픈세트장



한국방송공사가 2000년 특별기획 대하드라마 제작을 위해 설치한 오픈세트장

문경시와 KBS가 문경새재 제1관문 뒤 용사골에 고려시대 사극촬영장을 조성하여 <태조왕건>, <제국의 아침>, <무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대조영> 등을 촬영한 이후, 2008년 문경시에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새롭게 단장한 세트장

함께 가 볼 만한 곳



경천호



고모산성

● 경천호

낙동강 지류인 금천을 막아서 만든 댐으로 높이 63.5m, 제방길이 368m, 최대 수심 57m를 가진 경상북도에서 2번째로 큰 저수지. 화사한 봄꽃부터 시원한 수상레포츠, 절경을 이루는 단풍, 행복한 빙어낚시까지 다채로운 체험 가능

● 고모산성

우뚝 선 산허리와 지세를 활용한 천연요새. 먼 옛날 삼국시대 병사들의 자취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군사 요충지. 과거길에 오른 선비들의 소망이 담긴 영남대로 옛길.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아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임

● 불정자연휴양림

불정동 마을 안쪽 해발 487m의 산 기슭에 있으며, 굴곡이 많고 적당한 경사지에 조성. 산책로 주변에 울창한 활엽수림이 우거져 삼림욕 효과가 뛰어나. 깨끗한 물이 휴양림을 가로질러 흐르고 물줄기를 따라 야영장과 물놀이장이 곳곳에 있고 정상 전망대에서 주변의 예천군 용궁까지 볼 수 있음



기묘한 형상의 괴석들이
절묘한 산세를 뽐내다

덕숭산

(수덕산) 德崇山



예산군청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높 이 495.2m

관리주체 예산군

개요

호서(湖西)의 금강산(金剛山)이라고도 불리는 산으로, 기암괴석들이 많아 절묘한 산세를 뽐내며 1973년 3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수덕사를 품은 호서의 금강산

덕숭산은 호서의 금강산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관과 산세, 곳곳에 유명한 암자들이 있어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천년고찰 수덕사와 만공탑, 이응로 유적지 등 많은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으며 주변에 덕산온



덕숭산 전경



덕숭산 능선



덕숭산 수덕사

천이 있어 배낭 하나 메고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가족 나들이 코스로도 손색 없는 산이다.

기암괴석이 풍부하여 바위들이 사람의 두개골이나 노적加里, 사나운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절묘한 형상이다. 절경으로는 원효봉과 석문봉, 덕숭산과 해태바위 등이 있다. 또한 수덕사를 비롯하여 정혜사, 만공암, 여승당, 보덕사 등 많은 문화재가 있으며 충의사와 덕산온천 등 명소가 있다. 작고 아담하지만 다부진 금북정맥의 등줄기다. 그렇지만 고개는 낮아 내포지방과 서해바닷가 사람들의 내왕로가 되어 왔다.

명칭유래

덕숭산은 수덕산(修德山)이라고도 부르는데, 덕숭산의 지명유래는 수덕산의 지명유래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수덕산 지명은 “옛날 이 지방 현인들이 모여 수양을 하다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데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며 『수덕 도령과 덕숭 남자의 전설』에서 유래하였다고도 한다.

덕숭산의 사계

- 봄 : 벚꽃 휘날리는 수덕사의 고즈넉함
- 여름 : 수덕사에 핀 배롱나무 꽃의 아름다움
- 가을 : 곱게 물든 나무의 배경이 되어 주는 암석
- 겨울 : 고목들과 조화를 이룬 눈 덮인 수덕사 대웅전

사진명소

- 수덕사 :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중 하나인 수덕사 대웅전
- 만공탑 : 한국 불교계의 고승 만공(滿空, 1871~1946)을 기리기 위하여 1947년 제자 중은(重隱)이 세운 현대적 승탑이다. 수덕사 경내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 거북처럼 생긴 큰 바위 : 산 아래 펼쳐지는 전경을 조망하기 좋은 포인트

주요등산로

- ① 수덕사 주차장 → 덕숭산(정상)
수덕사 주차장 → 수덕사 매표소 → 수덕사 일주문 → 수덕사 금강문 → 예산 수덕사 칠층석탑 → 수덕사 사면석불 → 수덕사 만공탑 → 전월사 → 덕숭산(정상)
- ② 수덕사 주차장 → 전월사
수덕사 주차장 → 수덕사 금강문 → 수덕사 근역성보관(성보박물관) →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견성암 → 수덕사만공탑 → 덕숭산(정상) → 전월사
- ③ 용봉초등학교 → 용봉산(정상) → 덕숭산(정상)
용봉초등학교 → 대한불교석불사 → 홍성상하리 석조 미륵불 입상 → 용봉산(정상) → 둔리저수지 → 덕숭산(정상)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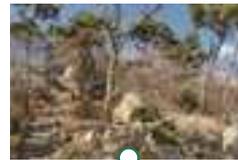
 명소



덕숭산의 가을



수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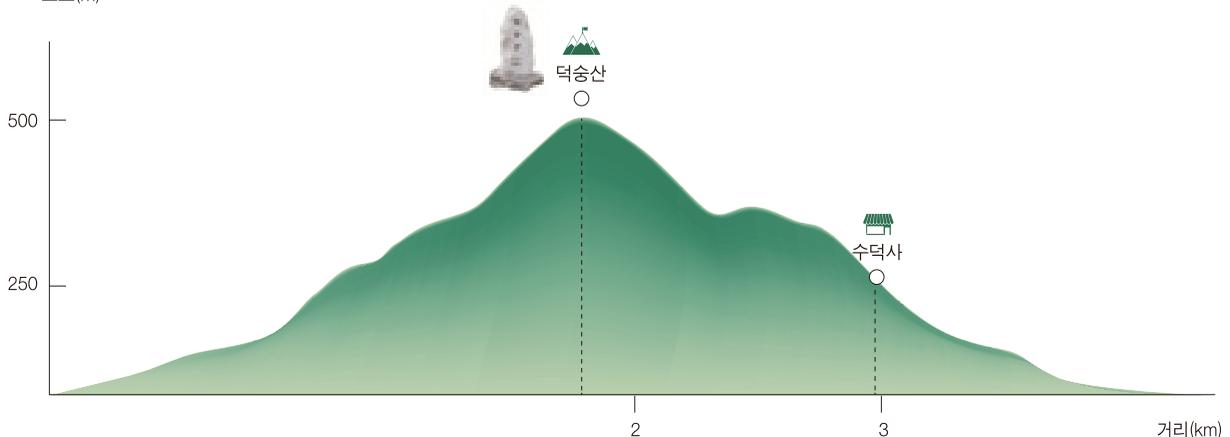


만공탑



거북처럼 생긴 큰 바위

고도(m)



👁️ 주변관광지

📍 덕산온천

기적의 치료제라는 게르마늄 성분 포함



덕산온천은 1917년 일본인 안정(安井)에 의하여 처음으로 탕을 이용한 온천이 개장되었으며 천연 중탄산나트륨 온천으로 기적의 치료제라는 게르마늄 성분이 포함되어 근육통, 관절염, 신경통, 혈관순환촉진, 피하지방 제거와 세포재생을 촉진시켜 주는 효능이 있음

📍 추사고택

추사의 지혜와 고고함이 배어 있는 추사고택

6칸 대청과 2칸의 안방과 건넌방, 부엌과 안대문, 협문, 광 등을 갖춘 ‘ㅁ’자형 가옥. 중부지방과 영남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대갓집형 구조임. 기둥마다의 주련과 추사의 작품들과 손길을 느낄 수 있음



📍 예당호

전국 제일의 저수지와 인접한 친환경적 관광지



예산군 웅봉면 등촌리, 후사리 일원의 15만여 m² 규모에 1986년부터 조성하여 주차장, 야영장, 잔디광장, 산책로 등 부대시설 다양. 전국 제일의 저수지인 예당저수지와 접해있는 친환경적인 관광지

함께 가 볼 만한 곳



임존성



예산황새공원

● 임존성

해발 483.9m의 봉수산(鳳首山)의 정상부와 그 동쪽으로 900m 떨어진 봉우리를 에워싼 테피식 석축산성. 둘레 약 2.5km로 백제가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여 쌓은 것으로 짐작됨. 백제 때 수도 경비의 외곽기지 역할을 한 성으로 성내는 평평하게 경사를 이루고 또한 남벽 내에서는 백제시대 토기편과 기와편이 간혹 눈에 띄고 있으며 계단식으로 된 건물지도 볼 수 있음. 서천의 건지산

성과 함께 백제 부흥군의 거점이었다는 사실이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음

● 예산황새공원

자연환경 훼손으로 절멸되었던 천연기념물 황새의 성공적인 복원과 한반도 야생복귀를 위해 2009년 문화재청의 황새마을조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 2014년 조성. 황새문화관 내 상주하고 있는 생태해설사의 해설을 들을 수 있음

● 국립예산치유의숲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며 원시림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관모산 일대를 기반으로, 숲의 치유적 가치 극대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



경승지 중 가장 아름다운
구천동 33경을 이루다

덕유산

德裕山



무주군청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장수군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

높 이 1,614.2m

관리주체 무주군청, 국립공원공단(덕유산국립공원)

개요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소백산맥이 서남쪽으로 뻗으면서 소백산, 속리산 등을 솟게 한 후 다시 지리산으로 가는 도중 그 중심부에 빚어 놓은 또 하나의 명산이다.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위치한 덕유산은 1975년 열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덕이 많은 너그러운 모산

행정구역상으로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 경남 거창군과 함양군 등 영호남을 아우르는 4개 군에 걸쳐 있으며 총



덕유산 전경



눈 덮인 덕유산



덕유산 가을

229.43km²의 면적이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덕유산국립공원은 동쪽의 가야산, 서쪽의 내장산, 남쪽의 지리산, 북쪽의 계룡산과 속리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덕유산은 남한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으로 아고산대 생태계의 보존가치 또한 높으며 북쪽으로 흘러가는 금강과 동쪽으로 흐르는 낙동강의 수원지이기도 하다.

덕유산에는 8개의 계곡이 있는데 그 중 북쪽으로 무주와 무풍 사이를 흘러 금강의 지류인 남대천으로 빠져드는 설천까지의 70리 계곡이 바로 유명한 무주구천동 계곡이다. 폭포와 담소, 기암절벽 여울들이 옥같이 맑은 계류와 함께 절경을 빚어 소위 무이구곡(武夷九曲)을 포함한 구천동

33경을 이루고 칠연폭포와 용추폭포가 있는 안성계곡을 비롯해서 토옥동 계곡과 송계사 계곡, 산수리 계곡 등이 저마다 절경을 뽐내고 있다. 덕유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경승지는 무주구천동이다. 길이 28km에 이르는 구간에는 기암괴석·암반이나 급류·폭포·급연(急湍)·벽담(碧潭) 및 울창한 수림이 조화된 33경(景)이 있다.

명칭유래

덕유산은 덕이 많고 너그러운 모산(母山)이라 하여 덕유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덕유산의 사계

- 봄 : 진달래, 철쭉, 원추리가 어우러진 향적봉
- 여름 : 물과 바위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계곡
- 가을 : 백련사 만산의 홍엽
- 겨울 :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덕유산 일출과 설경 운해

사진명소

- 제1경 나제통문(羅濟通門) : 구천동 33경 중 제1경의 명소로서 2019년부터 환경부 인증 국가지질공원 지질 명소로 보호
- 제32경 백련사(白蓮寺) : 신라 흥덕왕 5년(830년) 무염국사가 창건한 고찰로 덕유산 정상을 오르는 탐방객들의 휴식처
- 제33경 향적봉(香積峰) : 백련사에서 2.5km 지점에 있는 덕유산의 정상으로, 등산객을 위한 산장과 우물이 있고 주변에는 고산식물인 주목이 군락을 이룸

주요등산로

① 구천동 관광안내소 → 백련사

구천동 관광안내소 → 식당가 → 덕유산국립공원 구천동탐방지원센터 → 월하탄계곡 → 호탄암 → 안심대 → 신양담 → 명경담 → 백련담 → 백련사

② 백련사 → 덕유산(정상)

백련사 → 오수자굴 → 제이덕유산(중봉) → 향적봉대피소 → 덕유산 향적봉 → 덕유산(정상) → 덕유산 설천봉 상제루쉼터(팔각정) → 덕유산 설천봉 → 덕유산 곤도라 정상승차장

③ 이산책관박물관 → 할미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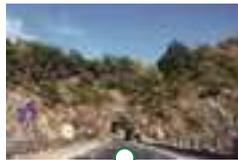
이산책관박물관 → 육십령 → 할미봉 → 육십령휴게소

📷 사계

📷 명소



덕유산의 봉



나제통문



백련사



향적봉

고도(m)





안개에 싸인 골짜기 사이
기암이 환상적인 자태를 드러낸다

덕항산

德項山



삼척시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신기면, 태백시 하사미동

높 이 1,072.9m

관리주체 삼척시, 태백시

개요

태백산맥 줄기의 산으로 백두대간의 분수령을 이룬다. 동양 최대 동굴인 환선굴이 있으며 이 덕항산 일대 대이리 동굴지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수려한 산세, 특이한 절경

덕항산의 남쪽 능선은 구부시령과 북쪽 능선은 태백시 지각산으로 이어진다. 덕항산 정상부 능선을 기준으로 동쪽 사면은 매우 경사가 급해 계곡은 협곡을 이루며, 서쪽 사면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덕항산에는 삼척이 자랑하는



덕항산 계곡



덕항산 전경



덕항산 모노레일

‘환선굴’과 ‘대금굴’이 있으며, 미개방 동굴도 많다. 낙엽송 숲길을 따라 산을 오르다 보면 촛대바위, 설패바위, 미륵봉 등 독특한 멋을 자랑하는 봉우리들을 만날 수 있다. 덕항산과 덕항산 아래의 대이리 동굴지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한 곳이다.

경동지괴(傾動地塊)의 표본을 이루는 곳으로 동쪽은 깎아지른 석회암 사면, 서쪽은 1,000m 전후의 고위평탄면을 이룬다. 석회암 사면에는 환선굴, 바람굴, 관음굴 같은 동굴들과 촛대봉, 사다리바위, 나한봉, 수리봉, 금강봉, 미륵봉 같은 기암들이 즐비하다. 골짜기는 거의 언제나 안개에 차 있고 그 사이로 언뜻언뜻 험산과 기암이 드러나는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명칭유래

옛날 먹거리가 부족해 한 평의 경작지가 아쉬웠던 때에 삼척 지역의 대이리·대기리 주민들은 “가파른 산을 넘으면 화전을 일구기 좋은 평평한 땅이 있어 덕을 볼 수 있다.”고 하여 덕메기산이라고 불렀으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덕항산(德項山)이라고 한다.

덕항산의 사계

- 봄 :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눈 속에 핀 봄꽃
- 여름 : 환선굴에서 만나는 폭포
- 가을 : 단풍길 따라 펼쳐지는 환선봉의 화려한 조망
- 겨울 : 제2전망대에서 보는 멋진 설경

사진명소

- 환선굴 : 규모가 크고 웅대한 것으로 유명. 총연장 6.5km, 높이 30m, 폭 100m로 동양최대를 자랑
- 제2전망대 : 덕항산의 경관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 선녀폭포 : 환선굴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줄기로 이루어지는 폭포로 시원한 풍경이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

주요등산로

- ① 예수원(버스정류장) → 덕항산(정상)
 예수원(버스정류장) → 덕항산 등산로입구 → 구부시령 → 덕항산(정상)
- ② 삼척 대이리 굴피집 → 환선봉
 삼척 대이리 굴피집 → 등산로입구 → 삼척 모노레일 → 환선굴 → 환선봉

산행 tip!

급경사 등 위험한 곳에서는 보조 자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내려갈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발아래를 잘 살펴 안전하게 다녀야 함

📷 사계

📍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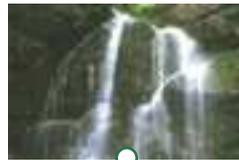
단풍 든 환선봉



환선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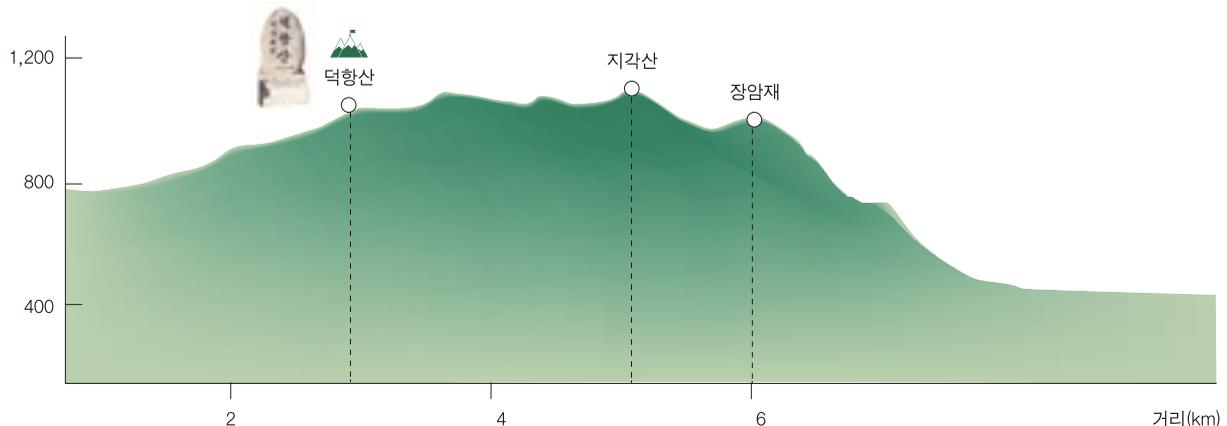


제2전망대



선녀폭포

고도(m)



 주변관광지

 해양레일바이크

친환경으로 설계된 해안선 레일바이크



가족과 친구와 연인끼리 색다른 체험과 즐거움으로 삼척의 추억을 듬뿍 가져갈 베스트 관광코스.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5.4km복선으로 운행되며 루미나리에와 레이저 쇼가 연출되는 환상의 터널 체험 가능

 대금굴

5억 년 땅속 금강물이 빚어낸 신비의 황금동굴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동굴내부 140m 지점까지 들어가 관람할 수 있는 곳



 삼척해상케이블카



천혜의 자연절경과 청정해변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

길이 874m, 고저차(역사간 높이 차이) 21m의 중간 철타이 없는 구간을 운행하는 해상케이블카

함께 가 볼 만한 곳



수로부인현화공원



삼척장미공원

● **수로부인현화공원**

수로부인 설화는 실직국의 중심인 동해안을 무대로 하고 있으며 삼척시 증산해변에 ‘해가사의 터’와 ‘임해정’이 복원되어 관리됨. 원덕읍 임원리 남화산은 현화가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현화가’와 ‘해가사’에 나오는 수로부인 이야기를 천연석재를 이용하여 현대적 조각품으로 재현함

● **삼척장미공원**

총 218종 13만 그루 1천만 송이의 장미가 피어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수량을 가진 장미공원. 야간에는 장미꽃 군락이 조명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함

● **이사부길**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까지 푸른동해를 따라 약 4.6 km 남짓 펼쳐지는 동해안 으뜸 해안절경의 해안도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됨

● **삼척활기치유의숲**

자연휴양림과 더불어 산림휴양 치유마을, 유아숲 체험원, 공동체 치유정원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국내 최고의 복합 휴양 치유시설



암릉을 오르며
깨달음과 즐거움을 얻다

도락산

道樂山



단양군청

위 치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대강면

높 이 965.3m

관리주체 단양군, 국립공원공단(월악산국립공원)

개요

소백산과 월악산의 중간쯤에 형성된 바위산으로 현재 일부가 월악산국립공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상은 단양군 단성면과 대강면의 경계이다.

자연환경

단단한 바위틈에 솟은 청송이 그리는 산수화

소백산(小白山 1,440m)과 월악산(月岳山 1,093m) 중간에 있는 바위산으로 일부가 월악산국립공원 안에 들어 있다. 또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분기점에 있으며 주로 화강암과 편마암이 분포한다. 북에는 사인암(舍人岩)이, 서에는



도락산 암릉



도락산 전경



도락산 암벽의 소나무

상·중·하선암(下仙岩) 등 5개의 단양팔경을 안고 있어 경관이 빼어나며 궁터골에는 명소인 사모폭포가 있다.

능선에는 신선봉·채운봉·검봉·형봉 등의 암봉이 성벽처럼 둘러 있다. 상금교를 건너면 상선암이 있고 비탈진 능선을 거쳐 작은 선바위와 큰 선바위를 만난다. 20m의 너럭바위에 소나무가 우뚝한 범바위를 지나 10m쯤 바위를 오르는 채운봉에는 철사다리·쇠줄 등이 있고 형봉은 갈림길이다.

도락산에서 전망이 제일인 신선봉에는 거대한 암반에 노송들이 솟아 있고 눈앞에는 월악산이 버티고 있다. 황정산(黃庭山 959m)·수리봉(守理峰 1,019m)·작성산(鵲城山, 848m)·문수봉(文

殊峰 1,162m)·용두산(龍頭山 994m) 등의 연봉이 보인다. 암릉·계곡·굴길의 풍치가 뛰어난 정상까지 암릉길 바위틈에 솟은 청송은 암벽과 함께 한폭의 산수화를 그린다.

명칭유래

우암 송시열 선생이 “깨달음을 얻는데는 나름대로 길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산 이름을 지었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도락산의 사계

- 봄 : 봄 산행 운치 더하는 계곡의 물소리
- 여름 : 월악의 연봉이 펼쳐지며 부는 시원한 바람
- 가을 : 아기자기한 암릉과 수려한 경관에 더해진 단풍
- 겨울 : 암릉 틈에 솟은 청송에 내려앉은 겨울 풍경

사진명소

- 신선봉 : 넓직한 바위로 이루어진 도락산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곳
- 채운봉 : 멀리 보이는 능선이 아름답게 조망되는 곳으로 잠시 쉬면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곳
- 검봉 : 고사목 한그루가 멋들어지게 서 있는 왼쪽의 계봉으로 오르는 길과 멀리 내궁기에서 올라오는 길이 모두 조망되는 곳

주요등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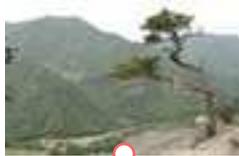
- ① 가산2리(버스정류장) → 도락산(정상)
 가산2리(버스정류장) → 월악산국립공원 단양
 탐방안내소 → 월악산국립공원 단양분소 →
 작은선바위 → 검봉 → 채운봉 → 신선봉 →
 도락산(정상) → 제봉 → 상선암봉 → 상선암

산행 tip!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 등산을 하면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쉬는 동안에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하며, 알코올이나 고단백 음식 및 소금물이나 염분제를 먹는 것은 피해야 함

📷 사계

📍 명소



도락산의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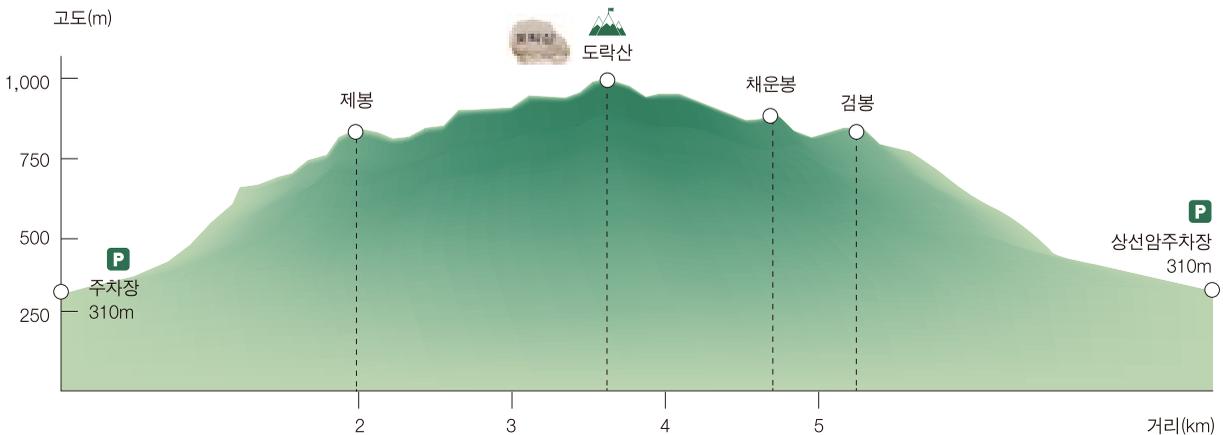
신선봉



채운봉



검봉



👁️ 주변관광지

📍 다리안 관광지

소백산에서 흘러 내려온 계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광지

각종 편의시설들이 조성되어 있어 등산과 휴양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에 손색이 없는 곳. 입구에서부터 세심한 정성이 엿보이는 아기자기한 풍경으로 방문객을 맞음



📍 도담삼봉

퇴계 이항 선생의 시심(詩心)을 흔들어 놓은 명승지



남한강의 맑고 푸른 물이 유유히 흐르는 그 한가운데 솟은 세개의 봉우리.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이 가운데 봉우리에 정자를 짓고 자주 찾아와 풍월을 읊기도함

📍 만천하스카이워크

수양개 선사유적지

적성면 애곡리 일대에 자리잡고 있으며 만학천봉전망대와 짙와이어 등 레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음
남한강 절벽 위에서 80~90m 수면 아래를 내려보며 하늘길을 걷는 스릴을 맛보고 시내 전경과 멀리 소백산 연화봉도 볼 수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드라마 세트장



단양 고수동굴

● 온달산성

단양읍 영춘면 하리에 소재. 남한에선 흔치 않은 고구려 시대 성곽. 길이 972m, 높이 3m의 반월형 석성으로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음. 성 아래로는 온달 동굴과 더불어 온달관광지가 조성되어 있음

● 드라마 세트장

드라마 세트장으로 드라마 촬영 당시 사용되었던 의상과 각종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드라마 속 등장인물을 모형으로 제작하여 함께 사진 촬영도 가능하도록 조성되어 있음. 세트장 내 온달동굴, 테마공원, 온달산성, 온달관 등 다양한 볼거리는 찾는 이들의 즐거움을 더해 줌

● 단양 고수동굴

대부분이 석회석 지질로 이루어진 단양의 지하 깊숙한 곳의 석회동굴 중 하나로 천연기념물로 지정. 고수동굴은 길이 1,700m에 이르는 자연동굴로 동양에서도 아름다운 동굴로 손꼽힘



도심 속에서
서울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다

도봉산 道峰山



도봉구청

-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양주시 장흥면
- 높 이 740.2m
-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 도봉구,
의정부시, 양주시

개요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과 양주시 장흥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북한산 지역과 더불어 연간 500만 명의 탐방객이 찾는 공원. 단위면적당 가장 많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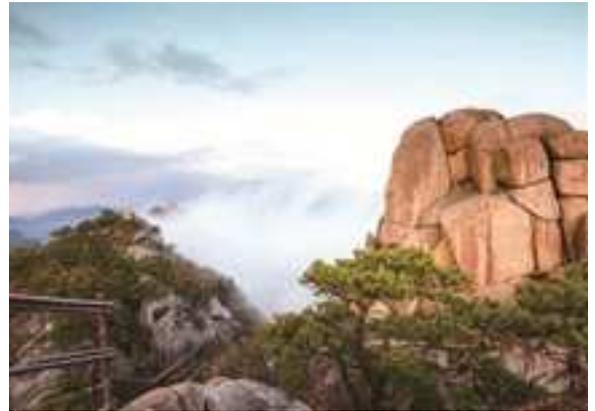
자연환경

빛나는 화강암과 어우러진 한 폭의 산수화

도봉산은 백두대간의 분수령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한북 정맥의 연봉을 따라 운악산·불곡산을 거쳐 남서쪽으로 내려오다가 서울 동북쪽에서 우뚝 솟아 우이령을 경계로



도봉산 전경



도봉산 정상



도봉산의 까마귀

북한산에서 이어진다. 최고봉인 자운봉(紫雲峰)을 비롯하여 남쪽으로 만장봉(萬丈峰)·선인봉(仙人峰)이 있고, 서쪽으로 오봉(五峰)이 있는데, 암봉이 겹출하고 문사동계곡·원도봉계곡·무수골·오봉계곡 등 수려한 계곡을 품고 있어 금강산을 빚어 놓은 것 같아 서울의 금강이라 불렸다.

뽕족뽕족하게 솟은 산봉우리의 아름다움이 빼어난 산이다. “푸른 하늘을 깎아 세운 만 길 봉우리(青天削出萬丈峰)”라 읊었던 옛 시인의 표현만큼이나 선인봉, 자운봉, 만장봉, 신선대, 오봉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대한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 맑고 푸른 하늘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러한 봉우리들 사이로 수십 개의 맑고 깨끗한 계곡이 형성되어 산과 물의 아름다운 조화를 빚어내고 있다.

명칭유래

도봉산의 명칭은 큰 바윗길이 산 전체를 이루고 있어 ‘도봉(道峰)’이라 명명하였다는 설과 천축사·회룡사 등의 사찰에서 조선 왕조 창업의 길을 닦았기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조선 왕조의 흥업은 도봉산의 정기 때문이라는 전설이 있다.

도봉산의 사계

- 봄 : 정상 신선대에 울긋불긋 핀 겹벚꽃
- 여름 : 사방으로 뻗은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수풀
- 가을 : 다락능선에서 보는 선인봉·만장봉·자운봉이 단풍과 어우러진 모습
- 겨울 : 포대능선의 기암괴석과 암릉군이 드러내는 절경

사진명소

- 원통사 : 좌우에 수락산과 삼각산을 거느리고 한강을 바라보는 도봉산의 최고 길지에 자리잡은 수행기도처
- 자운봉 :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모습으로 자연이 만들어낸 조각 작품 같은 느낌을 주는 봉우리
- 선인봉 : 도봉산의 봉우리로 풍화와 침식에 의한 암벽의 틈이 많아 암벽 등반 전문가나 동호회원들이 즐겨 찾음

주요등산로

- ① 도봉산 도봉탐방지원센터 → 칼바위
 도봉산 도봉탐방지원센터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 생태탐방원 → 금강암 → 도봉산 마당바위 → 도봉산(정상) → 도봉산 신선대 조망 → 칼바위
- ② 오봉탐방지원센터 → 도봉산 오봉
 오봉탐방지원센터 → 도봉산 여성봉 → 도봉산 오봉
- ③ 송추주차장 → 도봉산(정상)
 송추주차장 → 북한산 송추계곡 → 송추폭포 → 도봉산 오봉 → 칼바위 → 도봉산 신선대 조망 → 도봉산 신선대 → 도봉산(정상) → 산불감시초소(포대능선) → 송추 원각사 → 북한산 둘레길 14구간 산너미길 입구

 사계

 명소



도봉산의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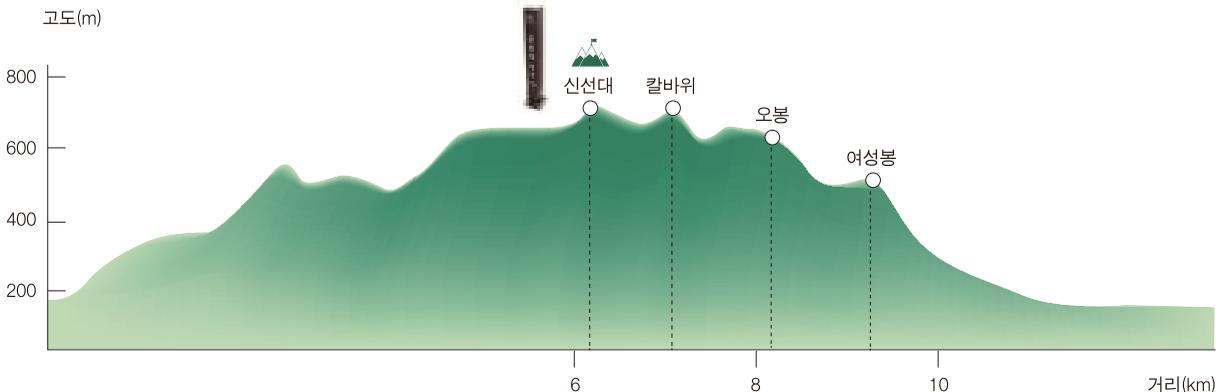
원통사



자운봉



선인봉



👁️ 주변관광지

📍 도봉서원과 각석군

조광조와 송시열의 위패를 모신 서원



양주목사 남언경이 정암 조광조(1482~1519)가 자주 찾던 도봉산 자락에 사당 등을 세워 조광조를 모시고 기린 데서 출발. 1696년(숙종 22)부터 우암 송시열(1607~1689)의 위패까지 함께 모시던 서원. 매년 음력 3월10일(춘향제)과 9월10일(추향제)에 전국 유림 및 지역유지가 모여 전통향사를 지내고 있음

📍 돌리뮤지엄

대한민국 최초 단일 캐릭터 박물관

출판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매체로 선보였던 '아기공룡 둘리'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둘리 친구들과 함께 만화 속 주인공이 되어 상상의 세계를 경험해 보는 체험형 캐릭터 박물관임



📍 김수영문학관

김수영 시인을 기림과 아울러 600년 동안 마르지 않고 흐르는 원당샘 공원



김수영 시인의 시작(詩作) 흔적을 볼 수 있는 곳. 연산군과 정의공주 묘, 그리고 도봉산으로 이어지는 북한산 둘레길과 더불어 자연과 문학이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하여 개관

함께 가 볼 만한 곳



서울 창포원



방학동 은행나무

● 서울 창포원

서울 강북의 끝자락인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에 세계 4대 꽃 중 하나로 꼽히는 붓꽃 가득한 특수식물원. 붓꽃원, 약용식물원, 습지원 등 12개 테마 조성

● 방학동 은행나무

서울특별시 지정보호수 제1호(1968. 02. 26.) 및 서울특별시 기념물(2013. 03. 28.)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나무의 높이는 24m, 둘레는 9.6m, 수령은 600년으로 서울특별시 최고령 그룹에 속하는 은행나무임

● 도봉역사문화길

1길에서 6길까지 조성된 역사문화길로 길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는 탐방길. 1길 한글역사문화길, 2길 무수골 조선시대 왕족묘길, 3길 초안산 조선시대 내시묘길, 4길 창동역사문화길, 5길 도봉서원 암각글씨길, 6길 분단의 아픔, 평화문화진지길로 구성되어 있음



남해를 굽어보며 우뚝 솟아
빠어난 다도해의 전망을 바라보다

두륜산

頭輪山



해남군청

위 치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북일면·북평면·현산면

높 이 703m

관리주체 해남군

개요

소백산맥의 남단에서 남해를 굽어보며 우뚝 솟아 있으며 8개의 봉우리로 능선을 이룬다. 1979년 12월 두륜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생태가 잘 보존된 살아있는 식생교과서

두륜산은 한반도 최남단의 해남반도 중앙에 솟아 있다. 동쪽 사면은 경사가 급하고 서쪽 사면은 비교적 완만한 산세를 이룬다. 따뜻하고 습한 바람에 실려 올라온 난대성(暖帶性) 상록활엽수(常綠闊葉樹)가 숲을 이루어 식물분포학



두륜산 전경



두륜산 정상



두륜산 계곡

상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으로 최남단의 지형적 특성을 두루 갖춘 산이다. 식생이 잘 보존되어 있어 식생경관이 뛰어나고, 도솔봉·혈망봉·고계봉·가련봉 등 8개의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절경을 이루며, 수많은 문화재를 간직한 대흥사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경승지이다.

두륜산은 한반도 남쪽 끝 소백산맥의 남단에 위치,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가련봉(迦蓮峰 703m)을 주봉으로 하여 두륜봉(頭輪峰 630m)·고계봉(高髻峰 638m)·노승봉(능허대 685m)·도솔봉(兜率峰 672m)·혈망봉(穴望峰 379m)·향로봉(香爐峰 469m)·연화봉(蓮花峰, 613m) 등 8개의 높고 낮은 능선이 억새밭을 따라 연봉으로 이루어져 남해를 굽어보며 우뚝

솟아 있어 다도해의 전망이 빼어나다.

명칭유래

두륜의 뜻은 산 모양이 둥글게 사방으로 둘러서 솟은 '둥근 머리산', 또는 날카로운 산정을 이루지 못하고 둥글넓적한 모습을 하고 있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또한 대둔사지에 의하면, 두륜산은 백두산의 '두'자와 중국 곤륜산의 '륜'을 딴 이름이라고도 한다.

두륜산의 사계

- 봄 : 오심재에서 바라보는 노승봉에 핀 진달래
- 여름 : 일지암에서 맛보는 유천약수
- 가을 : 가련봉과 두륜봉 사이 헬기장 부근이 역새천국
- 겨울 : 동백꽃을 즐길 수 있는 동백나무 숲

사진명소

- 두륜산 구름다리 :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연의 돌다리로 대흥8경으로도 유명
- 노승봉 표지석 : 두륜산의 대표 3봉우리 중 하나인 이곳은 사람들이 단체로 기념 사진을 찍고 가는 명소
- 대흥사 : 해남의 대표적인 사찰. 1,500여 년 동안 중흥한 역사 깊은 절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사찰 중 하나

주요등산로

- 1 두륜산 케이블카 탑승소 → 두륜봉
 두륜산 케이블카 탑승소 → 두륜산 대흥사 계곡 → 대흥사 → 북미륵암 → 노승봉 → 가련봉 → 두륜봉 → 진불암 → 대흥사 정보박물관
- 2 땅끝천년숲옛길 2코스(미황사역사길) → 두륜봉
 땅끝천년숲옛길 2코스(미황사역사길) → 두륜산 대흥사 계곡 → 연화봉 정상 → 두륜산 만일재 → 두륜봉
- 3 마전밭 주차장 → 두륜산 고계봉 전망대
 마전밭 주차장 → 진불암 → 북미륵암 → 두륜산 고계봉 전망대
- 4 오소재 약수터 → 노승봉
 오소재 약수터 → 오심재 → 노승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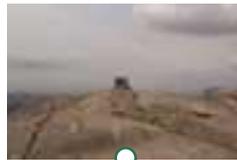
-  사계
-  명소



봄에 핀 두륜산 진달래



두륜산 구름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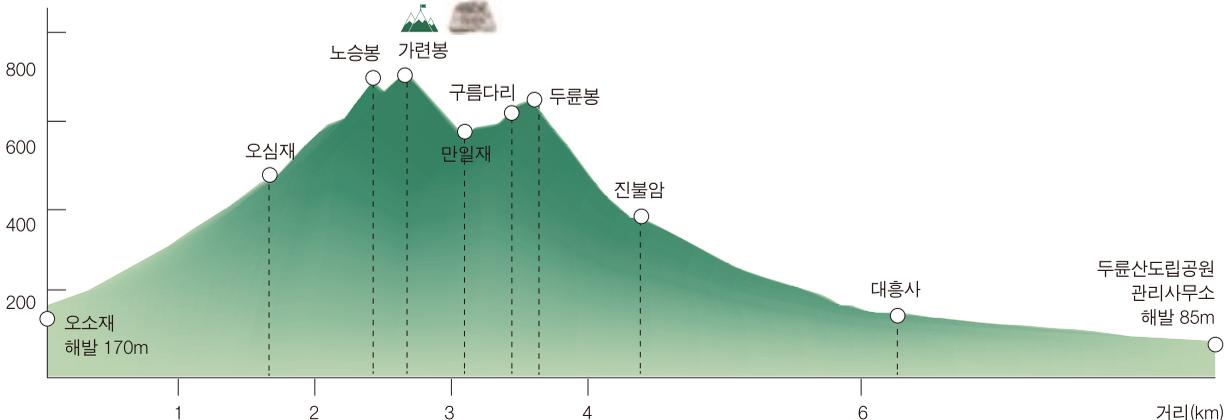


노승봉 표지석



대흥사

고도(m)



👁️ 주변관광지

📍 두륜산 케이블카

국내 최장거리를 자랑



서남해 다도해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는 곳으로 맑은날은 제주도 한라산까지 보이는 자연 경관을 자랑함. 두륜산의 수려한 사계와 천연고목 등은 사계절 아름다운 두륜산의 자연과 볼거리를 제공함

📍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송지면 땅끝마을에 개관. 실물 표본 만으로 전시된 국내 유일의 최대 규모의 해양자연사박물관 전시관과 영상관, 체험관, 수장고등을 갖춘 박물관. 4가지의 테마로 구성된 전시관에는 세계적 인 화석류와 어류, 상어류와 갑각류, 육지생물 표본과, 남극생물 표본 등 1,500여 종에 5만 6,000여 점의 전시물이 전시



📍 해남공룡박물관

세계 최초로 익룡, 공룡, 새 발자국이 동일 지층에서 발견 된 지역



화석지 내 박물관 전시실에 알로사우로스 진품화석 등 447점, 화석지 야외에 35점의 공룡조형물, 야외전시관에 조각류 공룡발자국 화석 263점, 물갈퀴새발자국 1,000여 점, 익룡발자국 443점, 별마 크 달린 대형초식공룡 발자국 110점 등이 전시되어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고천암 갈대밭과 철새도래지



화원면 관광단지-매월리 해변

● 고천암 갈대밭과 철새도래지

고천암 철새 군무와 우리나라 최대 갈대 군락지가 있는 철새들과 가장오리의 천국.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은 갈대 탐방로와 조류관찰센터 조류탐조대 에코센터 에코트레킹 쉽터가 조성됨

● 화원면 관광단지-매월리 해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해남 구 목포구 등대가 위치한 곳은 목포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고 있어 배들이 오고가는 저녁 무렵 서해바다의 환상적인 일몰을 연출. 화원매개~월내간 드라이브코스도 각광받고 있으며 굽이굽이 서해바다의 해안 절경

● 녹우당과 비자나무숲

해남8경 중 제5경으로 고산 윤선도가 살았던 집. 윤선도의 4대 조부인 효정^(1476~1543)이 연동에 터를 정하면서 지은 15세기 중엽의 건물. 집터 뒤로는 덕음산을 두고, 앞에는 벼루봉과 그 오른쪽에 필봉이 자리잡고 있는 명당



장엄한 백두대간과
무릉계곡이 조화를 이룬다

두타산 頭陀山



삼척시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화동, 삼척시 미로면·하장면

높 이 1,357m

관리주체 삼척시, 동해시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화동과 삼척시 미로면·하장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부처가 누워 있는 형상이며 박달령을 사이에 두고 청옥산과 마주하고 있다.

자연환경

바위산이 만든 무릉계곡

두타산은 태백산맥의 동단부에 위치하며 동서간에 분수령을 이룬다. 동해시의 북서쪽으로는 청옥산(靑玉山 1,404m)·중봉산(中峯山 1,259m) 등을 연결하는 험준한 준령을 이루며 동쪽으로는 동해를 굽어보고 있다. 태백산맥이 한 줄



두타산 전경



두타산 무릉반석



두타산 쌍폭포

기는 북쪽으로 두타산성 줄기를 이루고, 또한 지맥은 동쪽으로 뻗어 신희산(五十井山)에서 배수고개로 이어진다.

지질은 대부분 화강암이고 석회석 및 사암이 주변에 분포한다. 두타산과 청옥산은 거의 연결된 쌍봉을 이루나 형상은 매우 대조적이다. 두타산은 정상부가 첨봉(尖峯)을 이루고 주변은 급사면이어서 날렵한 산세를 보이나 청옥산은 완만하고 묵직한 형상을 이룬다. 두타산을 중심으로 세 개의 하천이 흘러간다.

산세가 웅장하고 계곡이 깊으며 삼림이 우거져 곳곳에 사찰·유적지·명승지가 산재하고 있다. 고려 충렬왕 때에 이 승휴(李承休)는 정사(政事)를 간하다 파직당하자 이 산에서

은둔생활을 하였다. 산릉에는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서 구축한 두타산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성은 102년(마사왕 23)에 축성하였고, 1414년(태종 14)에 수축하였다.

명칭유래

속세의 번뇌를 떨치고 불도 수행을 닦는다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두타산의 두타(頭陀)는 산스크리트어의 두타(Dhuta)를 이두식으로 한자화한 것이다. 두타에는 “의식주에 대한 탐욕과 세상의 모든 번뇌와 망상을 버리고 수행 정진한다.”는 불교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불교가 국교로 크게 번성했던 역사 발전 과정에서 생긴 이름으로 볼 수 있다.

두타산의 사계

- 봄 : 노랗게 핀 생강나무꽃이 반기는 베틀바위 산성길
- 여름 : 용추폭포와 쌍폭에서 피하는 폭염
- 가을 : 베틀바위 마천루에 온 가을 풍경
- 겨울 : 눈 쌓인 망군대 능선

사진명소

- 베틀바위 전망대 : 태고적 신비를 보여주는 두타산 베틀바위 전망대 위의 풍경
- 마천루 : 기암절경이 호위하는 해발 470m. 이곳 마천루는 금강산바위 위로 아슬아슬하게 조성된 잔도 데크 길을 따라 두타 협곡과 주변 풍광이 가장 잘 보이는 지점
- 쌍폭포 : 우렁찬 물소리와 함께 물보라를 뿜어내는 쌍폭포의 장관

주요등산로

- 1 뱃재공원 정상 → 두타산(정상)
뱃재공원 정상 → 통골목이 기점 → 두타산(정상)
- 2 천은사 주차장 → 두타산(정상) → 천은사
천은사 주차장 → 천은사 → 오십정(천음산) → 두타산(정상) → 천은사
- 3 무릉계곡 입구 → 베틀바위 → 무릉계곡 관광지
무릉계곡 입구 → 베틀바위 산성길 →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사 → 베틀바위 → 무릉계곡 관광지
- 4 무릉계곡 입구 → 두타산(정상) → 무릉계곡 입구 주차장
무릉계곡 입구 → 베틀바위 → 깔딱고개 → 두타산성 → 두타산(정상) → 청옥산(정상) → 연칠성령 → 칠성폭포 → 삼화사 → 무릉계곡 입구 주차장

 사계

 명소



마천루의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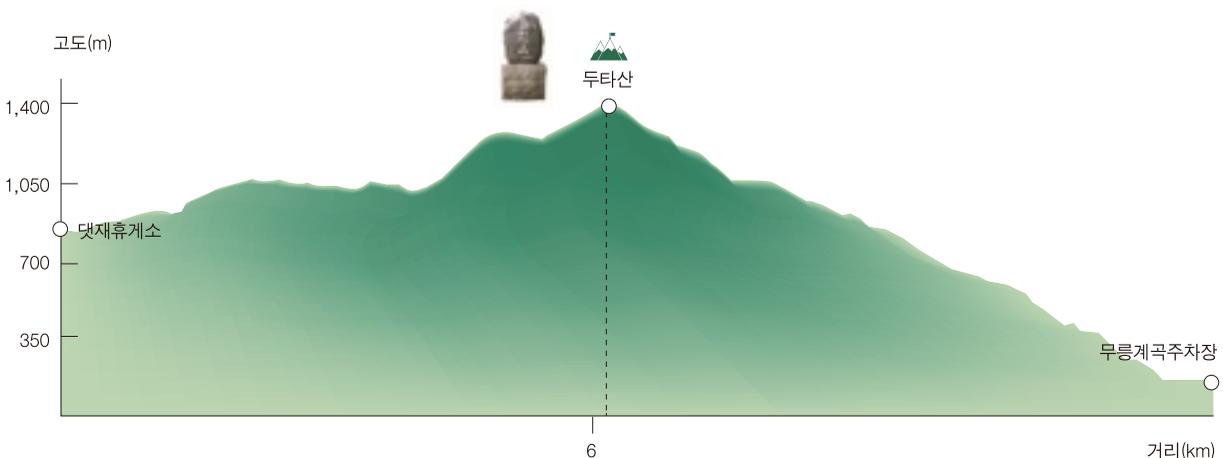
베틀바위 전망대



마천루



쌍폭포



👁️ 주변관광지

📍 삼척해변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삼림이 좋은 곳



삼척시내에서 1.4km 가량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장 1.2km, 폭 100m의 넓은 백사장을 보유한 관내 최대의 해변. 울창한 송림, 깨끗한 백사장과 수심이 얕아서 남녀노소 모두가 수영을 즐길 수 있고, 각종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음. 주말에는 청량리를 출발하는 ‘환상의 해안선 기차여행’ 중착지이기도 함

📍 장호비치캠핑장

장호관광지 내 조성되어 있는 캠핑장

주변 관광지와의 어우러져 부모, 가족, 연인과 함께하여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해변이 인접하여 다양한 지역관광을 즐길 수 있음



📍 무릉계곡

강원도 동해로 삼화동에 있는 경승지



두타산과 청옥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계곡으로 수많은 기암괴석과 절경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계곡으로 태고의 신비와 전설을 간직한 명소

함께 가 볼 만한 곳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미인폭포

●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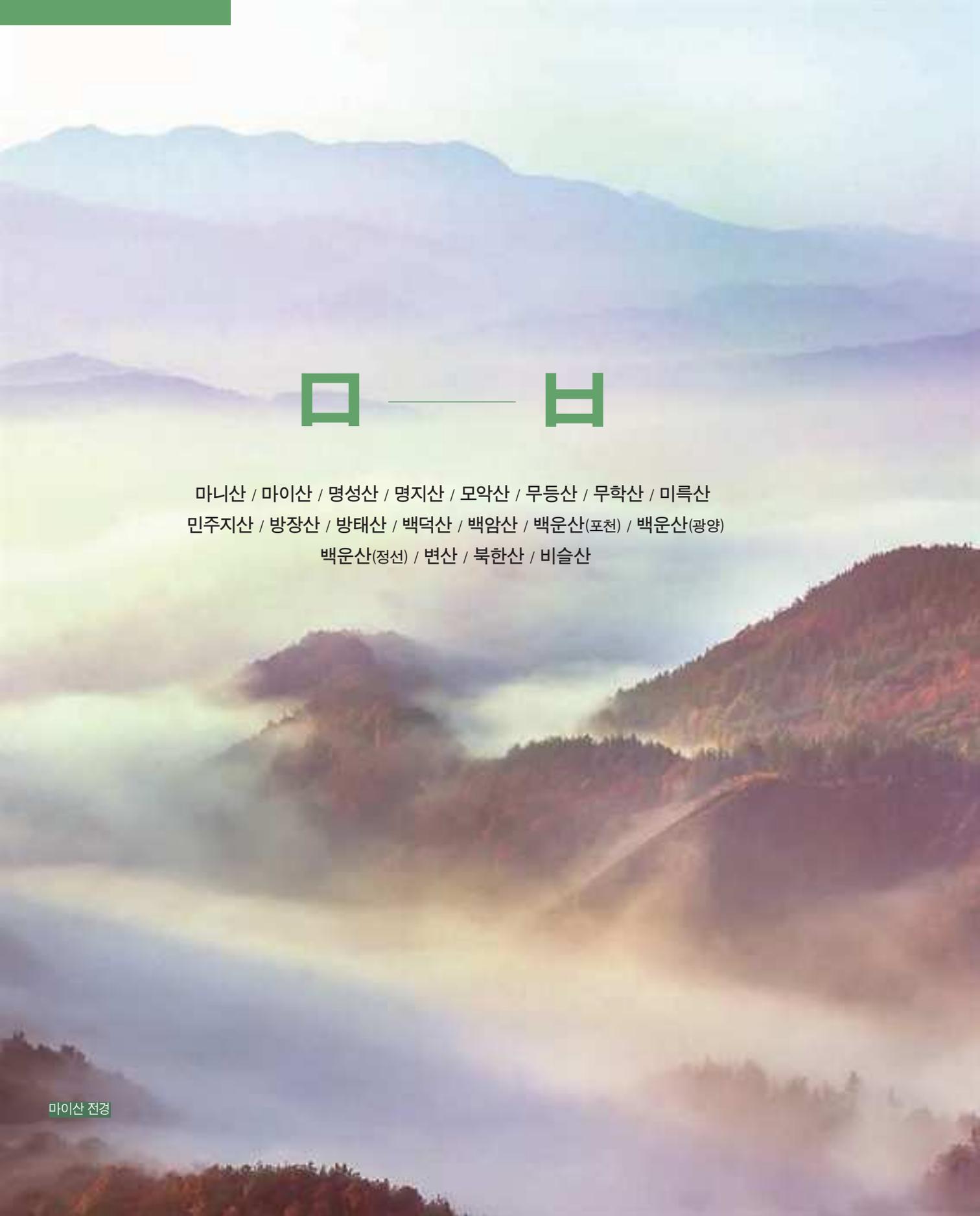
군 경계 철책 철거와 함께 해안생태탐방로가 개방되면서 53년 만에 숨겨진 비경이 공개된 해안로. 대나무 숲이 우거진 산책로를 따라 전망대로 올라가는 내륙코스(317m)와 해상 기암괴석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코스(626m)로 구성되어 있음

● 미인폭포

미국의 그랜드캐니언과 지질학적 특성이 비슷한 심포협곡 내에 위치한 높이 30m의 폭포로 석회질 성분으로 인해 신비로운 비취색의 물빛이 특징이며 특히 수량이 풍부한 여름철에는 장대한 물기둥과 물안개도 관찰되는 폭포임

● 벽너머엔 나릿골 감성마을

삼척 해안의 대표적인 해양관광 마을로 삼척항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마을을 골목골목 벽화와 함께 감성적으로 꾸며놓음. 1960 ~ 70년대 어촌 산동네로 어촌 주민들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음



□ — □

마니산 / 마이산 / 명성산 / 명지산 / 모악산 / 무등산 / 무학산 / 미륵산
민주지산 / 방장산 / 방태산 / 백덕산 / 백암산 / 백운산(포천) / 백운산(광양)
백운산(정선) / 변산 / 북한산 / 비슬산

나무가 나무에게 건너갈 때

나무도 작은 벌레에게 우주와 같으리라
나무 안에서
먹고, 떠들고, 집 짓고, 알 낳고, 새끼도 기르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다
한 계절 푸르고 시드는 나무일지라도
벌레에게는 한 생을 살아가는 순회
나무가 나무에게 건너갈 때
보아라!
눈부시게 열리는 새로운 세계
낮선 이방인과 깃들이 살아가는 눈부신 우주

조영웅



돌계단을 올라
서해바다의 풍경을 한눈에 담다

마니산

摩尼山



강화군청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높 이 472.1m

관리주체 강화군

개요

마니산은 강화도 서남단에 있으며 강화군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산의 정상에서 남쪽의 한라산과 북쪽의 백두산의 중앙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자연환경

암골미 뛰어난 최고의 전망대

마니산은 세 봉우리가 나란히 서 있어 먼 곳에서 보면 그 모양이 아름답고 웅장한 명산으로 참성단은 그 중간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단군왕검이 세 봉우리 중 가운데 봉우리에 참성단(사적)을 세우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고조



마니산 전경



마니산 참성단



마니산 산 중턱의 바위

선의 안녕을 기원했다는 산으로 몇 해 전 풍수가들이 마니산을 가장 기가 센 곳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참성단에서 하늘에 제를 올렸다고 한다. 단역에는 수천 년 동안 계속 수축된 흔적이 있다. 정확한 수축 기록은 1639년(인조 17)과 1700년(숙종 26)에 남아 있다. 현재 마니산은 성역(聖域)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매년 개천절에는 제전이 올려진다. 1953년 이후에는 전국체육대회의 성화를 매년 채화(採火)하고 있다.

1977년에 산 일대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참성단의 유명세로 많은 이가 오래 전부터 즐겨 찾는 명승지다. 암골미가 뛰어난 테다 큰 바다를 끼고 있어서 전망을 따를 데가 없다. 염하(鹽河)나 석모도 사이 강 같은 바다, 장

봉도와 사이의 호수 같은 바다, 서쪽의 망망대해가 가슴을 탁 트이게 한다. 신라 선덕여왕 8년(639)에 회정선사가 창건한 정수사 등이 산자락에 있어 문화유적 답사지로도 좋으며 해안의 진, 보, 돈대 등 호국문화재를 둘러볼 수도 있다.

명칭유래

마니산은 마리산 또는 머리산으로도 불린다. 마리란 고어(古語)로 머리를 뜻하며 강화도에서 가장 높은 땅의 머리를 의미한다. 더욱이 산 정상에는 하늘에 제를 지내는 단이 있어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민족, 전 국토의 머리 구실을 한다는 뜻이다.

마니산의 사계

- 봄 : 민족의 기원이 담긴 1004 계단에 온 봄 소식
- 여름 : 참성단에서 바라보는 해변 전경
- 가을 : 단군로에서 느끼는 숲속의 가을 정취
- 겨울 : 참성단과 어우러진 상고대

사진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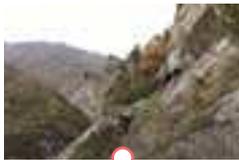
- 참성단 : 단군이 기원전 2283년에 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전해지는 마니산의 대표 유적지
- 바위등선 길 : 강화도의 전경 뿐만 아니라 바위 사이로 보이는 멋진 하늘까지 한 장에 담기는 멋진 명소
- 함허동천 : 조선의 승려 기화가 이곳에서 수도를 했다 하여 그의 호인 함허를 따서 이름을 지은 계곡

주요등산로

- 1 마니산매표소 → 정상(참성단)
 마니산매표소 → 1004계단(개미허리·혈떡고개) → 정상(참성단)
- 2 단군로 → 함허동천
 마니산매표소 → 단군로 → 372계단 → 정상(참성단) → 단군계단 → 헬기장 → 마니계단 → 바위능선 → 칠선교 → 칠선녀계단 → 함허동천로(능선로·계곡로) → 함허동천매표소
- 3 단군로 → 정수사
 마니산매표소 → 단군로 → 372계단 → 정상(참성단) → 단군계단 → 헬기장 → 마니계단 → 바위능선 → 칠선교 → 칠선녀계단 → 정수사로(암릉구간) → 정수사매표소

📷 사계

📷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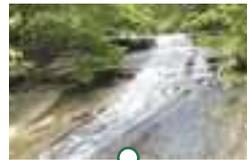
마니산의 가을



참성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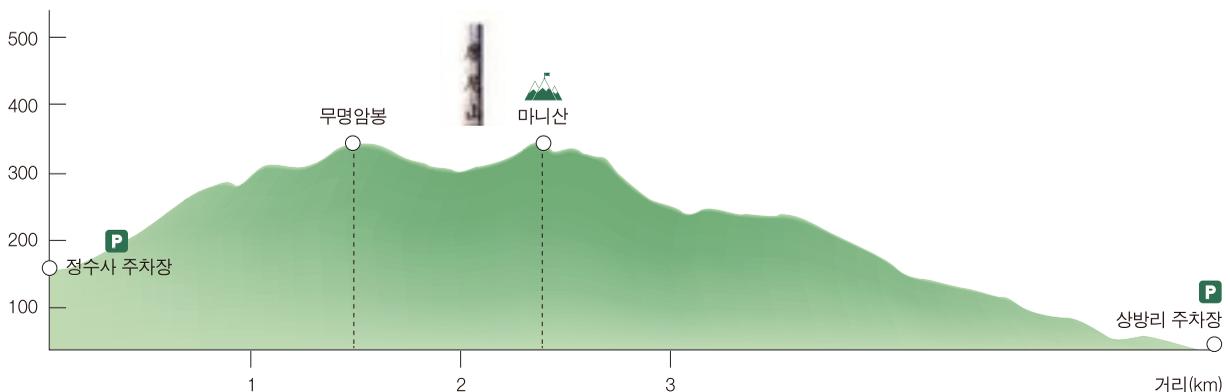


바위등선 길



함허동천

고도(m)



👁️ 주변관광지

📍 강화레포츠파크(짚라인)

강화도의 동서남북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강화도의 중앙부 혈구산에 위치



총길이 1km 5코스 짚라인과 18개의 어드벤처코스, 클라이밍 시설 등 다이내믹하고 스릴 넘치는 레포츠시설을 자연휴양림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종합레저 테마파크

📍 강화씨사이드리조트(루지)

동양에서 손꼽히는 메가 루지

강화 메가 루지는 트랙의 경사와 중력만을 이용한 무동력 바퀴 썰매로 손쉽게 방향 조정과 제동이 가능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이내믹하고 안전한 새로운 체험 레포츠. 차별화된 코스 설계를 통해 짜릿한 속도감과 스릴을 만끽할 수 있음



📍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의 문화유산을 보존·연구하여 전시할 목적으로 세워진 공립박물관



2010년 개관하였으며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을 비롯하여 영상실·강당·뮤지엄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강화 역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실과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고인돌공원 옆에 위치해 있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화고인돌을 함께 관람 가능

함께 가 볼 만한 곳



연미정(월곶돈대)



동막해변

● 연미정(월곶돈대)

한강과 임진강의 합해진 물줄기가 강화도 동북단에 이르러 서쪽과 남쪽으로 나뉘어 흐르는데, 이 모양이 마치 제비꼬리 같다고 해서 붙여진 정자 이름. 강화10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자리로서 절경을 이루고 있음

● 동막해변

동막해변은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 강화남단에 펼쳐진 갯벌은 무려 5,950만㎡(1천 8백만 여 평)으로 물이 빠지면 직선 4km까지 갯벌로 변함

● 석모도자연휴양림(석모도산림욕장)

인천의 유일한 공립자연휴양림으로서 강화군 삼산면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삼산면 석모리 산 154-1번지 일대에 총 128ha 규모의 산림 휴양 공간을 조성,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에 조성한 명품 자연휴양림



말 귀 모양이
신기루처럼 솟아오르다

마이산 馬耳山



진안군청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마령면

높 이 687.4m

관리주체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와 마령면 동촌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걸쳐 약 10~20km의 서남방향으로 고원을 이루는 진안고원에 자리잡고 있다.

자연환경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바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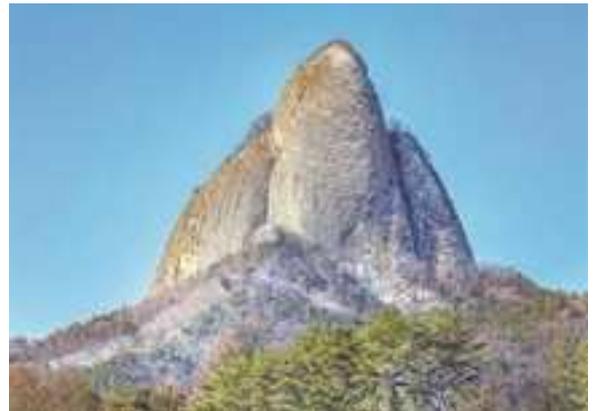
마이산은 진안고원에 있는데 두 개의 거대한 암봉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어 멀리서 보면 흡사 풍긋한 말의 귀처럼 생겼다. 산 전체가 하나의 바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비한 마이산 전경



멀리서 바라본 마이산



마이산 솟마이봉

식생은 거의 자라지 못한다. 동봉과 서봉 사이에 448개의 층계가 있고, 동봉 중턱의 화엄굴에서는 약수가 솟는다. 동봉은 경사가 가팔라서 오를 수 없다. 지질을 보면 진안 읍 쪽의 마이산 주변은 선캄브리아기의 소백산 변성암 복합체에 속하는 화강암질 편마암이며, 마이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주변까지는 중생대 백악기 말에 형성된 마이산 역암 지대이다.

마이산은 '진안 마이산'이라는 명칭으로 1979년 도립공원, 2003년에는 국가 지정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마이산에는 은수사·탑사·금당사 등의 고찰이 있으며, 경관이 아름답고 특이하며 수많은 풍화혈이 발달해 있다. 수마이봉 기슭에 있는 은수사에는 진안 마이산 청실배나무(천연기념물)

와 진안 마이산 줄사철나무 군락(천연기념물)이 있다.

명칭유래

두 봉우리의 모양이 말의 귀처럼 생겼다 하여 마이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봉우리 두 개가 높이 솟아 있기 때문에 용출봉(湧出峰)이라 하였고, 동쪽을 아버지, 서쪽을 어머니라 하였으며, 신라 시대에는 서다산(西多山)이라 불렀다. 지금은 속칭으로 동쪽을 수마이산, 서쪽을 암마이산이라고 한다.

마이산의 사계

- 봄 : 안개 속에 우뚝 솟은 두 봉우리가 쌍돛배 같다 하여 돛대봉
- 여름 : 수목 사이에서 드러난 봉우리가 용의 뿔처럼 보인다 하여 용각봉(龍角峰)
- 가을 : 단풍 든 모습이 말 귀처럼 보인다 해서 마이봉
- 겨울 : 눈이 쌓이지 않아 먹물을 찍은 붓끝처럼 보인다 해서 문필봉(文筆峰)

사진명소

- 은수사 : 뒤쪽으로 마이산의 암마이봉과 솟마이봉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은수사 전경
- 마이산 출사철나무 군락 : 은수사에 있는 천연기념물로 노목과 군락을 이뤄 학술·생태적으로 귀중한 자료
- 마이산탐 : 마이산 탐사의 자연적으로 축조한 인간이 만든 걸작,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는 신비한 돌탑

주요등산로

- ① 마이산(버스정류장) → 마이산 돌담
마이산(버스정류장) → 마이산 비룡대 → 마이산(정상) → 마이산 봉두봉 → 마이산 도립공원 → 마이산 은수사 → 마이산 돌담
- ② 마이산북부관광정보센터 앞 → 마이산가상 체험놀이터
마이산북부관광정보센터 앞 → 진안산약초 전시관 → 샷갯봉 → 마이산(정상) → 마이산 봉두봉 → 진각사 → 마이산 생태수변공원 → 마이산가상체험놀이터
- ③ 마이산(버스정류장) → 마이산 비룡대
마이산(버스정류장) → 마이산 금당사 → 마이산 비룡대 → 광대봉·고금당 길 → 원강정(버스정류장)

📷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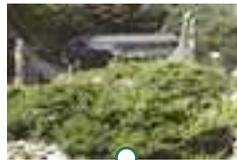
📷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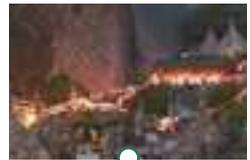
가을 마이봉



은수사



마이산 출사철나무군락



마이산탐

고도(m)



 주변관광지

 금당사

자연동굴을 법당으로 삼고 시작한 사찰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마이산에 있는 절. 대웅전 앞에는 고려 말 조선 초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석탑 1기가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로 지정. 이 절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마이탑사(馬耳塔寺)와 국조단군, 태조이성계, 세종대왕, 고종황제 네 분을 받드는 이산묘(驕山廟)가 있음

 운일암 반일암 구름다리

기암괴석과 크고 작은 폭포

운일암·반일암 제1주차장에서 데크 탐방로를 따라 명도봉 방향으로 가면 길이 220m의 구름다리에서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진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곳



 용담가족테마공원

용을 모티브로 조성한 공원



주민과 관광객이 여가를 즐기고 쉬어갈 수 있도록 조성된 가족 테마공원으로 조형물·분수·실개천·종합놀이대·전망대가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진안홍삼스파



진안고원치유숲

● 진안홍삼스파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 목적형 스파인 홍삼스파는 진안의 특산품인 홍삼을 재료로 한 한방 스파로, 아쿠아 테라피·명상 테라피·마인드 테라피·릴렉스 프로그램·웰빙 식사까지 모두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음. 스파를 하면서 마이산을 볼 수 있는 하늘공원의 워풀(Warm pool)은 홍삼스파의 자랑

● 진안고원치유숲

환경부1호 시설로 환경성 질환예방을 위한 관리와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치유센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교육 및 체험장으로 활용되는 2층은 세미나실, 옥녀폭포 가는길, 마조천길, 심원재 하늘길, 운장산 가는길, 용담호둘레길, 운일암반일암데크길 등의 치유숲이 자랑하는 트레킹코스가 있음

● 탐영제

탑사 아래 남부 주차장 쪽으로 내려오면 맑은 날에는 마이산이 거울처럼 비치는 호수가 나오는 곳. 탐영제를 끼고 도는 산책로는 풍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함



황금빛 억새가
하늘하늘 춤추다

명성산

鳴聲山



포천시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이동면

높 이 922m

관리주체 포천시, 철원군

개요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광주산맥에 속하는 산으로, 동쪽에 광덕산(廣德山 1,046m)과 동남쪽에 백운산(白雲山 904m), 남쪽에는 사향산(麝香山 736m) 등이 솟아 있다.

자연환경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서울시에서 동북쪽으로 84km 떨어져 있다. 동쪽 비탈면에서 발원하는 도평천(都坪川)은 남쪽으로 흐르다가 영평천(永平川)에 합류하고, 북서쪽 비탈면에서 발원하는 수계(水系)는 한탄강으로 흘러든다.



명성산 역새밭



산정호수



명성산 책바위

전체적으로 암릉과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동쪽은 경사가 완만하며, 남쪽에 있는 삼각봉 동편 분지에는 역새밭이 형성되어 있다. 정상에서는 남쪽으로 이어진 12봉 능선과 북쪽으로 오성산, 동북쪽으로 상해봉·대성산·백암산, 동쪽으로 광덕산, 동남쪽으로 백운산·국망봉을 모두 볼 수 있다. 명성산은 궁예왕 굴을 비롯하여 자인사, 책바위, 등룡폭포 등의 경치가 뛰어난 곳이 많다. 특히 정상과 연결된 능선은 역새군락지를 이루고 있어 매년 10월이면 '산정호수 명성산 역새꽃 축제'가 열리며 많은 이들을 끌어들이는다.

명칭유래

명성산(鳴聲山)은 한자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속칭 울음산이라고도 한다. 전설에 의하면 왕건(王建)에게 쫓겨 피신하던 궁예(弓裔)가 이 산에서 피살되었다고 하며, 궁예가 망국의 슬픔을 통곡하자 산도 따라 울었다고 하는 설과, 주인을 잃은 신하와 말이 산이 울릴 정도로 울었다고 하여 울음산이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다.

명성산의 사계

- 봄 : 알프스 초원지대를 연상케 하는 초록빛 억새
- 여름 : 크고 작은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장쾌한 물소리
- 가을 : 드넓은 산자락에 출렁이는 황금빛 억새의 물결
- 겨울 :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던 물이 얼음으로 덮인 얼음폭포의 모습

사진명소

- 등룡폭포 : 2단으로 되어 있어 쌍룡폭포라고도 불리우는데, 용이 승천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의 폭포
- 억새풍경길 : 억새 바람길을 따라 팔각정을 지나 구삼각봉에서 울음산까지 은빛 물결을 출렁이며 장관을 만드는 억새 풍경길의 전경
- 삼부연폭포 : 철원9경 중 하나로, 명성산 중턱의 화강암 지대에 위치한 높이 약 20m 규모의 3단 폭포
- 책바위 : 노을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는 책바위 전경

주요등산로

- ①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 삼각봉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 등룡폭포 → 명성
 억새밭 → 삼각봉 → 비선폭포

산행 tip!

여름철 산행 중 소나기를 만나게 될 경우 소나기로 인하여 불어난 계곡물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사계

📷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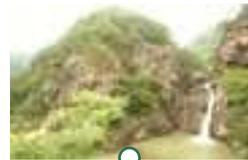
명성산 얼음폭포



등룡폭포



억새풍경길



삼부연폭포

고도(m)



👁️ 주변관광지

📍 포천아트밸리

복합문화예술 공간



그림같은 에메랄드빛 호수, 그 위를 병풍처럼 깎아지른 화강암 절벽. 자연속에서 예술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1990년대까지 폐채석장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곳을 자연과 예술이 함께 하는 힐링의 명소로 탈바꿈한 문화공간

📍 산정호수

산에 있는 우물이라는 뜻으로 맑은 수질과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

1925년 농수용저수지로 만들어졌으며, 명성산을 비롯해 여러 높은 산봉우리, 자인사와 등룡폭포, 비선폭포 등이 있음.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음



📍 한과문화박물관 한가원



한눈에 한과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곳

국내 최초로 한과를 테마로 세워진 한과문화 박물관. 한과의 역사와 유래, 한과의 제작도구 등 전시 설명과 유물전시 중심으로 한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전달. 한과의 제작 과정, 원재료, 역사, 다양한 종류(약과, 유과, 유밀과, 정과, 다식, 강정), 임금님 수라상, 명절과 일상의 한과 전시

함께 가 볼 만한 곳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신북온천 스프링풀

●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포천 한탄강 협곡으로 단절된 생태경관단지(2019. 12. 준공)와 테마파크(2019. 12. 준공) 등을 연결하는 이색적인 형태의 보도교. 한탄강을 따라 걷다가 포천 한탄강 아래로 내려가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으며 특히 강 아래에서 협곡 등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부담없이 걷기에 좋은 코스로 형성됨

● 신북온천 스프링풀

수도권에서 가까운 중탄산나트륨 온천으로 물 좋고 자연경관이 수려하기로 유명한 포천의 12개월에 자리잡고 있음. 워터슬라이드와 자연의 정취를 느끼면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스파시설 및 노천탕, 건/습식사우나, 황토방, 아이스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파도풀, 유수풀, 바데풀 등의 물놀이 시설

● 포천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으로 알려진 생태계의 보고. 500만㎡에 조성된 산림박물관 뿐 아니라 3,344종의 식물, 15개의 전문 수목원으로 이루어진 인조림, 8km에 이르는 삼림욕장, 백두산 호랑이 등 15종의 희귀동물 야생동물원과 세계적 희귀조인 크낙새 서식지, 하늘 다람쥐, 장수하늘소 등 천연기념물 20종이 서식하고 있음



겨울 산정에
눈꽃의 향연이 펼쳐지다

명지산

明智山



가평군청

위 치 경기도 가평군 북면·하면

높 이 1,252.3m

관리주체 가평군

개요

경기도 가평군 북부 산악지대의 광주산맥의 준봉들 가운데 하나이다. 명지산을 중심으로 경기도 가평군 북면·조종면, 포천시 일동면 일원은 희귀곤충 및 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한 지역으로, 1993년 조종천 상류·명지산·청계산 생태계보전지역(면적 21,84km²)으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폭포와 수림이 어우러진 장관
생태경관 보전지역

명지산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다. 연간 10만



명지산 전경



명지산 암릉



명지산 정상

명 이상의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계곡의 폭포와 수림이 한데 어우러져 가히 장관을 이룬다. 특히 가을이 되면 수십년 묵은 고목과 기암괴석의 조화 속에 가을 단풍의 절경을 만끽하면서 등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명지폭포와 용소 등 절경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명지산은 청계산과 함께 우리나라 여섯번째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한라산, 지리산 다음으로 곤충상이 풍부한 지역이다. 생태탐방 및 자연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명지산 군립공원 입구에 생태탐방학습원을 개관했다. 이곳에는 각종 약용, 희귀식물원, 야생화 등 자연학습원과 반딧불이 동굴, 곤충체험 영상물, 식물곤충어류 전시 등

생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명칭유래

명지산(明智山)은 ‘맹주산(盟主山)’이라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산세가 마치 주위 산들의 우두머리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진다. 후에 ‘맹주산’이 지금의 ‘명지산’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명지산의 사계

- 봄 : 귀목 종점에서 아재비고개로 오르는 길과 화채바위에서 사향봉에 이르는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1km 이상의 진달래 구간
- 여름 : 깊은 계곡과 짙은 수림의 조화로 식히는 불멸더위
- 가을 : 가평8경 중 하나인 명지산 단풍
- 겨울 : 고도가 높아 겨울 산정에 핀 눈꽃

사진명소

- 승천사의 전경 및 불상 : 산행길 초입에 있는 승천사의 불상으로 여타 불상과 다른 색다른 표정의 불상
- 명지폭포 : 명지산의 명물로 알려진 여름 산행의 묘미
- 명지산 정상 : 힘든 산행을 잊게 하는 아름다운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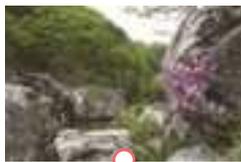
주요등산로

- 1 명지산 익근리 주차장 → 명지산(정상)
 명지산 익근리 주차장 → 명지산등산로입구 → 사향봉 → 명지산(정상) → 명지폭포 → 승천사 → 명지계곡
- 2 백둔리 종점(버스정류장) → 명지천 폭포
 백둔리 종점(버스정류장) → 아재비고개 → 명지3봉 → 명지2봉 → 명지천 폭포
- 3 백둔봉 입구 → 백둔봉
 백둔봉 입구 → 선학역사편찬원 → 백둔봉 → 백둔리 종점(버스정류장)
- 4 명지산 익근리 주차장 → 명지산(정상)
 명지산 익근리 주차장 → 명지계곡 → 승천사 → 명지폭포 → 명지산(정상)

 사계

 명소

고도(m)



명지산의 진달래



승천사의 전경 및 불상



명지폭포



명지산 정상



👁️ 주변관광지

📍 가일미술관

그림 같은 풍경이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주변 경치와 조화를 이룬 미술관



국내외 실력 있는 예술작품과 실내악, 재즈 등 여러 가지 공연을 만날 수 있고, 대중과 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아트홀, 야외공연장이 있는 복합문화공간

📍 가평 브릿지 쥘라인

수려한 칼봉산 굽이굽이 넘나들며 2,418m를 비행하는 짜릿한 체험이 가능한 쥘라인

아찔한 능선과 계곡의 조화 속에서 쥘라인 고유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뽕띠프랑스

프랑스를 테마로 한 문화관광지



음악 콘서트, 전시회, 만들기 체험, 재미있는 놀이 이벤트를 곳곳에서 진행. 뽕띠프랑스의 대표 볼거리인 오르골하우스에서는 하루 5차례 18세기 ~ 20세기의 '오르골 연주'가 펼쳐짐. 유명 한류드라마 및 예능, 영화 CF의 메인 촬영지로서 드라마에서 본 그 장면,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됨

함께 가 볼 만한 곳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아침고요동물원

●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청평호반을 끼고 나있는 천혜의 드라이브 코스를 지나 숲속 계곡을 끼고 달리다 보면 숲속 통나무집이 인상적인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물론 자생식물원을 비롯한 각종 식물원과 유리온실 등 학습을 겸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음

● 가평양떼목장

끝이 보이지 않는 산과 대자연에서 알파카 그리고 양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체험목장. 초지에서 정갈하고 아름다운 카페의 이색적인 힐링공간을 경험해 볼 수 있음

● 아침고요동물원

가족형 테마파크로 호랑이, 사자, 반달가슴곰, 알파카, 일본원숭이, 사막여우 등 100여 종 1,000여 마리의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동물원. 도심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동물들을 만나고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



어머니의 품으로
포근하고 넉넉하게 품어 안다

모악산

母岳山



완주군청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구이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높 이 795.2m

관리주체 완주군, 김제시, 전주시

개요

노령산맥의 서단부에 위치하며 호남평야와 전북특별자치도 동부 산간 지대의 경계가 된다. 1971년 모악산을 중심으로 면적 43.44㎢가 모악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부드러운 산세에 편안한 산길

모악산은 저평한 호남평야에 우뚝 솟은 산이어서 예로부터 미륵신앙의 본거지가 되었다. 서쪽 사면에 있는 금산사(金山寺)는 599년(법왕 1)에 창건된 것으로 신라 불교의 5교9산(五教九山)의 하나이며, 여러 보물을 소장하고 있다.



모악산 능선



모악산의 가을



모악산 금산사 다리

모악산에는 산금(山金)이 있고, 주변의 금산면·금구면을 흐르는 원평천(院坪川)·두월천(斗月川)의 하상(河床)에는 사금(砂金)이 있다. 주능선은 북동~남서 방향이나 지능선이 동과 서로 뺏어 있다. 동쪽 사면은 만경강의 집수역(集水域)으로 계곡의 물은 구이면의 전주저수지에 흘러들어 전주 서쪽을 흐르는 삼천(三川)이 된다.

모악산 정상에 오르면 북쪽으로 멀리 동양 최대의 절터를 품에 안은 미륵산이 보인다. 계룡산·대둔산·종남산을 스쳐 지나가면 마이산·운장산·장안산도 지척이다. 동쪽은 성수산·만덕산·덕유산·지리산까지 이어진다. 나직이 전주시의 한복판에 자리한 완산칠봉과 남고산성을 지나면 고덕산과 경각산이고, 호남정맥이 지나는 오봉산이

있다. 남쪽은 무등산·회문산·강천산, 서쪽은 내장산과 입암산을 지나면 방장산·번산 등 온갖 산들이 눈을 가득 채운다. 청명한 날에는 서해도 보인다.

명칭유래

『금산사지(金山寺誌)』의 ‘엄뢰’라는 말이나 ‘큰뢰’라는 말은 아주 높은 산을 의미하는데, 한자가 들어오면서 ‘엄뢰’는 어머니산이라는 뜻으로 의역해서 ‘모악’이라 했고, ‘큰뢰’는 ‘큰’을 음역하고 ‘뢰’는 의역해서 ‘금산(金山)’이라고 적었다.

모악산의 사계

- 봄 : 진달래와 벚꽃이 만발한 곳 모악 춘경
- 여름 : 금산사 미륵전 앞마당에 붉게 핀 배롱나무꽃
- 가을 : 대원사로 향하는 등산로에서 느낄 수 있는 가을 단풍
- 겨울 : 모악산 정상의 KBS송신탑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겨울왕국의 성탑처럼 보이는 풍경

사진명소

- 선녀폭포 :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이 전해지는 선녀폭포
- 모악산 대원사 : 대웅전을 중심으로 각종 전각들을 아담하게 배치
- 큰 바위 밑 전망대 : 능선안부를 따라 가주봉 아래로 100m 정도 내려가면 만나는 지점

주요등산로

- ① 모악산관광단지 → 모악산(정상)
모악산관광단지 → 대원사 → 수왕사 → 모악산(정상) → 염불암 → 금선암 표지석 → 청하서원
- ② 금산사(버스정류장) → 염불암삼거리
금산사(버스정류장) → 닭지봉 → 염불암삼거리
- ③ 심원암길 → 모악산(정상)
심원암길 → 금산사 심원암 → 김제 금산사 심원암 삼층석탑 → 모악산(정상)

산행 Tip!

산행 중 갑작스런 비로 옷이 젖었을 때를 대비하여 여벌의 옷을 준비하며 저체온이 오지 않도록 신속히 갈아 입어야 함

📷 사계

📷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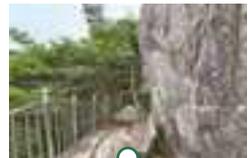
모악산 정상의 겨울



선녀폭포



모악산 대원사



큰 바위 밑



👁️ 주변관광지

📍 놀토피아

심신발달형 국내 최대규모 어린이 모험 놀이시설



가족단위 이용객은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체험학습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34종 모험놀이 콘텐츠를 갖춘 국내 실내형 체험시설

📍 아쿠아틱파크 아마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증받은 모악산 자락 천연 암반수를 이용하여 조성

한쪽의 그림 같은 명품 수변 구이저수지의 풍광이 내려다 보이는 인피니티풀, 전북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 280m 수로식 물놀이 시설, 개별 카바나 시설, 사계절 썰매장과 같은 레포츠 시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복합관광 레저 시설로 조성됨



📍 경각산 패러글라이딩

대한민국 5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모악산과 구이저수지, 전주 시내를 한눈에 담은 지평선의 조화가 매력. 장소가 넓어 항공 시간과 거리도 마음껏 조절 가능. 이륙에 적합한 각도, 안전한 착륙지점을 갖춘 활공장

함께 가 볼 만한 곳



위봉사, 위봉폭포, 위봉산성



상관 공기마을 편백숲

● 위봉사, 위봉폭포, 위봉산성

완주8경. 위봉산(추출산)에 자리하고 있는 고찰. 팔작지붕으로 유명한 보광명전 지붕의 용마루와 위봉산의 부드럽고 완만한 능선 자락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보광명전, 극락전, 관음전, 삼성각, 나월당, 요사채 등을 갖춘 대찰. 조선 숙종 원년에 처음 축조되어 400년의 세월을 품은 위봉산성. 주변의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 사이로 시원스럽게 비류직하하는 60m의 물줄기가 비경인 위봉폭포

● 고산자연휴양림

숲에서 즐기는 가족휴양지로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휴양림.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하루종일 삼림욕을 즐길 수 있음

● 상관 공기마을 편백숲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공기마을에는 1976년에 조성된 86ha 규모의 산지에 10만 여 그루의 편백나무, 삼나무, 낙엽송이 식재되어 있음. 영화 <최종병기 활>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



주상절리 암석이
석책을 두른 듯 장관을 이루다

무등산 無等山



무등산국립공원

위 치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담양군·화순군

높 이 1,186.8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무등산국립공원)

개요

광주·전남의 진산(鎭山)이자 호남정맥의 중심 산줄기로 1972년 무등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우리나라의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 지정되었다. 국가지질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자연환경

믿음직하고 덕이 있는 느낌
병풍 같은 바위절벽 장관

무등산은 동부의 산악 지대와 서부의 평야 지대의 결절



무등산 주상절리



무등산 단풍



눈 덮인 무등산

점에 위치하고 있다. 북서·남동의 능선은 무등산 천왕봉에서 중봉·향로봉·장원봉에서 망월동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 규모가 크다. 동서 방향의 능선은 무등산 천왕봉에서 중봉·중머리재·새인봉에서 학동으로 뻗어 있다. 무등산 천왕봉에서 남서 방향으로는 장불재·만연산·수레바위산·정광산·죽령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뚜렷하다. 이 산줄기는 북쪽의 극락강 수계와 남쪽의 지석천의 분수계를 이룬다.

전체적인 산세는 웅대하지만 산정 부근의 암석 노출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식생의 밀도가 높은 토산(土山)이어서 믿음직하고 덕이 있는 느낌을 풍기고 있다. 서석대, 입석대로 불리는 주상절리(용암이 식을 때 수축하여

생기는 절리 중에 단면의 형태가 오각형이나 육각형의 기둥 모양인 것) 포함해 기암괴석 등 61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해발 1,187m의 무등산 최고봉인 천왕봉 일대는 수직 절리상의 암석이 석책을 두른 듯 치솟아 장관을 이룬다.

명칭유래

무등산은 비할 데 없이 높은 산 또는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이라는 뜻이다. 북쪽의 나주평야와 남쪽의 남령산지(南嶺山地)의 경계에 있는 산세가 웅대한 산으로 통일신라 때 무진악(武珍岳) 또는 무악(武岳)으로 표기하다가 고려 때 서석산(瑞石山)이란 별칭과 함께 무등산이라 불렸다. 이 밖에도 무당산·무덤산·무정산 등 여러 산명을 갖고 있다.

무등산의 사계

- 봄 : 봄의 전령사 복수초, 변산바람꽃
- 여름 : 용추폭포를 따라 시원하게 흘러내리는 물줄기
- 가을 : 고개와 능선에 따라 펼쳐지는 억새의 군무
- 겨울 : 설경 사이 우뚝 선 입석대

사진명소

- 의재미술관 : 의재 허백련(1891~1977)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미술관으로 무등산 자락에 위치
- 증심사 : 신라시대의 고찰로 오백나한전·오층석탑·칠층석탑·석조보살입상·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1963년 지정) 등을 소장
- 입석대 : 무등산 정상에서 남서쪽으로 해발 약 950m에 위치하며 서석대(1,100m)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주상절리

주요등산로

- ① 무등산국립공원(증심사)(버스정류장) → 무등산 운소봉
무등산국립공원(증심사)(버스정류장) → 무등산 운소봉 → 무등산 새인봉 → 무등산 서인봉 → 중머리재 → 바람재 방면 광주시가지 조망점
- ② 증심사 입구 → 무등산 중봉
증심사 입구 → 무등산국립공원 증심사 탐방지원센터 → 증심사공원관리사무소 → 증심교 → 증심사 → 무등산 서인봉 → 중머리재 → 무등산 중봉
- ③ 증심교 → 증심사
증심교 → 증심사 → 당산나무 → 중머리재 → 무등산 중봉 → 무등산(정상)

📷 사계

📍 명소



무등산의 가을



의재미술관



증심사



입석대



👁️ 주변관광지

📍 광주비엔날레전시관

한국 작가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통로 역할

1994년 창설 이후 수많은 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미술 문화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는 곳으로 전시기간 중 본 전시, 특별전, 국제학술 행사 등 다양한 행사와 전시관람, 체험 가능함



📍 양림역사문화마을

전통 문화재가 많이 보존된 근대역사마을



역사와 건축, 문화예술 박물관으로 다양한 근현대 건축물과 100년이 넘는 거목이 즐비한 숲을 이룬 일제강점기 선교사들이 교회를 열고 학교와 병원을 세워 ‘광주의 예루살렘’, ‘서양촌’이라는 별칭이 있음. 민속길을 따라 내려오면 최승효 가옥과 이장우 가옥 등 준비한 전통가옥 체험 가능

📍 사직공원 전망대

광주의 야경을 볼 수 있는 빛의숲

광주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문화공간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즐길거리도 풍부함. 전망대 조명 설치 및 미디어아트 등으로 도시의 야경을 즐기기 좋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광주호 호수생태원



소쇄원

● 광주호 호수생태원

광주호의 잔잔한 물결과 무등산의 시원한 바람을 함께 맛볼 수 있는 호수생태원. 무등산 원호사를 넘어 소쇄원 접근 직전 광주호 옆 위치. 자연생태학습장이자 시민 휴식공간으로 각광. 수생식물원, 생태연못, 야생화 테마원, 목재 탐방로, 전망대, 수변관찰대 등이 있으며 호수 내 버드나무 군락지와 습지보전지역이 있음

● 소쇄원

한국 민간원림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어 명승으로 지정된 곳. 경관의 아름다움이 탁월하게 드러난 문화유산. 건축, 조경물은 상징적 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절묘하게 이뤄내며, 곳곳에 조선시대 선비들의 심상이 오롯이 묻어나 있는 공간

● 죽녹원

담양군에서 조성한 담양읍 향교리의 죽녹원은 죽림욕장 관방제림과 영산강의 시원인 담양천을 끼는 향교를 지나면 바로 왼편에 보이는 대숲. 죽녹원 안에는 대나무 앞에서 떨어지는 이슬을 먹고 자란다는 죽로차(竹露茶)가 자생. 죽로차 한 잔으로 목을 적시고 죽림욕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명소



학이 춤추 듯
날개를 펴고 날다

무학산

舞鶴山



창원특례시청

위 치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교방동·두척동·내서읍

높 이 761.4m

관리주체 창원특례시

개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교방동과 두척동·내서읍에 걸쳐있는 산이다. 남쪽에서 대곡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서쪽으로 꺾이며 대신·광려산·봉화산 등으로 이어진다.

자연환경

남쪽바다 굽어보는 창원의 진산

무학산은 낙남정맥의 기동줄기로 남북으로 길게 흘러 동쪽으로 창원시를 끌어 안고 있으며 발치 아래는 호수 같은 진해만과 어울려 한쪽의 수채화를 그려 놓은 듯하다. 세개의 산줄기가 모여 이루어진 삼각뿔의 무학산은 춤추



무학산 전경



무학산에서 내려다 본 창원시



무학산 진달래

는 한 마리 학의 형상에 비유된다. 정상은 풀 한 포기 없는 바위덩이로 형성되어 있다. 무학산은 마산 산악인들의 고향으로 알프스 북벽 등반이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히말라야 거봉도 여기서부터 연결되었다.

특히 무학산은 백두대간 낙남정맥 기동 줄기의 최고봉으로 동쪽으로는 구시가지가 내려다보이고, 뒤로 마산항이 보이며 남쪽으로는 남해뿐만 아니라 다도해의 풍광도 전망되고 있다. 역세 투성인 주봉과 서마지기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주능선을 펼치고 있는 서쪽 사면은 광려산과 마주하면서 경사가 급한 반면, 동쪽 사면은 산세를 열고 마산 일원을 포용하고 있다. 북쪽 능선은 경상남도 창원시의 천주산역과 이음을 맞대고 느긋하게 경사를 올

리면서 두척골, 앵지밭골을 펼친다. 남쪽 능선은 대곡산을 통해 만날재까지 내리면서 그 서쪽 끝을 대산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명칭유래

‘무학산’의 지명은 산세가 마치 학이 춤추는 듯 날개를 펴고 나는 형세와 같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두척산(斗尺山)’ 또는 ‘풍장산’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두척산은 원래 이 지역에 조창이 있어 쌀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쌀을 재는 단위인 ‘말(斗)’과 쌀이 쌓인 높이를 재는 단위의 ‘척(尺)’에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무학산의 사계

- 봄 : 양탄자를 깔아놓은 듯 펼쳐지는 진달래 군락
- 여름 : 서원곡 계곡 물소리와 함께하는 산행
- 가을 : 정상 평지에 넓은 하늘
- 겨울 : 서마지기 광장에 찾아온 겨울

사진명소

- 무학산 전망대 : 너털길에서 조금 더 오르면 경관 좋은 전망대
- 전망 바위 : 중봉을 지나서 테크닉 계단 맨 위의 바위가 탁트인 전망을 자랑
- 무학산 정상 돌탑 : 돌탑 왼쪽으로 보이는 무학산 정상과 다도해 전경

주요등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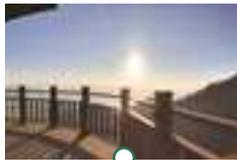
- 1 서원곡 입구(버스정류장) → 대곡산 정상
서원곡 입구(버스정류장) → 무학산둘레길 → 서원곡유원지 → 무학산중간전망대 → 대곡산 정상 → 만날공원 → 만날고개 → 만날고개 입구(버스정류장)
- 2 서원곡 입구 → 중봉
서원곡 입구 → 관해정 → 서원골 → 무학산둘레길 → 학봉, 중봉 → 무학산 중간전망대 → 중봉 → 십자바위 → 고운대 → 학봉 입구 → 서원곡 공영주차장
- 3 중리역 주차장 → 무학산중간전망대
중리역 주차장 → 무학산중간전망대 → 마재고개 → 윗구슬골마을(버스정류장)

 사계

 명소



서마지기 광장의 겨울



무학산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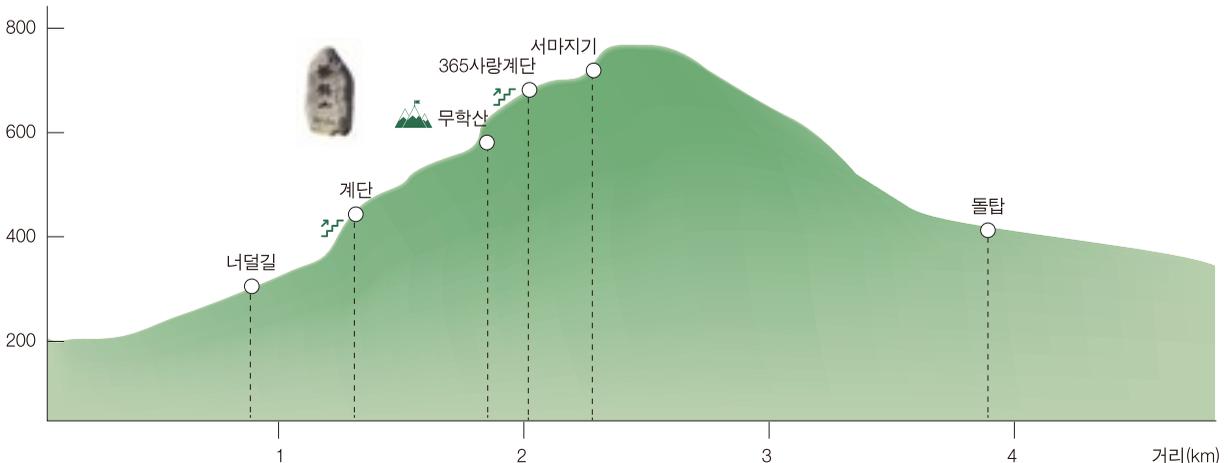


전망 바위



무학산 정상 돌탑

고도(m)



👁️ 주변관광지

📍 진해군항제

전국 최대 벚꽃축제



1963년부터 진해군항제로 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충무공의 숭고한 구국의 얼을 추모하고 향토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린 행사. 더불어 문화예술행사,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팔도 풍물시장 등을 아름다운 벚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규모의 축제

📍 경남 마산로봇랜드

로봇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R&D센터, 컨벤션센터 등 로봇관련 시설의 융복합 문화공간으로 2019년 개장. 창원만의 특별한 체험거리인 11개 로봇전시체험시설 및 22개 어트랙션으로 구성된 테마파크



📍 저도 콰이강의 다리(스카이워크)

야경이 아름다운 창원의 인기명소



저도 콰이강의 다리는 의창군 시절에 구산면 육지부와 저도를 연결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했던 저도연륙교. 2004년 신교량이 설치되면서 보행전용 교량으로 전환하였는데, 다리 바닥을 강화 유리로 마감해 스카이워크로 운영

함께 가 볼 만한 곳



창원시립문신미술관



창원수목원

● 창원시립문신미술관

프랑스 파리에서 주로 활동한 문신(1923~1995)은 대칭의 미를 살린 추상 조각으로 생명과 우주의 원리를 완성도 높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작가. 1980년 프랑스에서 귀국해 고향 앞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미술관을 건립

● 창원수목원

창원수목원은 10만 여 m²의 부지에 하늘정원·유럽식정원·동요의 숲·꽃의 언덕·암석원 등 14개의 테마원과 전시관 및 선인장 온실·벽천분수·연못·쉼터 등 조경 시설로 구성. 식물유전자원은 단풍나무 등 총 1,205종 23만 본을 식재된 제3호 공립수목원(2020. 03. 12.)

● 창원편백치유의숲

창원편백치유의숲은 장복산 아래 58ha에 30~40년생의 우수한 편백나무 숲 인체의 면역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숲



아기자기한 산에
명산으로서의 덕목을 두루두루 갖추다

미륵산

彌勒山



통영시청

위 치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동·산양읍

높 이 458.4m

관리주체 통영시

개요

경상남도 통영시의 산양읍 북쪽에 위치한 산이다. 미수동·봉평동과 산양읍의 경계를 이루며, 미륵도 가운데 솟아 있어 정상에서는 한려수도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2008년 봉평동에서 미륵산 정상의 전망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었다.

자연환경

호젓한 산길의 미륵산

산자락에는 고찰 용화사와 산내 암자 관음암, 도솔암이 있고 효봉 문중의 발상지 미래사가 있다. 그리 높은 산은



미륵산 전경



미륵산 케이블카



미륵산 정상

아니지만 명산으로서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울창한 수림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고 갖가지 모양의 기암괴석과 바위굴이 있다. 고찰과 약수, 봄 진달래와 가을 단풍이 빼어나고 산정에 오르면 한려해상의 다도해 조망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보이며, 청명한 날에는 일본 대마도가 보인다.

산봉우리에 옛날 통제영의 봉수대 터가 있고, 산 아래 계곡에는 통영시 상수도의 제1수원지가 있다. 943년(고려 태조 26) 도솔선사가 창건한 도솔암과 1732년(조선 영조 8) 창건된 관음사, 1742년(영조 18) 통제사 윤천빈이 산 일대에 축성한 산성과 함께 창건한 용화사 등이 있다. 여러 등산로가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또는 노후의 부부가 답소를 나누며

가벼운 등산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명칭유래

지명은 불교의 미륵불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또한『경상도지리지』와 『경상도속찬지리지』에 미륵산봉화, 미륵산봉화로 혼칭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용(龍)을 뜻하던 우리말 ‘머르’, ‘미르’, ‘미리’ 등이 미륵으로 전의(傳意)된 지명이라는 설이 있다.

미륵산을 용화산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산에 고찰 용화사가 있어 그렇게 부른다고 하고 또 이 산은 미륵존불이 당래에 강림하실 용화화상이라 해서 미륵산과 용화산을 함께 쓴다고도 한다.

미륵산의 사계

- 봄 : 진달래가 가득한 미륵산에서 바라본 통영의 한려수도 전경
- 여름 : 미륵산 케이블카를 타고 조망하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 가을 : 야트막한 산세 사이 아기자기 물든 나무들
- 겨울 : 눈으로 덮인 미륵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통영 앞바다

사진명소

- 케이블카 전망대 :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는 전망대로 경관이 맑은 날은 대마도까지 보임
- 미륵산 2봉의 전경 : 미륵산 봉수대로 내려가는 길. 미륵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봉수대
- 미륵산 정상 : 테크길을 따라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도 풍광의 일부가 되는 멋진 모습

주요등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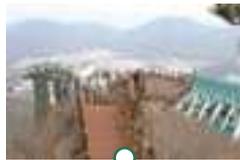
- 1 용화사 광장 → 미륵산(정상) → 용화사 광장
용화사 광장 → 도술암 → 미륵치 → 정상 → 미래사 → 띠밭등 → 용화사 → 용화사 광장
- 2 용화사 광장 → 산양읍사무소
용화사 광장 → 선금산 → 산양읍사무소
- 3 용화사 광장 → 케이블카 파크랜드
용화사 광장 → 도술암 → 미륵치 → 정상 → 미래사 → 띠밭등 → 케이블카 파크랜드
- 4 봉평주공아파트(버스정류장) → 미륵산(정상)
봉평주공아파트(버스정류장) → 용화산방 → 현금산 정상 → 천지봉(정상) → 미륵산(정상) → 미륵동 약수터 → 용화산방

 사계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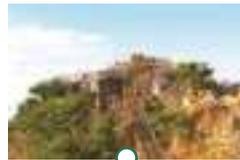
미륵산의 봄



케이블카 전망대



미륵산 2봉의 전경



미륵산 정상

고도(m)



👁️ 주변관광지

📍 어드벤처타워

15m 고공에서 즐기는 익스트림 레포츠 시설



국내 최초의 최대 규모 시설. 100명이 동시에 90여 개의 익사이팅 코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초급·중급·고급 난이도로 구성

📍 동피랑 마을길

담벼락마다 그려진 형형색색의 벽화가 눈길을 끄는 마을길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정량동·태평동·중앙동 일대의 언덕 위 마을들로 구불구불한 오르막 골목길을 따라 강구안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동피랑 마을



📍 옥지도 비렁길(출렁다리)

비렁길은 옥지도의 노적에서 혼곡 마을까지 이어지는 벼랑길



옥지도의 노적에서 혼곡 마을까지 이어지는 벼랑길. 비렁은 벼랑의 경상도 사투리. 옥지도 주민들이 예부터 이용해온 벼랑길을 다듬어 950여m의 아찔한 해안산책로로 정비. 발 아래 바다를 두고 벼랑을 따라 걸으며, 갯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강구안브릿지



박경리기념관

● 강구안브릿지

강구안의 떠오르는 야간관광 명소인 강구안브릿지는 다리 위에서 내륙과 바다쪽의 경치를 한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으로 유명. 야간에는 보도교에 형형색색의 조명이 켜져 다리 자체로도 훌륭한 야경을 연출.

● 서포루

통영성(統營城)의 서피랑에 있던 포루. 동피랑과 마찬가지로 가파르고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나 절벽이 서쪽에 있다 하여 서피랑으로 부름. 서피랑은 여황산의 능선이 바다로 흘러내리다 높이 솟구친 언덕배기로 이곳에 있었던 서포루를 일제가 강점기 때 훼손했던 것을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

● 박경리기념관

대하소설 『토지』의 저자 박경리 선생의 기념관. 작가의 대표작인 『토지』 친필원고와 여권, 편지 등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작가가 집필한 작품에 관한 논문 등을 모아놓은 자료실과 영상실이 마련되어 있음



눈꽃들이 햇살에 눈부시게 반짝이다

민주지산

珉周之山



영동군청

위 치 충청북도 영동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

높 이 1,241.7m

관리주체 영동군, 무주군, 김천시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최동북단에 위치하여 충청, 전라, 경상 삼도를 가르는 삼도봉을 거느린 명산이다. 소백산맥의 일부인 민주지산은 추풍령(秋風嶺)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자연환경

부드럽고 후덕한 산세, 무리지는 진달래 능선

산행의 기점은 정상의 동북쪽 방향인 한천마을과 남쪽 아래의 대불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삼도봉, 석기봉이 명소이며, 석기봉 동쪽에는 원시숲과 화전민터가 있어 옛 주



민주지산 전경



민주지산의 가을



민주지산 정상석

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물한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1972년에 지은 황룡사가 있다. 석기봉과 삼도봉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은 봄이면 온통 산죽과 진달래가 군락을 이뤄 꽃산행을 즐기게 된다. 다른 산의 진달래가 무리지어 군락을 이루는데 반해 이 곳 진달래는 능선을 따라 도열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한계곡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 쪽 등산로는 민주지산에서 가장 길고 아름답다. 삼도봉을 비롯한 1,000m가 넘는 네 봉우리에서 흘러내린 계곡이 모두 물한계곡에서 합쳐 지기에 수량이 풍부하고 경관이 수려하다. 특히 물한계곡에는 황룡사 부근의 용소와 옥소폭포·의용골폭포·음주골폭포(미너미폭포) 등이 볼 만하다.

명칭유래

『신증동국여지승람』(무주)에는 “무풍 북쪽 15리에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여지도서』(무주)에는 “삼도봉에서 뻗어 나오며, 관아의 동쪽 50리에 있다.”고 수록되어 있다. 조선 시대에는 ‘백운산’으로도 불렸는데, 이는 흰구름이 늘 끼여 있다고 하여 이름 한 것이다. 『조선지리지』에는 “민주지산(靑珠地山)은 용화면 안하동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문헌에 따라 ‘민주지’의 한자 표기가 달랐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민주지산(靑周之山)’이 기록되어 있으며, ‘민주산(靑周山)’, 민주지산(靑周之山)이란 다른 이름도 소개하고 있다.

민주지산의 사계

- 봄 : 주능선에 펼쳐지는 진달래 군락
- 여름 : 맑은 물살 굽이 도는 물한계곡
- 가을 : 정상에서 만나는 억새
- 겨울 : 눈꽃으로 유명한 민주지산의 설경

사진명소

- 황룡사 출렁다리 : 황룡사에서 등산로와 연결된 출렁다리
- 화합의 탑 :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의 경계점이라는 삼도봉에 있는 탑

산행 팁!

산행 도중 머리를 다친 경우, 출혈이 있을 때는 깨끗한 수건이나 헝겊 등으로 신속하게 지혈을 하도록 함. 다친 사람이 의식을 잃거나 토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등 이상반응이 있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인도해 검사를 받아보도록 함

주요등산로

- ① 물한계곡 → 민주지산(정상)
물한계곡 → 옥소골 → 민주지산(정상)
- ② 물한계곡 → 삼도봉 → 민주지산(정상)
물한계곡 → 옥소골 → 삼도봉 → 민주지산(정상)
- ③ 물한계곡 → 도마령 입구
물한계곡 → 민주지산(정상) → 각호산 정상 → 상용정 → 도마령입구

📷 사계

📷 명소

고도(m)



민주지산 정상의 억새



민주지산의 설경



황룡사 출렁다리



화합의 탑



👁️ 주변관광지

📍 송호관광지

28만 4,000여 m² 부지에 조성된 휴양관광지

주차장, 취사장, 체력단련장,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분수대, 장미꽃터널, 살구꽃동산, 등산물을 형상화한 조각공원 등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



📍 영동 국악체험촌

세계 최대의 북 '천고'가 안치된 천고각



난계 박연 선생의 탄생지. 국악의 고장인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에 위치. 우리소리관, 국악누리관, 소리창조관, 천고각 등 4개 동의 시설을 갖춘. 우리 전통음악을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제류형 국악 타운

📍 영동와인터널

영동의 와인을 주제로 볼거리 많은 다양한 테마 제공

레인보우 힐링타운이 위치한 영동을 매천리에 조성된 길이 420m, 폭 4~12m, 높이 4~8m의 와인 터널. 와인의 역사를 살펴보며 휴식할 수 있는 시설과 영동의 농가에서 만든 와인들을 전시판매



함께 가 볼 만한 곳



민주지산자연휴양림



강선대

●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충청북도 최남단인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충청·전라·경상도와 이웃하고 있는 휴양림. 소백산맥 줄기에 분포하는 각호산(1,176m), 민주지산(1,241.7m) 등 주변의 명산에 둘러싸인 자연 그대로의 휴양림

● 강선대

양산8경 중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곳으로 유유히 흐르는 금강가에 우뚝 솟은 바위 위 오롯이 서 있는 육각정자. 멀리서 보면 주변 노송들과 어울려 우아하고 고상한 멋이 흐름

● 난계사

밀양 박씨 북야공파 문중의 선산에 위치한 난계 박연의 사당. 1972년에 건립되고 1976년 충청북도기념물로 지정. 사당 일대에는 박연을 비롯한 6인의 위패를 봉안한 세덕사와 박연의 묘소, 그의 사촌형인 국당 박홍생의 묘비, 쌍효각 등이 있음



고창 벌판에 장대하게 솟다

방장산

方丈山



고창군청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림면, 정읍시 입암면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높 이 743m

관리주체 고창군,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과 정읍, 전라남도 장성의 경계에 솟아 있다. 내장산의 서쪽 줄기를 따라 뻗은 능선 중 가장 높이 솟은 봉우리이다.

자연환경

신령스럽고 산세 깊은 곳에 솟은 봉우리들

방장산은 고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으뜸 산으로 지리산·무등산과 함께 호남의 삼신산으로 추앙받아 왔다. 호남정맥인 내장산 까치봉과 백암산 중간 지점의 순창새재에서 서쪽으로 갈려 나온 영산기맥이 입암산과 갈재를 지



방장산 전경



운무에 쌓인 방장산



방장산 정상

나면 고창의 관문인 방장산이 있다. 방장산의 물줄기는 북쪽은 용추계곡과 갈곡천을 지나 서해, 남쪽은 영산강을 통해 목포 앞바다로 흐른다.

호남고속국도를 타고 남으로 가다보면 호남평야가 끝나면서 길이 산으로 들어간다. 왼쪽에서는 입암산 정상의 농바위가 문인화처럼 인상적인데 오른쪽으로는 포장(布帳)처럼 장대한 방장산이 솟아 있다. 평지에서 불쑥 솟구친 데다 능선들이 일필휘지로 그린 듯 단순하다. 그만큼 전망이 좋아 고창읍내와 주변 평야는 물론이고 그곳의 명소 모양성까지, 그림지도처럼 생생하게 보인다.

방장산에는 천오백년 고찰인 상원사와 임공사, 방장사가

있으며 근래에 세운 미륵암이 있다. 또한 수심이 깊어 용이 승천하였다는 용추폭포가 흐른다. 방장산 정상에 오르면 고창읍을 비롯하여 광활한 야산 개발지와 멀리는 서해바다가 보이며 동쪽으로는 광주 무등산까지 보인다.

명칭유래

방장산은 중국 삼신산의 하나에서 빌려온 이름으로 '산이 넓고 커서 백성을 감싸준다.'는 뜻이다. 한국은 중국의 삼신산을 본떠 금강산을 봉래산, 지리산을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으로 불렀다. 호남 지역에서는 방장산, 무등산, 지리산을 삼신산으로 불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일봉래로 변산을, 이 방장으로 방장산을, 삼영주로 두승산을 삼신산으로 하였다.

방장산의 사계

- 봄 : 능선에 올라 조망하는 고창 벌판의 봄
- 여름 : 편백나무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의 상쾌한 향기
- 가을 : 억새봉에 핀 쭉부쟁이, 구절초, 억새의 합창
- 겨울 : 바위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눈 쌓인 산줄기

사진명소

- 방장산자연휴양림 : 방장산 중턱에 위치한 자연휴양림
- 방장사 : 벽오봉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마한 사찰로 고창 들녘 조망
- 억새봉 : 넓은 초원이 펼쳐지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주요등산로

- 1 장성갈재 통일공원 → 방장산자연휴양림
장성갈재 통일공원 → 방장산 입도 → 산악기상
관측장비 → 방장산 능선 → 조망점 백암재 →
방장산자연휴양림
- 2 용추폭포 → 코끼리바위
용추폭포 → 코끼리바위
- 3 통일공원 → 신선봉(큰솔봉)
통일공원 → 쓰리봉 → 서대봉 큰마위 → 신선봉
(큰솔봉) → 방장산 패러글라이딩장 → 방문산
벽오봉 → 갈미봉 → 양고살재

산행 팁!

산행으로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외선 차단제를 사전에 꼼꼼히 바르도록 함. 모자는 자외선 차단은 물론 나뭇가지 등으로부터도 얼굴을 보호하므로 착용하는 것이 좋음

📷 사계

📷 명소



방장산 눈 쌓인 산줄기



방장산자연휴양림



방장사



억새봉

고도(m)



👁️ 주변관광지

📍 석정웰파크시티 / 석정온천

온천 산행 가능



게르마늄 온천수를 사용하는 온천욕장으로 실내·실외 스파 온천욕을 즐기는 이용객에게 온천의 즐거움과 건강을 함께 선사

📍 선운산도립공원

호남의 내금강으로 불리는 명산지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 곳곳에 기암괴석이 봉우리를 이루고 있어 경관이 빼어나며, 숲이 울창한 가운데 천오백년 고찰 선운사가 자리하고 있음



📍 동호해수욕장

청정해변에서 부드러운 백사장



해리면 동호리에 소재하고 있는 해수욕장으로 수백년 된 소나무 숲이 장관을 이루고, 4km의 백사장은 모래가 가늘며 경사가 완만함. 바닷물의 염도가 높아 피부병과 신경통 환자의 모래찜으로 유명

함께 가 볼 만한 곳



하전갯벌마을



고인돌유적지

● 하전갯벌마을

하전마을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 선정. 10km의 해안선과 1200ha에 이르는 광활한 갯벌이 펼쳐진 마을. 연간 4천톤의 바지락 생산하는 전국 최대 바지락 생산지. 갯벌체험, 바지락캐기, 갯벌택시타기일반형, 가족형, 단체형,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갯벌의 산 교육장으로 전국적인 웰빙 갯벌생태 체험학습장으로 유명

● 운곡람사르습지

운곡람사르습지는 안덕제, 운곡제 등 크고 작은 둠벙(물웅덩이)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둠벙은 주변 생태연못 등으로 흘러 습지생태 자원들의 서식처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고인돌유적지

고창 고인돌유적은 죽림리와 상갑리, 도산리 일대에 무리지어 분포하고, 2000년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됨. 단일 구역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군집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한 지역에 분포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기준 제3항(특별하거나 아주 오래된 것)을 적용, 세계유산적 가치를 인정. 2023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사방에 긴 능선과
깊은 골짜기로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다

방태산

芳台山



인제군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상남면, 홍천군 내면

높 이 1,435.57m

관리주체 인제군, 홍천군

개요

태백산맥의 줄기인 중앙산맥에 속하는 산으로서 북쪽에는 점봉산(点凤山 1,424m)·가칠봉(加漆峰 1,165m), 서쪽에 가마봉(可馬峰 1,192m), 남쪽에 맹현봉(孟峴峰 1,214m), 동쪽에 응복산(鷹伏山 1,360m) 등이 솟아 있다.

자연환경

약수 많고 승지 많아 철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

방태산은 인제군과 홍천군의 경계를 이루는 높이 1,435m의 산이다. 북쪽으로 설악산, 점봉산, 남쪽으로는 개인산과 접하고 있다. 방태산은 나무들이 울창하며 깃대봉



방태산 전경



방태산 계곡



방태산 이단폭포

(1,436m), 구룡덕봉(1,388m)과 능선으로 연결된 오지의 산이다. 사계절 내내 물이 마르지 않으며 희귀식물과 어종이 살고 있다.

방태산은 사방이 긴 능선과 깊은 골짜기를 뺀고 있는 풍광이 뛰어나다.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아직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계곡을 간직하고 있으며, 골짜기와 폭포가 많아 철마다 빼어난 경관을 볼 수 있는 산이다. 방태산 아침가리골의 질푸른 물은 암반 위를 구슬처럼 굴러 떨어지고, 적가리골은 펼쳐진 부채 같은 독특한 땅 모양을 가지고 있다. 방태산은 수량이 풍부하고 마당바위와 이단폭포는 절경을 이룬다. 피나무, 박달, 소나무, 참나무류 등 수종이 다양할 뿐더러 열목어, 메기 등의 물고기와 멧돼지,

토끼, 꿩 노루, 다람쥐 등 많은 야생동물도 서식하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를 만끽할 수 있다.

명칭유래

산의 모양이 주걱처럼 생겼다고 해서 주억봉이라고 부른다. 몇몇 지도에서 방태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주억봉 서쪽의 봉우리가 방태산이다. 산 주변은 삼승사가리라고 부르는데, 산 남쪽의 내린천 부근에 있는 살둔, 월둔, 달둔의 3둔과 산 북쪽에 있는 아침가리, 결가리, 적가리, 연가리의 4가리를 일컫는 말이다.

방태산의 사계

- 봄 : 방태산 자락에서 채취한 고로쇠 수액
- 여름 : 폭포가 만들어주는 한여름의 시원함
- 가을 : 적가리골 폭포와 어우러진 화려한 단풍
- 겨울 : 깊은 산 골짜기 사이사이 소담하게 쌓인 눈

사진명소

- 아침가리골 : 아침나절에만 받을 갈 수 있다 해서 '아침가리'라는 이름이 붙은 골짜기로 트레킹하기 좋은 곳
- 이단폭포 : 적가리골 중류에 위치하고 있는 방태산의 상징과도 같은 폭포
- 주억봉 정상 : 북쪽으로 가리산, 점봉산과 설악산 대청봉까지 볼 수 있는 전망 지점

주요등산로

- 1 방태산 등산로 입구 → 구룡덕봉
방태산 등산로 입구 → 주억봉 → 구룡덕봉 → 매봉령

산행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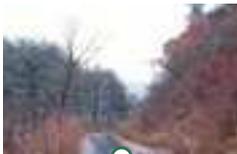
산행 중 컨디션에 따라 휴식을 취할 경우, 다른 등산객의 산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산행로를 피해 쉬는 것이 바람직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공간을 찾아 자리를 잡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

 사계

 명소



적가리골 화려한 단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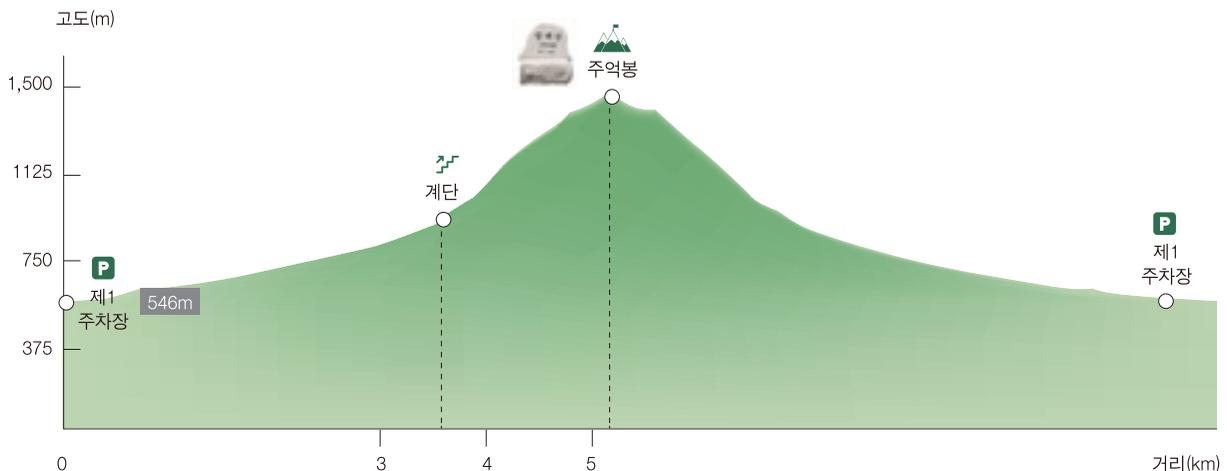
아침가리골



이단폭포



주억봉 정상



👁️ 주변관광지

📍 내린천 번지점프

인제 합강에 위치한 번지점프



국내 최고인 63m 높이에서 뛰어내리며 짜릿함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번지점프. 줄을 묶는 위치에 따라 발목(앵클) 점프와 허리(바디) 점프로 나뉘며 스릴감을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

📍 곰배령

하늘 위 꽃밭, 천상의 화원

1000m가 넘는 고지 위에 시야가 탁 트인 평원이 펼쳐지고, 그 위에 진귀하고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뒤덮여 '꽃 세상'을 이루는 화원. 원시의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산림 유전자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



📍 스카이워크

하늘에서 그네도 타고 레일도 탈 수 있는 스카이워크



피라미드 타워형 전망대까지 캡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는 체험 가능. 밀리터리 테마파크와 내린천, 인제 시내가 한눈에 조망

함께 가 볼 만한 곳



원대리자작나무숲



38공원

● 원대리자작나무숲

인제읍 인근의 자연 생태관광지인 원대리자작나무숲은 1974년부터 1995년까지 138ha에 자작나무 69만 본을 조림하여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그중 25ha를 유아 숲체험원으로 운영. 자작나무숲의 탐방은 입구에서 입산 기록 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제군을 대표하는 자연 생태관광지

● 38공원

인제군 남면 관대리와 남전리를 잇는 38대교 끝에 위치한 공원. 인제군에서 스토리텔링을 발굴 및 형상화하여 잊혀져 가는 38선의 역사적 가치를 제공하고, 인제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구축하기 위해 조성

● 비밀의정원

인제 갑둔리에 위치한 비밀의정원은 풍경 사진이 잘 나오기로 소문난 장소. 아침 일찍 비밀의정원을 보러 가면 서리가 낀 모습, 안개가 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풍경들이 아름답게 찍히는 신비한 정원



천연 원시림 숲에서
빠어난 설경에 마음을 빼앗기다

백덕산

白徳山



영월군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 횡성군 안흥면
영월군 무릉도원면

높 이 1,350.1m

관리주체 영월군, 평창군, 횡성군

개요

태백산맥의 줄기인 내지산맥(內地山脈)에 속하는 산으로 주위에 사자산(1,180m)·구봉대산(870m)·수정산(989m) 등이 솟아 있으며, 산세가 험한 편이다.

자연환경

천연 원시림을 간직한 범홍계곡

백덕산은 영월 북쪽의 백덕지맥을 대표하는 산이다. 백두대간에서 동쪽으로 뻗어 나온 한강기맥이 횡성의 태기산에 이르러, 서남쪽으로 뻗어 가는 영월지맥과 남쪽으로 뻗어 가는 백덕지맥으로 갈리는데, 남쪽으로 뻗어 내려



백덕산 전경



백덕산 서울대나무



백덕산 계곡

은 백덕지맥은 사자산에 이르러 영월군 북쪽 끝에 다다른다. 영월 북쪽으로 들어온 백덕지맥은 사자산에서 서쪽으로 뻗어 가면 샷갯봉(1,029m)을 거쳐 학산(439m)에 이르고, 서남쪽으로 연화봉(924m)과 구봉대산(901m), 구룡산(967m)을 이루며, 동남쪽으로 백덕산을 거쳐 주천강과 평창강이 합류하는 한반도면 신천리까지 이른다. 영월 북쪽 무릉도원면과 한반도면 신천리 북쪽의 산들은 이 백덕지맥에 속한다.

천연 원시림을 간직한 범홍계곡과 함께 설경이 뛰어나 겨울철 산행지로 유명하다. 더욱이 백덕산 남서쪽 연화봉 아래에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상원사, 영취산 통도사, 태백산 정암사와 함께 5대 적멸보궁 중 하나인 신라시대 천

년고찰 범홍사가 있어 더욱 유명하다.

명칭유래

백덕산은 겨울철에 내린 하얀 눈이 늦봄까지 산봉우리를 덕스럽게 덮고 있다 하여 이름 붙었다. 예로부터 4가지 재물, 즉 동쪽의 옷나무, 서쪽의 산삼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는 흉년에 먹는다는 흙이 각각 있다고 하여 '사재산(四財山)'이라고도 불린다.

백덕산의 사계

- 봄 : 노루귀, 잔털제비꽃, 노랑제비꽃, 금강제비꽃, 개별꽃 등 야생화
- 여름 : 천연 원시림 가득한 그늘 속 산행
- 가을 : 주계곡의 원시림이 그대로 보존된 단풍
- 겨울 : 겨울에 내린 하얀 눈이 봄까지 봉우리를 덮은 모습

사진명소

- 백덕산 정상 : 두개의 암봉이 우뚝 솟은 협소한 쌍봉으로 이뤄짐
- 범홍사 : 불상을 모시지 않고 부처님진신사리와 범당만 있는 5대 적멸보궁
- 바위봉 정상 : 가리왕산과 오대산을 비롯해 남쪽의 소백산, 서쪽의 치악산이 한눈에 조망

주요등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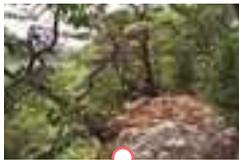
- 1 문재 쉽터 → 백덕산(정상)
문재 쉽터 → 백덕산 등산로 입구 → 백덕산(정상)
- 2 먹골 정류소 → 백덕산(정상)
먹골 정류소 → 운교리 마을회관 → 백덕산 등산로 입구 → 백덕산(정상)
- 3 영월 공영 행복버스 → 백덕산(정상)
영월 공영 행복버스 → 백덕산 등산로 입구, 백년계곡 → 신선바위 → 촛대바위 → 백덕산(정상) → 용바위 → 설통바위 → 흥원사

산행 tip!

겨울 산행 중 양말이 젖었을 경우 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여벌의 양말을 꼭 챙겨야 함

📷 사계

📍 명소



백덕산 천연 원시림



백덕산 정상



범홍사



바위봉 정상



👁️ 주변관광지

📍 영월동강생태공원

태고적 원시의 생태를 간직한 생태계의 보고



수려한 자연환경과 희귀동식물을 비롯해 수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동강. 구불구불한 뱀모양의 사행천에 수달과 원앙이 살고, 자연의 숨결을 간직한 동굴과 동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명산들까지 천혜의 비경, 그대로 볼 수 있음

📍 단종대왕 유배길-통곡의 길

솔치고개부터 청령포에 이르는 테마 길

단종대왕 유배길은 당시 단종이 한양을 출발하여 청령포에 도착하기까지 7일 간의 여정 중 영월에 들어오는 솔치고개에서부터 청령포에 이르는 길까지를 테마 길로 조성



📍 한반도 전기카트 체험장

신재생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고카트 체험장



영월군의 대표 관광지인 한반도지형을 축소하여 자연 친화적인 한반도 모양의 카트 트랙을 조성. 카트체험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 전망대, 포토존이 조성된 체험장

함께 가 볼 만한 곳



별마로천문대



한반도면

● 별마로천문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읍 영흥리 봉래산 정상에 건설된 국내 최대 규모의 천문대. 연간 관측일 수가 196일로 우리나라 평균 116일보다 훨씬 많아 국내 최고의 관측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2001년 개관

● 한반도지형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한반도를 빼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한반도지형을 감싸고 흐르는 감입곡류하천의 침식작용에 의해 생긴 곳. 이곳에서는 이 지역에서 관찰되는 석회암, 감입곡류하는 서강, 한반도 지형이 만들어진 과정, 돌리네, 석회암의 쓰임새 등을 볼 수 있음

● 국립 청태산자연휴양림

인공림과 천연림이 잘 조화된 울창한 산림의 국유림 경영 시범 단지. 숲속에는 온갖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 박물관을 찾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음. 심신수련을 위한 숲속 교실, 울창한 잣나무 숲속의 산림욕장, 목공예실(실내), 무클라이밍(실외), 숲 속 교실, 오감체험코스 등 다양한 휴양림 서비스



애기단풍,
찬란한 아름다움을 뽐내다

백암산

白巖山



장성군청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북흥면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높 이 741.2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내장산국립공원)

개요

노령산맥이 남서쪽으로 뻗다가 호남평야에서 솟아 오른 명산으로 백암산은 내장산과 함께 1971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봄(春) 백양, 가을(秋) 내장

백암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서쪽 끝자락 내장산 국립공원 내의 호남정맥에 솟아 있는 산이다. 산줄기는 완주군 주화산에서 분기된 호남정맥이 남으로 뻗어가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수많은 산들을 솟구쳐 놓고 추령



백암산 단풍



백양사 쌍계루



백암산 능선

과 내장산의 장군봉과 주봉인 신선봉을 지나 새재에 이르러 530봉에서 서쪽에 입암산과 유달산으로 뻗어 가는 영산기맥으로 갈라진다. 이곳에서 호남정맥은 남쪽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지역의 경계를 달리다가 곧바로 백암산의 정상인 상왕봉을 일구어 놓고 광양의 백운산까지 이어진다. 백암산의 물줄기는 남쪽은 장성호를 통해 영산강에 합수되고, 북쪽은 추령천을 통해 섬진강에 합수된다.

백암산은 단풍나무, 비자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등이 무성하여 10월 말부터 11월 초순에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 이 무렵이면 단풍 축제가 열린다. 백암산에는 5,000여 그루의 비자나무 숲(천연기념물), 굴거리나무 숲(천연기념물), 고

로쇠나무 등의 난대성 상록수림이 많다. 예부터 백양사의 비자나무 숲과 벚꽃나무는 가을의 내장산 단풍과 더불어 유명하며 산세가 부드러워 어렵지 않게 등산을 즐길 수 있다.

명칭유래

백암산(白巖山)은 흰 백(白), 바위 암(巖)을 써서 흰 바위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백암산 남쪽 기슭에 있는 사찰 백양사 근처에는 사찰과 잘 어우러지는 기암봉이 있는데, 이 바위가 학바위 또는 백학봉이다. 백양사는 원래 이름이 백암사였는데, 환양 선사(喚羊禪師)가 학바위 아래 영천암에서 제자들을 모아 놓고 아미타불경을 설법할 때 백

양 한 마리가 백학봉에서 내려와 경청한 뒤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다 하여 백양사(白羊寺)로 이름을 지었다는 전설이 있다.

백암산의 사계

- 봄 : 산자락에 앙증맞게 핀 변산바람꽃
- 여름 : 등산 구간 내 가득한 조릿대와 초
- 가을 : 백학봉의 회백색 바위와 독특한 조화를 이룬 애기 단풍
- 겨울 : 상왕봉에서 내려다보는 설산 파노라마 능선

사진명소

- 쌍계루 : 한쪽의 그림처럼 어울리는 쌍계루와 백학봉 풍경. 국가지정 명승
- 백양사 :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본산인 대사찰
- 비자나무 숲 : 비자나무 5,000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는 곳
- 백학송 전망대 : 크고 작은 능선들이 한눈에 조망됨

주요등산로

- 1 내장산국립공원(남창지구)(버스정류장) → 입암산성 남문 → 은선동삼거리 쉼터
내장산국립공원(남창지구)(버스정류장) → 은선동삼거리 쉼터 → 갓바위 → 거북바위 → 진현지 → 황룡강 발원지 → 입암산성 남문 → 은선동삼거리 쉼터
- 2 내장산국립공원(남창지구) → 장성새재 옛길 → 아마존캠핑장
내장산국립공원(남창지구) → 내장산국립공원 남창탐방지원센터 → 장성새재 → 순창새재 → 장성새재 쉼터 → 장성새재 옛길 → 아마존캠핑장
- 3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 지구 → 백학봉 → 내장산 백양사캠핑장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 지구 → 내장산국립공원 백양탐방지원센터 → 청류암 → 백암산 상왕봉 → 백학봉 → 영천암 → 일광정 → 용수 폭포 → 내장산 백양사캠핑장

 사계

 명소



봄에 핀 변산바람꽃



쌍계루



비자나무숲



백학송 전망대



👁️ 주변관광지

📍 장성호 수변길

장성읍과 북이면, 북하면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로 1976년 완공



최대수면 면적이 68.9km², 총 저수용량 1억여 톤에 달할 정도로 넓으며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 장성호 상류 관광지에는 문화예술공원, 임권택시네마테크, 수물문화관이 있음

📍 홍길동테마파크

홍길동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

『조선왕조실록』의 충분한 고증을 거쳐 홍길동 생가터를 원형대로 보존. 소설 속 허구적 인물에서 역사상 실존 인물로, 반역자 또는 도적에서 영웅으로 부활한 홍길동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는 특별한 테마파크



📍 금곡영화마을

1950 ~ 60년대 시골 풍경을 간직한 영화촬영지



장성군 출신인 임권택 감독의 <태백산맥>(1994)을 시작으로 <내마음의 풍금>(1998), <만남의 광장>(2007), 김수용 감독의 <침향>을 비롯하여 MBC TV 드라마 <왕초> 등 옛 농촌 풍경을 배경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를 다수 촬영한 마을. 세트장이 아닌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로 생동감 있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축령산 편백 숲



황룡강 생태공원

● 축령산 편백 숲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과 경계를 이룬 축령산(621.6m) 일대에는 5 ~ 70년생 편백과 삼나무 등 늘푸른 상록수림대 1,150ha가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냄. 독립가였던 춘원 임종국 선생은 6.25전쟁으로 황폐화된 무입목지에 1956년부터 20여 년간 조림하

고 가꾼 전국 최대 조림 성공지

● 황룡강 생태공원

민물고기와 물풀이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비교적 생태계가 잘 보존된 황룡강. 황룡강 둔치에 피어나는 유채꽃과 분수를 바라보며 걷는 편안한 휴식을 체험할 수 있음

● 필암서원

조선중기 김인후 선생을 모신 서원으로 2019년 7월 전국 9개 서원과 함께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하얀 구름에 싸여 독특한 비경을 자아낸다

백운산

(포천) 白雲山



포천시청

위 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높 이 904.1m

관리주체 포천시

개요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광덕산(1,046m)·국망봉(1,168m)·박달봉(800m)의 산들에 둘러싸여 있다. 무엇보다 백운계곡이 유명하여 여름철 피서지로 많이 이용된다.

자연환경

자연의 선물, 백운계곡

백운산 정상은 육산이지만 올라가는 계곡길과 능선길 곳곳에 화강암으로 된 바위와 깎아세운 듯한 단애가 있어 경치가 좋다.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를 구분짓는 산으



백운산 전경



백운산 능선



백운산 비둘기낭폭포

로 주변의 광덕산, 국망봉, 박달봉 등과 같은 높은 봉우리들과 무리를 이루고 있다. 크고 작은 연봉들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가운데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옥수와 구비마다 전설을 간직한 취선대 등의 절경이 사계절 모두 독특한 비경을 간직하고 있다.

경기의 최고봉인 화악산이 동남쪽으로 맥이 닿아 있고 북쪽의 광덕산과는 광덕고개(일명 캐러멜고개)를 사이에 두었다. 백운계곡은 영평팔경의 하나로 꼽힐 만큼 계곡미가 뛰어나며 가을 단풍도 절경이다. 사계절 내내 독특한 비경을 간직한 이 산은 겨울철 설경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하다. 그래서 겨울 산행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휴산으로 수림이 울창해 계곡이 발달했지만 곳곳에 하얀 화강

암 바위들과 깎아 세운 듯한 낭떠러지가 있어 산행의 묘미를 더해준다. 화강암 계곡 특유의 둥근 바위가 개울안에 그득하고 맑은 계곡물이 곳곳에 소(沼)를 이루고 있다. 여기저기 너럭바위와 그 곁에 늘어선 늙은 소나무들, 물가까지 이어진 낭떠러지가 운치를 더해준다. 남북으로 쭉 뻗은 주능선의 서쪽으로는 지능선이 완만하게 뻗어 있고, 산속에서 나오는 풍부한 물이 암반을 노출시켜 자연스레 계곡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명칭유래

흰 구름이 항상 끼여 있어 '하얀 구름에 쌓인 산'이라는 뜻의 백운산(白雲山)이라고 불리었다고 한다.

백운산의 사계

- 봄 : 수려한 산세 가득 채운 연두빛 새순
- 여름 : 산속에서 나오는 풍부한 물이 흐르는 계곡
- 가을 : 능선 참나무숲길에 수북한 낙엽 양탄자
- 겨울 : 깊은 계곡 사이사이 소복하게 내려앉은 설경

사진명소

- 백운계곡 : 광덕산과 백운산에서 발원한 물이 모여 형성된 골짜기로 계곡의 길이는 10km에 달함
- 홍룡사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백운산에 있는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의 승려 도선국사가 창건한 사찰
- 너럭바위 : 화강암 계곡 특유의 둥근 바위로 무더위를 식히는 여름 등산의 묘미

주요등산로

- 1 백운계곡 국민관광지 → 백운산(정상)
백운계곡 국민관광지 → 홍룡사 → 백운계곡 → 봉래굴 → 백운산(정상)
- 2 광덕고개(광덕휴게소) → 백운산(정상)
광덕고개(광덕휴게소) → 철계단 → 남서쪽 능선 → 백운산(정상)
- 3 백운계곡 주차장 → 백운산(정상)
백운계곡 주차장 → 봉래굴 → 향적봉 → 도마치봉 → 삼각봉 → 백운산(정상)
- 4 백운계곡 주차장 → 백운산(정상)
백운계곡 주차장 → 향적봉 → 도마치봉 → 삼각봉 → 백운산(정상)

📷 사계

📷 명소



백운산 설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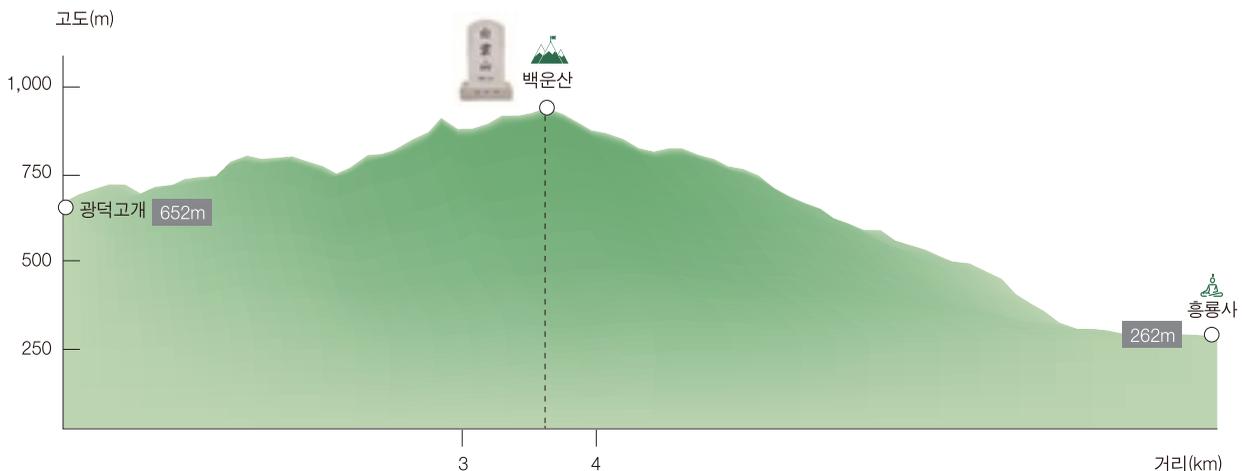
백운계곡



홍룡사



너럭바위



 주변관광지

 포천 루지월드

서울에서 가까운 루지 체험장



트랙 경사도는 완만하지만 곡선 코스가 반복되어 속도감과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루지 체험장. 루지 트랙을 위해 산을 깎아 만든 곳이 아닌 베어스타운 슬로프를 스키 시즌이 아닌 봄, 여름, 가을에 루지트랙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자연 훼손을 최소화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아프리카의 유물, 민속공예품, 음식과 민속공연이 함께하는 박물관

1, 2층 전시관에는 아프리카의 다양한 전시품들이 전시되며 400석 규모 공연장에서는 서부 아프리카 일대 여러 부족의 토속춤이 공연되며 문화원 출입구 인근 음식점에서는 아프리카 음식도 맛 볼 수 있음



 어메이징파크

체험 형식으로 제작된 공학기구 체험 파크



모든 기구물들은 직접 체험 형식으로 제작되어 유아부터 어른까지 기구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은 물론 공학 기구와 밀접한 유대감을 조성해 과학과 사람,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고리 역할을 함. 주요시설에 과학관, 별관 편의시설, 자이언트 분수, 히든브릿지, 서스펜션브릿지, 에어링로드 등이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평강랜드



운악산자연휴양림

● 평강랜드

4계절 테마파크 평강랜드는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움을 찾는 친환경 힐링공간으로 예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13개 테마정원과 실내 식물정원을 만날 수 있음

● 운악산자연휴양림

운악산의 수려한 산세에 걸맞게 아늑한 목조 건물로 조성한 산림 휴양 쉼터. 산림문화휴양관 2동, 숲속 수련장 1동을 비롯한 숙박 시설과 야영장, 2.2km에 달하는 숲 체험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휴양림을 출발점으로 가벼운 등반을 즐기기에 좋음

● 비둘기낭폭포

예로부터 겨울이면 수백 마리의 산비둘기가 서식해 비둘기낭이라 부르게 된 폭포. 한탄강변에 있던 폭포가 수십만 년 동안 침식으로 인해 뒤로 물러나면서 깊은 계곡과 함께 아늑한 보금자리를 형성한 것.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음



도선대사의 신령한 기운을 간직하다

백운산

(광양) 白雲山



광양시청

위 치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옥룡면·봉강면·다입면
구례군 간전면

높 이 1,222.2m

관리주체 광양시, 구례군

개요

반야봉·노고단·왕증봉·도솔봉·만복대 등과 함께 소백산맥의 고봉으로 꼽히며, 전라남도에서 지리산 노고단 다음으로 높다.

자연환경

한려수도를 한눈에 바라보며 오르는 순탄한 등산로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지리산과 남북으로 마주하고 있는 백운산은 봉황, 돼지, 여우의 세 가지 신령한 기운을 간직한 영산으로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와 호남벌을 힘차게 뺏어내리는 호남정맥을 완성하고, 섬진강 550리 물길



백운산 전경



백운산 능선



백운산자연휴양림

을 갈무리한 영산이다. 웅장한 지리산과 그림처럼 펼쳐진 한려수도를 한눈에 바라보며 산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백운산의 매력이다. 등산로 또한 순탄한 편이라서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다.

산 중턱에는 서울대학교의 연습림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 900여 종의 희귀한 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식물의 보고로서 주목받고 있다. 정상에 서면 북쪽으로 지리산 능선이 펼쳐지며, 그 앞으로 짙푸른 색을 띠며 흐르는 섬진강이 보인다. 남동쪽으로는 섬과 섬들이 점으로 이어지는 한려수도가 보인다. 울창한 원시림을 끼고 흐르는 맑고 깨끗한 물은 백운산의 4대 계곡인 성불계곡, 동곡계곡, 어치계곡, 금천계곡으로 흘러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다.

명칭유래

산의 유래로 『세종실록지리지』(광양)에 백운산에 대한 기록은 없고 진산(鎭山)으로 백계산(白鷄山)이 나온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옥룡사(玉龍寺), 송천사(松川寺), 황룡사(黃龍寺)가 백계산에 있다고 하고 있으나, 『여지도서』에서는 이 사찰들이 모두 백운산에 있다고 수록하고 있다. 또한, 『동여비고』(전라도)에는 '백운산은 백계라고도 한다(白雲山一名白雞)'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백계산이 백운산 줄기 전체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백운산의 사계

- 봄 : 새하얀 매화꽃으로 눈부신 섬진강 하류 백운산 자락
- 여름 : 성불·동곡·어치·금천계곡 등 백운산 4대 계곡에서 날리는 물보라
- 가을 : 억불봉의 만산홍엽
- 겨울 : 도솔봉과 한재 사이에 있는 파리봉의 눈부신 눈꽃과 설경

사진명소

- 백운산자연휴양림 : 호남정맥의 최고봉인 해발 1,222m 백운산 기슭에 자리한 휴양림
- 신선대 : 백운산 정상과 파리봉, 도솔봉 전망 가능
- 정상 전망대 : 암릉에 설치된 테크 전망대에서 굽이굽이 펼쳐지는 전경

주요등산로

- ① 논실 → 백운산(정상)
논실 → 한재 → 신선대 → 백운산(정상)
- ② 진틀 → 백운산(정상)
진틀 → 병암 → 진틀삼거리 → 백운산(정상)
- ③ 용소 → 백운산(정상)
용소 → 백운사 → 상백운암 → 백운산(정상)
- ④ 수련관 → 백운산(정상)
수련관 → 노랭이재 → 억불봉삼거리 → 백운산(정상)
- ⑤ 성불교 → 백운산(정상)
성불교 → 형제봉 → 도솔봉 → 파리봉 → 한재 → 백운산(정상)

📷 사계

📍 명소



백운산 봄 철쭉



백운산자연휴양림



신선대



정상 전망대



👁️ 주변관광지

📍 전남도립미술관

옛 광양역이 있던 자리에 건립한 도립미술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다수의 전시실을 갖췄으며, 구입작품 164점과 기증작품 18점 등 모두 182점이 상설 전시되고 있음. 카페, 도서실, 휴게실, 멀티프로젝트홀, 관람객 참여형 교육공간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인 광양예술창고는 옛 광양역 앞에 자리하던 폐창고를 개조하여 건립

📍 구봉산전망대

광양만 조망

광양시 전역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양항은 물론 여수와 순천, 하동, 남해 등 광양만권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관광명소. 봉수대, 산책로, 포토존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음



📍 광양와인동굴

와인과 함께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



광양의 새로운 명소로 광양제철선 개량화 사업에 따라 폐선이 된 기차 터널을 개발해 와인과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함께 가 볼 만한 곳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광양만 야경

● 광양9경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문화적 자료. 광양읍수는 군사적 목적과 바닷바람을 막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문화적자료. 이팝나무는 크고 오래된 나무로서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광양읍수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

● 옥룡사지 동백나무 숲

신라의 고승 도선국사가 중수한 사찰로 35년 간 수백 명의 제자를 양성한 곳. 중수할 당시 땅의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 심은 동백나무 10,000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

● 광양만 야경

동북아 물류의 중심 광양만의 야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이순신대교, 광양항,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야간에 아름다운 불빛이 파노라마로 펼쳐져 희망과 감동을 선사. 구봉산 전망대가 광양만 야경의 포인트



동강의 아름다움과 함께하다

백운산

(정선) 白雲山



산림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평창군 미탄면

높 이 883.5m

관리주체 정선군, 평창군

개요

정선에서 흘러나온 조양강(朝陽江)과 동남천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동강(東江)을 따라 크고 작은 6개의 봉우리가 이어져 있고, 동강쪽으로는 칼로 자른 듯한 급경사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환경

빼어나면서도 웅장한 기운

백운산은 정선에서 흘러나온 조양강과 동남천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산이다. 높이 1,426m. 동남쪽의 함백산(咸白山, 1,573m)을 비롯하여 서북쪽의 두위봉(斗 위峰, 1,466m), 북동



백운산 전경



백운산 슬로프



백운산 숲

쪽의 대덕산(大德山, 1,307m) 등과 함께 태백산맥의 고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다.

백운산은 동강의 중간지점에 있으며, 크고 작은 봉우리가 이어져 있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등산로이지만 동강이 산자락을 감싸고 흐르는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산행할 수 있어 조망이 좋다.

가장 짧은 코스는 점재길. 점재교에서 출발하여 백운산 정상까지 1.1km를 오르는 것이며, 이 코스는 시간은 짧지만, 급경사와 위험한 지형이 많아서 등산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완만한 코스는 문화마을에서 출발하여 백룡동굴 탐방센터 주차장을 거쳐 백운산 정상까지

3.2km를 오르는 것이며, 이 코스는 동강할미꽃 군락지와 백룡동굴을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명칭유래

흰 구름이 늘 끼여 있다고 하여 백운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지역 주민들은 배비랑산 또는 배구랑산이라고도 부른다. 백운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 『조선지도』, 『동국여지도』, 『팔도지도』, 『팔도분도』, 『관동지도』 등에 표시되어 있다.

백운산의 사계

- 봄 : 암릉 사이 피어난 동강할미꽃
- 여름 : 하늘길에서 만나는 시원한 바람
- 가을 : 동강과 조화를 이룬 울긋불긋 산의 정취
- 겨울 : 고목과 암릉에 어우러져 피어난 겨울 눈꽃

사진명소

- 한반도습지지형 : 대한민국의 명승으로 지정된 한반도 모양의 습지. 일대의 하천은 한반도습지(韓半島濕地)라는 이름으로 2015년 랍사르 습지에 등록
- 하늘벽 구름다리 : 칠족령 설화가 깃든 13m 다리
- 칠족령전망대 : 동강의 풍광을 볼 수 있는 전망대

주요등산로

- ① 칠족령 전망대, 백운산 하이킹 입구 → 백운산(정상)
 칠족령 전망대, 백운산 하이킹 입구 → 칠족령 → 하늘벽 구름다리 → 칠족령 전망대 → 백운산(정상) → 점재교 다리 → 정선 나리소 전망대 → 나리소 전망대 입구
- ② 백룡동굴(버스정류장) → 백운산(정상)
 백룡동굴(버스정류장) → 백운산 등산코스 안내도 → 백운산(정상) → 풋대봉 → 사각돌

산행 Tip!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된 구간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구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산행하도록 함

📷 사계

📍 명소



동강할미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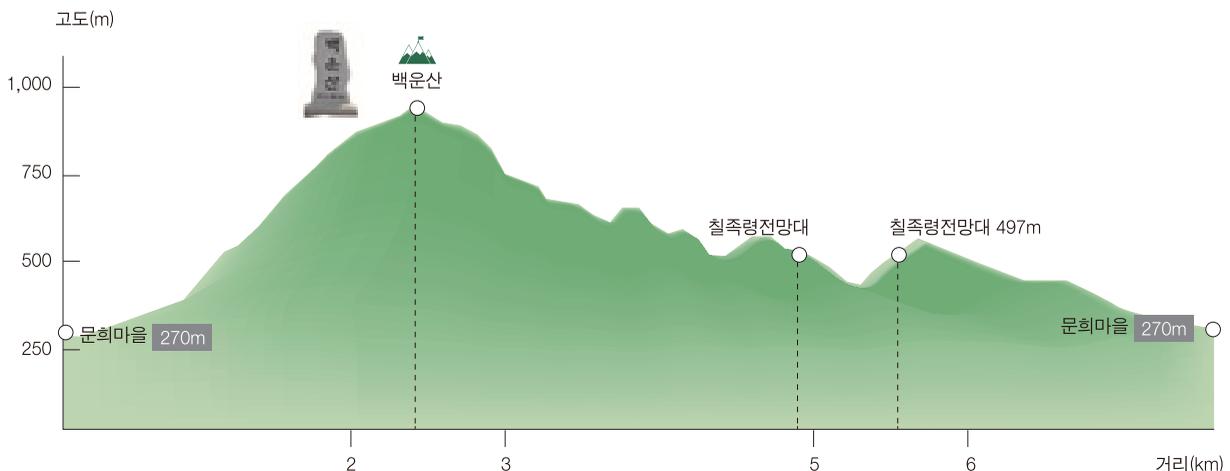
한반도습지지형



하늘벽구름다리



칠족령전망대



👁️ 주변관광지

📍 정선아리랑열차

태백선, 정선선, 중앙선을 왕복하는 관광 열차



레일 크루즈 해랑으로 사용되던 무궁화호를 개조 후 사용하며 새마을호 특실 등급으로 운행. A-train(에이 트레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차와 발전차 부분의 보라색은 동강할미꽃 색채 모티프를 가져와 디자인하였고, 객차 4량은 누리실, 땅울림실, 사랑인실, 하늘실 등으로 꾸며져 운행함

📍 벅스랜드(스카이벅스)

VR 시스템을 적용한 신개념 놀이 시설

공중에 매달린 곤충 모양의 탑승기구를 타고 VR기기를 착용한 후 페달을 밟으면서 곤충세계를 탐험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 VR이 끝난 후 구절리의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있음



📍 문치재

룽보드 성지로 알려진 옛 고갯길



정선의 지방국도 424호선에서 만날 수 있는 옛 고갯길. 함양 오도재와 보은 말티재, 흑산도 12굽이 길과 함께 손꼽히는 대표적인 고갯길. 총 길이 약 1.5km, 전 구간 극적인 S자 형태로 룽보드 성지로도 알려짐. 해발 732m 문치재 정상에는 문치재전망대가 있어 이국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짐

함께 가 볼 만한 곳



로미지안 가든



나전역카페

● 로미지안가든

치유의 숲 정원. 정선 가리왕산에 23개 테마코스(트레킹 7개 코스), 베고니아 스마트팜 등 각 예술 조형물을 설치하여 개관(2020. 04. 01.)한 정원. 베고니아 스마트팜 명상 재배실과 산 정상 발지압체험, 주말엔 클래식을 들을 수 있는 클래식 음악 감상까지 다양한 경험

● 상유재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고향규의 가옥. 정선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 시대 가옥으로 한옥스테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 나전역카페

정선역과 아우라지역 사이에 있는 기차역으로, 2011년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2015년 역사 복원 사업이 완공된 후, 2020년에는 카페로 재탄생.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드라마 <모래시계>, <킬미힐미>, 예능프로그램 <1박 2일>과 CF 촬영장소로 이용되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짐



산 호수 바다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다

변산

邊山



국립공원공단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진서면·상서면

높 이 508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변산반도국립공원)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에 위치한 산이다. 최고봉은 의상봉이다. 예로부터 능가산, 영주산, 봉래산이라 불렸으며 호남의 5대 명산 중 하나로 꼽혀왔다. 서해와 인접해 있고 호남평야를 사이에 두고 호남정맥 줄기에서 떨어져 독립된 산군(山群)을 형성하고 있다.

자연환경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뛰어난 경관

변산반도 내부의 남서부 산악지를 내변산, 그 바깥쪽 바다를 끼고 도는 지역을 외변산이라고 할 정도로 안과



변산 전경



멀리서 바라 본 변산



변산 바다

밖이 매우 다른 산이다. 최고봉의 높이는 낮으나, 쌍선봉·옥녀봉·관음봉·선인봉 등 400m 높이의 봉우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골도 깊다. 울창한 산과 계곡, 모래해안과 암석해안 및 사찰 등이 어우러지면서 뛰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어 일찍이 한국8경의 하나로 꼽혀왔으며, 산이면서 바다와 직접 닿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변산에는 높이 20m의 직소폭포(直沼瀑布), 높이 30m와 40m의 2개 바위로 된 울금바위, 울금바위를 중심으로 뻗은 우금산성(禹金山城) 외에 가마소·봉래구곡·분옥담·선녀당·용소(龍沼)·옥수담(玉水潭) 등 명소가 있다. 또 내소사(來蘇寺)·개암사(開岩寺) 등 사찰이 있고 호랑가시나무·팽팡나무·후박나무 등 희귀식물 군락이 서식하고 있다. 서해

를 붉게 물들이는 '월명낙조'로 이름난 낙조대(落照台)의 월명암(月明庵)도 유명하다.

명칭유래

변산(邊山)이라는 지명은 삼한(三韓)의 하나인 변한(卍韓, 弁韓)에서 유래하였다는 설과 가장자리와 끝을 의미하는 변(邊) 자에 산(山) 자가 결합되어 바다 쪽으로 뻗어 나온 산이 많은 반도 지역을 의미한다는 설이 있다. 기록상에서 '변' 자는 한자로 변(邊) 또는 변(卍)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변산의 사계

- 봄 : 변산바람꽃이 전하는 봄소식
- 여름 : 수직 낙하하는 직소폭포와 울창한 숲
- 가을 : 내소사 전나무 숲길과 어우러진 단풍
- 겨울 : 층층히 만들어진 암릉의 고드름

사진명소

- 내소사 전나무길 : 아름답리 전나무들이 600m에 걸쳐 늘어서 있는 길
- 직소폭포 : 우렁찬 물소리를 들려주는 변산8경 중 하나
- 월명암 : 쌍선봉(雙仙峰)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로 호남 지방의 3대 영지(靈地)로 손꼽히는 곳

주요등산로

- 1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소탐방지원센터 → 변산반도국립공원 내변산탐방지원센터 →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소탐방지원센터 →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소사 지구 → 내소사 전나무 숲길 → 내소사 → 관음봉 → 변산반도국립공원 내변산탐방지원센터
- 2 월암매표소 → 월명암
월암매표소 → 직소폭포 → 직소보 (분옥담) → 직소보 전망대 → 월명암 → 내변산 → 남여치
- 3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소탐방지원센터 → 바다재 →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소탐방지원센터 → 와룡소계곡 → 바다재
- 4 남산 → 청림마을
남산 → 어수대 → 비룡상천봉 → 쇠뿔바위 → 청림마을

 사계

 명소



봄 변산바람꽃



내소사 전나무 숲길



직소폭포



월명암



👁️ 주변관광지

📍 청림천문대

별과 우주를 꿈꾸고 탐구하는 산골학교터 전면 개방형 돔 천문대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정신수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체망원경 관람 등 우주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전국 최대 규모의 1,000m 반사망원경 및 8m 완전 개방형 돔, 밝은 성상을 관측할 수 있는 150mm 최고급 대구경 쌍안경 등 보조망원경 9종, 3D 입체 영상실이 있음. 숙박시설 및 운동 시설 보유

📍 청자박물관

고려 중기 청자 생산의 메카였던 부안읍 유천리

비취색의 찻잔 모양으로 2011년 4월에 개관한 청자박물관. 부안은 전남 강진과 더불어 고려 중기 청자 생산의 메카였으며, 한국의 도자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곳임을 알 수 있는 박물관



📍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부안군 하서면에 위치한 테마파크



대체에너지를 소개하고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성된 공간. 테마체험단지, 실증연구단지, 산업단지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채석강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 채석강

외편산 제일의 경관을 자랑하는 채석범주. 기암괴석들과 수천 수 만권의 책을 차곡차곡 포개 놓은 듯한 퇴적암층 단애로, 중국의 채석강(彩石江)과 그 모습이 흡사해 채석강이라 부르게 됨. 채석강은 썰물 때 드러나는 변산반도 서쪽 끝 격포항과 닭이봉 일대의 층암절벽과 바

다를 총칭하는 이름으로 퇴적암층이 절경임

● 변산해수욕장

서해안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으로 하얀 모래와 푸른 솔숲이 어우러졌다 하여 '백사청송' 해수욕장으로도 불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해수욕장의 하나로 1933년에 개장. 평균수심이 1m 밖에 되지 않고 수온이 따뜻해서 해수욕장으로서 좋은 조건을 갖춤

●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은 부안의 남쪽 끄트머리에 자리한 산책하기 좋은 고즈넉한 정원. 연인, 가족, 갯벌과 정원을 찍고자 하는 사진작가들의 인기 있는 관광지로 하루 코스 산책이나 소풍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음



명산의 3대 조건을 구비하고
산객을 반기다

북한산

北漢山



강북구청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성북구·종로구·은평구
경기도 고양시·양주시

높 이 835.6m

관리주체 강북구, 서울특별시

개요

서울에 근접해 있으면서 자연경관이 뛰어나 1983년 경관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봉산(道峰山) 일대와 함께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바위의 성채, 도심 속의 자연공원

북한산은 주봉인 백운대를 중심으로, 남쪽의 만경대·보현봉 및 북악산으로 연결되는 주능선과 북쪽으로 인수봉·우이암·주봉·자운봉 및 사패산으로 연결되는 주능선을 축으로 동서로 대별된다. 이러한 산봉이 하나의 거



북한산 전경



북한산 일몰



북한산 백운대

대한 압괴로 된 돔(dome) 형상을 띄는데 일종의 도상구릉(鳥狀丘陵)이라고 한다. 이는 두꺼운 풍화층이 침식되어 없어지고, 그 하부에 있던 절리 간격이 넓은 화강암이 지표 혹은 지표 가까이로 노출되면서 하중 제거에 의한 관상절리가 탁월하게 발달된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북한산 우이령을 경계로 하여 북쪽으로는 도봉산 지역, 남쪽으로는 북한산 지역으로 나뉜다. 북한산은 화강암 지반이 침식되고 오랜 세월 풍화되면서 곳곳에 깎아지른 바위봉우리와 그 사이로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계곡들을 이루고 있다. 또한 2,000년의 역사가 담긴 북한산성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 문화유적과 100여 개의 사찰, 암자까지 위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역사·문화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명칭유래

북한산은 예로부터 명산으로 일명 한산, 삼각산(三角山) 또는 화산이라 불렸으며 신라 때에는 부아악이라고도 하였다. 옛날 개성의 송도에서 한양으로 오다가 이 산을 바라보면 백운대(白雲台)·만경대(萬景台)·인수봉(仁壽峰)의 세 봉우리가 삼각으로 나란히 우뚝 솟아 있어 삼각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산의 사계

- 봄 :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봄빛 능선
- 여름 : 맑은 물이 흐르는 암반 계곡과 비봉능선의 비경
- 가을 : 백운대와 어우러진 단풍 절경
- 겨울 : 상고대가 아름다운 북한산 설경

사진명소

- 신선대 : 서울의 전경과 멀리 수락산까지 볼 수 있는 곳
- 백운대 : 북한산 최고봉으로 서울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경관
- 보리사 : 등산로의 작은 구름 위에 북한산 주봉들로 둘러싸인 작은사찰

주요등산로

- 1 북한산 탐방지원센터 → 북한산 백운대
 북한산 탐방지원센터 → 북한산성 계곡길 입구 → 칠유암 → 보리사 → 북한산백운대 → 용암문 → 북한산성 → 북한동역사관 → 무량사 → 대서문 → 북한산서부관리사무소
- 2 솔내음누리길 → 상운사
 솔내음누리길 → 원효암 → 원효전망대 → 북문 → 상운사
- 3 북한산성 입구(버스정류장) → 의상봉
 북한산성 입구(버스정류장) → 북한산서부관리사무소 → 대서문 → 중성문 → 노적사 → 북한산성 → 부왕사지 → 부왕동암문 → 북한산 증취봉 → 북한산 용혈봉 → 북한산 용출봉 → 북한산 의상봉 → 북한산 의상능선

 사계

 명소



북한산 봄 진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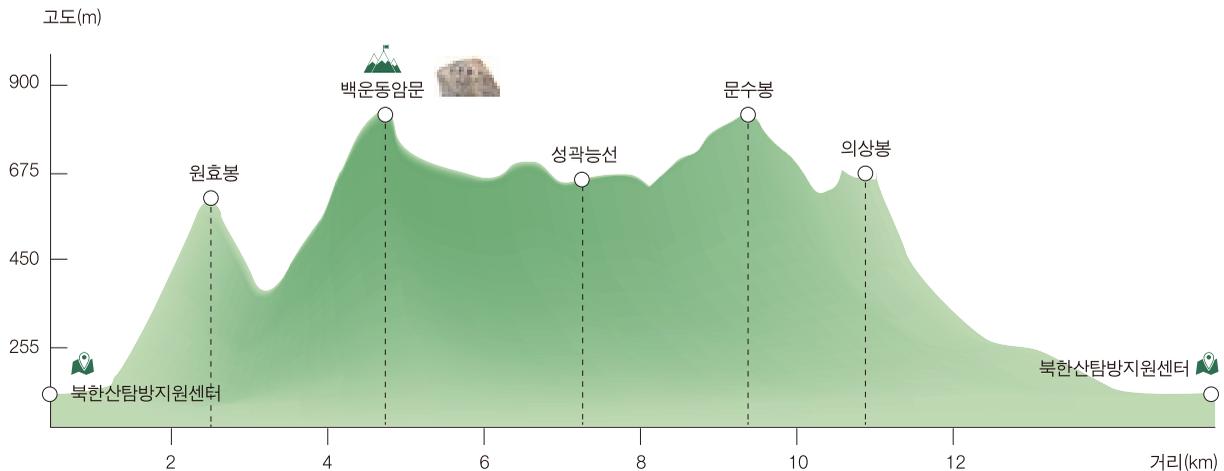
신선대



백운대



보리사



👁️ 주변관광지

📍 화계사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소속의 전통사찰



도심과 가깝고 주택가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숲과 계곡이 감싸 안아 자연에서 주는 편안함과 고즈넉한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강북구의 대표적인 사찰. 템플스테이도 진행

📍 박을복지수박물관

자수예술가 박을복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곳

박을복 선생(1915~2015)의 업적을 기리는 한편 각종 문화예술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자수박물관. 선생의 작품 40여 점을 전시하여 그동안 관람이 용이하지 않았던 감상 자수를 일반에게 선보여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근현대 자수의 역사를 재정리할 수 있음



📍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선인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박물관



한국의 전통미와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보물 대동여지도를 비롯하여 동국지도, 천하도, 수선지도, 조선고지도 등과 여러 가지 여성용 장신구와 아름답고 정교한 경대류 등을 전시

함께 가 볼 만한 곳



북서울꿈의숲



오동근린공원

● 북서울꿈의숲

서울 강북구과 도봉구 등 6개구에 둘러싸여 있는 초대형 공원인 '북서울꿈의숲'은 과거 드림랜드가 있던 자리 66만 여 m²에 조성된 녹지공원으로 월드컵공원과 올림픽공원, 서울숲에 이어 서울에서 네번째로 큰 공원

● 스탬프 힐링투어

북한산 둘레길 1, 2구간을 걷는 코스로 스탬프 힐링투어

어. '너랑나랑우리랑' 코스는 봉황각, 국립 4.19민주묘지, 근현대사기념관 등 강북구 역사문화를 한번에 체험할 수 있는 힐링투어 길. 근현대사기념관 '강북탐구공간'에는 관광안내자료가 있으며, 주말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오동근린공원

강북구의 번동과 미아동 외 5개동과 성북구 월곡동에 걸쳐 있는 대단위 공원으로, 오패산(123m)과 벽오산(135m)의 두 봉우리가 있어 언덕을 이루며 푸른 숲이 잘 보존된 자연 생태 공간이기도 함. '꽃샘길'로 불리는 길이 400m 구간은 시민이 정성을 다해 꽃과 나무를 가꾸는 것으로 유명하며, 공원 산자락에 북서울 꿈의 숲이 구성되어 있음



진달래 명산
온화하게 돌의 바다를 품다

비슬산 毘瑟山



산림청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창면·옥포면·유기면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높 이 1,083.4m

관리주체 달성군, 청도군

개요

높이는 1,083.4m이며, 최고봉은 천왕봉(天王峰)이고 그 다음이 대견봉(大見峰)이다. 종래의 최고봉은 대견봉(大見峰)이었으나, 2014년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천왕봉으로 변경했다. 남쪽으로 조화봉(照華峰 1,058m)·관기봉(觀機峰 990m)과 이어지며, 유가사(瑜伽寺) 쪽에서 올라다 보면 정상에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바위 능선이 우뚝 솟아 있다.

자연환경

해발 1,000m 천상의 진달래꽃 화원

산지는 전체적으로 급준한 사면을 가지고 분지에 임하고



비슬산 전경



비슬산 삼층석탑



비슬산 돌담

있으나 그 산정에는 평탄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산성산은 480m 부근 이상에서는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지고 곡폭도 넓어져 높이 600m의 고산현(高山峴)까지 계속되고 있고, 청룡산은 500m 부근부터 완경사지가 보이고 산정부에 평탄면이 나타난다. 최정산(最頂山)에 있어서도 약 700m 이상에서는 완사면을 이루고 있다.

화강암질의 팔공산이 산세가 웅장하여 아버지 산이라든가 안산암질의 비슬산은 온화하고 부드러워 어머니 산이라 할 만하다. 비슬산은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는 진달래 명산이다. 평탄한 정상부에 위치한 진달래 군락지는 봄이면 꽃바다를 이룬다. 진달래와 더불어 비슬산이

갖춘 명품은 바위다. 비슬산의 바위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신기하다. 절벽 밑에 부채꼴 모양으로 쌓인 돌무더기와 암괴류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과히 돌의 바다라 할 만하다.

명칭유래

『유가사사적(瑜伽寺寺蹟)』에는 산의 모습이 거문고와 같아서 비슬산(琵琶山)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일설에 비슬산은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의 모습이 마치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비슬산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비슬산의 사계

- 봄 : 비슬산참꽃 군락지 가득한 분홍 물결
- 여름 :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계곡과 울창한 산림
- 가을 : 단풍과 은빛 억새가 대건사와 조화롭게 어우러진 가을 수채화
- 겨울 : 비슬산 얼음동산 빙벽

사진명소

- 대건사 : 비슬산 천왕봉에서 약 2km 떨어진 해발 1,000m의 산정부에 위치한 사찰
- 비슬산암괴류 : 국내에 분포하는 여러 곳의 암괴류 중 가장 규모가 큼
- 비슬산 참꽃 : 비슬산 정상 100만㎡(30만평)에 달하는 참꽃 군락지

주요등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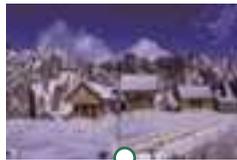
- ① 유가사 주차장 → 대건봉
유가사 주차장 → 도성암 3층석탑 → 비슬산(정상) → 대건봉 → 유가사
- ② 유가사 주차장 → 비슬산(정상) → 용연사 약수터
유가사 주차장 → 도성암 → 비슬산(정상) → 용연사 약수터 → 용연사(버스정류장)
- ③ 험터재 등산로 입구 → 용천사
험터재 등산로 입구 → 용천봉 → 비슬산(정상) → 용천사
- ④ 유치곤기념관 주차장 → 월광봉
유치곤기념관 주차장 → 돌산 → 월광봉 → 대건봉 → 엽불암지 → 비슬산 자연휴양림 → 비슬산 산림치유센터

📷 사계

📍 명소



비슬산의 봄



대건사



비슬산 암괴류



참꽃



👁️ 주변관광지

📍 100년타워

달설군 개칭 100주년 기념 타워



대구광역시를 형상화한 인공섬 위에 높이 26m, 폭 21m의 규모로 설치되어 대구의 뿌리 달성을 상징하고 있음. 야외 예식장 및 공연장 등의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며, 달성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 있음

📍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기술문화 대중화를 위한 체험형 과학관

2013년 개관한 국립대구과학관은 자연과 세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며 지역 산업 속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과학문화의 다양함과 친근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



📍 사문진주막촌

과거 낙동강 물류의 중심지였던 옛 사문진 자리에 복원한 주막촌



버려져 있던 낙동강 옛 사문진 나루터 자리에 한옥 형태의 전통 주막을 지어 '사문진 주막촌'을 복원하여 달설군 대표적인 문화 관광지로 탈바꿈. 옛 보부상의 정취를 그대로 살린 주막촌으로 막걸리를 비롯해 부추전, 손두부, 국밥 등 간단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열린 관광지

함께 가 볼 만한 곳



마비정벽화마을



남평문씨본리세거지

● 마비정벽화마을

1960 ~ 70년대 농촌의 풍경을 마을 담장에 벽화로 조성한 곳. 국내 유일의 연리목·연리지 사랑나무와 국내 최고령 옷나무, 대나무 터널길, 이팝나무 터널길 등 자연과 호흡하며 벽화를 감상 가능. SBS <런닝맨>의 촬영지이기도 하며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전국적인 관광명소

● 남평문씨본리세거지

화원읍 본리리 옛 인흥사 절터에 이루어진 전통민속마을로 문익점의 18대손인 문경호가 19세기 초 정전법에 따라 구획을 정리하고 건축. 대표적인 건물로 광거당, 수봉정사, 인수문고를 들 수 있으며 조선 시대 마을의 구성과 근대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 토담길 따라 분홍빛 능소화와 하얀 접시꽃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정경을 자랑

● 옥포벚꽃길

옥포 용연사 진입로에 수백그루의 벚꽃나무가 1.5km 거리에 걸쳐 이어져 있는 벚꽃길. 대구 아름다운 길 1위에 뽑혔을 만큼 풍경이 수려하며, 매년 벚꽃축제도 개최하고 있음

人 — ○

삼악산 / 서대산 / 선운산 / 설악산 / 성인봉 / 소백산 / 소요산 / 속리산
신불산 / 연화산 / 오대산 / 오봉산 / 용문산 / 용화산 / 운문산
운악산 / 운장산 / 월악산 / 월출산 / 유명산 / 응봉산

고송

나이 들수록
나를 비워야
사는 맛을 안다고
몸에 송송 구멍을 낸다

바람도 통하고
햇볕도 들어와야
더러운 욕심
버릴 수 있어

더 오래 서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

나는 나를 비운다

김주원



암릉의 스킬을 느끼며
북한강과 의암호를 조망하다

삼악산

三嶽山



춘천시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신동면

높 이 655.8m

관리주체 춘천시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과 신동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삼악산 산록에는 금성사·등선폭포(登仙瀑布)·신흥사(新興寺) 등이 있으며, 능선을 오르면 대원암(大院庵)·상원사(上院寺)·흥국사(興國寺) 등의 사찰이 있다.

자연환경

노송과 바위들이 어우러진 절경

삼악산은 화악산(華岳山)의 지맥이 남쪽으로 뻗어 오다 북한강과 마주치는 곳에 위치한다. 인공호수인 의암호와 청평호의 상류가 삼악산 기슭을 에워싸고 있고, 기암절벽이



삼악산 암릉



구름에 쌓인 삼악산



삼악산 케이블카

험준한 산세를 이루고 있다. 기반암으로 이뤄진 계곡에는 등선폭포를 비롯하여 수렴동, 옥녀탕 등의 명소가 있다. 산 정상 북서쪽에는 춘천에서 덕두원을 거쳐 가평·서울을 왕래하던 석파령이 있다.

삼악산은 등선봉, 청운봉에서 이어지는 한 봉우리다. 강촌의 대표적인 산으로 하나의 독립봉으로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여 당일 산행지로서 각광받고 있다. 거대한 성을 연상시키는 등선폭포 대표소를 지나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난 폭포길을 들머리로 삼거나 의암댐 대표소에서 산행을 시작해도 무방하다. 폭포길은 철계단이 만들어져 있어 가까이에서 폭포의 웅장함을 보며 산행할 수 있다.

한편 의암댐 길은 청정한 노송과 바위들이 어우러진 절경이 빼어난 바윗길이다. 바위능선으로 구성된 삼악산 정상에 서면 북서쪽으로 화악산(1,468.3m)이, 그 오른쪽으로 북배산(869.6m)과 계관산(736m)의 능선이 이어진다. 북동쪽으로는 북한강과 소양강을 머금고 있는 의암호가 발아래로 펼쳐지며 용화산(877.8m), 오봉산(777.9m) 등도 보인다.

명칭유래

기암괴석과 봉우리가 첩첩이 있고, 용화봉·청운봉(546m)·등선봉(632m) 등 3개의 주봉이 있어 삼악산이라 한다.

삼악산의 사계

- 봄 : 신록이 가득한 바윗길
- 여름 : 호수케이بل카에서 바라보는 시원스런 의암호 풍경
- 가을 : 협곡 사이로 단풍나무 실루엣
- 겨울 : 의암호가 내려다보이는 설국 풍경

사진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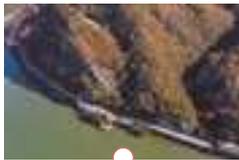
- 삼악산성지 : 삼악산의 능선 계곡 왼쪽 정상을 따라 쌓은 성으로 석파령을 내려다 보는 곳에 천연의 험준한 산세를 마주보고 있는 두 능선을 따라 쌓은 산성
- 금강굴 : 계곡 입구의 협곡
- 등선폭포 : 규암의 절리들이 갈라져 만든 등선폭포

주요등산로

- 1 등선폭포 매표소 → 의암매표소
 등선폭포 매표소 → 홍국사 → 삼악산(정상)
 → 삼원사사 → 의암매표소
- 2 등선폭포 매표소 → 강촌교
 등선폭포 매표소 → 청운봉 → 등선봉 → 삼악좌봉 → 강촌교
- 3 등선폭포 매표소 → 등선폭포 매표소
 등선폭포 매표소 → 삼악산(정상) → 청운봉 → 등선폭포 매표소
- 4 봉덕사 입구(버스정류장) → 삼악산(정상)
 삼악산 신흥사 등산로 입구 → 삼악산(정상)
 → 봉덕사 입구(버스정류장)

📷 사계

📷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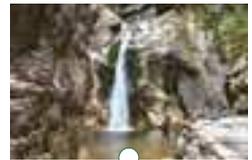
삼악산 단풍의 실루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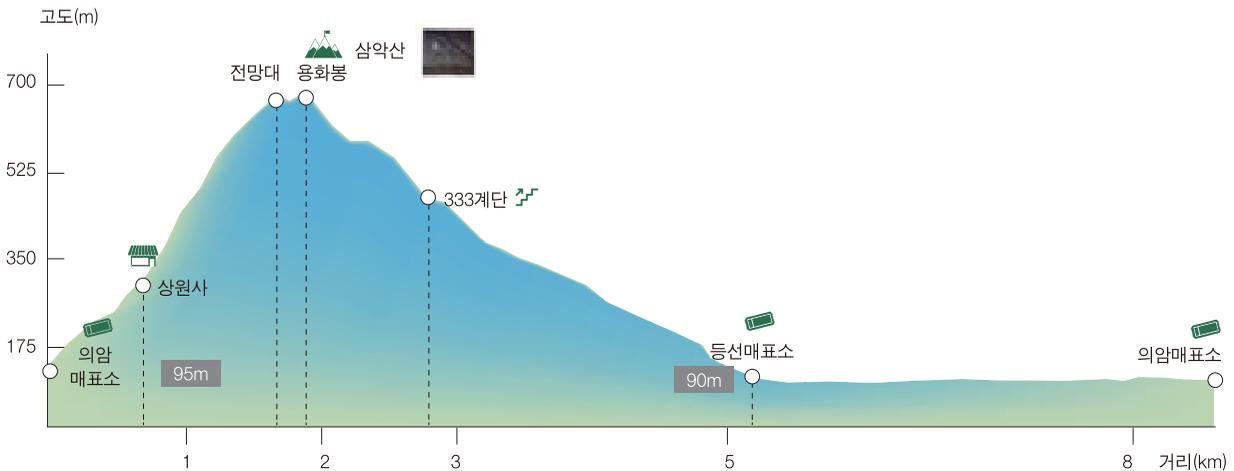
삼악산 성지



금강굴



등선폭포



주변관광지

①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활과 부메랑을 형상화한 케이블카



삼천동에서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악산을 연결하는 3.61km의 케이블카. 산, 호수, 도시 그리고 문화가 함께하는 춘천의 랜드마크. 통유리로 의암호와 춘천시내 조망 가능

② 강촌레일파크

추억과 낭만을 싣고 달릴 경춘선 레일바이크

춘천시와 가평군 일대에 폐선된 기존의 경춘선을 재활용하여 운영하는 레일바이크 사업. 경강 레일바이크, 김유정 레일바이크, 가평 레일바이크 등 3개의 코스로 운영



③ 의암 스카이워크



2014년 춘천시 의암호 주변 김유정문인비와 송암스포츠타운 사이의 의암자전거길에 위치하며 길이 100m의 교량 중간에 만들어진 스카이워크. 허공을 걷는 듯한 스틸을 느낄 수 있도록 전 구간을 투명 강화 유리로 마감

함께 가 볼 만한 곳



옛 백양리역



소양강댐·소양호

● 옛 백양리역

지금은 폐역이 된 옛 백양리역은 경치가 매우 뛰어나며 특히 9월에는 메밀꽃이 만개하여 많은 사람이 찾는 사진 명소. 포토존, 미니전시관, 느린우체통 등의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음

● 남이섬

현대에 와서 관광지로 유명해진 남이섬은 1970년대부

터 가평군 청평유원지나 춘천 중도유원지 등과 함께 북한강변의 유원지로 각광을 받았으며, 특히 1979년부터 1989년까지 MBC 강변가요제가 열린 곳으로 유명함. 2000년대 들어서는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로 한류 팬들의 관광지로 명성을 얻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춘천의 명소

● 소양강댐·소양호

1973년 준공된 소양강댐은 높이 123m, 제방 길이 530m, 저수량 29억 톤 규모. 댐 위를 걷는 댐정상길을 일반에 개방. 댐 정상을 걸어 건너편 팔각정 전망대까지 왕복하는 산책길. 댐 건너편 청평사까지 유람선을 타고 관광 가능. 댐과 선착장 사이에는 소양강댐 물문화관, 소양강댐준공기념탑, 소양강치녀상이 있음



숨 고를 틈 없이
기암절벽의 산세가 이어지다

서대산 西臺山



금산군청

위 치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군북면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높 이 904.1m

관리주체 금산군, 옥천군

개요

충청남도 남동부의 금강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금산고원에 속해 있으며, 노령산맥을 이루는 정수이자 충청남도의 최고봉이다.

자연환경

우뚝 솟은 봉우리와 어우러진 푸른 숲의 경관

서대산은 충남 금산군과 충북 옥천군의 경계에 솟은 산으로 충청남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금산군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 시대 기록에 의하면 서대산은 금산의 깊은 산중으로 인식되었다.



서대산 전경



서대산 기암괴석



서대산 개덕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조선 초기 이전에 3개의 서대사가 있었으며 서편 기슭 현재의 원흥사 터에 서대사가 있었다. 우람하고 홀로 우뚝 솟은 산으로 바위 봉우리와 푸른 숲이 어우러져 경관도 매우 아름답다. 지금은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여러 산행코스가 있고 정상에서는 금산, 옥천 뿐만 아니라 멀리 대전까지 보이기도 한다. 산세가 온후하면서도 웅장하고 용바위·신선바위·장군바위·마당바위·노적봉·서대폭포 등의 경치가 좋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꼭대기는 대전 시가와 옥천·금산 일대가 내려다보이는 전망을 제공한다. 산세가 원뿔형이어서 암벽등반을 즐기는 산악인이 많이 찾는다. 서대산의 산길은 모두 가파르지만 암릉으로 이어지는 산길을 타고 넘고 돌아오르는 등 아기가자기하고 재미있다. 산행 중 어느곳을

둘러보아도 경관이 좋다. 협곡을 가로 질러 높게 설치된 약 50m의 구름다리 주변은 기암 절벽들이 어울려 장관을 이루고 있다. 가까운 곳에 칠백의총·닭이봉·대둔산도립공원·금강유원지·탄금대·마니산·옥계폭포·심천유원지 등이 있다.

명칭유래

서대라는 명칭은 먼저 산의 서쪽 기슭에 신라 문성왕 때 무양국사가 창건했다고 하는 서대사(西臺寺)가 있었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진산)에 “서대사는 서대산에 있다. 옛날에는 상·중·하 세 개의 서대가 있었는데 중서대사(中西臺寺)는 지금 없어졌다.”고 하여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일설에는 서쪽으로 커다란 누대처럼 산이 우뚝 솟아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또 산의 형상이 세 개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 불리게 되었다고도 한다.

서대산의 사계

- 봄 : 봄 소식을 알리는 산수유 꽃망을
- 여름 : 기암절벽의 산세에 뒤덮인 울창한 숲길
- 가을 : 암벽 사이 훑날리는 억새들
- 겨울 : 얼어붙은 서대폭포의 장관

사진명소

- 사자바위 :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형상
- 옥녀탄금대 : 깎아지른 거대한 바위 벼랑 사이가 선반처럼 평지를 이루는 거대한 암봉
- 서대산 정상 : 비석과 함께 돌탑을 쌓아두고 있음

주요등산로

- 1 서대산 드림리조트 → 서대산(정상)
서대산 드림리조트 → 한국모노레일 → 서대산(정상)
- 2 성당(버스정류장) → 홍국사
성당(버스정류장) → 성당2리(버스정류장) → 드림리조트 → 한국모노레일 → 서대산전적비 → 마당바위 → 신선바위 → 홍국사 → 황새목길(홍국사 올라가는 등산로) → 상곡교
- 3 군북로 삼거리 → 서대산(정상)
군북로 삼거리 → 서대산추모공원 → 서대산(정상) → 효심사 → 산꽃로(보광교)
- 4 성당(버스정류장) → 제비봉 정상
성당(버스정류장) → 재말재 → 봉우리정상 → 제비봉 정상 → 조망바위 → 등산로입구 → 장령산 자연휴양림(버스정류장)

 사계

 명소



서대산의 가을



사자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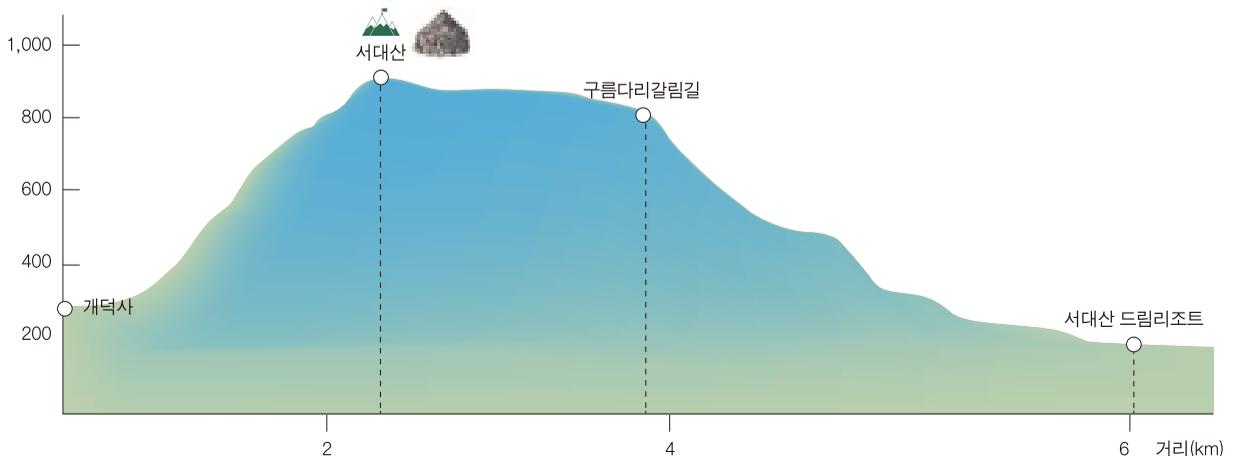


옥녀탄금대



서대산 정상

고도(m)



👁️ 주변관광지

📍 인삼·약령시장

중부권 최대의 한약재전문시장



인삼·약초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인삼의 거리’는 국내 인삼유통의 중심지. 전국 인삼생산량의 70%가 집산·거래되고 있어 품질 좋은 인삼을 구입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인삼시장

📍 산림힐링단지 산림문화타운

중부권 최고의 산림문화 힐링명소

금산산림문화타운은 숲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금산의 명소이며 남이자연휴양림, 느티골산림욕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목재문화체험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 부소담약^(추소정)

암봉들이 병풍처럼 펼쳐진 장관



호수 위에 떠 있는 병풍바위. 물 위로 솟은 기암절벽. 길이 700m. 조선시대 학자 송시열이 소금강이라 예찬한 추소팔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절경. 대청댐이 준공되면서 산 일부가 물에 잠겨 물 위에 바위병풍을 둘러놓은 듯한 풍경이 된 곳. 추소정은 부소담약의 장관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정자. 부소담약의 능선을 따라 산행도 가능

함께 가 볼 만한 곳



태조대왕태실



칠백의총

● 신안사

신라 26대 진평왕 5년에 무염선사가 창건하였으며,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천태산 동쪽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영국사에서 수학할 때 이 절에도 가끔 들러 머물렀는데, 이곳에 있으니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여 신안사(身安寺)라 하였다 함. 극락전과 대광전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 건물로 평가되고 있는 전각으로 특유의 단아

함은 절집의 분위기를 한층 차분하게 이끔. 전체 크기가 장대한 삼존불로 조각은 예술적 가치가 뛰어남

● 태조대왕태실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부 유물은 보물로 지정. 조선 최고의 명당 만인산에 자리잡은 태조 이성계의 태실. 태조 이성계의 태(胎)를 안치했던 곳으로, 본래 함경도 용연(龍淵)에 있었으나 태조 2년⁽¹³⁹³⁾ 전라도 완주군 진동현이었던 현재의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로 옮겨옴

● 칠백의총

칠백의총은 임진왜란⁽¹⁵⁹²⁾ 당시 1만 5천의 왜군과 싸우다가 수적 열세였지만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장렬히 전사한 700의 승병들의 유해를 모신 호국영령의 성지



구름 속 비경이 운치를 더하다

선운산

禪雲山



고창군청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심원면·해리면

높 이 334.7m

관리주체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과 심원면에 걸쳐 있는 산으로 유명 사찰 선운사와 많은 문화재가 있다. 산 높이는 그리 높지 않으며 울창한 수림과 계곡 일대 43.7㎢가 1979년 12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2016년에는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어려움이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동백꽃 숲이 만드는 장관



선운산 전경



선운사 동백나무 숲



선운산 용문굴

선운산은 선운사의 서쪽 봉우리에 해당하는 도솔봉이 주봉이며 수리봉으로도 불린다. 경수산의 경수봉이 제일 높은 봉우리이며 선운산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는 동쪽으로 흘러 선운천을 따라 주진천에 합류하고, 서쪽으로 흐르는 물줄기는 궁산저수지와 해리천을 통해 서해로 흐른다. 서쪽으로 광활한 서해에 면해 있는 선운산은 북쪽으로는 곰소만을 지나 변산반도와 마주하며, 천왕봉(336m)을 중심으로 경수산(鏡水山 444m)·청룡산(靑龍山 314m)·구황봉(九皇峰 298m)·개이빨산(345m) 등이 둘러져 있다.

특히 선운천 입구부터 약 4km에 걸쳐 동백나무숲이 자리하고 있는데, 4월과 5월에 선운사 뒤편 산비탈에 자리한 3,000여 그루의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에서 일시에 붉게 꽃피는 동백꽃 숲이 만들어내는 꽃병풍은 장관이다.

명칭유래

선운산은 예로부터 도솔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백제 때 창건한 선운사가 유명해지면서 선운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전해진다. 선운이란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뜻이고 도솔이란 미륵불이 있는 도솔천궁을 의미하는 바 모두 불교와 관련된 명칭이다.

선운산의 사계

- 봄 : 4월 초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동백나무 숲
- 여름 : 일몰 광경을 볼 수 있는 낙조대
- 가을 : 도솔암 앞의 절벽 천인암(千仞岩)과 그 사이의 깊은 계곡의 절경
- 겨울 : 신선이 학을 타고 내려와 노닐었다는 전설을 가진 선학암(仙鶴岩)

사진명소

- 낙조대 : 해발 335m밖에 안되지만 눈앞의 도천저수지와 칠산 앞바다, 곰소만 등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전망대
- 투구바위 : 골짜기 양쪽을 바위벽이 바라보며 늘어선 독특한 생김새
- 용문굴 : 화산암들이 거대한 수직 암벽을 이루며 기암괴석과 암봉 능선이 어울려 장관

주요등산로

- ① 관광안내소 → 수리봉
관광안내소 → 도솔천 → 일주문 → 선운사 → 선운산도솔계곡 → 수리봉 → 석상암 → 선운사 동백나무 숲
- ② 선운사 소형주차장 → 경수봉
선운사 소형주차장 → 선운사 → 선운산 도솔계곡 → 감투봉 → 천마봉 → 견치산 → 수리봉 → 선운산(정상) → 경수봉
- ③ 선운산(버스정류장) → 수리봉
선운산(버스정류장) → 선운사 → 선운산 도솔계곡 → 선운사 도솔암 → 천마봉 → 수리봉 → 석상암

📷 사계

📷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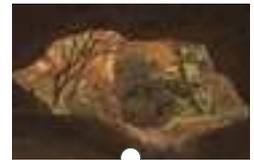
선운산 계곡의 가을



낙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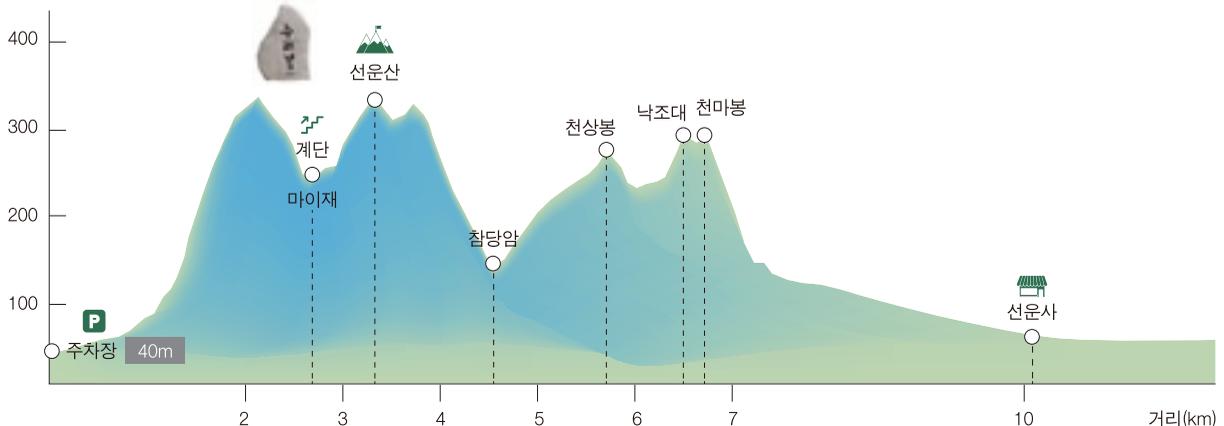


투구바위



용문굴

고도(m)



👁️ 주변관광지

📍 고창읍성

완벽하게 보존된 조선시대 성



고창읍성은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조선 단종 원년⁽¹⁴⁵³⁾에 유비무환의 슬기로 축성한 자연석 성곽. 사적으로 일명 모양성이라고 불리움. 1976년부터 14동의 관아 건물을 복원하였으며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관람 가능

📍 고창 핑크몰리 축제

로컬여행 추천 장소

꽃을 찾아온 여행객의 줄임말인 '꽃객' 이라는 테마로 정원 축제가 개최되는 고창 핑크몰리. 현지의 맛집, 숙소, 체험, 관광명소 등도 방문하기 위해 마련된 고창군의 '로컬여행' 추천 장소



📍 보리나라 학원농장

청보리밭축제의 장



봄에는 수십만 평의 완만한 구릉지대에 펼쳐진 청보리밭으로, 가을에는 마치 구름이 내려앉은 듯한 하얀 메밀꽃밭으로 유명. 화훼용 유리온실과 묘목장, 각종 과수단지, 잔디구장, 식당, 숙박시설도 갖추어져 있어 드넓은 자연을 벗삼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2004년부터 매년 4월 고창 청보리밭축제 개최 장소

함께 가 볼 만한 곳



상하농원



구시포해수욕장

● 상하농원

상하농원은 '짓다-놀다-먹다'를 주제로 약 10만m²^(3만평) 규모로 조성된 신개념 농촌 체험형 테마 공간. 지역먹거리를 활용한 4가지 체험교실^(소시지, 아이스크림, 밀크 빵, 치즈)에서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농원

● 윤곡람사르습지

고창군 아산면 윤곡습지 1,797km²^(약54만평)는 전북특별자치도 내륙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어 국제습지보호조약인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곳. 1급 멸종위기인 수달과 삵, 말뚝가리 등 법정보호 동·식물 6종과 함께 549종 이상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명의 보고

● 구시포해수욕장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 들 정도로 울창한 숲숲과 모래사장이 유명한 구시포해수욕장과 해수찜이 잘 알려진 곳. tvN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촬영지로 유명



또 하나의 금강산,
아름답고 빼어난 산세 맑은 계곡과 암자들

설악산 雪嶽山



설악산국립공원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동
양양군 서면·강현면

높 이 1,708.1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설악산국립공원),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개요

금강산에 버금가는 명산·명승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주변에 문화재와 관광명소가 많아 제2의 금강산으로 불리며 남한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산이다. 1970년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82년 8월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2005년 12월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카테고리II(국립공원)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장엄하고 웅장한 기암절벽과 계곡·약수와 온천

설악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태백산맥 연봉 중



설악산 전경



설악산 대청봉



설악산 흔들바위

의 하나로 최고봉인 대청봉(大靑峯)과 그 북쪽의 마등령(馬等嶺)·미시령(彌矢嶺), 서쪽의 한계령(寒溪嶺, 최근에는 ‘오색령’이라고 부름)에 이르는 지역으로 그 동부를 외설악, 서부를 내설악이라고 한다. 또한 동북쪽의 화채봉(華彩峯)을 거쳐 대청봉에 이르는 화채령, 서쪽으로는 귀떼기청봉에서 대승령(大勝嶺)·안산(安山)에 이르는 서북릉이 있으며, 그 남쪽 오색약수(五色藥水)터·장수대(將帥台) 일대를 남설악이라고 한다.

남설악은 한계령·망대암산·점봉산에 이르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대승폭포(大勝瀑布)와 장수대·오색약수·오색온천 등이 있으며, 아름다운 주전골(鑄錢谷)도 있다.

설악동에서 신흥사(神興寺)를 거쳐 계조암(繼祖庵)에 이르면 그 앞에 흔들바위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 사방이 절벽으로 된 울산(蔚山)바위가 있다.

명칭유래

설악산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한가위에 덮이기 시작한 눈이 하지에 이르러야 녹는다 하여 설악이라 불린다고 하였다. 또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서는 산마루에 오래도록 눈이 덮이고, 암석이 눈같이 희다고 하여 설악이라 이름 짓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밖에 설산(雪山)·설봉산(雪峯山)이라고도 불렸다.

설악산의 사계

- 봄 :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한 천불동계곡·백담계곡
- 여름 : 신록의 푸르름이 협곡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비룡폭포·대승폭포
- 가을 : 암봉사이로 불타오르는 설악의 진미 권금성, 울산바위, 공룡능선
- 겨울 : 눈과 바위가 이루는 설국의 파노라마 대청봉

사진명소

- 울산바위 : 병풍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로서 모두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음
- 오색약수 : 약수터까지의 경관과 설악산 정상에 이르는 길목이라는 위치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약수터
- 신흥사 : 민족의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1987년부터 10여 년간 만든 거대한 청동불상. 조선시대 후기의 건축 양식의 교과서인 전각 '보제루'

주요등산로

- 1 약수터탐방지원센터 → 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
약수터탐방지원센터 → 성국사 → 용소폭포 → 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
- 2 소공원 → 울산바위
소공원 → 신흥사 → 흔들바위·계조암 → 울산바위
- 3 소공원 → 토왕성폭포전망대
소공원 → 육담폭포 → 비룡폭포 → 토왕성폭포전망대
- 4 한계령탐방지원센터 → 소공원
한계령탐방지원센터 → 한계령갈림길 → 서북능선 → 대청봉 → 희운각 → 비선대 → 소공원



설악산의 단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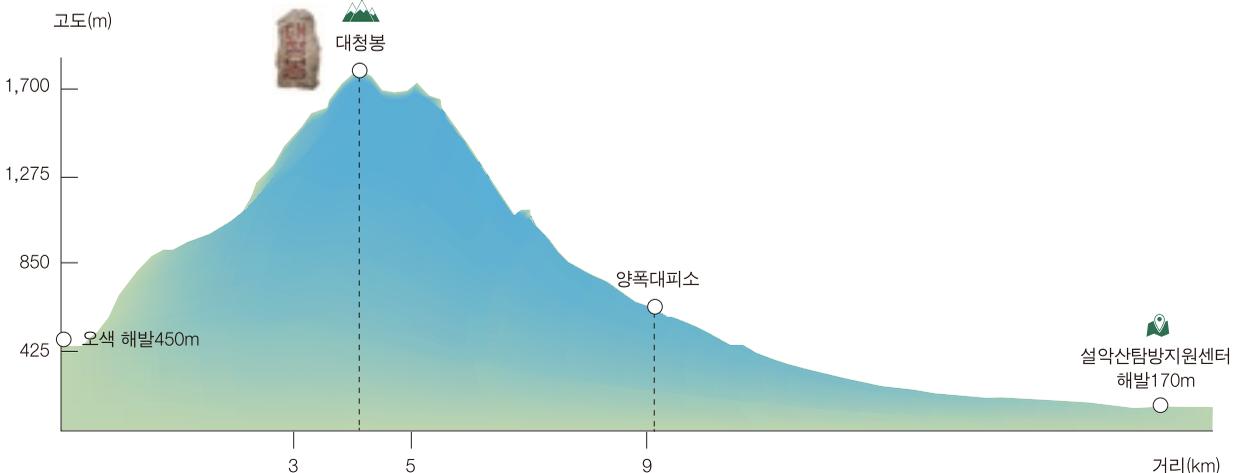
울산바위



오색약수



신흥사



👁️ 주변관광지

📍 낙산사 의상대

📖 심이 있는 사찰여행



신라시대 문무왕 시절 창건된 낙산사는 남해의 보리암, 강화 석모도의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 수평선이 바라보이는 의상대를 중심으로 깊은 동해와 사찰 지붕의 청기와 그리고 그 푸르름을 배경으로 서 있는 해수관음상

📍 백담사

📖 명상을 통한 내면으로의 여행

가야동 계곡과 구곡담을 흐르는 맑은 물이 합쳐지는 백담계곡 위에 자리한 사찰로 원시림에 가까운 비경을 간직한 내설악의 입구에 위치. 봉정암, 오세암 등 외딴 암자를 산내암자로 거느리고 있는, 내설악산을 대표하는 도량



📍 양양 서핑비치로드



양양10경. 양양 현남면 죽도해변에서 인구해변과 서핑비치를 포함한 서핑으로 활성화 된 해변. 북동, 남동, 정동 방향의 파도너울을 모두 받아 서핑 포인트가 다양

함께 가 볼 만한 곳



비밀의정원



하조대

● 비밀의정원

인제군 남면 갑둔리 산 122-3 일원. 풍경 사진이 잘 나오기로 소문난 장소로 유명함. 서리나 눈이내려도 안개가 끼어도 모든 장면이 아름다운 사진명소

● 하조대

양양8경중 제5경으로 동해바다를 굽어 보는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 바위 절벽에 뿌리를 내려 200여 년이 넘는 소나무와 새하얀 무인 등대, 전망대, 근처의 둘레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 수산리자작나무숲

인제군 남면 수산리 매봉(800m) 북쪽 능선과 골짜기는 100만 그루의 자작나무 숲으로 뒤덮여 있으며, 단풍이 고운 입도에서 보면 한반도를 꼭 닮은 숲도 보이고, 바로 옆의 빙골 입도는 인적 없는 산간 오지 분위기가 일품인 곳



성인들이 노니는 장소,
원시림의 보고를 만나다

성인봉

聖人峰



울릉군청

위 치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서면

높 이 986.5m

관리주체 울릉군

개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과 북면·서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울릉도 모든 하천의 수원을 이루는 성인봉 북서쪽에는 나리분지 안에 솟은 중앙 화구구(火口丘)인 알봉(卵峰)이 있다. 성인봉 등산은 도동에서 출발하여 성인봉을 지나 북면의 알봉과 나리분지로 이어지는 코스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자연환경

전국 제일의 다설지역인 나리분지

성인봉은 화산암설(火山岩屑)에 덮여 지형이 약간 완만하며,



성인봉 전경



성인봉 정상석



성인봉

산정에서 칩식곡이 방사상으로 해안을 향하여 발달하여 있다. 성인봉 북쪽에는 동서 1.5km, 남북 2km의 삼각형의 칼데라(caldera)가 있다. 칼데라 전체를 나리분지(羅里盆地)라고 부르며 울릉도에서 평지가 가장 넓은 곳이다. 칼데라의 중앙에 있는 높은 곳의 북단에는 응회암(凝灰岩)과 조면암의 경석(輕石)으로 된 알봉(538m)이 있다. 중앙에 있는 알봉을 중앙 화구구로 볼 때 이중화산(二重火山)의 특색을 갖추고 있다. 성인봉을 중심으로 한곳에는 식물만도 300여 종이 분포하고 있고, 이 가운데 특종식물이 40여 종이나 된다. 섬피나무·너도밤나무·섬고로쇠나무 등 희귀수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정상 부근에 있는 원시림은 1967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명칭유래

산의 모양이 성스럽다고 하여 성인봉으로 불리기도 하며, 봉우리의 영험한 능력 때문에 성인봉이라고 하였다고도 한다. 또 산이 높고 유순하게 생겨 세인들이 말하기를 마치 성인들이 노는 장소같다고 하여 성인봉이라 불렀다고 한다.

정상에는 제단처럼 생긴 바위에 장군 발자국이라 전하는 족적이 있는데, 발자국은 왼발이다. 오른쪽 발자국도 울릉도 어딘가에 있다는 설이 있다.

성인봉의 사계

- 봄 :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섬노루귀가 피어나는 4월
- 여름 : 원시림 숲속을 걸으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
- 가을 : 가을냄새 물씬 깃대봉
- 겨울 : 눈꽃 휘날리는 겨울왕국

사진명소

- 나리분지 : 울릉도에 있는 유일한 평지
- 성인봉 : 산정에 화구가 따로 없는 외륜산으로 북쪽에 거대한 칼데라인 나리분지가 있고, 그 사이에 중앙 화구인 알봉이 솟아 있음
- 봉래폭포 : 저동리에서 성인봉에 오르는 1.5km 지점, 저동천의 수원지인 주삿골에 있는 폭포

주요등산로

- ① KBS울릉중계소 → 성인봉(정상) → 나리분지 전망대
KBS울릉중계소 → 성인봉(정상) → 천연기념물 원시림 → 울릉국화와 섬백리향 군락 → 나리분지 전망대 → 천부초등학교

산행 팁!

발목을 삐었을 때 다리가 균형을 잃으면서 발목이 돌아가 걷기 힘들어지고 부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인대의 일부 혹은 전체가 늘어나거나 파열됐기 때문. 가벼운 발목 염좌의 경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게 되지만 2~3일 시간이 지나도 통증을 느낀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음

📷 사계

📷 명소



성인봉의 가을



나리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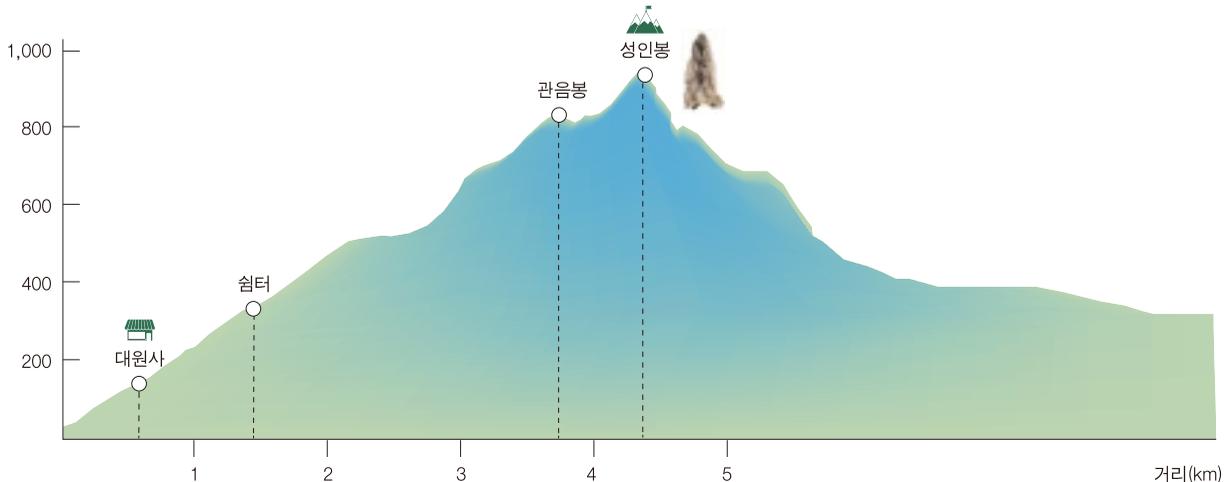


성인봉



봉래폭포

고도(m)



👁️ 주변관광지

📍 우산국박물관 & 남서일물전망대

울릉도 역사의 보고



우산국박물관은 삼국시대의 고대국가 우산국에 대한 기록과 흔적을 전시하고 있는 곳. 생생한 역사의 증거들과 함께 토기와 무덤 같은 우산국의 문화유산을 알아가며 울릉도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장소

📍 천부해중전망대

울릉도의 신비로운 심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

울릉도 천부항에서 섬목방향 바다에 있는 곳으로 수심 6m에서 신비로운 바다를 만날 수 있는 해중 전망대. 360도로 펼쳐져 마치 잠수함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이색적인 해양경관을 감상해 볼 수 있는 장소



📍 독도박물관 & 독도영상관

국내 유일 영토 박물관인 독도박물관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섬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독도에 대한 역사부터 경비대, 생태계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생동감 있는 영상과 전시관 자료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곳

함께 가 볼 만한 곳



관음도



예림원

● 태하항목관광모노레일

울릉도의 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관광 모노레일. 모노레일을 타고 산정에서 하차해 울릉도항로표지관리소(태하등대)까지는 약 500m 정도의 아주 완만한 경사면으로 이동.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이 빼곡히 자리 잡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며, 잠깐의 트레킹으로 눈앞에 펼쳐진 자연풍광을 감상할 수 있음

● 관음도

죽도와 독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울릉도 부속섬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지만, 2012년 울릉도 섬목지역과 관음도 사이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다리인 연도교가 놓여 도보 탐방이 가능해짐. 각새가 많아 각새섬이라고도 불리며 계절별로 다양한 식생지로 생태탐방지로 추천하는 곳

● 예림원

울릉군 지역 내 유일한 식물원. 주상절리와 천혜의 자연경관이 조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울릉군 지역에 자생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멸종 위기 식물인 섬개야광나무와 1,200년 된 노거수 주목을 볼 수 있음.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산세를 자랑하다

소백산

小白山



소백산국립공원

위 치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높 이 1,439.7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

개요

웅장한 산악 경관과 천연의 삼림·사찰·폭포가 많으며 주변에 부석사(浮石寺)나 온달산성 등의 명승고적이 많아 1987년 12월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아름다운 골짜기와 완만한 산등성이, 울창한 숲 등이 뛰어난 경치를 이루며 죽령과 제2연화봉 산기슭에는 국내 최대의 우주관측소인 국립천문대가 자리잡고 있다.

자연환경

웅장한 산, 장엄하면서도 완만한 산등성이와 운해

소백산은 한반도의 등뼈라 할 수 있는 백두대간의 줄기



소백산 전경



소백산 정상석



눈덮인 소백산

가 태백산 근처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내려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경계부에서 영주 분지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가장 고도가 높은 비로봉(1,439.7m)을 비롯하여 국망봉(1,421m), 제1연화봉(1,394m), 제2연화봉(1,357m), 도솔봉(1,314m), 신선봉(1,389m), 형제봉(1,177m), 묘적봉(1,148m) 등의 많은 봉우리가 어울려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산세로 수려한 경관을 보여 준다.

풍화작용에 비교적 강한 편마암류와 쇄설성 퇴적암의 분포지역은 상대적으로 험준한 지형을 이루고 있고, 풍화작용에 약한 화성암이나 석회암지대는 비교적 낮은 지형을 이룬다. 북서쪽으로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여 이른바 고위평탄면을 이루고 있으며, 그 위를 국망천(國望川)이 흘러

남한강으로 흘러든다. 동남쪽으로는 비교적 경사가 급하며, 낙동강 상류의 지류인 죽계천(竹溪川)이 발원한다.

이곳은 예로부터 신성시되어 오는 산으로 삼국시대에는 신라·백제·고구려 삼국의 경계를 이루어 수많은 역사적 애환과 문화유산이 전해진다.

명칭유래

큰 산을 의미하는 백산(白山) 계열에 속하는 산으로 동북쪽에 자리한 태백산보다는 작다는 의미에서 소백산 명칭이 유래하였다고 한다. 또는 산머리에 흰 눈을 이고 있는 듯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소백산의 사계

- 봄 : 산 가득히 흐드러지게 핀 철쭉
- 여름 : 천상의 화원, 야생화가 만발
- 가을 : 만산홍엽의 만개한 단풍
- 겨울 : 백색 눈꽃의 절경

사진명소

- 소백산 철쭉 : 산 전체를 붉게 물들인 5월 철쭉
- 소백산 정상 : 비로봉에서 바라보는 일출
- 소백산 능선 : 어의곡 삼거리에서 비로봉으로 이어지는 능선길밭

산행 Tip!

많이 따뜻해진 봄 산행 시 여전히 낙엽에 덮인 얼음과 잔설이 남아있을 수 있고 낙상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주요등산로

- ① 다리안관광지 → 소백산국립공원
 다리안관광지 → 천동탐방지원센터 소백산 등산로 입구 → 소백산국립공원 천동지구 → 소백산국립공원 천동탐방안내소 → 천동계곡 → 천동리 삼거리 → 소백산국립공원
- ② 희망(버스정류장) → 희망사
 희망(버스정류장) → 소백산국립공원 희망탐방지원센터 → 희망사 매표소 → 희망폭포 → 희망사
- ③ 소백산국립공원 죽령탐방지원센터 → 연화봉
 소백산국립공원 죽령탐방지원센터 → 소백산국립공원 죽령지구 → 제2연화봉 → 연화봉

📷 사계

📷 명소



소백산 눈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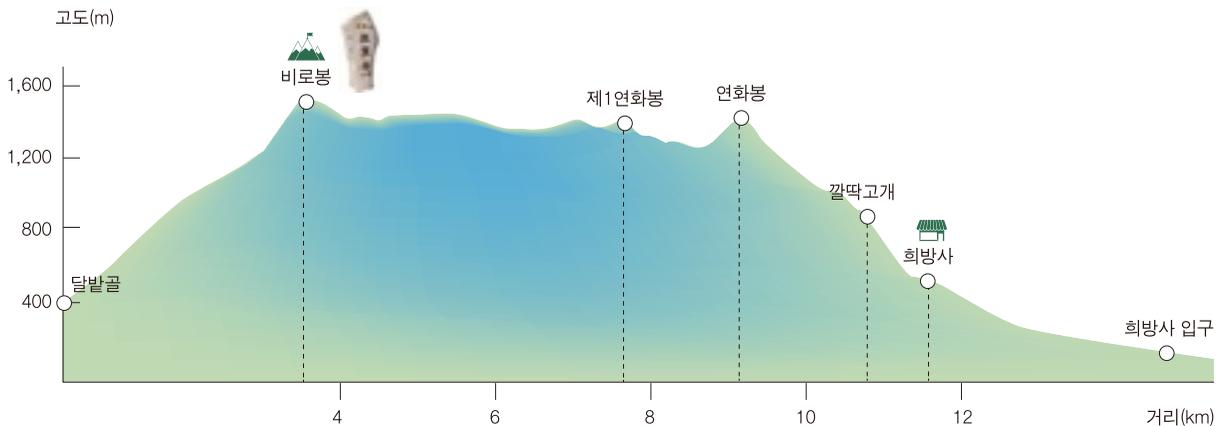
소백산 철쭉



소백산 정상



소백산 능선



👁️ 주변관광지

📍 다리안관광지

자연 속에서 찾은 쉼터

단양시내에서 7.1km를 달려 천동동굴을 훌쩍 지난 곳에 소백산에서 흘러 내려온 계곡을 중심으로 원두막, 야영장, 유스호스텔, 민박과 식당을 겸한 업소들이 모여 이루어진 다리안관광지



📍 영주 소백산역 열차 카라반 캠핑장

고즈넉한 간이역의 낭만



희방사역 폐역 바로 옆에 위치한 무쇠달 마을의 소백산역 열차 카라반 캠핑장은 경북 영주시가 산골 철도역사 관광 자원화사업으로 조성하였으며, 수철리 무쇠달협동조합에서 운영 중. 희방사역은 2020년 12월 폐역이 되었지만 철길과 역사 등은 그대로 남아 있음. 산골마을의 고즈넉한 간이역에서 즐기는 캠핑

📍 고수동굴

자연과 세월이 빚어낸 예술품

충북 단양의 고수동굴(천연기념물)은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천연 동굴 중 하나. 길이 1,700m의 동굴 내부에는 중유석, 석순, 동굴산호, 동굴진주, 천연교는 물론 희귀 중유석인 아라고나이트 등 볼거리도 다양. 석회암 동굴에서 생성되는 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



함께 가 볼 만한 곳



무섬마을



영주 소수서원

● 무섬마을

태백산에서 내려오는 내성천과 소백산에서 내려온 서천이 만나 서태극 모양으로 돌아나가는 형세가 산태극 수태극의 형상으로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섬과 같다 하여 무섬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물돌이 마을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경북 봉화에 위치한 대규모 자연친화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부터 휴양 관광 분야까지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 백두대간 수목원은 공간이 넓으므로 천천히 운행되는 수목원 트램을 타고 종착지인 단풍식물원까지 이동하면서 자연 풍경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음

● 영주 소수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주세붕(周世鵬)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창건. 조선시대 유림의 사상적 본거지



아름다운 경관이 사계절 이어지다

소요산 逍遙山



동두천시청

위 치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신북면

높 이 587.5m

관리주체 동두천시, 포천시

개요

소요산은 산세가 웅장하지는 않으나 석영반암의 대암맥이 산능선에 병풍처럼 노출되어 성벽을 이루고 있는 듯하며, 경기의 소금강이라고 할 만큼 경승지이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많은 전설을 간직한 명승지를 품고 있으며 1981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산세가 수려하고 아름다운 경기도의 소금강(小金剛)

소요산의 주봉은 의상대(義湘臺)이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



소요산 전경



소요산 자재암



소요산 등산로

만 산세가 수려하고 아름답다.

소요산에는 청량폭포(淸涼瀑布)와 원효폭포가 있는데, 이 지대를 하백운대(下白雲台 500m)라고 한다. 그 오른쪽에 원효대(元曉台)가 솟아 있고 원효대사가 수도한 곳이라고 전하는 옥로봉(玉露峰)을 넘어 북동쪽으로 나한대(羅漢台 510m)·의상대·비룡폭포가 나온다. 또 원효대에서 약 30m쯤 되는 절벽 위를 상(上)백운대라고 하며, 그 밑으로 선녀탕(仙女湯)을 볼 수 있다. 원효폭포 주변에는 방음봉·이필봉·약수봉 등의 봉우리들이 솟아 있다. 자연석굴인 나한전과 산중턱의 금송굴도 유명하다.

신라시대 원효가 세운 자재암(自在庵)에서 30m 돌층계를

올라가면 그 위쪽으로 중백운대와 상백운대가 있다. 중백운대와 상백운대를 거쳐 나한대, 의상대에 이르게 된다. 산의 정상에서 보면 북쪽으로는 한탄강이, 남쪽으로는 서울방면의 산맥이 굽이치고 추가령구조곡이 산의 서쪽으로 지나 간다.

명칭유래

서화담과 양사언, 매월당이 자주 소요(逍遙)하였다고 하여 974년(광종 25)에 소요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소요산의 사계

- 봄 : 꽃잎이 크고 화려한 철쭉
- 여름 : 선녀탕의 얼음 피서
- 가을 : 단풍절정 원효폭포
- 겨울 : 의상대에서 공주봉 가는 길에 만나는 설산의 절경

사진명소

- 소요산 단풍 : 일주문에서 자재암에 이르는 단풍터널로 오색단풍과 각종 문화재, 기암괴석 등이 어우러진 정경을 연출
- 원효폭포 :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사랑이 깃든 소요산의 명소
- 의상대 : 소요산 정상직 전망대로 동두천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음

주요등산로

- 1 소요산역 → 소요산(정상)
소요산역 → 소요산국민관광지 → 소요산관광지 야영장 → 소요산(정상)
- 2 원각사(버스정류장) → 소요산(정상)
원각사(버스정류장) → 보광사 → 원각사 → 병풍바위 → 소요산(정상)
- 3 하봉암동(버스정류장) → 덕일봉(감투봉)
하봉암동(버스정류장) → 덕일봉(감투봉) → 소요 별안숲 테마파크
- 4 안창말(버스정류장) →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안창말(버스정류장) → 전원주택단지 입구 → 치마바위 → 소요공원 →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  사계
-  명소



소요산 여름의 선녀탕



소요산 단풍



원효폭포



의상대

고도(m)



주변관광지

소요 별안숲 테마파크

2020년 개장한 자연 테마파크

약 27만 m²의 면적에 숙박 시설과 체험 시설을 조성해 카라반, 상상야영장과 데크 12개가 운영 중이며 각종 체험시설과 캠핑,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테마파크



자유수호평화박물관

6.25전쟁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엔 참전국 우호 증진 위해 건립된 박물관

6.25전쟁 참전 22개국 유엔군 활약상과 관련 유물 및 자료를 전시. 경기의 소금강으로 잘 알려진 소 요산 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 및 등산 등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음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2016년 5월 4일 개관한 도립박물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생명존중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생태적 가치를 체험하는 어린이박물관으로, 어린이의 꿈과 상상을 키우는 자연 놀이 숲



함께 가 볼 만한 곳



동두천자연휴양림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

● 동두천자연휴양림

자연친화 복합휴양공간.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숲속 체험이 가능함. 다양한 형태의 모든 숙소에서 숲의 전경을 볼 수 있어 나가지 않더라도 숲을 즐길 수 있음

● 한탄강주상절리길(포천)

자연의 신비가 느껴지는 특이 지형과 여기에 얽힌 이야기들이 흐르는 한탄강. 한반도 지형과 하천 침식 작

용으로 생긴 명우리 협곡 등 주상절리의 백미를 만날 수 있음. 구라이길, 가마소길, 벼룻길, 명우리길 등 총 52km에 이르는 코스 중 한탄강하늘다리와 비둘기낭폭포를 볼 수 있는 비둘기낭순환코스(6km)와 협곡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벼룻길(6km)이 인기

● 포천아트밸리 천문과학관

경기북부천문과학관의 중심, 천문우주관련 전문과학관으로서 포천 아트밸리 내 위치. 조각 공원과 폐채석장을 활용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 매시간 천체투영실에서 별자리 설명 및 특수영상 등의 체험과 주간에는 태양관측, 야간에는 달과 행성 등의 천체관측이 가능함. 주말 과학체험교실과 과학강연 등 다양한 과학 체험프로그램 운영



겹겹이 펼쳐진
산들의 절경에 빠지다

속리산

俗離山



속리산국립공원

위 치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높 이 1,058.4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속리산국립공원)

개요

태백산맥에서 남서방향으로 뻗어 나오는 소백산맥 줄기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백두대간이 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왕봉에서 한남금북 정맥이 분기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북 보은군, 괴산군, 경북 상주시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자연환경

울창한 산림 천년고찰 범주사와 조화

속리산은 화강암을 기반으로 변성퇴적암이 섞여 있어 화강암 부분은 날카롭게 솟아오르고 변성퇴적암 부분은 깊



속리산 전경



속리산 문장대



속리산 케이블카

게 패여 높고 깊은 봉우리와 계곡은 기하 절경을 이룬다. 중생대의 화성암류 중 반상화강암은 공원의 중북부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화양계곡의 파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기하성층은 법주사 일대와 화양계곡 등 하천과 계곡 저지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주사지구 학소대 주변 은폭동(隱瀑洞)계곡·만수계곡·화양동지구 화양동계곡·선유동계곡·쌍곡계곡과·장각폭포·오송폭포(五松瀑布) 등의 명소가 있으며, 정이품송(正二品松 천연기념물 제103호)·망개나무(천연기념물 제207호) 등 906종의 식물과 까막딱다구리(천연기념물 제242호)·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 등 희귀 동물을 포함하여 2,885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명칭유래

속리산은 오래전부터 광명산(光明山)·지명산(智明山)·미지산(彌智山)·구봉산(九峯山)·형제산(兄弟山)·소금강산(小金剛山)·자하산(紫霞山)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속리산(俗離山)은 봉우리 아홉이 뽀족하게 일어섰기 때문에 구봉산(九峯山)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는 속리악(俗離岳)이라고 일컬었다.’ 라고 되어 있다.

속리산의 사계

- 봄 : 말티재를 넘어 범주사로 향하는 사이 길 양옆으로 눈꽃처럼 날리는 벚꽃길
- 여름 : 화양, 선유, 쌍곡계곡을 따라 즐기는 산행
- 가을 : 단풍 곱기로 유명한 경업대에서 바라본 풍경
- 겨울 : 천왕봉에 장관을 이루며 펼쳐진 설원

사진명소

- 범주사 : 통일신라부터 고려, 조선 시대 등 각 시대의 중요 불교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2018. 06. 30.) 대찰
- 세조길 : 범주사에서 세심정까지의 길로 조선의 태조와 세조 두 임금이 부속암자로 가기 위해 걸었던 숲길
- 문장대 : 천왕봉 북쪽에 위치, 천왕봉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암봉으로 기반암이 풍화되어 있는 능선의 봉우리에 여러 개의 핵석들이 겹쳐 있어 성곽같이 보임

주요등산로

- ① 속리산국립공원 체험학습관 → 천왕봉
속리산국립공원 체험학습관 → 범주사 매표소 → 범주사 일주문 → 속리산 세조길 → 태평교 → 목욕소 → 용바위굴 휴게소 → 문장대 → 문수봉 → 신선대 → 입석대 → 비로봉(곤노봉) → 천왕봉
- ② 천왕봉 주차장(유료) → 천왕봉
천왕봉 주차장(유료) → 천왕봉
- ③ 묘봉두부마을 → 묘봉(두류봉)
묘봉두부마을 → 토끼굴 → 토끼봉 → 통천문 → 상학봉 → 묘봉(두류봉) → 묘봉두부마을



사계



명소



속리산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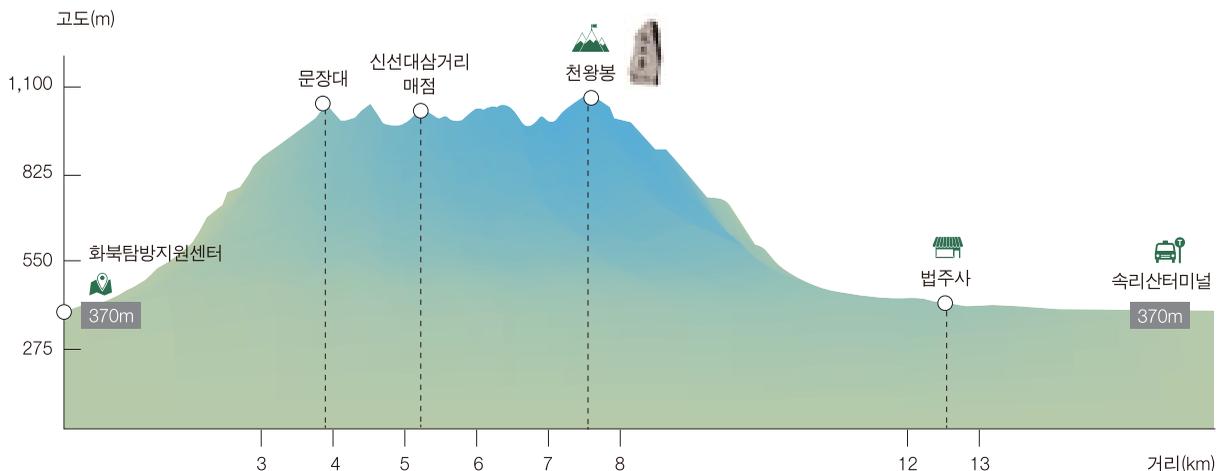
범주사



세조길



문장대



 주변관광지

 말티재 전망대

말티고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명소

2020년 개장한 2층(폭 16m, 높이 20m) 전망대 및 조형물로 말티고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명소. 숲과 도로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광. 자전거, 바이크 동호인들 사이에서 12굽이 와인딩 코스로 유명



 정이품송공원

정이품 벼슬을 받은 속리산의 랜드마크

나이가 약 6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정이품송은 높이는 15m, 가슴둘레 4.5m, 가지를 뺀 총면적은 1158.3m²에 달하는 크고 오래된 소나무로 속리산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짐. 전체적인 나무의 모양이 매우 아름다우며, 생물학 및 생물유전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



 국립속리산말티재자연휴양림

자연체험과 학습을 위한 최적의 장소

국립공원 속리산의 수려한 경관과 휴양림 입구에 위치한 박석 저수지가 함께 어우러져 한폭의 산수화를 완성. 속리산 산행 첫 관문인 말티재 입구에 위치하며 2002년에 개장, 침엽수와 활엽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등산, 산책 등 심신수련과 휴양에 적합한 곳



함께 가 볼 만한 곳



우당고택



연꽃단지

● 우당고택 (선병국가옥)

건축기법에 변화를 보이던 시기의 대표적 건물
1919~1921년 사이에 지어진 이 집은 전통적 건축기법에서 벗어나, 건물의 칸이나높이 등을 크게 하는 경향으로 변화를 보이던 시기의 대표적 건물. 집은 안채와 사랑채 및 사당의 3공간으로 나누고 안담으로 둘러싸고, 그 밖을 바깥담으로 크게 둘러싼 형태로, 바깥담 남쪽

에 설정돼 있는 집의 어귀 솔밭 숲속에 이 집 할아버지 선씨의 효자정각이 있음

● 삼년산성

신라교통의 요지, 보은의 군사전략적 요충지로 쌓은 석축산성.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석축산성으로 평가되며 신라 자비마립간 13년⁽⁴⁷⁰⁾ 축성을 시작한지 3년 만에 완성하여 붙여진 이름

● 연꽃단지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 인근에 조성된 속리산 자연학습장으로 연꽃, 수련, 가시연꽃, 물양귀비 등 수경식물 식재함. 관찰로를 따라 산책하며 관찰하거나 아이들을 위한 교육 장소 및 가족단위 피크닉 장소로 적합



광활한 익새 능선의
풍광 속으로 빠져들다

신불산

神佛山



산림청

위 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삼남면

높 이 1,159.3m

관리주체 울주군

개요

경상남도의 동북부를 차지하는 산지 지대로 태백산맥의 여맥에 해당하여 주위에는 1,000m 내외의 높은 산지가 많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삼남면 가천리와 상북면 등 역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 1983년 12월 간월산과 함께 울주군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98년에 개장한 신불산 폭포 자연휴양림이 자리잡고 있다.

자연환경

화강암의 암반이 펼쳐진 계곡의 맑은 물

북쪽으로부터 고현산(高獻山 1,033m)·가지산(加智山 1,240m)·능



신불산 전경



노을진 신불산



신불산 능선

동산(陵洞山 982m)·간월산(肝月山 1,083m)·취서산(鷗棲山 1,059m)·천황산(天皇山 1,189m)·운문산(雲門山 1,182m) 등이 이어 있다. 특히 능동산에서 간월산과 신불산에 이르는 능선의 서쪽 사면에는 완경사의 산정 평탄면이 전개되어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신불산의 동쪽에는 남북 방향으로 발달한 양산구조선(梁山構造線)이 긴 저지대를 이루는데, 태화강(太和江)의 지류가 사면을 개석하여 급경사를 이룬다.

간월산으로 이어지는 북쪽 계곡은 급경사를 이루며 태화강 본류에서 갈라진 작괘천(芍掛川)이 개석하고 있다. 작괘천 입구에는 벚꽃숲이 우거지고 이어진 작천정(酌川亭)에는 희고 널찍한 화강암의 암반이 펼쳐져 있어 계곡의 맑은 물과 조화를 이루어 예로부터 경치가 좋은 곳으로 유명

하다. 일대의 계곡 암반에는 구혈(斷穴)이 많이 뚫려 있어 한층 더 자연의 묘미를 더해준다. 간월산과 신불산 및 취서산으로 이어지는 서쪽 사면은 완경사를 이루며, 동창천(東倉川)의 상류인 배내천이 흐르고 있다.

명칭유래

신불산(神佛山)은 신령이 불도를 닦는 산이라고 하여 유래한 지명이다. 신불산은 왕벵, 왕방이라고도 부르는데, 모두 왕봉을 말하는 곳으로 산꼭대기에 묘를 쓰면 역적이 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신불산의 사계

- 봄 : 야생화와 진달래가 어우러진 배내고개
- 여름 : 시원하게 쏟아지는 파래소폭포
- 가을 : 역사 군락지 간월재
- 겨울 : 황금빛 하늘 역사길에 눈이 소복하게 쌓인 설경

사진명소

- 신불재 : 테크길을 따라 시원하게 조망되는 역사군락지
- 파래소폭포 : 신불산휴양림에서 만나는 폭포
- 간월재 : 신불산과 간월산 사이에 있는 고개로 매년 10월 3일 '울주오디세이' 산상음악회가 열림

산행 Tip!

배낭 무게는 가볍게 하고 발에 맞는 등산화를 신어야 함. 사고 대비 비상식량을 챙기고 음식물은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함

주요등산로

- 1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센터 → 신불산(정상)
영남알프스 국제클라이밍센터 → 홍류폭포 → 신불산(정상)
- 2 배내고개전망대 → 간월재
배내고개전망대 → 신불산들머리 → 간월재
- 3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 신불산(정상)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 간월재 역사평원(역사군락지) → 신불산(정상)
- 4 신불산 폭포자연휴양림 → 간월재
파래소폭포 → 신불산 폭포자연휴양림 → 간월재
- 5 백련마을 → 신불재
백련마을 → 석정봉 정상 → 간월산 → 간월재 역사평원(역사군락지) → 신불재 → 캠프포레

📷 사계

📍 명소



봄에 핀 배내고개 진달래



신불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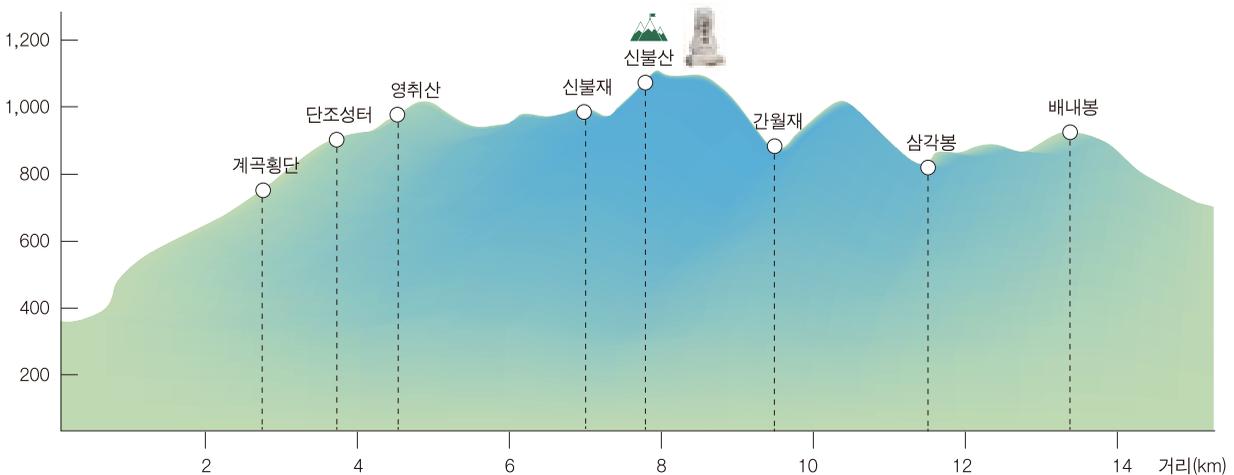


파래소폭포



간월재

고도(m)



👁️ 주변관광지

📍 간절곶 일출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새해를 여는 곳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간절곶과 해맞이할 때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것에서 이름을 딴 해안길. 진하 명선교 북쪽 입구에서 시작하여 남쪽 해안을 따라 신암항까지 10km 이어진 구간으로 연인, 소망, 낭만, 사랑, 행복이라는 다섯 가지 테마의 코스로 이루어짐

📍 간월재 역사군락지

하늘과 맞닿은 역사바다

간월재는 넓이가 무려 33만㎡(약 10만 평)에 이르며, 해발 900m 산 위에 끝없이 펼쳐진 평원이 온통 억새로 뒤덮여 있음. 햇살과 바람이 은빛 물결을 일으키며 황홀한 풍광을 연출



📍 홍류폭포

높은 절벽 위에서 힘차게 쏟아지는 물줄기가 일품인 폭포



울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폭포. 마치 은하수가 떨어지 듯 약 33m 높이에서 떨어지며 흩어져 봄에는 무지개가 서리며 겨울에는 고드름이 절벽에 매달리고 위에서 흩어져 내리는 물은 하얀 포말을 만들며 쏟아져 절경을 선사함.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수가 햇빛을 받으면 무지개가 서린다 하여 홍류폭포(虹流瀑布)라 함

함께 가 볼 만한 곳



태화강생태관



대왕암 공원

● 선바위공원

울산12경 선바위가 있는 공원. 선바위도 보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 앞으로는 강이 흐르고 한여름에도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는 울산 근교의 인기 나들이 장소. 근처에 태화강생태관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음

● 태화강생태관

태화강 곳곳의 자연환경과 태화강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는 공간. 물길을 따라 흐르는 시간 속에서 강과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과 태화강 속에서 흐르는 생태계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보여주는 생태교육장. 자연생태계의 소중함과 태화강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왕암 공원

울주군 간절곶과 함께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 우리나라 동남단에서 동해 쪽으로 가장 뾰족하게 나온 부분의 끝 지점. 동해의 길잡이를 하는 울기항로표지소(등대)로도 유명



우아한 연꽃으로 피어나다

연화산

連花山



고성군청

위 치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영현면

높 이 524m

관리주체 고성군

개요

선유봉, 옥녀봉, 탄금봉 등 10여 개의 산봉우리가 심산유곡의 형상을 이루고, 연화팔경의 절경지 등이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울창한 송림과 대밭에 계곡이 깊고 아름다우며 주변에 고찰과 문화재가 산재하여 1983년 9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중생대 백악기의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남아 있는 옥천사 계곡

연화산은 그리 높지 않지만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 등 자



연화산 전경

연경관이 수려하다. 산 북쪽에 있는 옥천사 주변은 울창한 소나무숲이 형성되어 있지만, 산 중턱으로는 규모가 큰 대나무밭의 계곡이 깊어 탐방로에서 주변을 조망하기 어려울 정도다. 산세가 아름다우며 주변에 고찰과 문화재가 많다.

연화산은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주변이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흙으로 이루어진 토산의 형태이며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산지를 이룬다. 연화봉에서 시루봉, 성지산으로 이어지는 남북 방향 능선과 금태산, 혼돈산, 남산으로 연결되는 동서 방향 능선이 연화산 정상에서 교차한다. 시루떡을 쌓아놓은 듯한 갖바위는 해성퇴적층으로 형성된 후 융기(隆起, 높게 일어나 들뜸)한 흔



연화산 암벽



연화산 찰피나무

적을 보여준다.

연화산 입구 옥천사 계곡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지가 있는데 표면이 울퉁불퉁하여 발자국이 선명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찍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명칭유래

연화산이라는 이름은 산세가 연꽃을 닮았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조선 인조 이전까지는 세 봉우리가 둘러 있어 마치 선인이 거문고를 타고 옥녀가 비파를 다루고 있는 형국이라는 데에서 비슬산으로 불렸지만, 학명선사(鶴鳴禪師)가 연화산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연화산의 사계

- 봄 : 매화향기 가득한 봄이 오는 소리
- 여름 : 시원하고 울창한 숲길 평평한 갯바위에서 조망한 풍경
- 가을 : 연화산에서 바라보는 다랑이논의 가을 풍경
- 겨울 : 달고 맛있는 샘물이 솟는 옥천사의 겨울

사진명소

- 시루봉 : 정상에 오르면 동쪽으로 보이는 쪽빛 바다 당항포가 한눈에 들어옴
- 옥천사 : 천년 역사를 품은 신라시대에 창건된 마당 전체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거대한 사찰누각 자방루
- 공룡발자국 화석지 : 중생대 백악기유산인 천연기념물 공룡 화석지로 유명함
- 장기바위 : 두부모처럼 사각진 장기바위는 신선이 부린 조화라고 불리기도 함

주요등산로

- ① 연화산도립공원 주차장 → 시루봉 → 연화산(정상)
연화산도립공원주차장→암벽쉼터→연화1봉 → 느재고개(옥천사 후문) → 싸리고개 → 시루봉 → 연화산(정상) → 장군봉
- ② 옥천소류지 주차장 → 봉화대 → 연화산(정상)
옥천소류지 주차장 → 연화1봉 → 연화2봉 → 봉화대 → 느재고개(옥천사 후문) → 싸리고개 → 연화산(정상) → 청련암

산행 Tip!

등산화 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고 안전하게 걷고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항상 일정한 속도로 발 디딜 곳을 잘 살피며 천천히 걸어야 함

📷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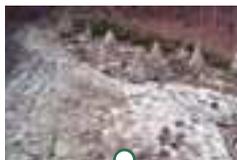
📷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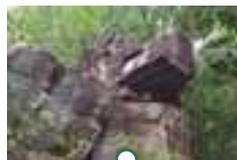
시루봉



옥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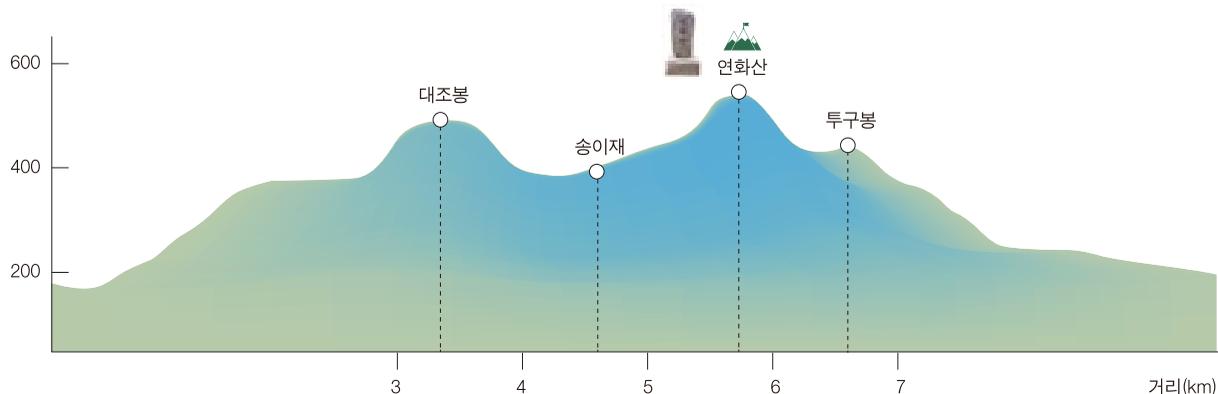


공룡발자국 화석지



장기바위

고도(m)



👁️ 주변관광지

📍 옥천사

사계절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천년고찰

대웅전 뒤에 맑은 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 옥천사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쌍계사의 말사(末寺)로 신라 문무왕 10년(670년)에 의상(義湘 625~702)이 창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건물은 대웅전, 자방루, 심검당, 적묵당, 명부전, 금당, 팔상전, 나한전, 산신각, 독성각, 칠성각 등이 있으며, 특히 옥천사의 자방루는 지은 지 300년이 넘는 건물이며, 대웅전은 1745년(영조 21)에 창건된 목조 건물임



📍 고성 당향포

한국의 쥐라기 공원



고성 당향포관광지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둔 대첩지이자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의 주 행사장.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민정신을 배우고 사라진 공룡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등 볼거리가 다양한 가족형 관광지임

📍 마동호 국가습지보호지역

환경부 29번째, 경남 6번째로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등 739종에 이르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 세계관개문화유산이자 국가농업문화유산인 '뚝방'과 인접해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음. 주변에 34ha의 넓은 갈대밭이 형성되어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주변 수변 구간에는 중생대의 퇴적암층과 공룡발자국 화석 단지가 분포함



함께 가 볼 만한 곳



문수암



남산공원

● 문수암

고성군 무이산에 있는 암자로서 신라 성덕왕 5년(서기 706년) 의상조사가 창건 이후, 수도 도량으로서 많은 고승을 배출하였고, 산수가 수려하여 삼국시대부터 해동의 명승지로 유명

● 남산공원

한려수도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공원, 공원안에 위치한 보광사 좌측에는 충혼탑과 봉안각, 6.25 반공유적비 등이 있고, 보광사 위편 산등성에는 생활체육시설과 목련쉼터가 조성되어 있음. 공원 정상에는 고성만 해안과 고성읍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팔각정이 위치

● 갈모봉산림욕장

뽀뽀한 편백나무들로 채워져 피톤치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곳. '쉴 곳' 또는 '휴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추천하는 코스. 나무들과 함께 호흡하며 걸을 수 있는 1.6km의 산책로가 있음



자연이 빛은 바위 계곡이
 짙은 숲과 어우러지다

오대산 五臺山



오대산국립공원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홍천군 내면
 강릉시 연곡면

높이 1,565.4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오대산국립공원)
 평창군, 홍천군, 강릉시

개요

오대산은 설악산과 더불어 태백산맥에 속하는 고산준령으로 주봉인 비로봉(1,565.4m)을 중심으로 호령봉(虎嶺峰)·상왕봉(象王峰)·두로봉(頭老峰)·동대산(東台山) 등의 고봉들이 솟아 있다.

1975년 2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오대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잘 보존된 생태계로 널리 알려져 있고, 유서 깊은 사찰과 문화재가 곳곳에 있다.

자연환경

천년의 숲과 오래된 불교 성지



오대산 전경



단풍으로 물든 오대산 계곡



오대산 전나무숲길

오대산의 지질은 주로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이고, 주요 산정부가 대부분 평정봉(平頂峰)을 이룬다. 암반의 노출이 적은데다가 오랜 풍화와 침식으로 인해 토양층이 비교적 두껍다. 주요 하천으로는 월정천과 내린천이 있고, 척천과 월정천이 합류된 오대천이 남한강으로 흘러든다. 동대산과 노인봉(老人峰) 사이의 진고개는 오대천과 연곡천(連谷川)의 분수령이 된다.

오대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림지대로 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오대산에는 총 3,788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월정사(月精寺) 옆의 금강연(金剛淵)은 천연기념물인 열목어와 메기·탕수·뱀장어 등이 서식하고 있어 '특별어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산 전체의 토질이 중후하고 비옥하여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겨울철에는 강설량이 많고 산세가 완만하며 한강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특히 월정사 입구에서 시작되는 뽕뽕한 전나무 숲과 중턱에는 사스래나무 등 활엽수가, 정상 부근에는 눈썹백나무와 주목이 군락을 이루고 호령계곡의 난타나무군락, 두로봉과 상왕봉능선의 철쭉, 금강초롱 등이 유명하다.

명칭유래

산의 가운데에 있는 중대(中台)를 비롯하여 북대·남대·동대·서대가 오목하게 원을 그리고 있고, 산세가 다섯 개의 연꽃잎에 싸인 연심(蓮心)과 같다 하여 오대산이라고 부른다.

오대산의 사계

- 봄 : 꿩의바람꽃, 현호색, 노루귀, 너도바람꽃 등이 주는 봄소식
- 여름: 월정사 전나무숲길의 호젓함
- 가을: 선재길 상원사에서 월정사까지의 단풍길
- 겨울 : '천상의 극치'로 불리는 오대산 설경

사진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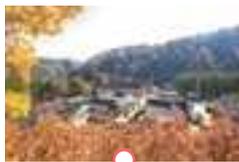
- 구룡폭포 : 소금강을 대표하는 폭포. 맑은 물과 암벽이 있어 여름에 더욱 인기 있는 명소
- 비로봉 : 오대산 완등의 이정표
- 상원사 : 신라 33대 성덕왕(聖德王) 23년(724년)에 건립된 사찰. 국보로 지정된 상원사 동종(銅鐘)과 대리석탑이 있음

주요등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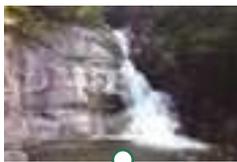
- 1 상원사 → 상왕봉
상원사 → 오대산 중대 사자암 → 상원사 적멸보궁 → 비로봉 → 오대산 → 상왕봉
- 2 상원사 → 두로봉
상원사 → 상왕봉 → 비로봉 → 두로령 → 두로봉
- 3 상원사 → 월정사
상원사 → 상원사 적멸보궁 → 올빼미정원(식물원) → 월정사부도군 → 월정사
- 4 진고개휴게소 → 상원사
진고개휴게소 → 동대산 → 상원사

📷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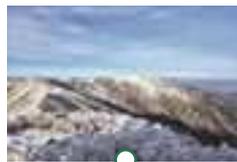
📷 명소



오대산의 가을단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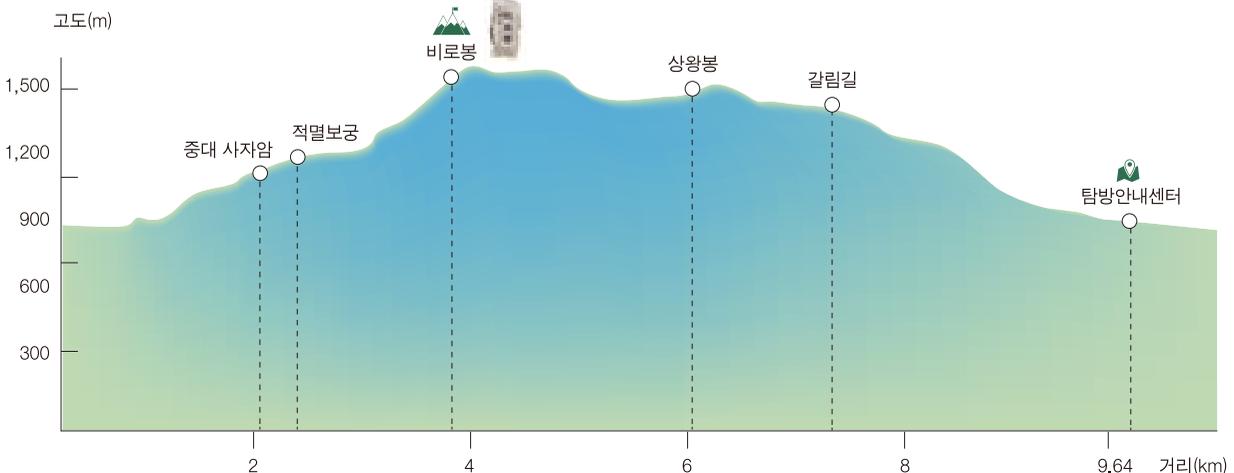
구룡폭포



비로봉



상원사



👁️ 주변관광지

📍 월정사(月精寺)

마음의 달이 아름다운 천년 고찰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자장율사에 의해 오대산에 창건된 사찰. 60여 개의 사찰과 8개의 암자를 거느리고 있음. 국보 팔각구층석탑, 보물인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목조문수동자좌상 등 수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템플스테이를 휴식형과 체험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오대산 소금강계곡

계곡 기암들의 모습이 금강산을 닮은 곳

소금강의 울창한 숲 사이로 기암의 수려함이 드러나는 장관을 갖춘 곳. 무릉계곡, 십자소, 명경대, 석당암, 구룡폭포, 군자폭포, 만물상 등과 금강산성(일명 아미산성) 등의 많은 명승이 위치



📍 국립삼봉자연휴양림

울창한 활엽수가 조화를 이룬 자연휴양림



홍천군 내면 광원리에 있는 자연휴양림으로, 활엽수가 조화를 이룬 울창한 숲속에 위치. 삼봉약수 터는 위장병에 효험이 있다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

함께 가 볼 만한 곳



선자령



대관령삼양목장

● 선자령

백두대간 중심부에 위치한 봉우리. 북쪽으로는 오대산의 노인봉, 남쪽으로는 능경봉과 연결되는 등산로. 산의 해발고도는 높지만, 산행 기점인 구 대관령휴게소가 해발 840m에 자리 잡고 있고 선자령까지 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등산로가 평탄하여 왕복 거리에 비해 비교적 쉬운 등산로로 남녀노소 누구나 등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정상에서 바라보는 강릉시가지와 푸른 동

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 겨울이면 능선의 눈꽃이 아름다워 겨울 산행으로 찾는 이가 많음

● 대관령삼양목장

국내 최대 유기초지 목장으로 삼양식품이 1972년부터 초지를 개간하여 개척한 목장. 2007년부터 관광사업을 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공개. 광활한 푸른 초원에서 자유롭게 방목되는 동물들이 있으며, 언덕위에 우뚝 솟은 풍력 발전기는 자연바람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국내 최대의 규모

● 안반데기마을

해발 1,100m 고산지대로 떡메로 떡을 치는 안반처럼 우뚝하면서도 널찍한 지형을 안반데기라 부름. 산이 배추밭이고, 배추밭이 곧 산인 곳. 경사가 가팔라서 기계농이 불가능하므로 농부의 힘이 고스란히 들어간 곳



소양호 푸른 물길을 따라
암릉길을 오르다

오봉산

五峰山



춘천시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화천군 간동면

높 이 777.9m

관리주체 춘천시, 화천군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와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에 사이에 위치한 산이다. 용화산과 더불어 춘천 분지의 북쪽을 막고 있으며, 춘천방향 남쪽 기슭에는 청평사와 소양호가 있다.

자연환경

소양호와 절묘한 기암괴석

주봉을 중심으로 다섯 봉우리가 잘 어우러지면서 바위성 등 아기자기한 절경을 연출한다. 봄이면 산 전체가 철쭉꽃으로 덮여 장관을 이룬다. 오봉산의 진달래는 선동계곡에



오봉산 압름



오봉산 구송폭포



오봉산 단풍 계곡

서 부터 볼 수 있지만, 정상에서 배후령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북쪽 사면이 압권이다. 특히 3봉에서 2봉을 거쳐 1봉으로 내려서는 능선은 바위와 진달래가 어우러지는 경관을 자랑하므로 봄철 산행에 적격이다. 기차와 배를 타고 가는 철도 산행지, 산과 호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호반 산행지로 알려져 있다.

천년이 넘은 고찰 청평사(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청평사 회전문(보물), 구송폭포(九松瀑布), 삼층석탑(중국 원 元, 순제의 공주와 상사범의 전설이 얽힌), 공주굴, 공주당, 연못의 시조라는 영지(영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등산은 배후령에서 시작해 정상에 오른 뒤 구송폭포로 하산하는 4km, 2시간 걸리는 코스와 배후령에서 시작해 정상에서 청평사를 지나 구송폭포로 하산하는 6km, 3시간 걸리는 코스, 배후령에서 시

작해 정상에 오른 뒤 부용계곡으로 하산하는 7km, 3시간 30분 걸리는 코스, 소양강댐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청평사 선착장에서 시작해 구송폭포, 청평사를 지나 정상에 오른 뒤 청평사로 내려와 선착장으로 하산하는 7km, 3시간 30분 걸리는 코스 등이 있다.

명칭유래

청평사 뒤에 솟은 비로봉, 보현봉, 문수봉, 관음봉, 나한봉의 다섯 봉우리를 말한다. 옛 이름은 경운산(慶雲山)이었고 오봉산, 경수산, 청평산으로도 부르다 등산객에게 알려지면서 오봉산이 되었다.

오봉산의 사계

- 봄 : 철쭉이 온 산을 분홍빛으로 수놓은 절경
- 여름 : 소양호 강줄기 따라 걸으며 부는 바람
- 가을 : 단풍나무와 다양한 활엽수가 만든 은은한 단풍
- 겨울 : 암릉사이 쌓인 눈과 소나무의 조화

사진명소

- 청평사 : 1,000년 넘는 고찰. 청평사 회전문, 뱀의 전설이 얹힌 삼층석탑 등 역사와 문화를 둘러볼 수 있는 명소
- 소요대 : 청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
- 청솔바위 : 오봉산에서 유명한 바위로 기암절벽 위에 푸르름을 뽐내고 있는 소나무 한 그루의 조화
- 흙통바위 : 큰 바위가 내려앉아 틈이 생긴 등산로

주요등산로

- ① 청평사 국민여가 캠핑장 → 청평사 → 오봉산(정상)
 청평사 국민여가 캠핑장 → 청평사 매표소 → 청평사 → 진락공 세수터 → 오봉산(정상)
- ② 배치고개정상 → 오봉산(정상) → 청평사
 배치고개정상(버스정류장) → 오봉산(정상) → 급경사구간(암릉지역) → 청평사
- ③ 배후령정상 → 오봉산(정상) → 청평사
 배후령정상 → 오봉산(정상) → 구멍바위 → 완경사구간 → 청평사

산행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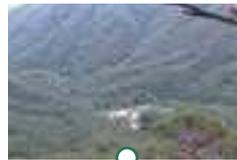
등산로가 아닌 곳은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빨리 되돌아가야 함



활엽수와 은은한 단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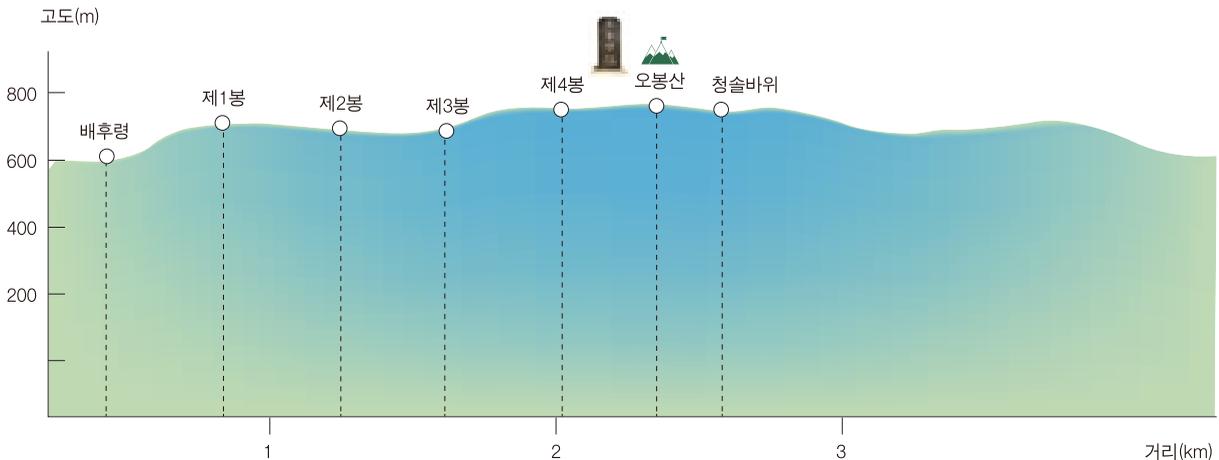
청평사



소요대



청솔바위



👁️ 주변관광지

📍 춘천시 수변공원

의암호를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



춘천 중도 선착장에서 KT&G상상마당, 춘천MBC, 야외공연장, 황금비늘테마거리, 공지천 조각공원으로 이어지는 수변 산책로. 왼쪽 수변 산책길에 카누를 탈 수 있는 천중도물레길, 강원특별자치도 단풍 명소길인 KT&G상상마당이 있고 공지천 조각공원으로 이어짐

📍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 & 토이로봇관

의암호반에 자리한 우리나라 유일 애니메이션박물관, 상상에 재미를 더한 토이로봇관

애니메이션의 기원과 탄생 및 발전, 애니메이션의 종류,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 등에 대한 입체적인 전시 및 대형 태권브이, 옛 만화가게 등이 재현되어 있음. 박물관 옆의 토이로봇관에서는 거미 로봇, 미션 로봇, 로봇 아바타, 로봇 댄스, 드론 등의 다양한 로봇 체험이 가능



📍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국내 첫 글로벌 레고 테마파크



아시아 최대 규모의 레고랜드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레고랜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정식 개장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테마파크. 만 2세에서 12세의 자녀를 둔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와 어트랙션으로 구성

함께 가 볼 만한 곳



강아지숲 테마파크



춘천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

● 강아지숲 테마파크

반려견 동반 여행지로 사랑받는 반려견 테마파크 강아지숲(2021. 4월 개장)은 댕댕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찾고 싶어 하는 명소로 강아지가 자유롭게 노닐 수 있는 야외 놀이터와 숲속 산책로, 반려견 전문 박물관, 반려견 동반 카페, 반려견 용품 판매점 등 다양한 시설

을 갖추고 있음

● 춘천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

다양한 형태의 글램핑을 체험할 수 있는 글램핑장. 바로 앞쪽에 흐르는 은빛 물결의 푸른 호수를 따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즐거운 글램핑의 낭만을 느낄 수 있음

● 국립춘천숲체원

국립춘천숲체원은 산림교육과 산림레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형 산림복지시설임.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반영한 모험숲, 실내암벽, 계곡트레킹 등 산림레포츠 특화 프로그램과 숲해설, 숲오감체험, 자연공예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음



천연기념물 은행나무를 따라
울창한 수림으로 들어가다

용문산

龍門山



양평군청

위 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옥천면

높 이 1,157.1m

관리주체 양평군

개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과 옥천면에 걸쳐 있으며 양평을 대표하는 산으로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높다. 남으로 백운봉, 동으로는 중원산과 도일봉을 거느리고 있어 양평지역 어디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산세가 크다.

자연환경

암릉과 경관이 빼어난 아름다운 계곡

용문산은 정상인 가섭봉 주변으로 용문봉·장군봉이 암릉을 이루고 있어 경관이 빼어나며, 상원계곡·용계계곡 등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수려한 경치의 계곡을 여럿 품



용문산 오솔길



용문사 삼층석탑



용문산 계곡

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예로부터 경기도의 금강산으로 불려왔다.

북쪽은 완경사, 남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첩첩이 쌓인 암괴들이 나타나며 깊은 계곡과 폭포도 볼 수 있고 용문산 북서 일대는 고도 700~1,100m 약 4km²의 고위 평탄면이 나타난다. 남쪽 산록 계곡에는 천년고찰 용문사(龍門寺)와 상원사(上院寺)가 있다. 그 외에도 운필사(潤筆寺)·사나사(舍那寺) 등 고찰이 있고 용문사 경내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수령이 약 1,100년으로 추정되며,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세자 마의태자(麻衣太子)가 심었다는 전설과 신라의 의상(義湘)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이처럼 성장하

였다는 전설이 있다.

용문산 정상은 이전에는 군부대가 위치하여 출입금지 지역이었으나 지금은 정상의 신선바위까지 오를 수 있다. 정상은 시야가 확 트이며 용문들, 유명산, 중원산, 도일봉 등의 높고 낮은 산자락이 시야에 펼쳐진다. 산의 동북쪽 기슭에는 산음자연휴양림이 있으며, 남서쪽 기슭에는 설매재자연휴양림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명칭유래

미지산(彌智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조선 태조가 등극하면서 용문산으로 바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용문산의 사계

- 봄 : 일주문 사찰 진입로의 연초록 물결
- 여름 : 용문산 계곡에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소리
- 가을 : 용문산 관광단지의 단풍터널
- 겨울 : 백운봉 능선 추위를 덜고 피어난 바람서리꽃

사진명소

- 용문사 : 용문산 기슭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의 승려 대경대사가 창건한 사찰
- 은행나무 :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1962. 12. 03.지정)로 수령이 1,100년으로 추정. 우리나라 은행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우람하며 수령이 많은 나무
- 가섭봉 : 은행나무 앞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 용문산 정상으로 특별한 전망을 선사

주요등산로

- 1 용문산관광지 → 용문산(정상)
용문산관광지 → 용문사 → 마당바위 갈림길
- 2 연수리 종점 → 용문산(정상)
연수리 종점 → 상원사 → 장군봉 → 용문산(정상)
- 3 용문산 자연휴양림 → 용문산(정상)
용문산 자연휴양림 → 백운봉 → 함왕봉 → 장군봉 → 용문산(정상)
- 4 사나사계곡 공영주차장 → 용문산(정상)
사나사계곡 공영주차장 → 사나사 → 함왕봉 → 용문산(정상)
- 5 쉬자파크 → 상원사
쉬자파크 → 지여우길 → 상원사

 사계

 명소



용문산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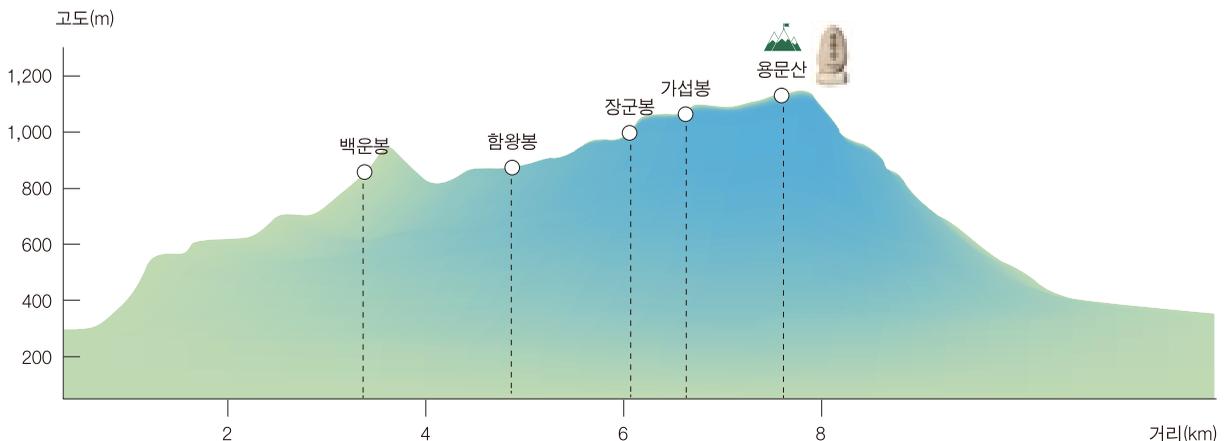
용문사



은행나무



가섭봉



👁️ 주변관광지

📍 용문산관광지

천년 고찰 용문사를 품고있는 곳



관광단지 내에는 관광단지 초입에 있는 토속음식마을과 친환경 농업박물관, 추억의 청춘뮤지엄, 정지국사부도비, 용문산지구전적비 등이 있음. 주변에 넓은 잔디광장과 캠핑장, 분수대, 야외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어 사시사철 관광객이 붐비는 곳으로 인근에는 펜션단지가 조성

📍 산음자연휴양림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에 위치한 자연휴양림

임도 40km, 등산로 28km, 산책로 5km의 숲길이 잘 정돈되어 있으며, 휴양림계곡을 따라 다양한 수종의 원시혼효림과 인공림은 물론 많은 야생동물도 함께 공존하는 산림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음



📍 두물머리

사계절이 아름다운 생태관광지



금강산에서 흘러내린 북한강과 강원특별자치도 금대봉 기슭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 두 물이 합쳐지는 곳으로 한강의 시작점. 4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어우러진 양수리 두물머리는 사계절 아름답게 변모하는 풍광이 기다리는 곳으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

함께 가 볼 만한 곳



들꽃수목원



양평군립미술관

● 들꽃수목원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토종야생화 200종이 전시 분포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은 물론 온 가족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남한강 노을을 비롯한 강변의 정취와 다양한 꽃들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책이나 도감에서만 볼 수 있었던 많은 식물들과 자연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갈산공원

양평의 대표 벚꽃길로 남한강변을 따라 조성된 갈산공원은 4월에는 벚꽃 명소로 유명하며, 강변을 따라 늘어선 버드나무길이 멋스러워 양평군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 양평 물소리길 4코스와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음

● 양평군립미술관

개관(2011. 12. 16) 이래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현대미술기획과 창의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018년 말 기준 누적관람객 110만명을 넘어서며 글로벌 문화를 이끌고 있음



기암괴석과 청송이 어우러지다

용화산 龍華山



화천군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화천군 하남면·간동면

높 이 877.8m

관리주체 춘천시, 화천군

개요

화강암으로 빚어낸 천하비경, 춘천시 사북면과 화천군의 간동면, 하남면 경계에 우뚝 솟아 있는 산이다.

자연환경

천혜의 바위요새

용마굴(龍馬窟)·장수굴(將帥窟)·백운대(白雲臺)·은선암(隱仙岩)
·현선암(顯仙岩)·득남(得男)바위·층계바위·하늘벽·만장
봉·주전자바위·마귀할멈바위·새남바위·한빛벽·광바
위·바둑판바위·작은 비선대 등 각종 전설을 간직한 기암
이 많고 폭포도 6개나 되어 경치가 아름답다.



용화산 전경



눈 내린 용화산



용화산 기암괴석

정상에서는 남쪽으로 춘천시를 에워싼 대룡산·금병산·삼악산이 보이고 그 사이로 인근의 파로호·춘천호·의암호·소양호 등이 보이며, 서쪽으로는 화악산·북배산이 조망된다. 인근 주민의 정신적 영산(靈山)이자 명산으로서, 옛날에는 가뭄이 들면 화천군에서 군수가 제주(祭主)가 되어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고, 요즘도 해마다 열리는 용화축전 때 산신제를 지낸다.

용화산의 안개와 구름은 예로부터 성불사의 저녁 종소리, 기괴한 돌, 원천리 계곡의 맑은 물 등과 함께 화천8경(華川八景)이라 불렀다.

명칭유래

이 산에서 지네와 뱀이 서로 싸우다 이긴 쪽이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용화산(龍華山)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용화산의 사계

- 봄 : 비탈진 산길에 핀 노오란 산수유
- 여름 : 암릉 계곡에 더해지는 경쾌한 계곡물 소리
- 가을 : 숲길에 흩뿌려진 은은한 단풍 빛
- 겨울 : 화강암 암릉 낙엽 위로 쌓인 눈

사진명소

- 만장봉 소나무 : 만장봉 바위 틈으로 자라는 소나무
- 층계바위 : 긴 벽돌을 계속 이어 놓은 듯한 층계바위
- 만장봉 하늘길 : 하늘을 배경으로 암릉을 걷는 기분 을 느끼게 하는 길

산행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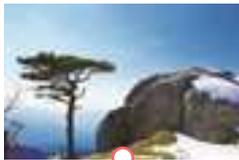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고 하루 8시간 산행하고, 체력의 30%는 비축

주요등산로

- 1 양통 종점 → 용화산(정상)
양통 종점 → 용화산 등산로 안내도 → 용화산
양통 주차장 → 용화산(정상)
- 2 프라임캠핑장 → 용화산(정상)
프라임캠핑장 → 소나무세상 → 득남바위 → 용화산(정상) → 천연염색공방
- 3 간동면사무소 → 용화산 안부
간동면사무소 → 아들바위 → 용화산 안부 → 소나무세상
- 4 발산리 수리봉 입구 → 수리봉 정상 → 버섯바위
발산리 수리봉 입구 → 수리봉 정상 → 버섯바위 → 용화산자연휴양림 → 양통 종점(버스정류장)

📷 사계

📷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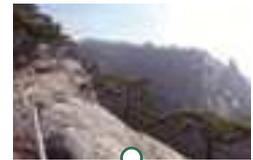
눈 덮인 암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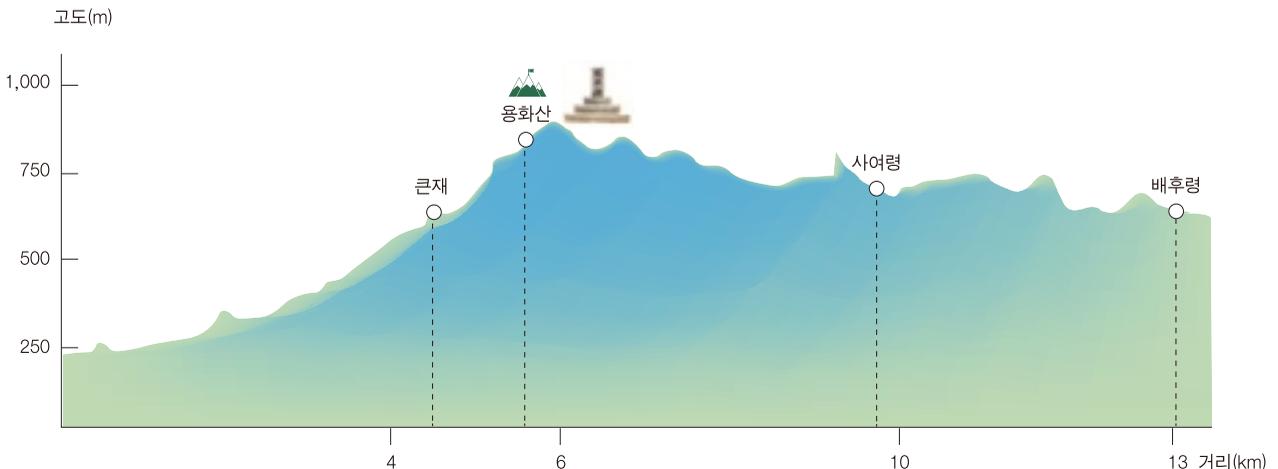
만장봉 소나무



층계바위



만장봉 하늘길



👁️ 주변관광지

📍 서오지리 연꽃마을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에 위치한 연꽃 생태공원



건넌들이라고 불리던 늪지대에 2005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수련, 백련, 순채, 가시연, 어리연 꽃 등 40여 종에 달하는 연꽃들이 계절에 따라 꽃을 피워 사진작가들과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명소

📍 해피초원목장

춘천 사북면 산 중턱에 자리한 체험 목장이자 SNS 인생 사진 명소로 유명

북유럽 스타일의 한우방목장 풍경으로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농장체험, 목장 동물만나기 체험과 애견동반이 가능



📍 동구래마을

반려동물과 힐링할 수 있는 꽃의 마을



‘동그란’에서 유래되어 모든 사물의 시작인 씨앗과 꽃을 상징하는 동구래 마을은 마을의 주인이 꽃이라 할 만큼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곳. 우리나라의 토종야생화 종자를 보존하고 증식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곳

함께 가 볼 만한 곳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조경철천문대

●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우수한 화천의 목재를 활용해 나만의 생활가구나 목제품을 만들 수 있는 목공예 체험장.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나무놀이터, 어른들에게는 목공예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전문 공방. 굵직한 나무 기둥을 세워 원형으로 만든 건물과, 간단한 휴대폰 거치대부터 복잡한 가구 만들기 등의 체험이 가능. 잣나무 칩을 잔뜩 깔아놓

은 목재놀이체험장도 즐길거리

● 파로호 전망대

파로호의 그림 같은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파로호 안보전시관 뒤쪽 동산으로 150m 정도 왼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전망대 난간을 비롯한 정자와 벤치가 마련되어 있음

● 조경철천문대

‘광덕산 천문대’로도 불리는 조경철천문대는 별과 함께 살아온 아폴로 박사 고성 조경철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4년 화천군에서 건립. 대중과 친근한 과학자로, 과학의 대중화를 꾀하고 우주과학 입국을 위한 계몽사로 큰 공헌을 한 조경철 박사의 꿈과 발자취를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는 곳



영남알프스를 제대로 전망하다

운문산

雲門山



밀양시청

위 치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경상남도 밀양시 신내면

높 이 1,195.1m

관리주체 경상북도, 밀양시

개요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7개의 산 가운데 하나로, 그중 자연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꼽힌다. 청도군에서는 운문산 천혜의 자연경관을 관광 자원화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군립공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자연환경

계곡 절경과 함께 산재한 관광자원

운문산은 태백산맥의 고현산(高獻山 1,033m)에서 갈라져 경상남도과 경상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성현산맥(省峴山脈) 중의 한 산으로, 동쪽으로는 가지산(加智山 1,240m)·고현산, 서



운문산 전경



운문사 삼층석탑



운문사 은행나무

쪽으로는 억산(億山 944m)·구만산(九萬山 785m)·부산(阜山 591m)·호암산(虎巖山 612m)·화악산(華岳山 932m)·천왕산(天王山 619m) 등을 지나 비슬산괴(毘瑟山塊)와 연결된다.

곳곳에 기암괴석과 암봉, 울창한 숲이 있고, 천문동 계곡·목골·배넘이골·큰골·학심이골 등 크고 작은 계곡이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석골사·운문사·천문 계곡·목골 계곡·얼음골 등의 대표 관광 자원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경상남북도의 경계를 따라 뻗은 태백산맥 남단의 주봉 가운데 하나이며, 운문현(雲門峴 700m)을 중심으로 동운문과 서운문으로 나뉜다. 동운문은 남쪽 비탈면의 절벽 밑에

구연동(臼淵洞), 얼음골로 불리는 동학(洞壑), 해바위 등 천태 만상의 기암이 계곡과 더불어 절경을 이룬다. 또 북쪽 기슭에는 560년(신라 진흥왕 21)에 창건된 운문사가 있고, 남쪽에는 석골사(石骨寺) 등 크고 작은 절과 암자가 산재한다.

명칭유래

운문산은 운문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560년(진흥왕 21)에 창건된 운문사는 고려 937년(태조 20)에 태조가 운문선사(雲門禪師)라는 사액을 내렸고, 화랑도와 낭도에게 세속 오계를 가르친 원광국사(圓光國師)와 『삼국유사(三國遺事)』를 지은 일연(一然)이 머물렀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운문산의 사계

- 봄 : 진달래가 활짝 핀 꽃길을 따라 걷는 산행
- 여름 : 녹음 우거진 숲 사이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
- 가을 : 운문사 솔바람길 소나무 아래 꽃무릇 8만 여송이의 찬란한 개화
- 겨울 : 자연 계곡 빙판 겨울놀이 체험과 고로쇠나무 숲에서의 건강 한 모금

사진명소

- 만세루 : 운문사에 있는 건축물로 경상북도 유형 문화재지정(2010. 08. 02). 만세루 옆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령 200년이 넘는 원반형의 반송(盤松)이 있음
- 상운암 : 정상 아래에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곳
- 석골사계곡 : 다양한 폭포와 기암을 볼 수 있는 운문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

주요등산로

- 1 석골폭포 → 운문산(정상)
석골폭포 → 석골사 → 운문산(정상) → 상운암
- 2 하양복지회관 → 운문산(정상) → 아랫재
하양복지회관 → 얼음골캠핑장 → 운문산(정상) → 아랫재 → 하양마을쉼터
- 3 월당마을회관 → 삼지봉 → 범봉
월당마을회관 → 석골사 → 삼지봉 → 범봉 → 제3전망대 → 제2전망대 → 제1전망대
- 4 원서 → 함화산(정상) → 운문산(정상)
원서 → 아이비오토캠핑장 → 석골폭포 → 제1전망대 → 제2전망대 → 함화산(정상) → 운문산(정상) → 석골사

 사계

 명소



운문사 가을꽃무릇



만세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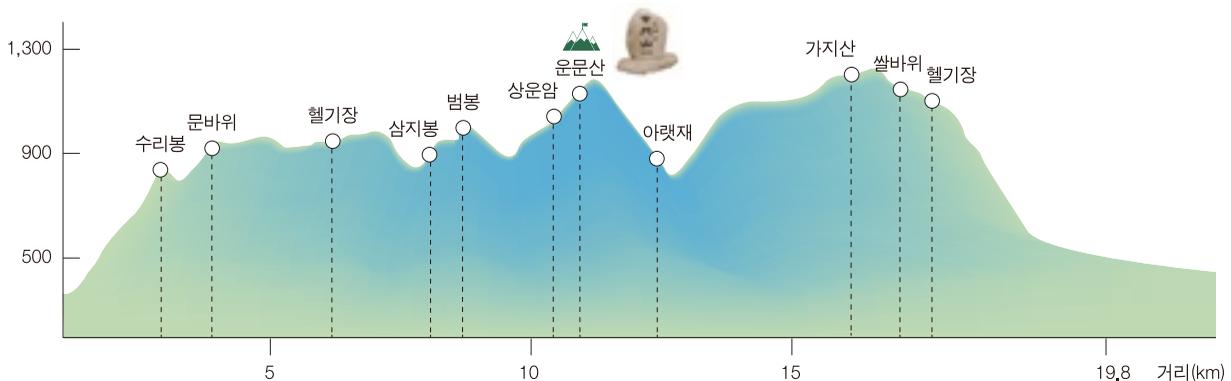


상운암



석골사계곡

고도(m)



👁 주변관광지

📍 삼계리계곡

자연이 아름다운 계곡



배너미, 생금비리, 개살피라는 세 계곡으로 이뤄져 있어 삼계계곡으로 부름. 계곡 좌우에 늘어선 갖가지 형태의 바위, 그 앞을 완전히 덮고 있는 울창한 숲, 가지산에서 발원하는 계곡물은 산자락 곳곳에서 흘러드는 물과 합쳐져 급류와 폭포의 절경을 만들

📍 운문사

유구한 역사를 지닌 고찰

청도군 호거산에 있는 유서 깊은 사찰로 영일(포항)에 이어 두번째로 서라벌에 합병된 산중고를 청도군의 불교문화 중심지. 정면과 측면이 3간씩인 대웅보전(보물)은 조선 중기 양식을 보여주는 소중한 건축사 자료임. 천연기념물인 소나무와 금당 앞 석등을 비롯한 보물 7점을 소장. 금당 앞 석등과 삼층석탑의 단아함과 함께 숲과 조화로운 사찰의 경관이 더욱 돋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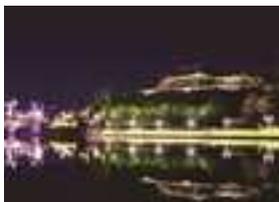
📍 밀양아리나

연극제작, 교육, 포럼 등 다양한 연극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종합예술촌



16,104㎡ 대지에 숲의극장, 스튜디오극장, 브레히트극장, 우리동네극장 설립.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야외성벽극장(2010년 완공)을 마련하여 새로운 연극 공연활동과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예술마을

함께 가 볼 만한 곳



영남루 야경



위양지(위양뚝)

● 영남루 야경

역사의 흐름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당대 명필가들의 작품들이 편액으로 즐비하게 남아 있고, 누각 자체의 웅장한 기풍으로 인해 당당하면서도 회화적인 아름다움의 진수를 보여줌

● 밀양 아리랑대공원

도심 속 나들이 명소로 아트센터와 광장, 연못,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월남참전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원. 생태놀이터에서는 자연재료를 활용한 생태체험을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음

● 위양지(위양뚝)

백성들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위양지’라 부름. 저수지가운데 5개의 작은 섬과 완재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음. 이팝나무 등 진귀한 나무들을 심어 사시사철 아름다운 운치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선비와 문인, 학자들이 즐겨 찾았던 명소



봉우리마다 암봉들이
구름을 뚫을 듯 솟다

운악산

雲岳山



가평군청

위 치 경기도 가평군 하면, 포천시 화현면

높 이 934.7m

관리주체 가평군, 포천시

개요

경기도 가평군 하면과 포천시에 걸쳐 있는 진산이다. 광주 산맥의 여맥 중 한 산으로 북쪽으로는 청계산(淸溪山)·강씨봉(康氏峰) 등이 이어져 포천과 가평의 경계를 이룬다.

자연환경

경기 5악 중 최고봉

기암괴봉으로 이루어진 산세가 뛰어나 경기금강(京畿金剛) 혹은 소금강(小金剛)이라고 불리며 기암괴석, 계곡, 절벽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다. 운악산은 돌로 뒤덮인 골산(骨山)으로 화악산·악산·감악산·송악산과 함께 경기 5



운악산 전경



운악산 가을



운악산 소나무

악에 속한다. 운악산은 동봉과 서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동봉이 서봉보다 약간 더 높으며 일명 청학대로 불린다. 또한 서봉과 가까운 곳에는 운악산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만경대가 자리하고 있다.

주봉인 만경대를 중심으로 봉우리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이 우뚝우뚝 치솟아 있고 주변에는 뽕죽봉·편편봉·완만봉 등의 봉우리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서쪽 계곡의 거대한 암벽에서 맑은 물이 떨어지는 무지개폭포(홍폭)는 궁예가 이곳으로 피신하여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운악산에는 운주사와 현등사라는 절이 있는데, 운주사

쪽에서 오르는 코스가 산 반대쪽인 현등사에서 오르는 코스보다 더 험한 편이다. 산기슭에는 운악산자연휴양림이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명칭유래

‘운악(雲岳)’은 산이 구름을 뚫고 구름 위에 떠 있는 것과는 같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일명 현등산(懸燈山)이라고도 불리며 현등사(懸燈寺)가 있다.

운악산의 사계

- 봄 : 이름 모를 바위와 수줍게 피어난 야생화들의 멋진 하모니
- 여름 : 바윗길 사이 무성한 활엽수들이 가려주는 햇빛
- 가을 : 병풍바위를 곱게 장식한 울긋불긋 단풍
- 겨울 : 서쪽 얼어붙은 폭포의 빙벽등반 풍경

사진명소

- 만경대 : 운악산에서 가장 좋은 전망을 자랑하는 곳으로 청계산 등 주변 산들이 모두 조망
- 백년폭포 : 45도 경사바위 위로 오랜 세월 변함없이 흐르는 폭포
- 108계단 : 운악산 중턱에 있는 현등사에 오르는 돌로 된 계단
- 미륵바위 : 운악산 최고의 풍경을 자랑하는 바위

주요등산로

- ① 현등사 입구 → 만경대
현등사 입구 → 현등사 관광안내 → 눈썹바위 → 병풍바위 전망대 → 미륵바위 → 만경대 → 현등사
- ② 운악산캠핑촌 → 운악산(정상) → 운악사
운악산캠핑촌 → 대원사 → 모시대 → 운악산(정상) → 서봉 → 애기봉 → 운악사 → 운악산 자연휴양림
- ③ 운악산 입구 → 삿갓바위
운악산 입구 → 현등사 → 선바위 → 삿갓바위 → 새연리조트 가평현리1호점(카라반&글램핑) → 가평 루체른글램핑 → 신상교



만경대



백년폭포



108계단



미륵바위



👁️ 주변관광지

📍 국립운악산자연휴양림

봄에는 꽃길이고 가을에는 단풍이 장관인 휴양림

2007년 3월에 개장한 자연휴양림으로 해발 934.7m 운악산 깊은 숲속에 위치. 조성 당시 발견된 조선 시대 가마터도 복원되어 있어 휴식과 역사 교육을 함께 즐길 수 있음. 서울에서 1시간 내의 거리로 접근성이 용이



📍 청평호반

가평제1경 청평호반



1944년 청평댐이 준공되면서 이루어진 곳으로 호수면적은 만수 시 1,917만㎡(580만평)에 달함. 호수 양편으로 호명산이 높이 솟아 청결한 호수와 잘 어우러져 있음. 청평호수는 여름철의 피서객을 비롯하여 사계절 계속하여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음

📍 한탄강 하늘다리

한탄강 협곡으로 단절된 생태경관단지와 테마파크 등을 연결하는 이색적인 형태의 보도교

한탄강 하늘다리와 연계하여 한탄강의 주상절리 및 비경을 구경 할 수 있는 주요 산책 코스. 특히 강 아래에서 협곡 등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코스 등이 조성되어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자라섬



호명호수

● 자라섬

1944년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 전용댐인 청평댐이 완공되면서 생긴 섬으로 중도, 서도, 남도 등 3개의 섬과 2개의 부속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평의 대표적인 관광지. '자라처럼 생긴 언덕'이 바라보고 있는 섬이라 하여 '자라섬'이라는 이름을 얻었음.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섬 여행 가능

● 호명호수

가평8경 중 제2경. 국내 최초로 건설된 양수식 발전소의 상부 저수지. 호수에 떠있는 거북이는 부유식 태양광발전설비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함. 호수 주변 울창한 나무그늘 아래 테이블과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망대, 호명 갤러리, 카페 등도 함께 즐길 수 있음

● 포천국립수목원

540여 년 이상 자연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포천국립수목원. 옛 이름은 광릉수목원. 3,344종의 식물, 15개의 전문 수목원으로 이루어진 인조림, 8km에 이르는 삼림욕장, 백두산 호랑이 등 15종의 희귀동물 야생동물원까지 보유. 세계적 희귀조인 크낙새 서식지이며 하늘 다람쥐, 장수하늘소 등 천연기념물 20종이 서식 중



사방팔방 호남의 명산들을 모두 관망하다

운장산

雲長山



진안군청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정천면·주천면·부귀면
완주군 동상면

높 이 1,125.8m

관리주체 진안군

개요

태백산맥에서 갈라진 노령산맥 중의 한 산으로, 정상 부분은 세 봉우리로 이루어진다. 동봉(東峰 1,120m)은 주천면과 정천면의 경계가, 서봉(西峰 1,110m)은 동상면과 주천면·부귀면의 경계가 되며, 중봉(中峰)은 운장산의 최고봉을 이룬다.

자연환경

노령산맥 줄기 만경강과 금강을 가르는 분수계

운장산 정상에는 3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주봉은 중봉이고, 금남정맥이 지나가는 봉우리는 중봉에서 서쪽으로 약



운장산 전경



운장산 능선



운장산 암봉

500m 지점에 있는 서봉(1,110m, 일명 독계봉)이며, 동쪽에는 동봉(1,133m)이 있다. 주화산~연석산~운장산 서봉~피암목재~장군봉~대둔산으로 이어지는 금남정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운장산에서 발원하는 하천 중에서 서쪽의 완주군 동상면으로 흐르는 용연천(검태 계곡·동상 저수지 방향)은 만경강 수계이고, 동쪽으로 흐르는 주자천과 정자천은 금강 수계이다. 이와 같이 운장산은 노령산맥의 줄기로서 만경강과 금강을 가르는 분수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운장산의 산줄기는 남북 방향의 금남정맥 이외에 동북쪽 산줄기가 있는데, 갈크미재~북두봉~구봉산(1,002m)으

로 이어지며, 동남쪽의 산줄기는 옥녀봉~부귀산(806m)으로 이어진다. 중봉 정상에는 산성의 흔적이 있다.

명칭유래

운장산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은 조선 시대 정여립 사건과 관련이 있는 송익필의 자가 운장(雲長)이었던 데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송익필에 관련된 전설은 독계봉(운장산 서봉)과 오성대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송익필은 정여립을 체포할 당시 진안 현감 민인백과 같은 서인 계열이었다. 『진안지』에 따르면 산이 높아 항상 구름이 덮여 있다는 의미에서 운장산(雲藏山)이라고 한다는 기록도 있다.

운장산의 사계

- 봄 : 진안고원의 봄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철쭉 능선
- 여름 : 맑고 깨끗한 갈거계곡에서 느끼는 청명함
- 가을 : 산허리에서 보는 익어가는 감나무
- 겨울 : 정상 능선에 그림처럼 피어난 상고대

사진명소

- 운장산 전망대 : 내려다보는 풍경이 압권
- 운장대-서봉 : 운장대 서봉 능선은 기암절벽과 하늘의 조화가 한 폭의 그림
- 칠성대 : 북두칠성의 일곱 성군이 내려와 선비들을 깨웠다는 곳
- 동봉(삼장봉) : 막힘없는 조망을 즐길 수 있는 곳

주요등산로

- ❶ 구봉산 만남의광장 → 운장산(정상) → 운장산 서봉(운장산 칠성대)
 구봉산 만남의광장 → 구봉산 제3봉 → 구봉산 제7봉 → 구봉산 천왕봉 → 운장산(정상) → 운장산 서봉(운장산 칠성대) → 운장산 휴게소

산행 Tip!

등산 시에는 날카로운 나뭇가지나 등산장비 등에 피부를 긁히거나 베이는 경우도 자주 발생. 사소한 부상이라면 소독 후 반창고를 붙이도록 하고 만약 피가 멈추지 않거나 출혈이 심할 때는 환부를 심장보다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고 피가 나는 부위는 압박을 통해 지혈하도록 함.



운장산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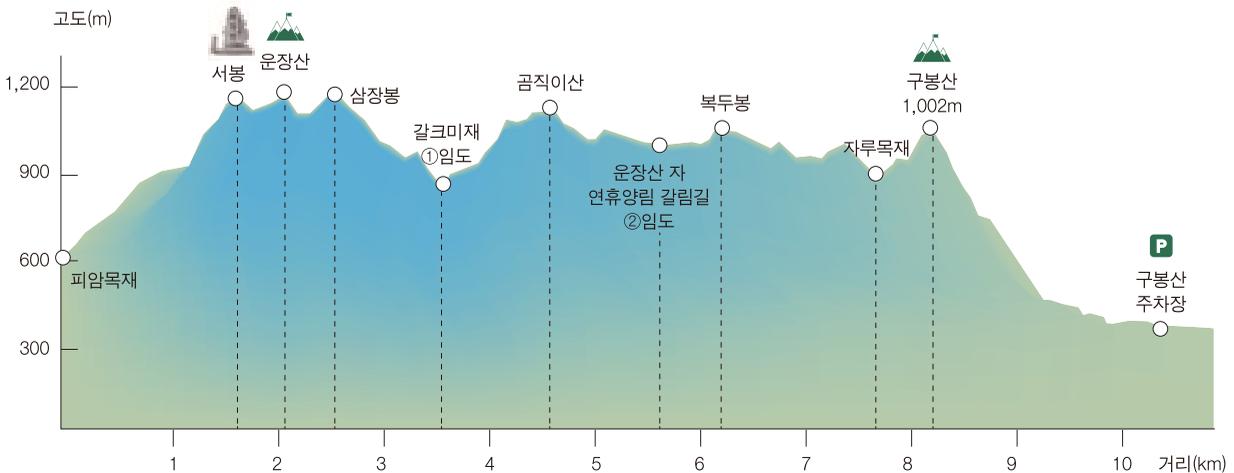
운장대-서봉



칠성대



동봉(삼장봉)



👁️ 주변관광지

📍 대아수목원

대아저수지 맑은 물과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자리하고 있는 대아수목원



30여 만 그루의 관상수가 150ha에 우거져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 대아수목원은 생물 다양성 유지 및 보전, 국내외 식물탐색·수집 및 자원화, 국민의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됨. 자생종을 비롯하여 식재종 및 원예종 등을 포함하여 총 2,683종의 다양한 식물을 보유. 희귀 및 특산식물(산림청 지정) 135종류가 포함되어 있음.

📍 운일암·반일암

기암괴석과 크고 작은 폭포, 소가 어울려 빛어낸 절경

곳곳에 크고 작은 폭포와 소가 있어 자연 경관이 수려함. 또한 운일암·반일암 제1주차장에서 테크 탐방로를 따라 명도봉 방향으로 가면 길이 220m의 구름다리가 있어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자연 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음. 왕복 소요 시간 1시간 정도로 진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곳



📍 화암사

숲속의 잘 늙은 절 한 채



불명산 자락에 있는 화암사는 조선 시대에 지어진 사찰로 세월의 흐름을 멋지게 담고 있는 것으로 유명. 불명산의 자연에 숨어있듯 묻혀 있기 때문에 사찰을 찾아가는 재미도 있음. 시인 안도현은 “나혼자 가끔씩 펼쳐보고 싶은, 작지만 소중한 책 같은 절”이라 함. 국보로 지정된 극락전이 유명함

함께 가 볼 만한 곳

역사문화 탐방, 템플스테이 등 산사문화도 체험 가능함



송광사와 벚꽃길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 송광사와 벚꽃길

신라시대에 도의선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봄이면 완주군 소양면 소재지에서 송광사에 이르는 1.6km의 분홍빛 벚꽃 터널이 아름다워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 받고 있음. 사찰에는 다수의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어

●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1.5km 메타세쿼이아길로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음. 전주에서 가깝고 마이산이 근접해 있어 사계절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관광지

● 운장산자연휴양림

원시수림의 형태를 고스란히 보존하여 자연미가 뛰어난 휴양림. 약 7km에 달하는 운장산 계곡은 원시수림과 옥류수가 연중 흐르고 순환임도와 연결하여 마당바위, 학의소 등이 자연수목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



청풍명월 청풍호의 웅장함과 함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다

월악산

月岳山



월악산국립공원

위 치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덕산면

높 이 1,095.3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월악산국립공원)

개요

소백산맥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산악 지대이다. 충주호(忠州湖)에 바로 인접하여 있고, 산의 동북 쪽에는 소백산국립공원이, 남서쪽으로는 속리산국립공원이 있다.

자연환경

깎아지른 듯한 산줄기의 험준함

월악산은 한국의 5대 약산(岳山)의 하나로 2개 도 4개 시군 9개 읍면 34개 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 최고봉인 영봉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만수봉(983.2m)과 포암산으로 이



월악산 전경



월악산 일출



월악산 단풍

어지는 능선이 날카로운 상어 이빨인 듯 보이고, 만수봉과 포암산 너머로 주흘산·조령산·백화산·이만봉 등 소백산 줄기가 아련하게 보인다. 서쪽 아래로는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를 거쳐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를 지나 청풍호로 흘러드는 송계계곡이, 위로는 박쥐봉·마역봉·신선봉·북바위산·석문봉·말마산·첨푸산·대미산 등이 고만고만한 높이로 솟아 있다.

송계계곡이 동서 8km에 이르는 구간에 품고 있는 월광폭포·자연대·청벽대·팔랑소·망폭대·수경대·학소대 등 송계팔경과 16km에 이르는 용하구곡의 폭포와 천연 수림은 여름 피서지 중에서도 명승으로 꼽히고, 용하구곡 발원지인 문수봉과 대미산을 넘으면 12km의 선암계곡이 이어지며,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에서 제천 옥순봉과 구담봉이

금수산과 마주하여 서로 자태를 뽐내며 청풍호의 푸른 물과 어울려 선경을 빚어낸다.

명칭유래

달이 뜨면 영봉에 걸린다고 하여 월악산이라 하였다. 삼국 시대에는 월형산이라 하였고, 후백제 견훤이 이곳에 궁궐을 지으려다 무산되어 와락산이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 온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명산은 월악이요.’ 이 밖에도 여러 옛 지도에 월악산은 빠짐없이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월악산의 사계

- 봄 : 노루귀부터 꿩의바람꽃까지 만개한 봄 야생화
- 여름 : 만수봉 만수계곡 여름 계곡 산행
- 가을 : 험준한 산이지만 가파른 등산길 사이로 스쳐가는 가을풍경
- 겨울 : 충주호와 조화를 이룬 산 봉우리의 설경

사진명소

- 학소대 : 한쌍의 학이 월악산을 오가며 살았다는 곳으로 마애불로 오르는 산행길에 등산객이 쉬어가는 유일한 안식처
- 덕주사 마애불 : 보물로 거대한 화강암벽에 마애불이 조각되어 있음
- 영봉 : 가까이 다가설수록 웅장함을 느끼게 하는 월악산의 주봉으로 제천, 충주, 단양 시내 전경 관망 가능

주요등산로

- ① 덕주골 → 월악산 영봉
 덕주골 → 월악산 관광안내소 → 월악산 수경대 → 월악산 국립공원 덕주 지구 → 제천 학소대 → 월악산 국립공원 덕주탐방지원센터 → 제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월악산 마애불) → 월악산 마애불 → 월악산 영봉
- ② 월악산 관광안내소 → 마애불 → 덕주야영장 월악산 관광안내소 → 제천 학소대 → 덕주사 → 월악산 국립공원 덕주탐방지원센터 → 마애불 → 송계삼거리 휴게소 → 영봉 관찰 전망대 → 산신각 → 자광사 → 송계계곡 → 덕주야영장
- ③ 월악산 등산로(신록사 앞) → 월악산 영봉
 월악산 등산로(신록사 앞) → 신록사 → 월악산 영봉

📷 사계

📷 명소



월악산 맑은 계곡



학소대



덕주사 마애불



영봉



 주변관광지

 송계계곡

제천의 대표적인 계곡 관광지



송계계곡은 월악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가히 여름 더위를 잊을 만하며, 특히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은 얼음처럼 차가워 여름철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많은 피서객이 몰림. 가을에는 충주호와 연계한 단풍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음

 옥순봉

월악산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명승

비 온 뒤 죽순의 모양처럼 희고 푸른 봉우리로, 제천10경 중 제8경. 옥순봉휴게소에서 전망대까지 5분정도 올라가면 그 수려한 산세와 힘찬 봉우리들을 보며 절로 감탄사가 나오는 명소임



 용하구곡

월악영봉의 남쪽에 있는 만수봉과 동남쪽 문수봉 사이 계곡



천연림과 이끼가 끼지 않는 맑은 물과 바위가 잘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여름에 계곡에 들면 시원함이 뱃속까지 스미고, 가을엔 온몸이 단풍으로 물들어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을 줌

함께 가 볼 만한 곳



별새꽃돌과학관



의림지

● 별새꽃돌과학관

구학산 기슭에 위치. 충청북도 제1호 전문과학관. 천문대, 조류연구, 생태학습관 등 과학전문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기관. 주·야간에 걸쳐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 별천지천문대를 비롯하여 야생조류연구소, 야생화 생태학습장, 화석관, 광물관, 곤충관, 숲교육장 등 첨단 시설 및 전문성을 갖춘 과학체험 학습기관

● 의림지

삼한시대 농경문화 발상지로 제천10경 중 제1경. 삼한 시대에 축조된 김제 벽골제, 밀양 수산제와 함께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저수지로 유명

● 박달재

제천시 봉양읍과 백운면을 갈라 놓은 험한 고개를 박달재라 함. 천등산 박달재라고도 하며 1217년(고려 고종4) 7월 거란군이 10만대군으로 침공해 왔을때 김취려 장군이 험준한 지형을 이용 전승을 세운 전승지로 유명



달빛 아름다운 바위 산에서
달맞이하다

월출산

月出山



월출산국립공원

위 치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군서면·학산면
강진군 성전면

높 이 810.7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월출산국립공원)

개요

백두대간(白頭大幹) 호남정맥(湖南正脈)의 무등산(無等山) 산줄기
가 남서로 뻗어 우뚝 솟은 산이다. 1988년 6월 우리나라
20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영암의 상징이자 자랑 옹골찬 암석미

소백산계에 속하는 해안산맥의 말단부에 높이 솟은 산체는
견고한 석영반암과 분암류로 구성되어 있어 수목이 잘
자랄 수 없는 급경사의 지형을 이룬다. 기암괴석이 많아
남국의 소금강(小金剛)이라고도 불린다.



월출산 전경



월출산 수나무



월출산 바위

산의 최고봉은 천황봉(天皇峯)이며 남서쪽에 연이은 구정봉(九井峯 743m) 능선을 경계로 북쪽은 영암군, 남쪽은 강진군이 된다. 구정봉 남쪽으로는 도갑산(道岬山 376m)·월각산(月角山 456m) 등이 있으며 천황봉의 북쪽으로는 장군봉(將軍峯)·국사봉(國師峯) 등이 연봉을 이룬다.

대체로 영암군에 속한 북쪽은 날카롭고 가파른 골산(骨山 돌산)이지만, 강진군에 속하는 남쪽의 산들은 비교적 산세가 완만한 육산(肉山 흙산)으로 되어 있다. 월출산의 천황봉에서 중첩한 산줄기 위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일출과 황해를 진홍빛으로 물들이는 일몰 풍경, 그리고 구림에서 바라보는 월출은 가히 호남 제일의 장관이다.

명칭유래

월출산은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신라 때에는 월나산(月奈山), 고려 때에는 월생산(月生山)이라 불렀다. 월출산은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많은 시인들의 칭송을 들어왔다. 월출산 지명은 산이 서해에 접해 있기 때문에 달을 가장 먼저 맞이한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로 인해 고려 초기에는 월생산(月生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월출산의 사계

- 봄 : 유채꽃밭과 어우러진 월출산 전경
- 여름 : 구름다리에서 느끼는 아찔한 시원함
- 가을 : 빛으로 피어나는 월출산 국화축제
- 겨울 : 눈과 함께 탁 트인 조망, 한적한 겨울산

사진명소

- 거북바위 : 월출산 기(氣)찬랜드에 있는 거북이 형상을 한 거북 바위
- 구름다리 : 매봉과 사자봉을 연결하는 다리로 해발 605m, 수직 120m 높이에 설치되어 산악 지역 구름다리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
- 바우제단 : 월출산 천황사 지구 용바위 앞 제단으로 매년 바우제를 지냄

주요등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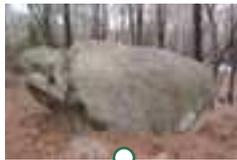
- ① 산성대 탐방지원센터 → 월출산 천황봉 → 월출산 바람재
 산성대 탐방지원센터 → 월출제일관 → 산성대 → 고인돌바위 → 월출산 천황봉 → 월출산 바람재 → 전라남도자연탐구수련원 월출학생수련장
- ② 도갑사 주차장 → 천황봉
 도갑사 주차장 → 용수폭포 → 구정봉 → 용암사지 삼층석탑 → 바람재 → 천황봉
- ③ 영암터미널 → 천황봉 → 천황사
 영암터미널 → 산성대주차장 입구 → 영암관광안내도 → 사자봉 → 천황봉 → 천황사 → 월출산 천황야영장 → 천황탐방안내소

📷 사계

📍 명소



월출산 봄 유채꽃밭



거북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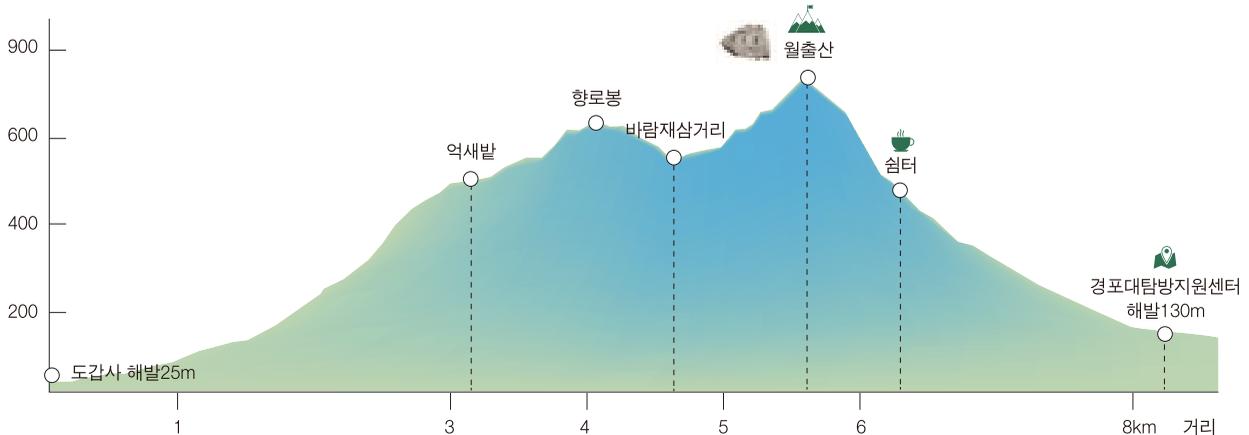


구름다리



바우제단

고도



주변관광지

도갑사

국보와 보물 등 다양한 문화재가 있는 사찰

신라 말기에 도선국사가 창건하였으며, 조선 전기 세조 2년(1456) 수미가 증건한 사찰. 경내에는 대웅전과 석조 5층석탑 수미왕사비가 있고 절 100m 위 미륵전에는 보물인 석조여래좌상이 있음



구림전통마을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품은 마을

많은 역사적 설화와 인물을 배출한 자연 그대로의 문화관광자원이 많은 아름다운 마을. 마을 내에는 유형문화자원인 회사정, 국암사, 담숙재 등 12개의 누정과 전통가옥, 돌담, 고목나무 등이 즐비하게 옛 그대로 남아 있음



무위사

소박한 것의 아름다움을 지닌 천년고찰

고려 초에는 선종 사찰로 유명하였으나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수륙사(水陸寺)로서 유명세를 떨침. 월출산자락을 병풍으로 두르고 고즈넉하게 자리한 무위사는 전라남도 강진을 방문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임



함께 가 볼 만한 곳



영암호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 영암호

영암 금호방조제가 준공되면서 만들어진 대규모 호수로 먹이가 풍부한 개펄과 넓은 수면, 따뜻한 기온 때문에 철새들의 이동통로이자 중간 기착지로서 겨울철새 100여 종 30만 마리 이상이 서식함. 방조제를 사이로 담수와 해수가 갈려 담수와 해수가 섞여 동시엔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함

● 왕인박사유적지

일본에 백제문화를 전수한 인물 왕인박사의 자취를 복원해 놓은 곳. 왕인박사유적지는 구림마을의 동쪽 문필봉 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왕인묘에는 영정과 위패가 봉안되어 해마다 제사를 지냄

●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영암군 명예홍보대사인 동강(東江) 하정웅(河正雄) 선생이 평생 수집한 그림과 조각, 판화, 공예, 사진, 도자기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약 3천 여 점의 미술품을 기증해 설립됨. 현재 3천백 여 건의 미술품과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며 수려한 월출산과 호남의 명촌인 구림마을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볼거리가 다양함



기암괴석의 계곡에 맑은 물과 소(沼)가 많기로 유명하다

유명산

有明山



가평군청

위 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양평군 옥천면

높 이 864m

관리주체 가평군, 양평군

개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과 양평군 옥천면의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 기암괴석의 계곡에 끊임없이 흐르는 물로 등산객의 애호를 받고 있다.

자연환경

능선이 완만하고 부드러운 산

유명산은 능선이 완만하고 부드러운 산이다. 가족과 함께 산행하기도 좋은 곳으로 숲이 울창하고, 이곳의 계곡은 박쥐소, 용소, 마당소 등 유리알 같은 맑은 소와 이어져 장관을 이룬다. 산 정상에서 북쪽의 북한강, 청평호 및



유명산 전경



유명산 역새발



눈 덮인 유명산 겨울 능선

남쪽의 남한강이 보이고, 주변의 용문산과 화악산, 명지산 등의 산이 보인다.

역새발이 펼쳐지는 정상에서의 전망도 좋은데 나무가 거의 없는 까닭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패러글라이더들은 설매재 자연휴양림쪽(동쪽)에서 올라오는 임도를 이용한다.

산 정상 부근에 나란히 자리한 세 개의 바위는 삼형제바위라 불린다. 유명산에서 이어지는 계곡은 기암절벽과 작은 폭포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절경으로 가평8경 중 제8경 유명농계(有名弄溪)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 북쪽에 1989년 개장된 유명산자연휴양림이 있다.

명칭유래

『동국여지승람』에는 산 정상에서 말을 길렀다고 해서 마유산(馬遊山)이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여지도서』에는 “마유산은 군의 북쪽 20리에 있다. 북쪽의 용문산(龍門山)에서 이어져 마현산(馬峴山)의 주맥을 이룬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대동여지도』에 마유산이 표현되어 있다. 동쪽으로 용문산, 서쪽으로 청계산, 남쪽으로 대부산·편전산과 연결된다. 1973년 애포르산악회가 국토 자오선 종주 등산 중 일행인 진유명 씨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유명산의 사계

- 봄 : 계곡 사이 얼음이 녹으며 봄이 쭉쭉 오오는 소리
- 여름 : 숲이 많아 그늘이 되어주는 편안함
- 가을 : 일렁이는 억새물결과 남한강 줄기가 더해진 정취
- 겨울 : 맑은 물이 얼어붙은 얼음 계곡

사진명소

- 박쥐소 : 소 옆에 있는 넓은 바위. 그 안에 박쥐가 사는 굴이 있어 붙여진 이름
- 마당소 : 유명산 계곡의 맑고 깨끗한 소
- 억새초원 : 정상에 펼쳐진 억새밭으로 1980년대 후반 고랭지 농사가 중단된 후 초원으로 변함

산행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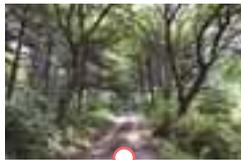
일행 중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하고 될 수 있으면 30kg 이상의 짐을 지지 않도록 함

주요등산로

- ① 유명산 주차장 → 유명산(정상)
유명산 주차장 → 유명산자연휴양림 → 휴양림가든 → 유명산(정상)
- ② 유명산 제2주차장 → 박쥐소 → 유명산(정상)
유명산 제2주차장 → 휴양림가든 → 박쥐소 → 유명계곡 → 유명산(정상)
- ③ 중미산등산로 입구(선어치고개) → 소구니산 → 유명산(정상)
중미산등산로 입구(선어치고개) → 소구니산 → 유명산(정상)
- ④ 유명산 종점(버스정류장) → 능선등산로 → 어비산계곡
유명산 종점(버스정류장) → 가평 늘푸른쉼터캠핑장 → 소풍캠핑장 → 올래캠핑장 → 어비산안내도 → 능선등산로 → 어비산계곡

📷 사계

📷 명소



유명산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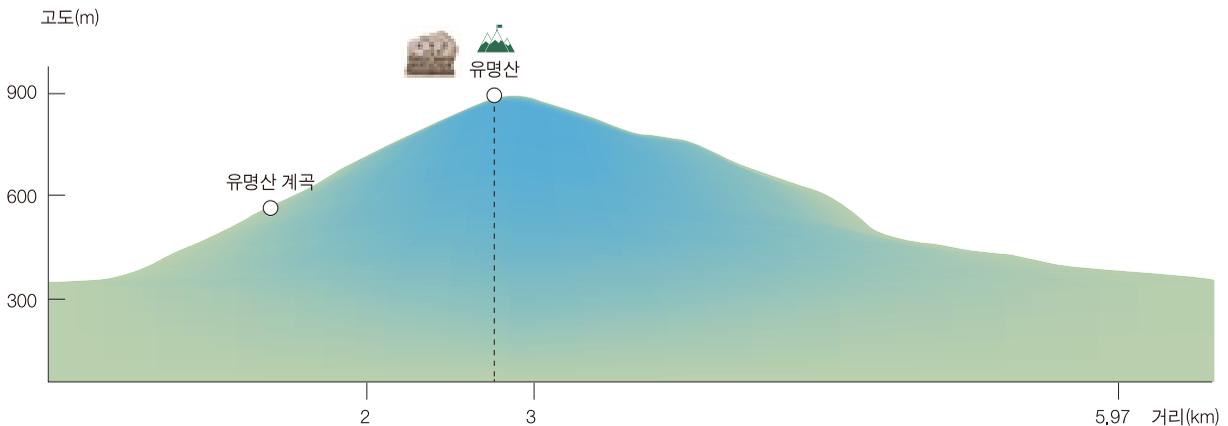
박쥐소



마당소



억새초원



👁️ 주변관광지

📍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서울에서 가까운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에 위치. 접근성과 시설이 좋아 오래전부터 캠퍼들에게 사랑받는 캠핑장



📍 어비계곡

용문산과 유명산 사이에 숨은 듯 어비산 자락을 감싸고 도는 시원한 계곡



수심이 적당하고 너른 바위를 따라 더 깊이 올라갈 수 있으며 상류에는 사람이 발길이 적어 자연 그대로의 계곡을 마주할 수 있는 곳

📍 가평 별묘

가평향토유적 제10호, 남도진의 영정을 모신 사당

가평 방일리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뒤의 작은 기와집이 가평 별묘이며 조선 후기 학자 남도진(南道振 1674-1735)을 제향하는 사당임. 남도진은 벼슬을 마다하고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아래 은거하다 일생을 마쳤고 은거하던 용문산 낙은암 근처의 경치를 노래한 「낙은별곡(樂隱別曲)」을 남김



함께 가 볼 만한 곳



에델바이스 스위스데미파크



초롱이 등지마을

● 에델바이스 스위스데미파크

스위스의 작은 마을 축제를 주제로 만들어진 곳. 에델바이스 스위스데미파크에서는 아름다운 스위스 건축물과 풍경, 그리고 다양한 박물관, 갤러리, 테마관, 포토존, 트리아트 등 아주 작은 아름다운 스위스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음

● 초롱이 등지마을

원시림의 자연 생태계가 보전된 깨끗한 마을로 청정지역에서만 산다는 '초롱새'와 '금강초롱꽃' 처럼 맑고 깨끗한 자연 속에서 '초롱이 등지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여행지로 선정한 마을

● 가평 선어치고개

유명산과 어비산을 바라보며 달리는 숲속 드라이브, 라이딩 명소, 맑고 많은 가평의 고개들 중에서 주변경관이 청평호반로 만큼이나 아름다워 여름철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히는 곳임



동해를 향해 비상을 꿈꾸다

응봉산

鷹峰山



삼척시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원덕읍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높 이 999.7m

관리주체 삼척시, 울진군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덕풍리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온정리 사이에 있는 산이다. 북쪽의 가곡천 골짜기를 따라 개설된 지방도 418호선을 제외하면 포장도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연 본래의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자연환경

원시림 속 짙은 숲은 비경 계곡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와 경북 봉화군, 울진군에 걸쳐 있는 응봉산은 깊은 산으로 험난하지만 빼어난 계곡을 품



응봉산 전경



응봉산 정상



응봉산과 어우러진 메밀꽃밭

고 있다. 응봉산에서 가장 각광받는 코스는 용소골 계곡 산행이다. 수많은 폭포와 깊은 소들이 산재한 이 계곡은 아마추어 등산인들에게는 매우 모험적인 산행지로 알려져 있다. 용소골은 원시림 속에 꼭꼭 숨겨져 있는 우리나라 최후의 비경지대이다. 전문 산악인들만 찾을 만큼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용소골 자연은 전인미답의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다.

굽이굽이 돌 때마다 열리는 계곡의 장관이 14km에 걸쳐 쉽 없이 펼쳐진다. 기암괴석과 맑은 물, 그리고 원시림, 천연수로에 썰매를 타듯 미끄러져 내려오면 마주치는 비경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조롱박 모양의 용소폭포는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시퍼렇다. 등산코스가 험하고 특히

비가 올 때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산에서만도 1박 2일의 일정이 필요하니 여유 있는 일정을 짜는 것이 좋다.

명칭유래

울진 쪽에서 보면 비상하는 ‘매’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응봉산으로 불리고 있다. 또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어느 조씨(趙氏)가 매 사냥을 하다가 매를 잃어버렸는데 그 매를 찾아 응봉(鷹峰)이라고 하였고, 그곳에 좋은 묘 자리가 있어서 부모의 묘를 써 집안이 번성하였다고 한다. 1759년에 제작된 지도인 『여지도서』에 가곡산이란 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응봉산의 옛 이름이 가곡산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응봉산의 사계

- 봄 : 금강소나무 숲길을 걸으며 느끼는 솔향
- 여름 : 덕구 계곡의 비경
- 가을 : 계곡의 바위에 살아가는 돌단풍
- 겨울 : 금강소나무 위로 내려앉은 눈꽃

사진명소

- 금강소나무 : 응봉산의 명품 소나무로 곧게 자라서 짝 짝 뺨은 금강송의 멋진 자태
- 용소골 : 응봉산의 참모습을 간직한 계곡으로 3개의 용소를 비롯, 소와 담과 암반계류가 이어지는 계곡산행의 최적지
- 원탕 : 노천온천이 있던 자리로 온천탕 옆에 죽당이 있음

주요등산로

- ① 덕풍마을 → 응봉산(정상)
 덕풍마을 → 863봉 → 전망바위 → 응봉산(정상)
- ② 옛능선길 등산로 안내소 → 응봉산(정상) → 암반폭포
 옛능선길 등산로 안내소 → 헬기장 → 응봉산(정상) → 덕구계곡 온천 원탕 → 연리지 → 암반폭포 → 덕구계곡

산행 TIP!

출발 후 몇 차례 15~20분 정도 걷고 5분간 휴식, 차츰 30분 정도 걷고 5~10분간 휴식한 다음 적을 이 되면 1시간 정도 걷고 10분간 휴식하도록 함.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하여 현재 위치와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판 고유번호를 확인

📷 사계

📍 명소



계곡 바위 돌단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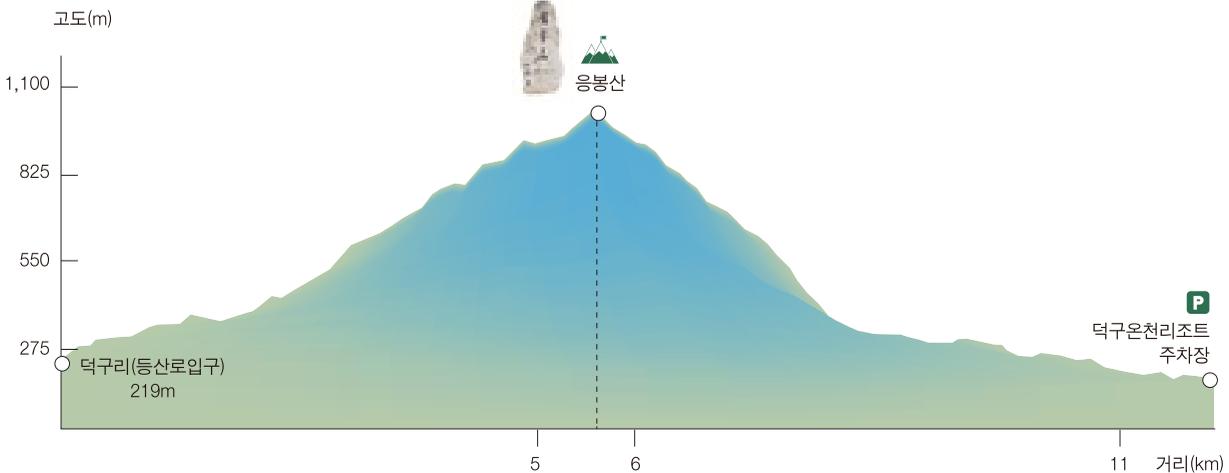
금강소나무



용소골



원탕



天 — 天

장안산 / 재악산 / 적상산 / 점봉산 / 조계산 / 주왕산 / 주흘산 / 지리산
지리산(통영) / 천관산 / 천마산 / 천성산 / 천태산 / 청량산 / 추월산
축령산 / 치악산 / 칠갑산

물끄러미

지리산 외진 산간 마을
할머니들 둘러앉아
까맣게 삭은 이로 씨를 말라내던
입술 뽀족한 산수유 열매
겨우내 매달려 쪼글쪼글 말라가고 있네

성긴 눈발 풀풀 날리는
이른 봄날 아침
개똥지빠귀 한 쌍
산수유 가지에 내려앉아 휘청거리네

언 발가락을 타고 오르는
따뜻한 숨결 느꼈는지
아직 병글지 않은 꽃망울 콧코
쪼아보다가, 가웃거리다가
물끄러미
서로 바라보다가,

김종호



흐드러지게 핀 억새밭에
만추의 바람이 불다

장안산

長安山



장수군청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장수읍

높 이 1,237.4m

관리주체 장수군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장수읍·변암면 경계에 있는 산으로 1986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금강과 섬진강의 먼 발원지이기도 하며 백두대간이 뺀 자리에 위치한 장안산은 전국 8대 종산의 하나이다. 그 중 제일 광활한 면적을 점유하고 있고, 노령산맥의 줄기이기도 한다.

자연환경

억새밭이 아름다운 산정 고갯마루

장안산은 덕산용소와 방화동, 지지계곡 지구로 나뉘어져



장안산 전경



장안산 계곡



장안산 여름

있다. 기암괴석과 원시수림이 울창하고 십산유곡에 형성된 연못과 폭포가 절경을 이루는 관광지로 덕산계곡을 비롯한 크고 작은 계곡 26개소 및 윗용소, 아랫용소 등 7개의 연못, 지소반석 등 14개의 기암괴석, 5군데의 약수터 등 주요경관이 울창한 수림과 어울려 수려함을 이루고 있다. 특히 장안산의 또 하나의 비경은 산등에서 동쪽 능선으로 등산로를 따라 펼쳐진 광활한 억새밭이다. 흐드러지게 핀 억새밭에 만추의 바람이 불면 온 산등성이 하얀 억새의 파도로 춤추는 듯 장관을 이룬다.

호남 종산이자 호남·금남정맥의 어머니 산인 장안산은 동쪽으로 백운산, 서쪽으로 팔공산을 품으며 소백산맥 서사면을 이루는 산으로 백운산과 비슷한 고산이다. 북쪽

의 무령고개, 남쪽의 어치재를 통하여 경상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계를 이룬다. 동쪽은 백운산과의 사이에 물을 모아 섬진강의 상류가 되는 백운천이 흘러 내리고, 서사면은 완만히 경사하며 장수읍의 낮은 분지로 연속된다.

명칭유래

옛날 이곳에 장안사(長安寺)라는 절이 있어 그 이름을 따서 장안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해동지도』(장수)에 장안산이 유일하게 표기되어 있으며, 『1872년지방지도』(장수)에서는 장안동이라는 지명으로 되어 있다. 『조선지형도』(함양)에서도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일명 영취산이라고 한다.

장안산의 사계

- 봄 : 장안산 일원에서 나오는 지역특산물 봄나물축제
- 여름 :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목 녹음방초 우거진 등산로에 간간이 부는 바람
- 가을 : 산 능선 전체로 뒤덮인 억새의 은빛 물결
- 겨울 : 산비탈을 따라 늘어선 조릿대를 덮은 눈 풍경

사진명소

- 억새평원 : 장안산 동쪽 능선에 펼쳐지는 광활한 억새밭
- 조릿대길 : 정상석을 향해가는 1.5km 흙길 조릿대 구간
- 덕산계곡 : 울창한 원시림과 맑은 계곡, 윗용소와 아랫용소가 있음

주요등산로

- 1 장안산(들머리 무룡고개) → 하봉 → 날머리(범연동)
장안산(들머리 무룡고개) → 장안산 입구 → 장안산(정상) → 하봉 → 날머리(범연동)

산행 tip!

등산 중 극심한 가슴통증이 발생했다면 심장혈관, 즉 관상동맥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특히, 가슴이 터질 듯 하거나 짓누르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일 때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으므로 등산을 즉시 중단하고 안정을 취해야 하며 호흡을 깊게 천천히 하도록 하고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한 후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

📷 사계

📍 명소



장안산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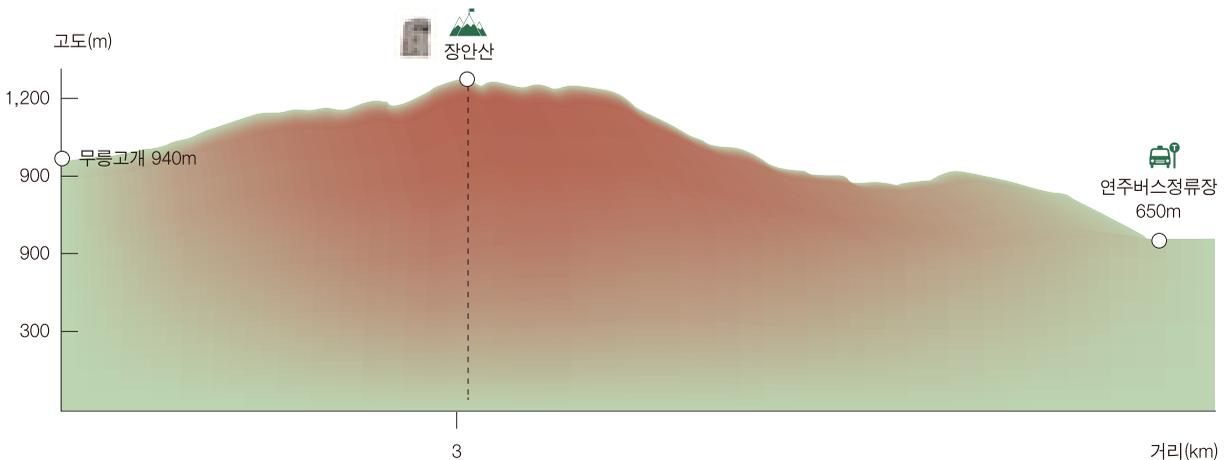
억새밭



조릿대길



덕산계곡



 주변관광지

 덕산계곡

바위의 절경을 볼 수 있는 계곡



장안산의 제일 계곡인 덕산계곡 주위로 숲이 울창하고 바위가 많아 곳곳에 절경이 펼쳐짐. 가을이면 단풍과 어우러져 더욱더 멋진 경관을 연출함. 장수8경 중 하나인 장안산 군립공원 제일 계곡인 덕산은 울창한 원시림과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용이 승천하듯 굽이치며 흐르는 모습이 절경. 윗용소, 아랫용소, 민들바위, 용바위, 신선바위, 정승바위 등 20여 개의 기암과 골짜기. 영화 <남부군> 촬영지이기도 함

 방화동가족휴가촌, 휴양림

맑고 깨끗한 계곡을 끼고 조성된 국민 휴양지

장안산 계곡과 덕산용소로 이어지는 울창한 수림과 맑은 물이 조화를 이룬 천혜의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가족 단위의 휴양지로는 최적의 장소



 뜯봉생태관광지

금강의 발원지에 위치한 생태공원



훼손되지 않은 원시림과 풍부한 물길이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천연생태지역. 뜯봉 샘은 신무산 해발 780m에 위치한 작은 샘으로 금강의 발원지

함께 가 볼 만한 곳



장수물빛공원



장수누리파크

● 장수물빛공원

동화담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체험테마공원. 물 맑기로 소문난 동화담 제방 밑에 있으며, 상징 분수인 분천과 캐스케이드 등 10여 종의 다양한 분수가 설치되어 있음

● 영취산 봉수

낮에는 연기와 밤에는 횃불로 변방의 급박한 소식을 중앙에 알리는 통신수단이었던 봉수는 현재 장수군 일원에 80여 개소(장수 21개소, 진안·임실·남원·무주·금산 등 60여 개소)가 장수군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 장수군의 향토문화유산기념물로 지정

● 장수누리파크

지역 대표농특산물인 레드푸드(한우, 사과)와 농업·농촌을 테마로 한 체험, 관광, 휴양의 공간을 제공하며 농촌의 가치와 다양성을 도시민과 지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농촌테마공원. 문화체육관광부 육성 축제「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개최 장소



광활한 사자평
역사의 물결에 마음이 일렁이다

재약산

載藥山



밀양시청

위 치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산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높 이 1,108m

관리주체 밀양시, 울주군

개요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영남알프스 산군에 속하며 재약산 서쪽 산기슭에는 유명한 대찰인 표충사(表忠寺)를 비롯하여 부근에 내원암(內院庵)·서상암(西上庵) 등의 절이 자리잡고 있다. 재약산 사자평의 역사는 밀양8경 중 8경으로 잘 알려져 있고, 가을 산행의 멋을 느낄 수 있는 힐링 산이다.

자연환경

국내 최대 규모의 고산습지

재약산은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가지산 - 능동산 - 천



재약산 전경



재약산 정상석



재약산 층층폭포

황산 - 재약산 - 향로봉으로 이어지는 밀양시의 동쪽 경계를 이루는 산지에 있다. 재약산(수미봉)에서는 남서쪽으로 관음봉과 문수봉으로 봉우리가 이어지며 사자평을 건너서 향로봉 산지로 이어진다. 재약산 수미봉과 향로봉 사이에는 서쪽으로 시전천이 발원하여 흐른다.

시전천의 최상류부에는 층층폭포와 흑룡폭포가 있으며 표충사계곡으로 이어진다. 재약산의 동쪽 사면으로는 '사자평'으로 불리는 광활한 고원 지대가 펼쳐지는데, 사자평은 역새밭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산지 습지 환경을 이루고 있다. 사자평 산지 습지는 면적이 약 58만㎡로 '재약산 산들늪'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환경부 습지 보호 지역(2006. 12. 28.)으로 지정되었다.

명칭유래

재약산의 원래 이름은 '재약산(載藥山)'이었다. 신라 흥덕왕의 셋째 왕자가 병을 얻어 전국의 명산 약수를 찾아 두루 헤매다 재약산의 영정약수를 마시고 고질병이 나았으므로 부왕의 특사로 현재의 표충사 자리에 큰 가람을 지어 절 이름을 '영정사(靈井寺)', 산 이름을 약이 실린 산이라 하여 '재약산(載藥山)'으로 하였다는 전설에서 유래한다.

재약산의 사계

- 봄 : 표충사 매화와 산수유가 알리는 봄의 정경
- 여름 : 여름을 물리치는 흑룡폭포의 장엄함
- 가을 : 배내고개 오르는 길에 쌓인 낙엽 밟는 소리
- 겨울 : 얼음골 케이블카로 바라보는 겨울풍경

사진명소

- 금강폭포 : 은류폭포와 쌍폭을 이루는 장관
- 천황산 바위전망대 : 천황재와 재약산 능선을 관망하기 좋은 곳
- 흑룡폭포 : 재약산 동쪽 계곡으로 풍경이 아름다운 곳

산행 Tip!

리튬이온 배터리는 온도가 낮으면 작동에 무리가 가거나 방전될 수 있음. 배터리를 따뜻한 체온으로 보호하여 방전 및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 함

주요등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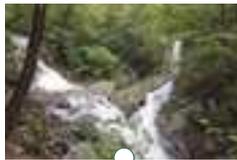
- ① 매바위마을 등산로 → 대원암
매바위마을 등산로 → 필봉 → 천황산 → 천황재 → 재약산(정상) → 청아암 → 표충사박물관 → 표충사정류소 → 대원암
- ② 얼음골 제1주차장 → 천황산 → 천황재 → 재약산(정상)
얼음골 제1주차장 → 얼음골 제2주차장 → 얼음골 제3주차장 → 얼음골버스정류장 → 들머리 얼음골 종점 → 구연마을 → 압구정 무지개폭장 →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 천황산 → 천황재 → 재약산(정상)
- ③ 배내고개전망대 → 천황산 → 천황재 → 재약산(정상)
배내고개전망대 → 하늘정원전망대 → 천황산 → 천황재 → 재약산(정상)

📷 사계

📷 명소



재약산 봄 철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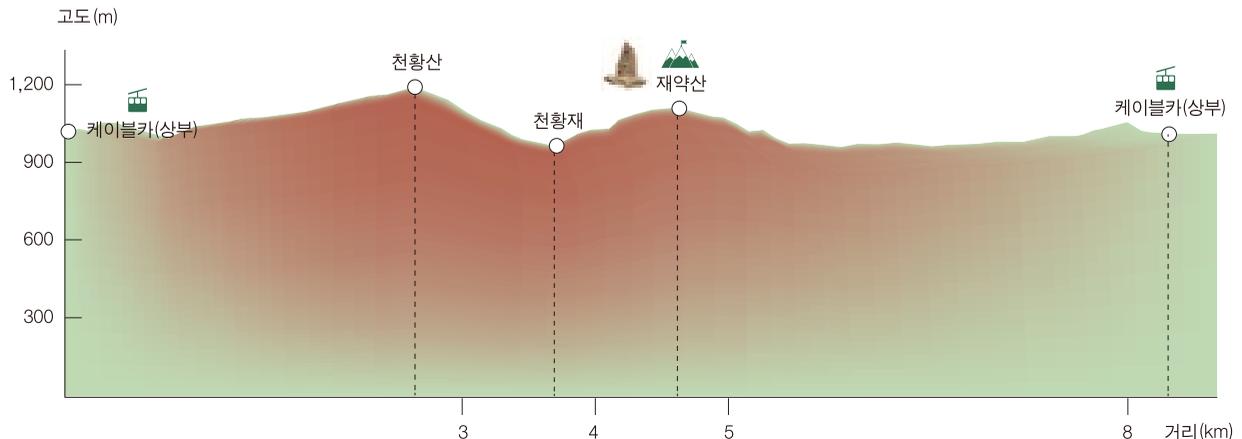
금강폭포



천황산 바위전망대



흑룡폭포



 주변관광지

 표충사

사명대사의 충혼을 기리는 곳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사명대사(四溟大師)의 충혼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에서 명명한 절. 재약산 기슭의 표충사는 유생들을 교육하고 성현들을 제사하는 표충서원이 사찰 영역 안에 있어 불교와 유교가 한자리에 공존하는 특색 있는 사찰

 밀양호

밀양댐을 건설하면서 만들어진 커다란 호수

2001년 밀양강의 지류인 단장천에 밀양댐을 건설하면서 만들어진 커다란 인공 호수. 밀양댐 생태공원과 밀양호 전망대, 그리고 용암정에서 바라보는 밀양호의 풍경이 좋아 사진 명소와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높음



 선바위 계곡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에 있는 선바위(立岩)라는 이름의 거대한 바위



금강산 해금강의 한 봉우리를 옮겨 놓은 듯한 바위로, 근처의 경관과 어울려 장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주변에 넓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월연정



태화강 국가정원

● 월연정

월영사라는 사찰이 있던 곳으로, 월연 이태 선생이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벼슬을 버리고 내려와 조선 중종 15년(1520)에 세운 정자. 담양 소쇄원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통 정원 중 하나임. 밀양강변 풍경과 보름달이 떴을 때의 월주경이 특히 아름다워 밀양8경에 속하기도 하는 곳

● 구만계곡

임진왜란 때 9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이곳에서 전쟁의 화를 피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계곡. 2km가 넘는 골짜기 안에 온갖 비경을 간직하고 있음

●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광역시 태화강의 수질개선과 더불어 태화강 둔치의 환경개선을 병행하면서 조성한 친환경 웰빙공간. 국내 최초 수변생태정원이라는 점과 '죽음의 강'에서 생태하천으로 살려낸 시민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받아 2019년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됨



하늘아래 붉은 물결이 가득하다

적상산 赤裳山



덕유산국립공원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높 이 1,030.6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덕유산국립공원)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에 있는 산이다. 4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덕유산국립공원 지역에 속한다.

자연환경

산세 험준한 자연 요새에 쌓은 산성

적상산은 향로봉을 기준으로 천일폭포, 송대폭포, 장도바위, 장군바위, 안렴대 등의 명소를 간직했다. 이 산에는 고려 공민왕 23년⁽¹³⁷⁴⁾ 최영 장군이 탐라를 토벌한 후 귀경길에 이곳을 지나다가 산의 형세가 요새로서 적임지인 것을 알고, 왕에게 축성을 건의한 적이 있으며 그 이후 여



적상산 전경



적상산 가을 풍경



눈덮인 적상산

러 사람이 산성으로서 건의하다가 조선실록이 이곳에 보 관되면서 산성이 증축되었으며, 고려 충렬왕 3년⁽¹²²⁷⁾ 월 인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안국사가 있다.

적상산은 도보산행 뿐 아니라 차를 가지고도 산에 오를 수 있다. 무주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정상까지 닦은 15km의 진입도로로 관광객들이 산정호수와 안국사 입구 까지 오를 수 있게 됐다. 적상산의 정상 남쪽 층암절벽 위에 위치한 안렴대는 사방이 천길 낭떠러지로 내려다 보여 이곳을 오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슬아슬하게 한다. 고려 때 거란의 침입이 있었을 때 삼도 안렴사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들어와 진을 치고 난을 피한 곳이라 하여 안렴대라 불린다.

적상산성 서문 아래 하늘을 찌를 듯이 서있는 이 바위는 고려 말 최영 장군이 적상산을 오르다가 길이 막혀 장도를 내리쳐 길을 내고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다.

명칭유래

산 전체가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절벽 주변에 유난히도 빨간 단풍나무가 많아서 가을철이면 마치 온 산이 빨간 치마를 입은 듯하다고 하여 적상산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설이 있다.

다른 설로는 적상산 위에 편평한 분지가 있고, 산의 주위에 거대한 바위들이 드러나 있는데 그 바위가 치마같이 둘러 있어 치마의 뜻을 가진 치마 상(裳)을 이용하여 적상

산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적상산의 사계

- 봄 : 느즈막히 피는 적상산 복수초
- 여름 : 숲길을 따라 산책하기 좋은 풍경
- 가을 :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적상산의 붉은 단풍
- 겨울 : 아기자기하게 핀 적상산 눈꽃

사진명소

- 병풍바위 : 적상산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층암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진 바위
- 안렴대 : 정상 남쪽 층암절벽 위에 위치하며, 덕유산 주릉이 날개처럼 펼쳐진 향적봉의 장엄경을 관망 가능
- 적상산 전망대 : 적상산 관광의 명물로 꼽히며 최고의 전망을 자랑

주요등산로

① 신대마을(버스정류장) → 치목버스터미널
 신대마을(버스정류장) → 산촌순두부 → 장도바위 → 무주 적상산성 서문지 → 무주 적상산성 → 적상산(정상) → 안국사 → 적상산성 호국사비 → 매표소 → 송대폭포 → 치목마을 경로당 → 치목마을 주차장 → 치목버스터미널

산행 tip!

평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에 오르면 혈압이 더욱 상승하게 될 수 있음.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은 뇌출혈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함.

 사계

 명소



적상산 단풍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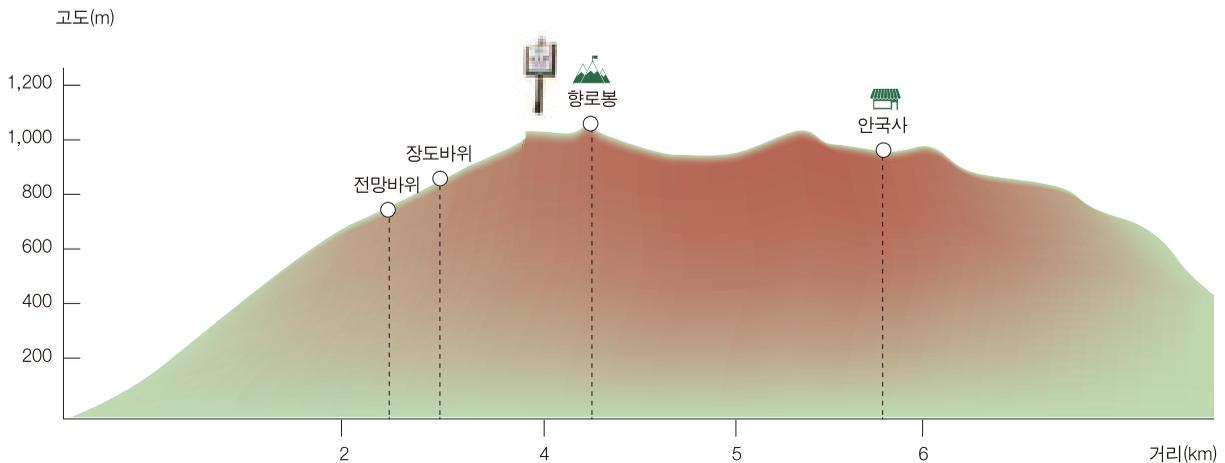
적상산의 겨울



안렴대



적상산 전망대



 주변관광지

 적상산성

고려 후기 축조된 대표적인 방어 성곽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의 국경 지대에 축성되어 한때 방치되기도 하였으나, 고려시대에는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인근 백성의 피난처가 되었던 곳. 현재는 성벽이 거의 무너져 안국사 아래의 숲속 등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음



 천일폭포

높이 약 30m의 천연폭포

높이 약 30m의 천연폭포로, ‘하늘 아래 단 하나뿐인 폭포’라 해서 천일폭포라 칭해짐. 탐방객들이 기대하지 않고 가셔도 막상 폭포 아래에 서면 그 웅장한 모습에 감탄하는 곳



 머루와인동굴

최고의 와인 숙성 저장고

무주군의 산머루로 와인을 만들고 숙성, 저장, 판매해 방문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곳으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와인 족욕은 여행자들에게 인기



함께 가 볼 만한 곳



국립태권도원



김환태문학관 & 최북미술관

● 국립태권도원

스포츠와 문화가 만나는 태권도인의 성지로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

● 무주반디랜드

곤충박물관, 반디별천문과학관, 반딧불청소년과학관,

통나무집, 야영장, 주목공원, 환경테마공원, 반딧불연구소 등이 있어 한곳에서 관람과 체험, 교육과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 김환태문학관 &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은 일제강점기 문학비평가인 김환태 선생의 사진을 비롯해 김환태 비평 선집 등 작가가 남긴 유산 등 다수의 저서와 100여 점 유물이 전시.

최북미술관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눈을 찢러 외눈박이 되었다는 영조 때 화가 최북^(1712 ~ 1786)을 기리기 위해 설립. 그의 파격적이고 대담한 화풍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된 예술공간. 2012년 개관한 최북미술관은 김환태문학관과 함께 운영



계절 따라 은은한 야생화가
천상의 화원에 가득 피어나다

점봉산

點鳳山



인제군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기린면 양양군 서면

높 이 1,426m

관리주체 인제군, 양양군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과 기린면 및 양양군 서면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한계령(오색령)을 사이에 두고 설악산 대청봉과 마주보며 점봉산이라고도 한다. 설악산국립공원 중 남설악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 설악산의 최고봉인 대청봉을 오르는 시발점이기도 하다.

자연환경

백두대간 보호지역

점봉산의 북쪽은 설악산(1,708m)으로 이어지고, 남쪽은 가칠봉(1,240m)으로 연결되어 태백산맥의 주축을 이루고 있



점봉산 야생화



점봉산 능선



점봉산 절경

다. 서쪽으로는 가리봉(4,518m)과 한석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전동계곡과 단목령을 사이에 두고 북암령을 마주하고 있다.

태백산맥의 주맥인 설악산맥에 해당되며, 산의 동쪽 비탈면을 흘러내리는 물은 주전골을 이루어 오색약수를 지나 백암천에 합류한 뒤 양양의 남대천으로 흘러든다. 설악산~점봉산 권역은 1982년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Biosphere Project)에 의해 남한에서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산자락에 12담계곡, 큰고래골, 오색약수터, 망월사, 성국사터 등 명소가 많다. 또한 오색약수를 거쳐 오르는 주전

골은 단풍명소이기도 하다. 산 일대에 원시림이 펼쳐져 전나무가 울창하게 있으며, 갖가지 다양한 식물을 비롯해 산나물들도 자생하고 있어 일명 천상의 화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명칭유래

점봉산(點鳳山)의 원래 이름은 덩봉산으로 알려져 있다. 덩은 원래 둥글다는 뜻으로, 산의 형세가 둥근 봉황의 형세이거나 봉황이 있었던 산이라는 의미에서 그 명칭이 붙은 것으로 추측된다.

점봉산의 사계

- 봄 : 3월부터 늦은 봄까지 이어지는 야생화 천국
- 여름 : 짙은 녹음이 물든 원시림의 숲길과 계곡
- 가을 : 새롭게 복원된 낙산사에서 사찰과 자연이 빛어 내는 조화
- 겨울 : 부드럽게 얹힌 고개마다 하얗게 눈이 얹혀 안개에 둘러싸인 듯 보이는 설경

사진명소

- 곰배령 : 점봉산의 정상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산림생태탐방지역. 천상의 화원으로 불리며 예약탐방제로 운영됨
- 주전골 : 오색약수를 거쳐 들어가는 곳으로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
- 등산대 : 설악산 서부능선, 점봉산 정상부, 그리고 동해바다까지 조망 가능한 곳

주요등산로

- ① 곰배령 주차장 → 곰배령 정상
 곰배령 주차장 → 점봉산생태관리센터 → 곰배령 끝집 등 → 곰배령 정상

산행 팁!

뼈가 부러졌을 때는 먼저 손상 부위를 차갑게 유지하고 부목을 대고 고정. 나뭇가지나 두꺼운 종이 등을 사용하여 옷가지 등으로 묶고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으면 직접 압박으로 지혈을 하고 부목을 대도록 함. 뼈가 외부로 노출된 개방성 골절 부상을 입었다면 뼈를 억지로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지 말고 만약 뼈가 안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감염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환부를 깨끗한 가제나 수건으로 덮고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함

📷 사계

📍 명소



점봉산의 봄



곰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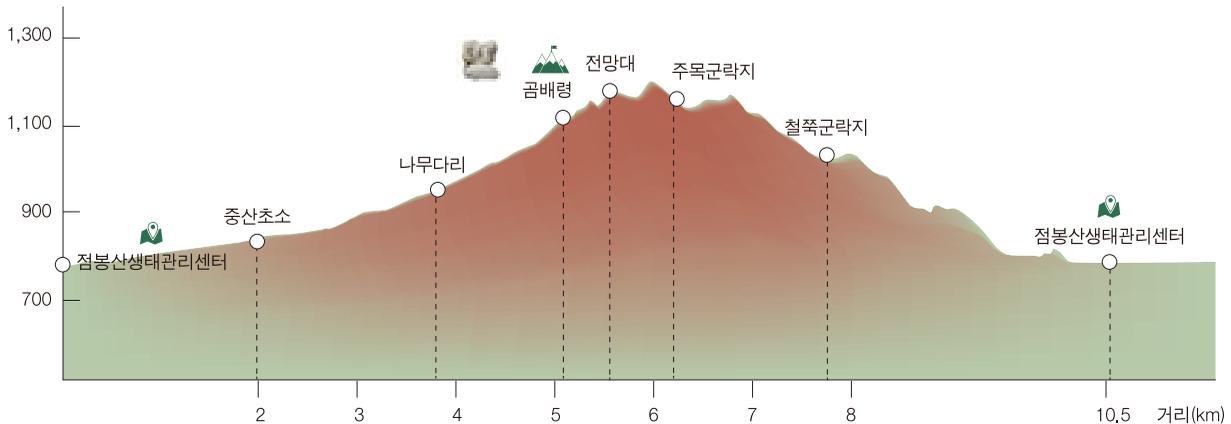


주전골



등산대

고도(m)



👁️ 주변관광지

📍 낙산해수욕장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해변 중 하나



설악산에서 흘러내리는 남대천이 하구에 큰 호수를 이루고 담수도 풍부하여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

📍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전문 박물관

선사시대 유물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하며, 강원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학술조사 연구와 사회교육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립박물관



📍 남애항

강원특별자치도 3대 미항 그림 같은 해변과 이담한 항구



한쪽의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항구로 양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항구이며, 양양8경 중 하나임. 아름다운 어촌의 정취는 물론 항구를 배경으로 뜨는 해가 아름다워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함

함께 가 볼 만한 곳



물치항



송이밸리자연휴양림

● 물치항

일출이 아름다운 에메랄드빛의 항구

양양 물치리에 있는 어항으로 설악산 입구와 대포항 가기 전 양양 북쪽 끝자락에 위치. 에메랄드빛 바닷물이 인상적이며 항구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긴 방파제 산책로와 그 끝에서 있는 양양의 대표 특산물인 송이버섯 모양의 흰색 등대, 빨간 등대가 유명. 두 등대 사이로 해가 뜰 때 더욱 아름다운 장관을 보여주는 일출 명소

● 송이밸리자연휴양림

13만평 송이산 인근부지의 종합웰빙휴양타운. 대자연의 쾌적한 산림 속에서 양양송이 관련 다양한 체험과 놀이와 숙박, 산책과 액티비티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휴양림

● 양리단길

서핑의 성지라 불리는 양양의 양리단길 앞에는 인구 해변이 있으며, 많은 서핑 숍이 있어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이국적인 분위기와 함께 서핑숍 이외에도 카페, 가게, 게스트하우스 등이 모여 있는 거리. 낮과 밤 모두 인기 있는 관광지. 원래 양리단길 거리는 낙후된 골목, 건물들이었는데 이 거리를 재생 사업을 통해 새롭고 활기찬 곳으로 변화시켜 지금의 양리단길이 조성



부드러운 산세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다

조계산 曹溪山



순천시청

위 치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승주읍

높 이 887.3m

관리주체 순천시

개요

전라남도 순천시의 서쪽 송광면과 승주읍의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 송광사와 선암사를 동서 양면에 품고 있는 영산(靈山)으로 소백산맥의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 전체가 활엽수림으로 울창하여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사계절 모두 다른 경치가 펼쳐지는 영산

고온다습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예로부터 소강남이라 불렸으며 송광산이라고도 한다. 피아골·홍골 등



조계산 전경



송광사 풍경



조계산 등산로

의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 폭포, 약수 등 자연경관이 아름답다. 선암사 둘레에는 월출봉·장군봉·깃대봉·일월석 등이 줄지어 솟아 있다. 산의 서쪽 기슭에는 삼보사찰 가운데 승보사찰인 송광사가 있고, 동쪽 기슭에는 선암사가 있다. 동쪽의 계곡 물은 이사천, 서쪽의 계곡 물은 송광천으로 흘러드는데, 특히 비룡폭포가 유명하다. 산 일대의 수종이 다양해 산 전체가 전라남도 채종림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송광사와 선암사의 유명세 탓에 절을 찾는 관광객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조계산 산행은 송광사나 선암사 어느 쪽에서 시작해도 비슷한 시간에 다양한 코스를 즐길 수 있다. 조계산 동쪽 산기슭에는 선암사가, 서쪽 산기슭에

는 송광사가 자리잡고 있다. 사면의 경사는 조계산 동사면보다 서사면이 완경사를 이루고 평탄면을 이루고 있다.

조계산은 바윗덩어리가 노출된 산 정상부와 골짜기를 제외하고는 일정 두께의 토양층이 발달해 있는 흙산이다. 조계산의 식생은 다양하고 무성한데 1991년 연구에 따르면 49목, 122과, 434속, 627종 등 750종류로 나타났다.

명칭유래

옛날에는 산의 이름을 ‘송광산’이라 했다고 전하는데, 송광산은 우리말 ‘솔메’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신라 때 선암사에서는 ‘청량산’으로, 송광사에선 ‘송광산’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려 때부터는 ‘조계산’으로 통칭하였

다. '송광산(松廣山)이란 명칭이 '송광사'에 남아있다.

조계산의 사계

- 봄 :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과 동백, 목련, 철쭉
- 여름 :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이루는 울창한 숲
- 가을 : 시원한 계곡길을 따라 알록달록 물드는 단풍
- 겨울 : 겨울 산행의 꽃 '상고대'

사진명소

- 천자암 쌍향수 : 800년 수령의 두 향나무가 엇갈라처럼 꼬인 명물로 유명한 천연기념물
- 송광굴목이재 : 조계산 중턱으로 나 있는 선암사와 송광사를 잇는 아름다운 고갯길
- 비룡폭포 : 조계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폭포

주요등산로

- ① 선암사 입구 → 야생화미로원
 선암사 입구 → 선암사 매표소 → 선암사 승선교 → 강선루 → 선각당 → 선암사 삼인당 → 선암사 → 선암사 마애여래입상 → 선암사 대각암 → 향로암터 → 조계산(장군봉) → 조계산(정상) → 숲가마터 → 교량앞 → 야생화미로원
- ② 송광사 주차장 → 천자암
 송광사 주차장 → 송광사 매표소 → 송광사 길상다원 → 다송원 → 송광사 → 샷갓사초군 → 조계산 연산봉 → 천자암조망 → 송광굴 목이재 → 천자암봉 → 천자암

산행 tip!

야생동물, 곤충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뱀 등이 나타나면 절대로 공격 하면 안됨

📷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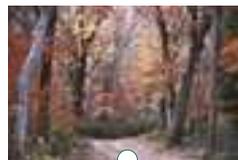
📷 명소



계곡따라 물드는 단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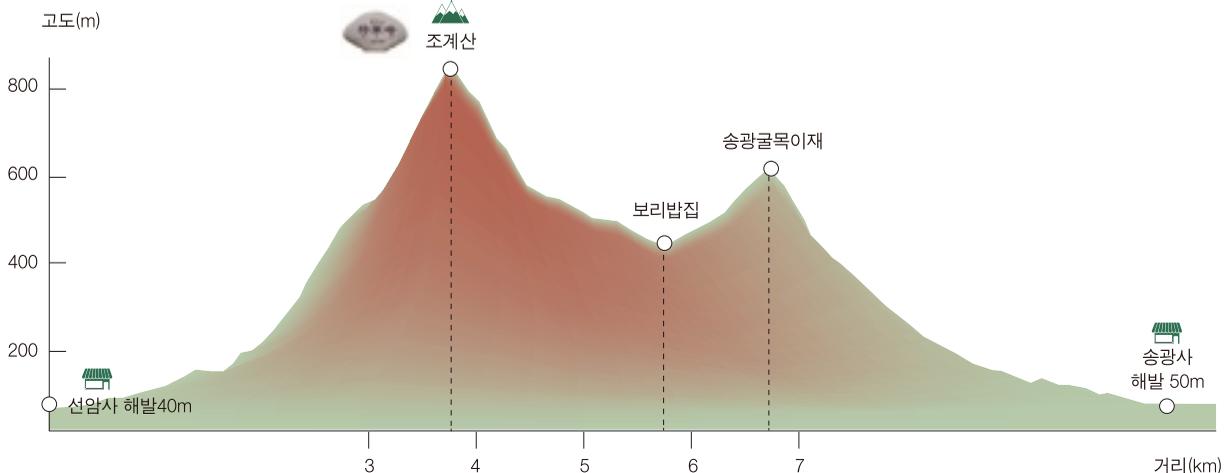
천연기념물 쌍향수



송광굴목이재



비룡폭포



👁️ 주변관광지

📍 선암사

반원형의 모습이 인상적인 승선교

조계산 기슭 동쪽에 자리잡은 사찰. 백제 성왕 7년(529)에 아도화상이 비로암을 짓고, 신라 경문왕 1년 도선국사가 지금의 선암사를 창건.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 송광사

유구한 역사를 품은 힐링 사찰

조계산 북쪽 기슭에 자리잡은 승보(僧寶)사찰 송광사, 법보(法寶)사찰 합천 해인사, 불보(佛寶)사찰 양산 통도사와 더불어 한국 삼보사찰(三寶寺刹) 중 하나. 국보 목조삼존불감과 국보 고려고종제서, 보물 수선사형지기, 보물 화엄탱화 등 6천여 점의 불교문화재를 직접 만나볼 수 있음



📍 순천 낙안읍성

600년 전 조선의 숨결을 간직한 민속 고유 전통마을

삼한시대 마한땅, 백제 때 파지성, 고려 때 낙안군 고을터며, 조선시대 성과 동헌, 객사, 임경업장군 비, 장터, 초가가 원형대로 보존되어 국내 최초로 성과 마을이 함께 사적에 지정된 곳



함께 가 볼 만한 곳



순천만국가정원



전통야생차체험관

● 순천드라마촬영장

드라마 속 감동을 되살리는 추억 저장소.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1960~80년대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달동네의 모습을 생생하게 간직한 국내 최대 규모의 영화·드라마 촬영장. 골목골목 다니며 촬영장을 관람하고 교복 대여 등도 가능한 곳

● 순천만국가정원

2015년 지정된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각 나라의 특징을 담은 아름다운 세계정원, 새로운 형태의 정원을 제시하는 테마정원, 참여정원 등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 전통야생차체험관

조계산 선암사 가는 길목에 위치한 하늘과 물소리, 바람소리가 어우러진 아늑한 체험관에서 향기 가득한 차를 직접 만들고 시음하며 명상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



주왕의 전설을 안고
기암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다

주왕산

周王山



주왕산국립공원

위 치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
영덕군 지품면·달산면

높 이 722.1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주왕산국립공원)

개요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에 있는 산으로 청송읍에서 동남쪽으로 13.5km 지점에 있다. 산세가 아름다워 경상북도의 소금강으로 불리는데, 유서 깊은 사찰과 유적지들이 많아 1976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웅장한 바위산의 매력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동남부로 뻗어 나온 지맥에 자리한 주왕산은 설악산, 월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돌산의 하나이다. 암석산으로 이루어진 주왕산은 풍화와 침식에



주왕산 전경



주왕산 맑은 계곡



주왕산 주산지

강한 백악기 유천층군의 화산암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상누층군의 역암·응회암·유문암 등으로 이루어진 산과 계곡의 암석경관이 특이하다.

주왕산에 분포하는 응회암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경관이 가장 멋진 절경을 드러내며, 이 덕분에 주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두껍게 분포하는 응회암은 급수대·학소대·신선대·망월대를 비롯한 기암과 병풍바위 등의 많은 암석 절벽을 형성하였고, 그 절벽에는 주왕굴·무장굴·연화굴 등의 동굴이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주요 능선과 계곡이 만들어졌다. 작고 낮은 규모이지만 많은 폭포와 소·기암괴봉·약수터 등을 품고 있다.

명칭유래

주왕산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먼저 중국 진나라의 주왕(周王)이 이곳에 피신하였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고, 또 다른 설은 신라시대에 주원왕(周元王 金周元)이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이곳에서 도를 닦았다는 설이 있다. 신라의 왕자 김주원(金周元)이 이곳에서 공부하였다고 하여 주방산(周房山) 또는 대둔산(大慇山)이라고도 한다. 산세가 웅장하고 깎아 세운 듯한 기암절벽이 마치 병풍을 두른 것 같아서 석병산(石屏山)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주왕산의 사계

- 봄 : 너도바람꽃, 얼레지, 깽깽이풀, 노랑무늬붓꽃 등 다양한 야생화
- 여름 : 웅장한 용추폭포와 계곡 트레킹
- 가을 : 폭포와 단풍으로 물든 주방천
- 겨울 : 웅장한 암산이 얼음 계곡을 배경으로 드러낸 매력

사진명소

- 대전사 대웅전 : 천년고찰 대전사 대웅전 뒤로 보이는 주왕산의 모습이 한폭의 산수화로 완성
- 용추폭포 : 용이 승천한 곳이라 붙은 이름
- 주왕굴 빙하 : 주왕굴 옆으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겨울 바람과 만나 조각 같은 얼음 기둥이 세워진 모습

주요등산로

- ① 주왕산 주봉등산로 → 주왕암
 주왕산주봉등산로 → 급수대 주상절리 → 시루봉 → 주왕산(정상) → 학소교 → 주왕암

산행 팁!

만약에 왼쪽 다리에 쥐가 나는 등 근육이 경직 혹은 경련이 일어날 경우 왼쪽 손등의 새끼 손가락 중간마디를 오른 손 검지 손톱 등으로 꼭 눌러보고 특별히 아픈 부위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당 부위를 누르게 되면 일시적으로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음. 오른쪽 다리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손등의 새끼 손가락 중간 마디 부위를 지압

📷 사계

📷 명소



단풍으로 물든 주방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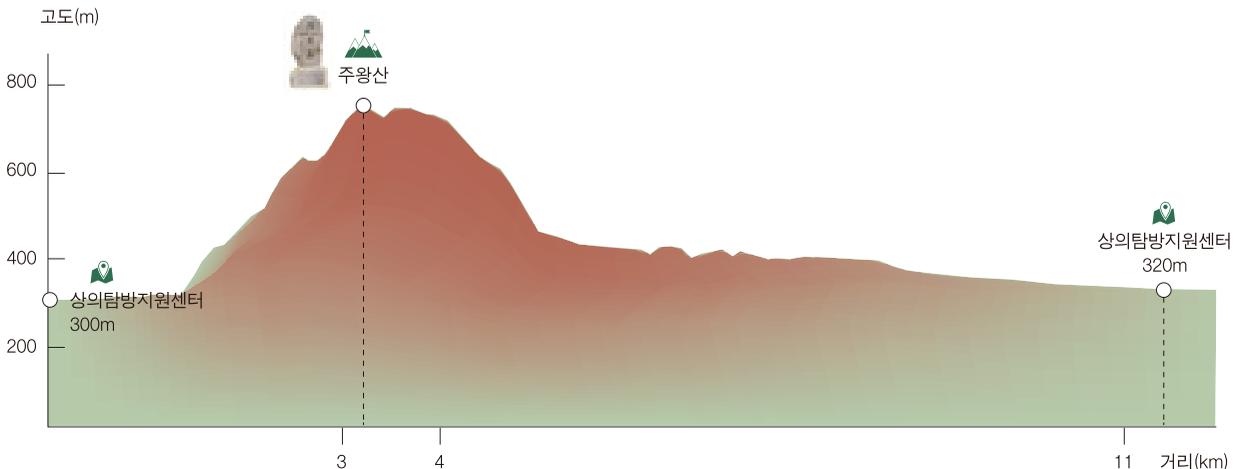
대전사 대웅전



용추폭포



주왕굴 빙하





소백산맥의 중심에서
역사의 숨결을 담다

주흘산

主屹山



문경시청

위 치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높 이 1,108.4m

관리주체 문경시

개요

소백산맥의 주봉으로서 북동쪽의 소백산(1,440m)·문수봉(文繡峰 1,162m), 남쪽의 속리산·황학산(黃鶴山 1,111m)과 함께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도계를 이룬다.

자연환경

주흘산은 조령산, 포암산, 월악산 등과 더불어 소백산맥의 중심을 이루며 산세가 아름답고 문경새재 등의 역사적 전설이 담겨 있는 산이다. 문경의 진산이기도 한 주흘산은 ‘우두머리 의연한 산’이란 한자 뜻 그대로 문경새재의 주산이다. 예로부터 나라의 기둥이 되는 큰 산으로 매년 조정에서 향과 축문을 내려 제사를 올리던 신령스러운 영



주흘산 전경



주흘산 계곡



운무에 싸인 주흘산

산으로 받들어 왔다.

옛 기록에는 영남이니 교남이니 하는 명칭이 주흘산과 관련된 것이라 적고 있다. 영남지방이라 할 때 영남이란 충청도와 경상도를 나누는 조령을 기준으로 영(嶺)의 남쪽에 있다 하여 영남이라 불렀다. 또한 교남이란 주흘산 남쪽의 지방을 일컬어 교남이라 불렀다. 조령과 주흘산이 큰 산줄기에 함께 위치하고 있어 영남이나 교남이나 같은 의미로 영남지방을 뜻하는 말로 보면 된다.

주흘산은 10m 높이의 여궁폭포와, 해국사, 팔왕폭포, 문경 1, 2, 3관문 등이 있다. 비구니의 수도 도량인 해국사는 신라 문성왕 8년(846년) 보조국사가 창건하였으며 창건시 범흥사라고 하였으나 고려 공민왕이 난을 피해 행재

行在)하여 국은(國恩)을 입어 해국사로 개칭되었다. 주흘산 등산로변에 있다.

주흘산과 조령산의 사이로 흐르는 조곡천 동쪽면에는 주흘관(조령 제1관문), 조곡관(조령 제2관문), 조령관(조령 제3관문)의 세 관문과 원터, 성터 등 문화재가 많으며 주막도 있고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새재계곡은 문경새재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명칭유래

고려 때 공민왕이 이 산에 피난했다 하여 임금님이 머문 산이란 뜻으로 주흘산이라 칭하였다.

주흘산의 사계

- 봄 : 너털 사이 뚫고 올라온 진달래 꽃
- 여름 :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나무그늘
- 가을 :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오색단풍
- 겨울 : 주봉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파노라마 장관의 실경

사진명소

- 해국사 : 신라 문성왕 8년⁽⁸⁴⁶⁾ 보조국사 체징이 개창한 고찰로 공민왕이 난을 피해 머물렀다는 일화로 유명
- 대궐터 약수 : 주흘산 대궐터(해발 850m)에 있는 약수로 서 공민왕 해궁터라고 전해짐
- 꽃밭서덜 : 등산로 오른편 50여 m 위쪽에서부터 쌓아 내려온 돌담으로 계곡까지 이어짐

주요등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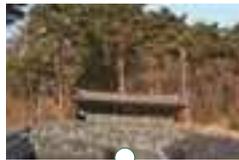
- ① 문경새재관리사무소 → 경북100주년 타임캡슐 광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 → 선비의상 → 문경새재 관광안내소 → 조령제1관문 → 여궁폭포 → 대궐샘 → 주흘산 주봉 → 문경새재 제2관문 조곡관 → 조곡폭포 → 교귀정(교구정) → 팔왕 휴게소 → 조령원티 → 경북100주년 타임캡슐 광장
- ② 문경새제도립공원(버스정류장) → 주흘산(정상)
 문경새제도립공원(버스정류장) → 전동차매표소 →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 조령원티 → 교귀정(교구정) → 조곡폭포 → 문경새재 제2관문 조곡관 → 부봉등산로안내석 → 부봉 제6봉 → 5봉 정상 → 부봉 4봉 → 3봉 → 부봉 제2봉 → 부봉 → 주흘영봉 → 주흘산(정상)

📷 사계

📷 명소



주흘산 오색단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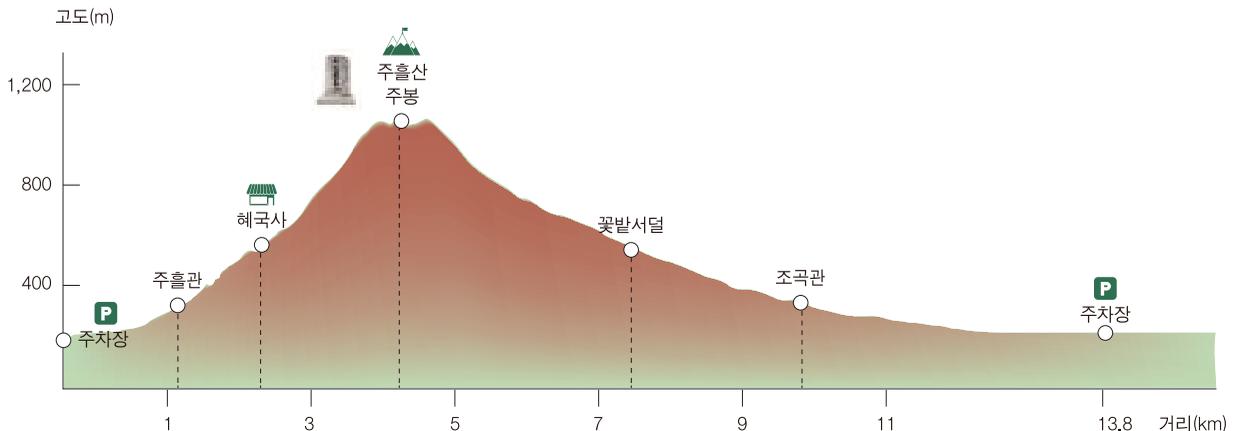
해국사



대궐터 약수



꽃밭서덜



 주변관광지

 **혜국사**

주흘산의 절경과 어우러진 사찰



신라 문성왕 8년 보조국사 체징이 창건했으며, 창건 당시에는 범홍사라 하였으나 고려말에 공민왕이 흥건적의 난을 피하여 범홍사에 행재할 때 국은을 입었다고 하여 혜국사라 개칭. 임진왜란 때 이 절의 승려들이 크게 활약하였으며, 당시에 청허와 송운·기허 등이 이 절에 머물며 승병을 지도했다고 전해짐

 **문경새재 도립공원**

날아가는 새들도 쉬어가는 고개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 마디마디마다 술한 사연과 애환이 깃든 곳, 백두대간의 정기를 받은 대자연과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



 **문경생태미로공원**

놀면서 식물의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곳



기존 문경새재 자생식물원 형태로 유지되어 오던 생태 공원을 도자기, 연인, 돌, 생태를 주제로 한 4개의 미로와 전망대, 산책로, 연못 등으로 구성하여 가족과 연인, 남녀노소 모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새로이 조성한 공간

함께 가 볼 만한 곳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문경도자기박물관

●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지난 2000년 한국방송공사가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사극 대하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하여 만든 세트장. 조령산과 주흘산의 산세가 고려의 수도 개성의 송악산과 흡사할 뿐만 아니라 옛길이 잘 보존되어 있어 사극 촬영장으로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촬영장을 설치하게 됨

● **문경도자기박물관**

조선 초기 분청사기와 백자 도요지로 유명한 문경 도자기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곳.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도예 기법이 어우러진 문경의 전통도자기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곳

● **문경종합온천**

지하 900m 화강암과 석회암층 사이에서 분출한 칼슘, 중탄산천과 지하 750m 화강암층에서 분출한 알칼리성 온천수를 공급. 한번의 입장으로 2가지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전국 유일의 복합 보양온천



웅장하고 아늑한 산세로
영·호남의 지붕이 되다

지리산 智異山



산림청

- 위 치** 경상남도 함양군·산청군·하동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높 이** 1,915.4m
-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원)

개요

경상남도의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전라남도의 구례군, 전북특별자치도의 남원시 등 3개 도, 5개 시군에 걸쳐 있는 산이다. 1967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48만여 ㎢의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닌 산악형 국립공원이다.

자연환경

높은 봉우리 웅장하고 유려한 계곡

지리산은 남한에서 두번째로 높은 봉우리인 천왕봉(天王峰 1,915.4m)을 비롯하여 제석봉(帝釋峰 1,806m), 반야봉(盤若峰



지리산 전경



지리산 법계사 입구



지리산 장터목

1,732m), 노고단(老姑壇 1,507m) 등 10여 개의 고산준봉이 줄지어 있고 천왕봉에서 노고단까지 이르는 주능선의 거리가 25.5km, 지리산의 둘레는 320km나 된다.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동과 서, 영남과 호남이 서로 만나는 지리산은 단순히 크고 깊고 넓다는 것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곳이다.

천왕봉에서 발원되어 흐르는 물로 계곡을 형성하고 있는 칠선계곡을 비롯하여 뱀사골계곡·대원사계곡 등 수많은 계곡과 불일(佛日)폭포·구룡(九龍)폭포·용추(龍湫)폭포 등 뛰어난 자연경관은 명산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으며, 화엄사(華嚴寺)·쌍계사(雙溪寺)·연곡사(燕谷寺)·대원사(大源寺)·실상사(實相寺) 등 대사찰을 비롯한 수많은 암자와 문화

재는 이곳이 한국 불교의 산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명칭유래

지리산은 금강산, 한라산과 더불어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알려져 왔으며, 신라 5왕 중 남악으로 '어리석은 사람(愚者)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智者)으로 달라진다' 해서 지리산(智異山)이라 불리워 왔다. 지리산은 백두산의 맥이 반도를 타고 내려와 이곳까지 이어졌다는 뜻에서 두류산(頭流山)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 불가(佛家)에서 깨달음을 얻은 높은 스님의 처소를 가리키는 '방장'의 그 깊은 의미를 빌어 방장산(方丈山)이라고도 하였다.

지리산의 사계

- 봄 : 악양 너른 들판과 형제봉 철쭉이 섬진강과 어우러진 풍경
- 여름 : 구룡계곡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 가을 : 시원한 계곡길을 따라 알록달록 물들어진 피아골 단풍
- 겨울 : 노고단 고개 옆 전망대 가는 길에 펼쳐진 설경

사진명소

- 대원사계곡 : 지리산 등산로의 초입에 위치하며, 맑은 계곡물 소리, 울창한 금강소나무의 바람소리, 산새들의 노래 소리를 사시사철 느낄 수 있는 곳
- 천왕봉 :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과 일출로 유명
- 불일폭포 : 지리산 10경의 하나로 높이가 60m에 이르는 지리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연폭포

주요등산로

① 지리산국립공원 중산리 탐방안내소 → 거림탐방지원센터

지리산국립공원 중산리 탐방안내소 → 지리산 중산리 등산로 입구 → 법계사 → 개선문 → 지리산 천왕봉 → 지리산(정상) → 통천문 → 지리산 제석봉 → 지리산 연하봉 → 지리산 화장봉(연하선경) → 지리산촛대봉 → 거림탐방지원센터

② 화엄사입구 → 코재전망대

화엄사입구 → 화엄사 매표소 → 화엄사 산문 → 화엄사 일주문 → 지리산국립공원 화엄계곡 지구 → 화엄사 → 참샘터 → 접선대 쉼터 → 코재 전망대

📷 사계

📷 명소



지리산의 가을



대원사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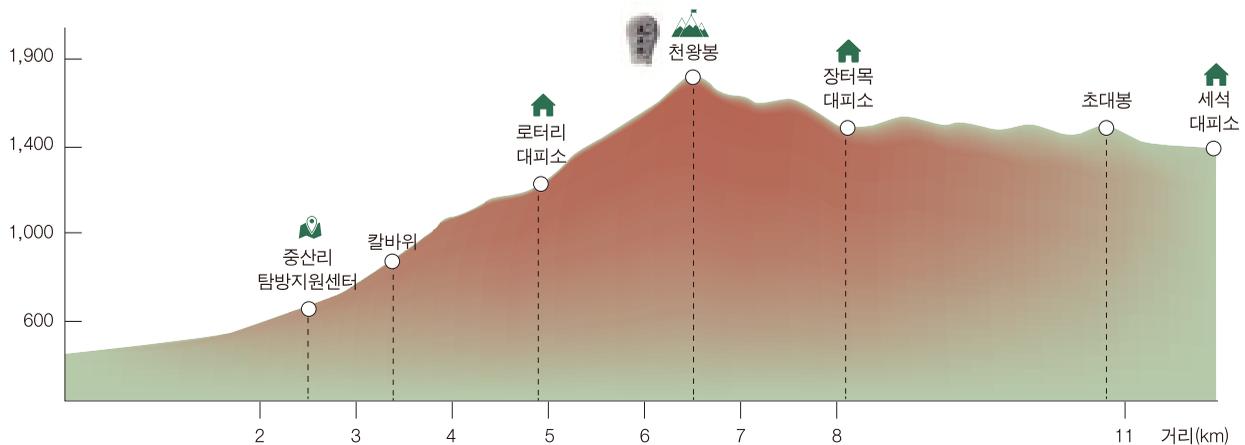


천왕봉



불일폭포

고도(m)



👁 주변관광지

📍 화엄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는 사적으로 지정(2009)

규모가 웅대하고 우아하여 유서 깊은 불교문화의 요람으로 손꼽힘. 백제 성왕 22년(544) 연기조사가 건립하였다고 전해지며 화엄경의 두 글자를 따서 절 이름을 지었다고 함



📍 쌍계사

신라 성덕왕 21년 삼법스님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중국불교 선종 제6대조인 혜능의 사리를 모시고 와 봉안하고 지은 절



문성왕 2년(840) 진감선사 혜소가 옥천사라 하였다가 정강왕 2년 쌍계사로 바뀜. 국보 진감선사 대공탑비와 보물 9점 등 문화재 29점을 보유. 쌍계사 가을은 하동8경 중 하나

📍 청학동 삼성궁

배달민족의 성조인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신 성전

완만한 경사의 골짜기에 여러 모양의 돌담이 여기저기 솟아 있음. 이 고장 출신 한풀선사가 1983년 고조선 시대의 소도를 복원하여 오늘에 이룸



함께 가 볼 만한 곳



남사에담촌



동의보감촌

● 남사에담촌

2미터 가까이 높게 쌓아올린 옛 담장과 18 ~ 20세기 초에 지은 한옥 40여 채가 조화를 이룬 기품 있는 풍경. 천왕봉의 줄기인 웅석봉에서 발원하여 10여 리를 흘러온 사수의 조화로움이 인상적인 천혜적 자연승지. 드라마 <왕이 된 남자>와 <꽃파당> 촬영지

● 동의보감촌

왕산과 팔봉산의 정상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한방을 테마로 조성. 매년 9 ~ 10월 한방관련 종합축제이자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인 '산청한방약초축제' 개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해외 관광객의 방문도 꾸준히 늘고 있음

●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

지리산국립공원 지역 내 해발 600 ~ 700m에 위치. 주변 인상이 노거수에 해당하는 원시림으로 사계절이 뚜렷하며, 높은 해발고 차이에서 비롯된 다양성으로 매일 매시간 다른 풍경 조망 가능. 숲해설가와 숲생태안내인이 배치되어 연중 휴양림이용객 대상 숲해설 실시



지리산을 바라보며
한려수도에 우뚝 솟다

지리산(통영) 智異山



통영시청

위 치 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높 이 399.3m

관리주체 통영시

개요

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상도에 도서로 길게 뻗은 산줄기 가운데 솟은 봉우리다. 사랑도 윗섬 둔지리와 금평리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산지를 이루고 있으며, 남북 방향의 능선은 폭이 좁고 지형이 험난하다. 숲과 기암괴석들이 조화를 이뤄 신비로운 세계를 연출한다.

자연환경

낙타 등처럼 이어지는 길에서 맞이하는 아름다운 한려해상

지리산 산줄기의 연봉인 불모산, 가마봉, 향봉, 옥녀봉 등



지리산 전경



지리산 옥녀봉



지리산 기암괴석

은 오랜 세월 풍우에 깎인 바위산이라 깎아 지른 위용이 참으로 당당하다. 능선은 암릉과 육산으로 형성되어 있다. 벼랑 사이로 해풍에 시달린 노송이 아슬하게 매달려 있는가 하면 바위 능선을 싸고 있는 숲은 기암괴석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산에서 내려다보이는 한려수도의 곱고 맑은 물길에 다도해의 섬 그림자가 환상처럼 떠오르고, 기기묘묘한 형상의 바위 뿔부리와 능선이 장관이다.

지리산부터 달바위, 가마봉, 옥녀봉 등 아찔한 바위구간은 직벽에 가까운 철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고 바위와 로프를 잡고 올라가야 한다.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진 통영의 바다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바위 구간에는 우회코스가 있으나 날카로운 바위 구간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난간이

나 밧줄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명칭유래

지리산은 사랑면 돈지리의 돈지(敦池)와 내지(內池) 마을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남해 바다 가운데 우뚝 솟아 있어 산 정상에서 '지리산이 바라보이는 산'이란 뜻으로 지리망산(智異望山)이라고 불린 데서 유래하였다는 설도 전한다.

지리산(통영)의 사계

- 봄 : 가파른 바위 봄 빗길따라 서서히 오르는 옥녀봉
- 여름 : 칼날 같은 아찔한 암릉을 건너며 부는 바람
- 가을 : 눈 아래 펼쳐지는 한려수도 가을
- 겨울 : 산과 바다에 동화되는 가마봉

사진명소

- 옥녀봉 : 지리산의 여러 봉우리 중 빼어난 산세와 조망을 제공
- 출렁다리 : 가마봉과 옥녀봉 사이에 있는 다리
- 돌탑봉 : 마을 사람들이 정성들여 쌓은 돌탑 길 '지리산 한오백년 길'

주요등산로

- ① 사랑면사무소 → 수우도 전망대
 사랑면사무소 → 옥녀봉 → 출렁다리 → 가마봉 → 불모산 → 촛대봉 → 지리산 → 수우도 전망대
- ② 대항마을 → 내지마을
 대항마을 → 옥녀봉 → 출렁다리 → 가마봉 → 불모산 → 내지마을

산행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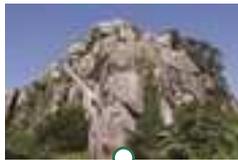
계곡에서 캠핑할 때는,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려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물 가까이 텐트를 치지 않는 것이 좋음.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바닥이 평평해야 하며, 암벽이나 언덕이 없어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에 텐트를 쳐야 함.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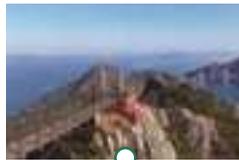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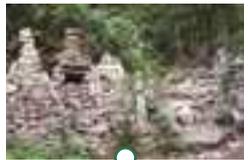
지리산(통영)의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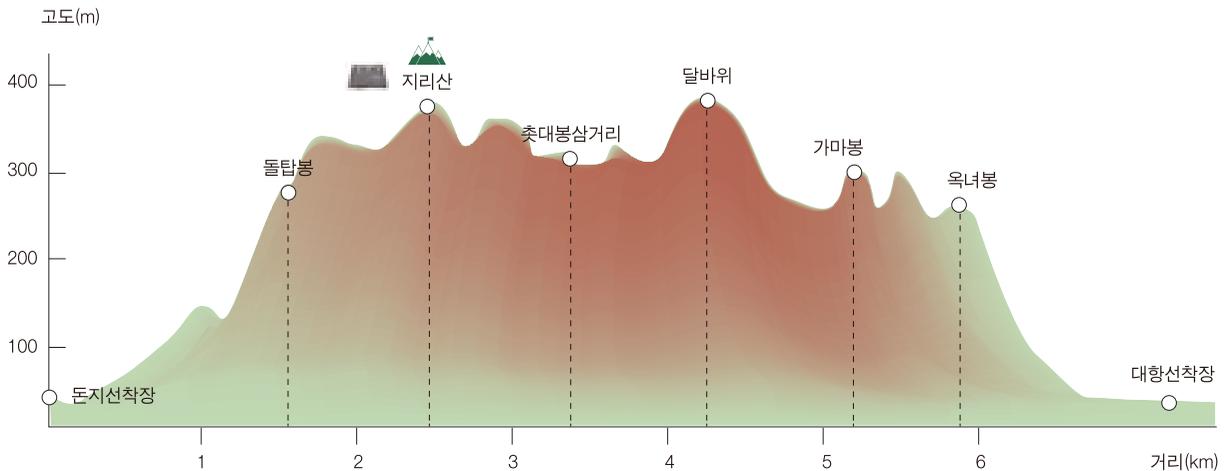
옥녀봉



출렁다리



돌탑봉



 주변관광지

 사랑도 옥녀봉

바다 위에 해무가 끼면 신기루처럼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랑도

사랑도 옥녀봉(281m)에서 불모산(399m) 지리망산(398m)으로 이어지는 8km의 바위 능선길은 암봉, 고암
릉으로 이어지는 바위봉우리와 능선을 번갈아 타면서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음



 사랑대교

사랑도의 상도와 하도를 잇는 다리



상도의 국내 100대 명산에 포함된 지리산 옥녀봉과 하도의 7개 봉우리로 유명한 칠현산이 하나의
관광벨트로 이어져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

 사랑도 대항해수욕장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섬에 있는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가 곱고 물이 맑고 깨끗하며 분위기가 한적해 인기 있는 피서지. 특히 종주 산행 코스
로 각광받고 있는 상도에 있는 지리산, 옥녀봉, 불모산 산행 후 해수욕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소



함께 가 볼 만한 곳



사랑도 해안일주도로



최영 장군 사당

이라 부름. 일곱 봉우리를 오르내리는 능선길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탁 트인 전망 또한 산행객에게 인기가 좋은 등산코스임. 아름다운 전경, 맑은 공기, 수군 망루 유적도 볼 수 있음

● 사랑도 해안일주도로

주변의 바다 풍경과 석양이 아름다운 곳. 산과 바다가 서로 어우러져 그림 같은 절경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드라이브 명소

● 사랑도 칠현산

사랑면 하도에 위치한 해발 349m의 산으로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를 따라 7개의 봉우리가 솟아 있어 칠현산

● 최영 장군 사당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이 빈번했을 때, 이곳에 진을 치고 왜구를 무찔렀던 최영 장군을 제향하기 위해 세운 사당으로 1995년 말 삼봉산정에 사당을 재건축함. 고려 명장 최영장군의 넋을 기리는 역사적 장소임



다도해를 내려다보며
한 폭의 동양화를 감상하다

천관산 天冠山



장흥군청

위 치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대덕읍

높 이 724.3m

관리주체 장흥군, 천관산 도립공원

개요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과 대덕읍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지는 않지만 온 산을 이루는 바위봉우리가 웅장함을 더한다.

산을 오르면 남해안 다도해가 한 폭의 동양화처럼 펼쳐지고 계절마다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수려한 지형 경관으로 2021년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웅장한 기암절벽 사이로 흔들리는 역세의 군무

온 산이 바위로 이루어져 봉우리마다 하늘을 찌를 듯 솟



천관산 전경



천관산 능선



천관산 가을

아 있다. 지리산, 내장산, 월출산, 변산과 더불어 호남의 5대 명산이다. 기바위, 사자바위, 부처바위 등 이름난 바위들이 제각기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으며, 특히 꼭대기 부분에 바위들이 비죽비죽 솟아 있는데, 그 모습이 주옥으로 장식된 천자의 면류관 같다하여 천관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산에 오르면 남해안 다도해가 한 폭의 동양화처럼 펼쳐지고, 북으로는 영암의 월출산, 장흥의 제암산, 광주의 무등산이 한눈에 들어오며, 날씨가 맑으면 바다쪽으로 제주도 한라산이 신비스럽게 나타난다. 능선 위로는 기암괴석이 자연조형물의 전시장 같고, 정상 부근으로 역새밭 132만 여 m²(40만 평)가 장관을 이룬다. 매년 가을 이곳 천관산

정상 역새평원에서 역새재가 열린다. 장천재의 깊은 계곡과 치솟아 있는 산정 일대의 봉우리는 경관이 아름다우며 특히 당암(堂巖)·고암(鼓巖)·사자암(獅子巖)·상적암(上積巖)·사나암(舍那巖)·문주보현암(文珠寶賢巖) 등은 일대 장관을 이룬다.

명칭유래

천관산의 옛 이름은 천풍산(天風山)·지제산(支提山)이다. 신라 화랑 김유신(金庾信)을 한때 사랑했으나 김유신에게 버림받은 천관녀(天官女)가 숨어 살았던 산이라는 전설이 있다. 가끔 흰 연기와 같은 이상한 기운이 서린다 하여 신산(神山)이라고도 한다.

천관산의 사계

- 봄 : 정남진의 봄을 알리는 수십억 송이 동백꽃
- 여름 : 산 아래 펼쳐지는 남해안 다도해의 깊고 푸른 바다
- 가을 :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춤추는 은빛 억새
- 겨울 : 천주(天柱)를 깎아 기둥으로 만들어 구름 속에 꽃아 세운 것 같다는 '천주봉'. 겨울에 더 잘 보이는 기암괴석

사진명소

- 억새밭 :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춤추는 은빛 억새평원
- 환희대 책바위 : 책이 쌓인 것처럼 네모나게 깎여진 바위가 서로 겹쳐진 모습
- 천관산 동백숲 : 천연 동백군락지

주요등산로

- 1 장천재 → 연대봉
장천재 → 환희대 → 연대봉(정상)
- 2 장천재 → 환희대
장천재 → 금수굴 → 환희대
- 3 장안사 → 환희대
장안사 → 양근암(정월석) → 환희대
- 4 탑산사 → 연대봉
탑산사 → 불영봉 → 연대봉

산행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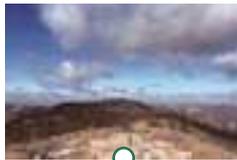
벌레에 물리면 비눗물로 즉시 씻고,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발라야 함

📷 사계

📷 명소



눈꽃 속 기암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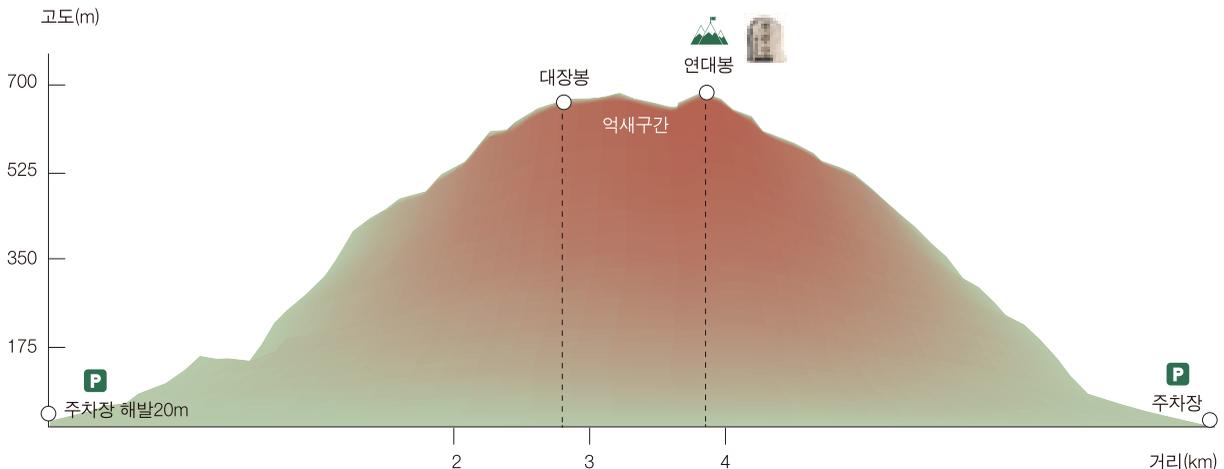
억새밭



환희대 책바위



천관산 동백숲



 주변관광지

 천관사

천관산의 절경과 함께 많은 전설을 가지고 있는 사찰

관산읍과 대덕읍 경계에 있는 천관산 중턱에 위치. 신라 애장왕 때 영통화상이 세웠다고 전해짐.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많이 낡기는 했으나 신비스런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찰로 등산객과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정남진전망대

그림을 그린 듯한 하늘과 탁 트인 바다



득량만 일대와 고흥 소록도, 거금대교, 완도, 금일도 등 수많은 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이며 층별로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

 선학동 마을

봄에는 유채꽃, 가을엔 메밀밭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밭이 만발할 곳

넓게 펼쳐진 득량만 바다와 따뜻한 봄이 되면 마을을 뒤덮는 유채꽃, 가을엔 맑은 바람과 푸른 하늘 아래 마을을 뒤덮는 메밀꽃의 아름다운 경치가 유명한 곳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곳. 2012년에는 가장 아름다운 농어촌으로 선정



함께 가 볼 만한 곳



탐진강 생태습지공원



정남진 물과학관

● 탐진강 생태습지공원

청정한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 장흥 중심을 흐르는 1급수 탐진강 둔치에 조성된 13,220㎡의 넓은 자연형 하천 생태습지원. 자연형 연꽃 방죽과 지압로, 목재데크, 꽃창포를 비롯한 수생식물과 생태관찰로, 산책로, 분수 등이 있어 휴식과 운동을 위해 찾는 친환경적 공간으로 해마다 여름이면 물 축제가 열

리는 장소임

● 정남진 물과학관

물 한 방울의 힘으로 지구를 움직이는 물의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층마다 물과 관련된 각종 체험시설이 구성되어 있음

● 정남진편백숲우드랜드

장흥군 억불산 자락 120ha에 60년생 이상의 편백나무 숲속에 위치한 편백나무숲. 생태건축 체험장과 목재 문화체험관, 억불산 정상과 연결된 무장애 데크로드인 말레길, 힐링과 휴식의 장인 치유의 숲, 천일염과 편백으로만 구성된 온열 치유시설인 편백소금집, 난대자생식물원 등이 구성되어 있음



하늘과 맞닿은 운해를 만지다

천마산 天摩山



남양주시청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호평동·화도읍

높 이 810.3m

관리주체 남양주시

개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과 호평동, 화도읍에 걸쳐 있는 산이다. 북서쪽의 철마산과 함께 광주산맥에 속한다. 인근 관광지로 모란미술관, 서울종합촬영소, 수동국민관광지, 몽골문화촌, 홍유릉과 축령산자연휴양림이 있다.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주봉을 중심으로 북동쪽은 경사가 급하고 서쪽은 완만하다.

자연환경

높은 봉우리 험한 산세

남양주시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 있는 산으로 산세가



천마산 전경



천마산의 단풍



천마산 맑은 계곡

험하다. 능선이 산정을 중심으로 방사상 형태를 이루고 있어 어느 지점에서든 정상에 바라보인다. 천마산의 북쪽 능선을 따라 쾌라리고개에서 서북쪽에 철마산(鐵馬山 711m)이 있다.

산록부는 밭이나 목장으로 이용되며, 산의 남쪽 기슭에 1982년 스키장이 조성되었다. 남쪽에서 바라보면, 마치 달마대사가 어깨를 짊어지고 앉아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웅장하고 차분한 인상을 준다. 온대중부림에 속하는 지역으로 소나무와 굴참나무, 신갈나무 등의 참나무류와 서어나무, 고로쇠나무, 까치박달 등의 낙엽활엽수가 우점종을 이룬다. 급경사지의 분포도 넓은 편이며 고도에 비해 경사가 급한 편에 속한다.

명칭유래

천마산이란 이름의 유래는 고려 말 이성계(李成桂)가 이 산이 매우 높아 손이 석자만 길어도 하늘을 만질 수 있겠다 하여 '천마산'이라는 이름이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름처럼 봉우리가 높고 산세가 험하여 조선 시대 도적 임격정이 이곳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했다고 전해지며, 이와 관련되어 꺾정바위라 이름붙은 장소도 있다. 산 정상 북쪽 인근에는 높은 절벽바위가 있는데, 샘물이 풍부하게 솟아 '약물바위'라고 불리며 샘은 돌편샘(약물바위샘)이라 불린다.

천마산의 사계

- 봄 : 너도바람꽃, 만주바람꽃, 꿩의바람꽃 등 바람꽃을 만나는 계곡
- 여름 : 약물바위 아래에서 마시는 시원한 약수맛
- 가을 : 동릉에서 넘어골까지 초승달처럼 휘어진 단풍
- 겨울 : 파란 하늘에 닿을 듯 피어난 겨울 눈꽃

사진명소

- 걱정바위 : 임격정이 숨어 지냈다는 전설이 있는 곳
- 천마산 정상 : 국기봉을 배경으로 찍는 인생 사진
- 갈딱샘물 : 갈딱고개 아래 약수터로 시원한 물맛이 일품

주요등산로

- ① 천마산군립공원 관리사무소 → 천마산(정상) → 수진사
천마산군립공원 관리사무소 → 천마산약수터 → 천마산(정상) → 현송벤치 → 수진사
- ② 천마산(역) → 호평동천 마산입구주차장
천마산(역) → 천마산군립공원 → 천마산(정상) → 걱정바위 → 상명수련원 → 호평동천 마산입구주차장
- ③ 퀘이크밸리캠핑장 → 신도브레뉴아파트·새마을금고(버스정류장)
퀘이크밸리캠핑장 → 보광사 → 팔아리고개 → 천마산(정상)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선원 → 신도브레뉴아파트·새마을금고(버스정류장)

 사계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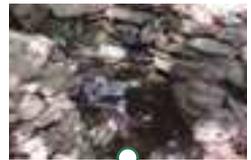
천마산 겨울 눈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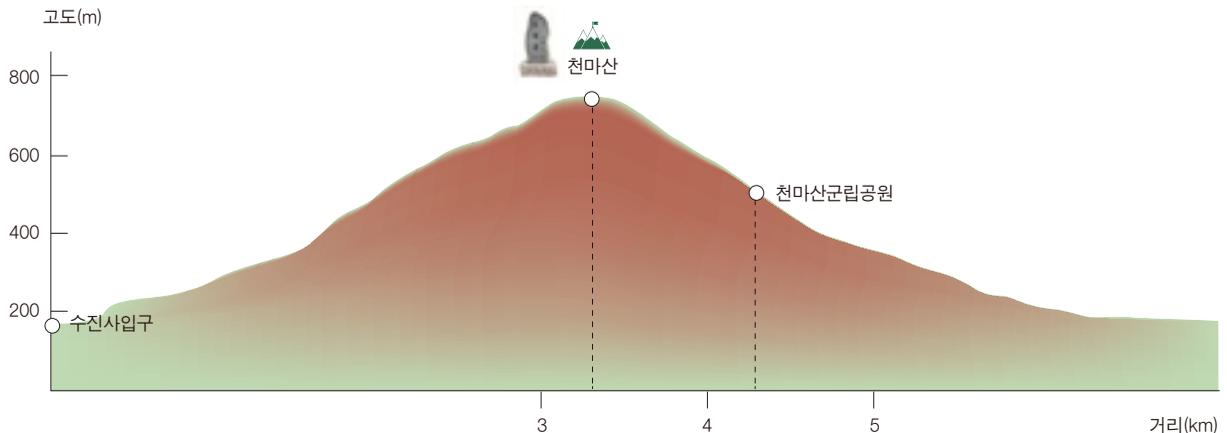
걱정바위



천마산 정상



갈딱샘물



👁️ 주변관광지

📍 수진사(修進寺)

가까이에서 즐기는 템플스테이 사찰

서울 근교에 자리하고 있어 바쁜 현대인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언제나 부처님과 자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사찰로 더욱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 프라움악기박물관

악기를 통한 세계 음악 여행



국내 최초의 서양악기박물관으로 세계 각국 음악의 역사를 여행하듯 아름다운 악기들을 만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

📍 정약용유적지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기념인물인 정약용유적지는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위치하며, 정약용의 5대조부터 뿌리내린 곳으로 그가 나고 자랐으며 말년을 보낸 곳으로 정약용 선생묘(경기도기념물), 생가인 여유당, 사당 문도사, 기념관, 문화관, 문화의 거리가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피아노폭포



오남호수공원

● 피아노폭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펌프로 끌어올려 높이 61m 인공 암반 절벽을 흘러내리게 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피아노 폭포를 마주하고 있는 피아노 모양의 이색적인 화장실은 2008년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을 받음. 하수처리장이 예술품으로 탈바꿈한 사례

● 오남호수공원

가족들과 산책하기 좋은 남양주 명소. 본래 농업용수를 위해 만들어진 저수지로 현재는 유원지로 이용되며 자연경관과 산책로를 갖춘 마을 명소

● 물의정원

국토교통부가 2012년 한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광대한 면적의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한 곳. 자연과 소통하여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액자에 담긴 북한강의 자태를 볼 수 있음



동해의 일출을 가장 먼저 만나다

천성산 千聖山



양산시청

위 치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하북면·상북면

높 이 920.2m

관리주체 양산시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와 주진동 및 상북면 대석리 경계에 걸쳐 있는 산이다. 양산시 중앙부를 남북으로 뺨은 정족산(鼎足山) 줄기의 지맥에 해당하는데, 이 산줄기에 따라 양산시가 동·서로 갈리며, 회야강(回夜江)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가지산, 운문산, 신불산, 영축산과 함께 영남알프스 산군에 속한다.

자연환경

금강산의 축소판 소금강산(小金剛山)

천성산은 산 정상부에 드넓은 초원과 산지 습지가 발달



천성산 전경



천성산 기암괴석



천성산 철죽

했다. 천성산은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이름이 나 있다. 그런 만큼 조망이 뛰어나 영남알프스 아홉 준봉 하나하나가 뚜렷이 보이고 남으로 부산 금정산은 물론 멀리 김해의 신어산, 마산의 무학산까지 두루 가늠할 수 있다.

예로부터 깊은 계곡과 폭포가 많고 또한 경치가 빼어나 소금강산이라 불렸으며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화엄늪과 밀밭늪은 희귀한 꽃과 식물(끈끈이 주걱) 등 곤충들의 생태가 아직 잘 보존되어 있어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이다. 천성산 산나물은 임금님의 수라상에 진상할 정도로 그 맛이 일품이며, 가을이면 긴 역사가 온산을 뒤덮어 환상의 등산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명칭유래

천성산을 달리 원적산이라고도 한다. 태백산계에 속하며, 남서쪽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산을 원효산(元曉山)이라 하였는데, 양산시에서 이전의 원효산을 천성산 주봉(主峰)으로 하고, 이전의 천성산을 천성산 제2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원효대사가 당나라에서 온 1,000명의 승려를 『화엄경(華嚴經)』으로 교화하여 모두 성인이 되었다는 전설에서 천성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천성산의 사계

- 봄 : 진달래와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원효암 가는 길
- 여름 : 3단 구조 홍류폭포 물보라 무지개
- 가을 : 화엄벌의 광활한 억새밭
- 겨울 : 백설의 부엉이 바위

사진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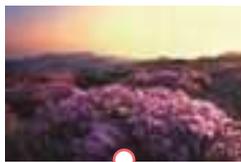
- 천성대 : 일출 조망대
- 화엄벌 : 당승 1,000명에게 설법을 했다고 전해지는 원효봉 주변의 너른 벌판
- 홍류폭포 : 홍룡사 관음전과 어우러져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

주요등산로

- 1 내원사매표소 → 천성산2봉(비로봉)
내원사매표소 → 성불암계곡 → 짚북재 → 천성산2봉(비로봉)
- 2 내원사(본절) → 천성산(원효봉)
내원사(본절) → 천성산2봉(비로봉) → 은수고개 → 천성산(원효봉)
- 3 용주사 → 천성산(원효봉)
용주사 → 임도 → 화엄늪 → 천성산(원효봉)
- 4 홍룡사 주차장 → 천성산(원효봉)
홍룡사 주차장 → 편백숲 → 원효암 → 도로 → 천성산(원효봉)
- 5 무지개산장 → 천성산(원효봉)
무지개산장 → 은수고개 → 천성산(원효봉)

📷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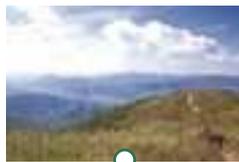
📍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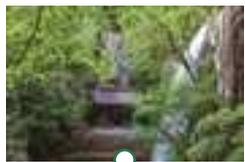
봄에 핀 진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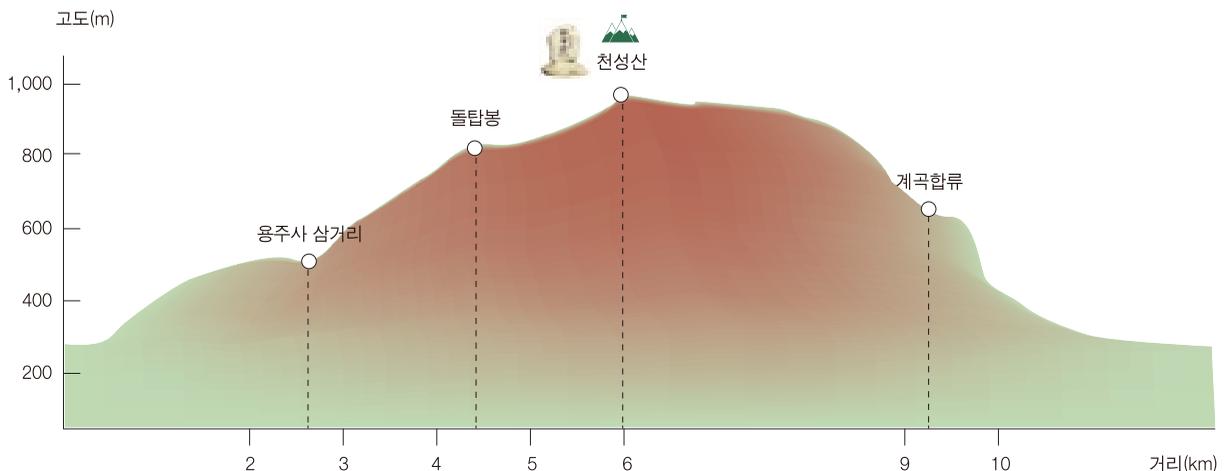
천성대



화엄벌



홍류폭포



 주변관광지

 에덴밸리 스키장

세계의 스키어와 보더들이 주목하는 프로페셔널 그라운드



영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가지산, 천성산, 신불산 줄기 끝에 세워진 국내 최남단 스키장. 영남 최초의 스키장으로 스키장 전체에 스키어의 이동 및 분산이 용이하도록 과학적인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스키장이 완성됨

 통도사 성보박물관

한국 최초의 불교전문박물관

통도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조각류, 금속 및 목조공예품, 서화류, 불화초본, 고서, 도자기 및 고문서 등을 합해 총 기증품 2만 여 점 보유. 국내 박물관으로는 유일하게 12m이상 되는 대형패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가 중앙 홀에 마련되어 있어 정기적인 패불 전시회



 한국궁중꽃박물관

조선왕조 궁중 꽃 전문박물관



조선왕조 5백년 동안 나라의 큰 잔치가 있을 때 궁궐을 장식했던 '조선왕조 궁중채화'를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궁중 꽃 박물관으로 조선왕조 궁중채화 작품들과 문헌, 제작 도구를 비롯해 이와 관련된 박물관 소장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스페이스나무갤러리



양산천 구름다리

● 스페이스나무갤러리

매월 초대전 및 기획전시가 있는 갤러리, 100여 년이 넘는 한옥체험관에서 공연과 기획 행사가 펼쳐지고, 카페, 작가들의 휴식공간, 아트전시, 문화교육 등이 실시되는 복합문화공간

● 양산천 구름다리

다채로운 빛깔이 반짝이는 양산의 야경명소. 야간에는 양산천에서는 영대교와 음악분수대가 빛나는 풍경 연출. 주통행로 양쪽으로 흔들림 체험, 보행로 유리바다 체험이 가능하고, 백조 두 마리가 마주 보며 물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무풍한송길

통도사 입구부터 산문까지 이어지는 소나무길. 길 사이로 빼곡이 들어서 있는 소나무들이 바람이 불면 춤추듯 흔들린다 하여 무풍한송길이라 불림. 숲길이라 걷기 편하며, 2018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 수상



기암괴봉과 암릉이 아름답게 펼쳐지다

천태산 天台山



금산군청

위 치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높 이 715.2m

관리주체 금산군, 영동군

개요

충청북도 영동군의 양산면 누교리와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화원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그리 높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지만 기암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어 아찔한 암릉을 타는 짜릿함을 톡톡히 즐길 수 있고 산세가 빼어나다. 천태산에는 보물 4점, 지방유형문화재 2점, 천연기념물 1점 등이 있어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기도 하다.

자연환경

천태산의 묘미, 75m 암벽을 타는 짜릿함

천태산은 기암괴석이 도처에 기기묘묘한 형상을 이루며



천태산 전경



천태산 기암괴석



천태산 여름

일대 장관을 연출하는 산이다. 아기자기하면서도 웅장한 바위와 수많은 나무들이 조화를 이뤄 빚어낸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 ‘충북의 설악’이라는 별칭이 있으며, 정상에 보이는 연봉들 사이로 속리산·민주지산·덕유산·가야산·서대산을 보는 것도 매력이다. 천태산은 뛰어난 자연경관 중 특히 양산8경의 제1경이 천태산 영국사에서 시작되고 많은 문화유적들이 그 신비함을 더해주는 곳이다.

비단으로 수놓은 듯한 기암괴석을 밧줄을 타고 오르는 암벽등반코스 등 여러 곳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다. 영국사를 오르는 골짜기 풍경이 매우 아름다우며, 기암절벽에서 쏟아져 내리는 용추폭포와 천년 정도로 추정되는 은행나무가 천태산을 찾는 등산인들을 맞이한다.

명칭유래

천태산은 조선 시대에 ‘지륵산’으로도 불렸다. 또 “영국사가 있어 부처의 지혜로 하늘과 같이 길이 편안함을 누리라.”는 뜻에서 천태산이라 하였다는 유래가 언급되어 있다.

천태산의 사계

- 봄 : 암벽 사이로 보이는 진달래와 철쭉의 향연
- 여름 : 기암절벽에서 쏟아져 내리는 용추폭포의 빼어난 절경
- 가을 : 영국사 천년 수령 은행나무(천연기념물)의 자태
- 겨울 : 쭈글쭈글 삼신탈땀 바위의 깊이 팬 주름에 내려앉은 눈

사진명소

- 천태산 75m 암릉 : 90도 경사인 천태산의 백미
- 용추폭포 : 넓적한 바위 가운데로 물줄기가 미끄럼을 타듯 떨어지는 시원스런 모습
- 영국사 은행나무 : 천년 수령의 은행나무

주요등산로

- ① 천태산 공영주차장 → 천태산(정상)
천태산 공영주차장 → 천태산 들머리 → 삼단폭포 → 영국사 일주문 → 천태산 암벽등반코스 → 천태산(정상) → 영동 영국사 석종형부도
- ② 신안리 마을회관 → 천태산(정상)
신안리 마을회관 → 등산로 입구 → 신음폭포 → 거북바위 → 천태산(정상)

산행 팁!

눈이 많이 덮인 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소품 중 하나로, 계절에 상관없이 스틱은 꼭 준비하도록 함

📷 사계

📍 명소



천태산의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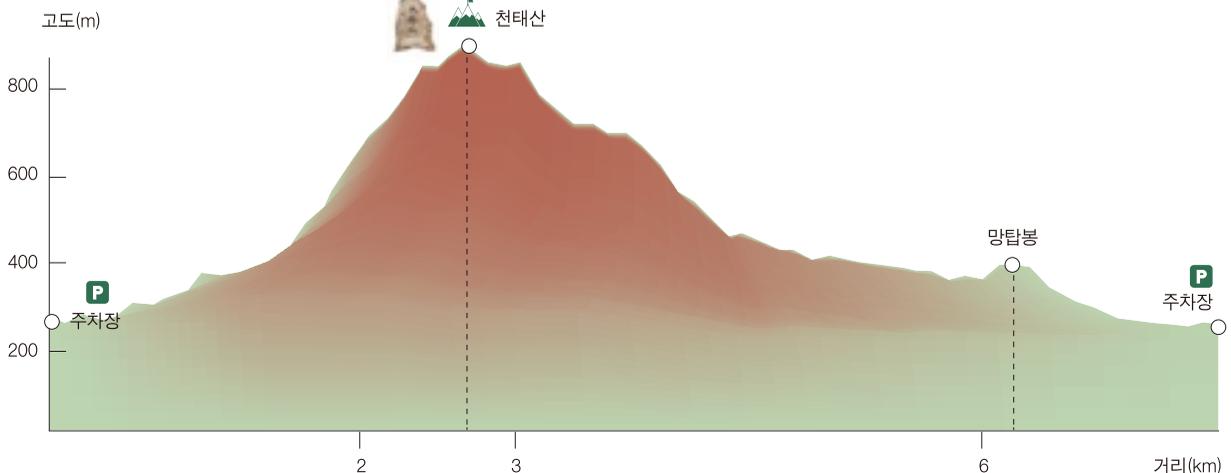
천태산 75m 암릉



용추폭포



영국사 은행나무



👁️ 주변관광지

📍 영국사(寧國寺)

영동의 양산8경 중 제1경



빼어난 자연경관과 암릉 산행지로 유명한 천태산의 깊은 산속 넓은 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풍경이 매우 아름다운 곳. 1,000여 년 동안 이 산을 지키고 있는 뛰어난 자태의 은행나무가 있음 (높이 31m, 둘레가 11m 정도 되고, 가지 하나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독립된 나무처럼 자라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됨)

📍 장령산자연휴양림

사시사철 색다른 멋

장령산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옥천의 명산. 소나무, 단풍나무, 편백나무 등이 자생. 봄부터 가을까지 숲해설 프로그램,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치유의숲. 야외음악당, 세미나실, 대형 식당, 야영장, 편의점, 힐링타임 하우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



📍 월영산 원골

달밤과 어우러진 산의 정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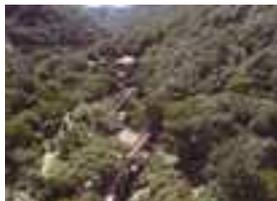


월영산은 '달을 맞이하는 산'이란 뜻으로 달밤과 어우러진 산이 주는 정취가 물씬 묻어남. 제원면 사람들은 대보름날 이곳에 뜨는 달을 보고 한해 농사를 점쳤다고 함

함께 가 볼 만한 곳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금산산림문화타운

●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금산의 역사와 문화를 마주하는 공간. 금산 생활민속관에서는 전라좌도농약의 특징이 녹아있는 금산농약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된 금산의 인삼 농사 기술을 만나볼 수 있음

● 금산산림문화타운

중부권 최고의 산림힐링단지로 숲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금산의 명소. 남이자연휴양림, 느티골산림욕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목재문화체험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 금산지구별그림책마을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림책을 읽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그림책을 읽을 수 있는 서점, 갤러리, 도서관뿐만 아니라 숙박을 통해 그림책과 자연을 보다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북스테이(음악감상실 이용 가능), 고택스테이 가능. 진산성지, 진산역사문화관이 인접



낙동강변에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나다

청량산 清凉山



봉화군청

위 치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명호면
안동시 도산면·예안면

높 이 869.7m

관리주체 봉화군청(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개요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에 위치한 명산으로 봉우리마다 수려한 기암괴석으로 형성되어 장관을 이룬다. 1982년 경상북도 도립공원으로, 2007년 명승으로 지정된 청량산은 경북 청송의 주왕산과 전남 월출산과 함께 대한민국 3대 기악(奇嶽)으로 꼽힌다.

자연환경

퇴계 선생이 사랑한 열 두 봉우리

청량산은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험준한 지세를 이루고 있으며, 산의 서쪽으로는 낙동강이 휘감아 돌아나간다. 청



청량산 전경



청량산 능선



청량산의 청량사

량산은 기암괴석이 봉을 이루며 최고봉인 장인봉(의상봉)을 비롯해 외장인봉·선학봉·축융봉·경일봉·금탑봉·자란봉·자소봉·연적봉·연화봉·탁필봉·향로봉 등의 12개의 고봉이 치솟아 절경을 이루고, 봉마다 대(臺)가 있다. 이 가운데 금탑봉 오른쪽의 절벽인 어풍대(御風臺)는 최고의 경승으로 꼽힌다.

청량산은 산 곳곳에 깎아지른 듯한 층암절벽이 괴상한 모양의 암봉들과 어우러진 모습이 절경이다. 둥글둥글하게 생긴 암봉들이 여덟 개나 되고, 그 암봉들이 품고 있는 동굴 속에는 총명수, 감로수, 원효샘 같은 샘들이 솟아나고 있다. 산속에는 신선이 내려와서 바둑을 두었다는 신선대, 신녀가 유희를 즐겼다는 신녀봉, 최치원이 마시고

정신이 맑아졌다는 총명수와 감로수 등의 약수가 있다.

명칭유래

청량산은 이곳의 뛰어난 산수 절경과 맑은 물이 중국 화엄종의 성스러운 산으로 간주되는 청량산과 비슷하다는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대에는 수산(水山)으로 불리다가 조선 시대에 이르러 청량산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청량산의 사계

- 봄 : 어풍대의 절벽길 아래로 피어나는 아지랑이
- 여름 : 여름에도 얼음이 언다는 신비한 얼음굴
- 가을 : 층암절벽 아래로 붉게 타는 단풍
- 겨울 : 한겨울 청량산 하늘다리 혹은 밀성대에서 바라본 청량산

사진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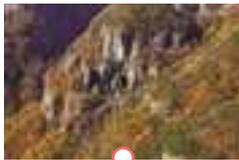
- 금강굴 : 장인봉 아래 금강대 뒤편에 위치한 굴
- 신선대 : 신선이 내려와 바둑을 두었다는 바위
- 삼부자송 : 장인봉 아래 20 ~ 30m에 달하는 소나무로 세 갈래로 뻗어 자라고 있음

주요등산로

- ① 청량산도립공원 입구 → 청량사
 청량산도립공원 입구 → 청량산 하늘다리 → 청량산 청량사 → 청량정사 → 청량산도립공원 입석
- ② 청량산도립공원 주차장 소형 → 축융봉 → 산성 입구
 청량산도립공원 주차장 소형 → 청량산도립공원 입석 → 밀성대 → 축융봉 → 산성 입구
- ③ 청량산도립공원 7코스(청량선현체험길) → 자소봉 → 청량산도립공원 입석
 청량산도립공원 7코스(청량선현 체험길) → 청량산 하늘다리 → 연적봉 → 자소봉 → 감생굴 → 청량산도립공원 입석

📷 사계

📷 명소



청량산의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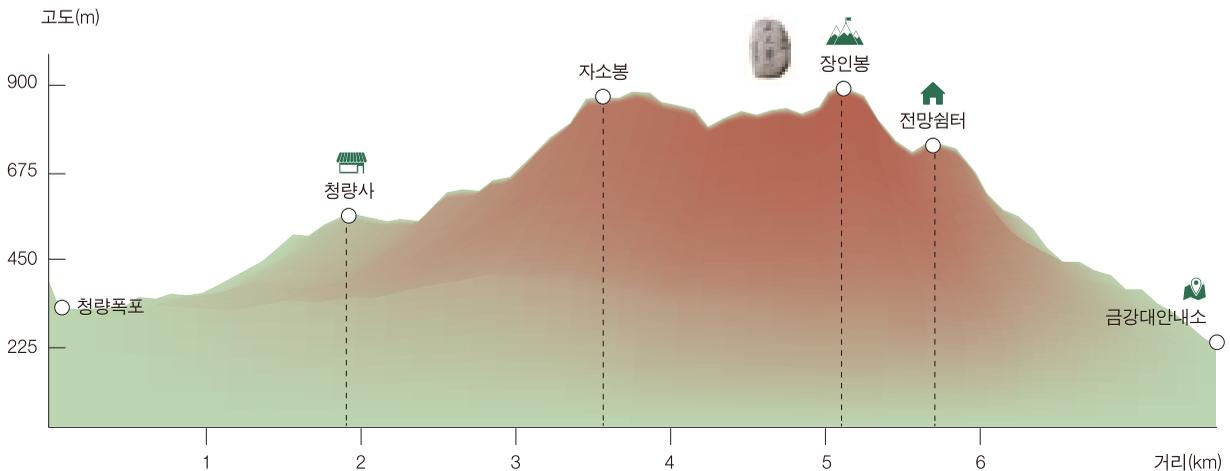
금강굴



신선대



삼부자송





담양호에 가을 밤
달그림자를 비추다

추월산 秋月山



담양군청

- 위 치**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북흥면
- 높 이** 731.2m
- 관리주체** 담양군, 순창군

개요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북흥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전라남도 5대 명산의 하나로 노령산맥의 동부지맥인 밀재와 백암산 사이에 서서 주위에 불갑산·방장산·금성산을 거느리는 노령의 중추이다.

자연환경

호남의 5대 명산 중의 하나

담양군의 최북단인 용면 월계리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 북흥면과 도계를 이룬다. 많은 수림과 기암괴석, 깎아세운 듯한 석벽이 마치 성을 쌓은 듯이 둘러 있고 오직 서쪽



추월산 전경



추월산 전경



추월산과 담양호

에 겨우 사람 하나 통행할 정도의 길이 트여 있다. 담양읍에서 보면 스님이 누워 있는 형상인데 각종 약초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 예로부터 명산으로 불렸으며, 진귀한 종의 추월산 난이 자생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추월산 하부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노송이 뺨뺨이 들어차 있어 여름 휴식처가 되고 있으며, 그리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오를 수 없는 산능선이다.

영산강의 원천지로서 샘이 많기로 유명하며 특히 용연 제1, 2폭포가 있다. 순창에서 담양 방향으로 가는 국도 24호선에서 바라보는 추월산은 산 전체가 암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중턱에 아슬아슬하게 보리암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추월산 암벽 사이에서 돌아보면 담양

호 푸른 물결의 진수를 볼 수 있다. 추월산의 물줄기는 남쪽은 담양호를 통해 영산강에 합수되고 북쪽은 추령천을 통해 섬진강에 흘러든다.

명칭유래

추월산(秋月山)은 가을의 보름달이 산에 닿을 것같이 드높은 산이라는 뜻이다. 인근에 관련 지명으로 가을 바위, 월계(月桂) 마을이 있다.

추월산의 사계

- 봄 : 담양호를 품은 용마루길에 사랑 불어오는 봄바람
- 여름 : 울창한 녹음과 시원한 담양호반의 푸른 물결
- 가을 : 담양호와 어우러져 붉게 물든 단풍
- 겨울 : 고즈넉한 설경과 암벽에 매달린 고드름의 조화

사진명소

- 보리암 정상 전망대 : 담양의 들녘과 담양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
- 보리암 : 아찔한 수직의 벼랑 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듯 지은 암자로 보리암 앞마당에서 내려다 보는 풍경도 절경
- 돌담 : 오름길에 정갈하게 쌓아놓은 돌담군

주요등산로

- ① 월계 → 추월산(정상) → 담양호국민관광단지
월계 → 추월산(정상) → 보리암(정상) → 담양호 국민관광단지
- ② 담양호국민관광단지 → 보리암(정상) → 추월산(정상)
담양호국민관광단지 → 구상암 → 보리암(정상) → 추월산(정상)
- ③ 담양호국민관광단지 → 추월산(정상) → 복리암(버스정류장)
담양호국민관광단지 → 보리암(정상) → 추월산(정상) → 수리봉(정상) → 복리암(버스정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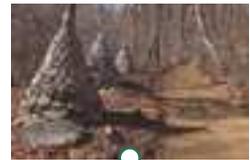
추월산 단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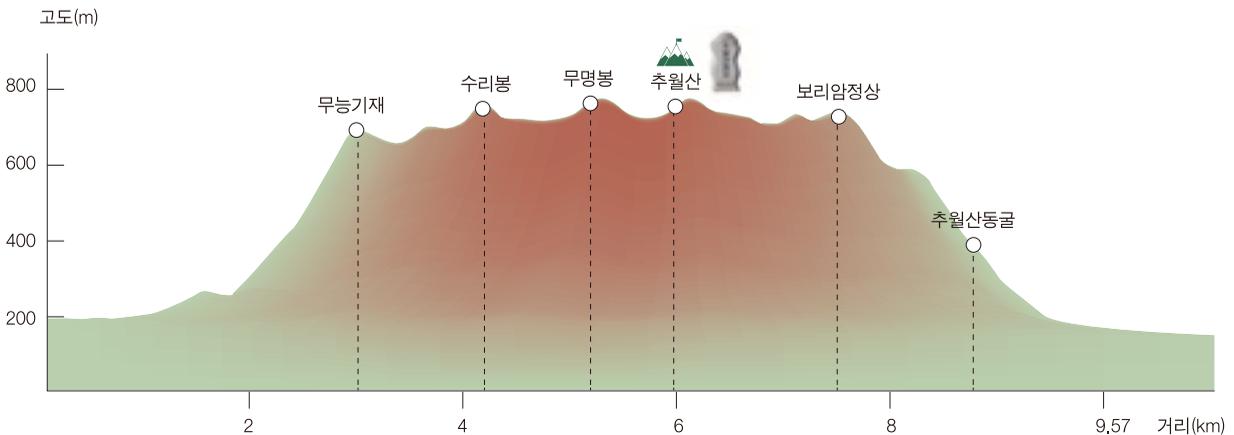
전망대



보리암



돌담



👁️ 주변관광지

📍 보리암

추월산의 풍광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찰



보리사라고도 불리며 고려 신종 때 보조국사 지눌(1158-1210) 스님이 지리산에 머물면서 전국의 좋은 땅을 찾기 위해 나무로 세 마리의 매를 만들어 날려 보냈더니 한 마리는 순천 송광사 터에 또 한 마리는 장성 백양사 터에, 나머지 한 마리는 추월산 보리암 터에 앉아 이곳에 절을 짓게 되었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곳

📍 가마골용소

용추산(해발 523m)을 중심으로 사방 4km 주변 여러 개의 깊은 계곡과 폭포

기암괴석이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어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1986년부터 관광지 지정, 개발되어 관광객을 위한 각종 볼거리, 편의시설, 운동시설, 등산로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 근처에 가마골 생태공원이 있음



📍 담양 용마루길

한 폭의 그림같이 펼쳐지는 울창한 숲과 담양호의 맑은 물



담양호는 영산강 본류의 최북단에 자리한 호수로 담양 용마루길은 나무데크와 흙길로 구성된 3.9km 산책로. 담양호의 수려한 전경과 추월산, 금성산성 등 주변 경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수변 산책코스. 담양의 랜드마크

함께 가 볼 만한 곳



관방제림



명품고택 '한옥에서'

● 관방제림

관방천에 있는 제방으로서 약 2km에 걸쳐 거대한 풍치림을 이루고 있음. 추정 수령 300 ~ 400년에 달하는 나무들이 빼곡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천연기념물로(1991. 11. 27.) 지정

● 담양 금성산성

호남의 3대 산성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석성. 북의 성문과 성벽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음. 곳곳에 우물이나 절구통 같은 유물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산성의 동문 밖은 전라북도 순창군의 강천사 등 관광명소와 바로 연결되는 길이 있는 관광코스나 호반유원지로 유명

● 명품고택 '한옥에서'

아름다운 돌담길과 어우러져 옛 시골 정취를 오롯이 느끼며 편안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장소. 소쇄원과 송강정 등 문화재와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길이 모두 30년 내에 있어 함께 즐기기 좋음



울창한 잣나무숲
축령백림祝靈柏林에서 푸르름을 가득 안다

축령산 祝靈山



남양주시청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가평군 상면

높 이 887.1m

관리주체 남양주시, 가평군

개요

경기도 남양주시와 가평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 숲이 울창하고 계곡이 아름다운 산이다. 축령산 정상으로 오르는 입구에 있는 잣나무 산책로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거져 있어 신비감마저 든다. 779ha의 넓은 산림에 산림욕장, 체육시설, 물놀이장, 야영장, 자연관찰장 등이 있어 가족단위의 휴양공간으로 손색이 없으며 하루의 산행코스로도 적합한 곳이다.

자연환경

눈을 두는 곳마다 초록초록, 치유의 숲



축령산 전경



축령산 수리바위



축령산 능선

축령산은 조종천과 수동천 사이에 솟아 있다. 산기슭에 잣나무숲이 울창한 자연휴양림과 조선 시대 남이 장군이 십신을 수련했다는 남이바위·수리바위 등의 기암이 있다.

광주산맥이 가평군에 이르러 명지산과 운악산이 솟구치며 내려오다가 한강을 바짝 앞에 두고 형성된 암산으로 숲이 울창하고 계곡이 아름다운 산이다. 축령산의 울창한 수림과 계곡을 이용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했다. 휴양림을 벗어난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능선에 올라 수리바위를 지나 30여 분 더 올라가면 남이바위가 나오고 남이바위에서 칼날 같은 바위능선을 타면 정상이다.

정상에는 돌탑이 있고, 운악산과 청우산·천마산·철마

산·은두봉·깃대봉 등이 보인다. 축령산은 특유의 전리를 가져 특색 있는 경관을 자랑하여 정상 부근에는 남양주 북방의 운악산을 비롯하여 시원한 조망을 느낄 수 있다.

명칭유래

조선 왕조를 개국한 이성계가 고려 말 사냥을 왔다가 짐승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물이꾼이 이 산은 신령스러운 산이라 산신제를 지내야 한다고 하여 산 정상에 올라 제를 지낸 후 멧돼지를 잡았다는 전설이 있다. 이때부터 고사를 올린 산이라 하여, 축령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유래로는 남이 장군이 신령님께 기도드린 산이라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

축령산의 사계

- 봄 : 축령산 능선에 수줍게 피어난 복수초, 너도바람꽃
- 여름 : 바위와 숲이 조화된 시원한 계곡
- 가을 : 단풍이 아름다운 남이바위
- 겨울 : 키 큰 잣나무에 온 설경

사진명소

- 축령백림(祝靈柏林) : 가평8경의 하나로 수령 80년 이상인 잣나무의 국내 최대 분포지
- 수리바위 : 비상하는 독수리를 닮은 30m 높이의 바위
- 남이바위 : 사람 하나 들어앉기 좋게 파인 바위

주요등산로

- 1 축령산자연휴양림(버스정류장) → 축령산(정상) → 남이바위
축령산자연휴양림(버스정류장) → 축령산 자연휴양림 → 축령산(정상) → 남이바위
- 2 축령산자연휴양림 → 화채봉
축령산자연휴양림 → 하늘바라기 폭포 → 축령산 조망 → 철쭉동산 → 화채봉
- 3 휴양림관리사무소 → 서리산헬기장대피소 → 산림휴양관
휴양림관리사무소 → 서리산헬기장대피소 → 산림휴양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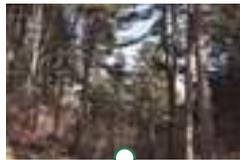
사계



명소



눈 덮인 축령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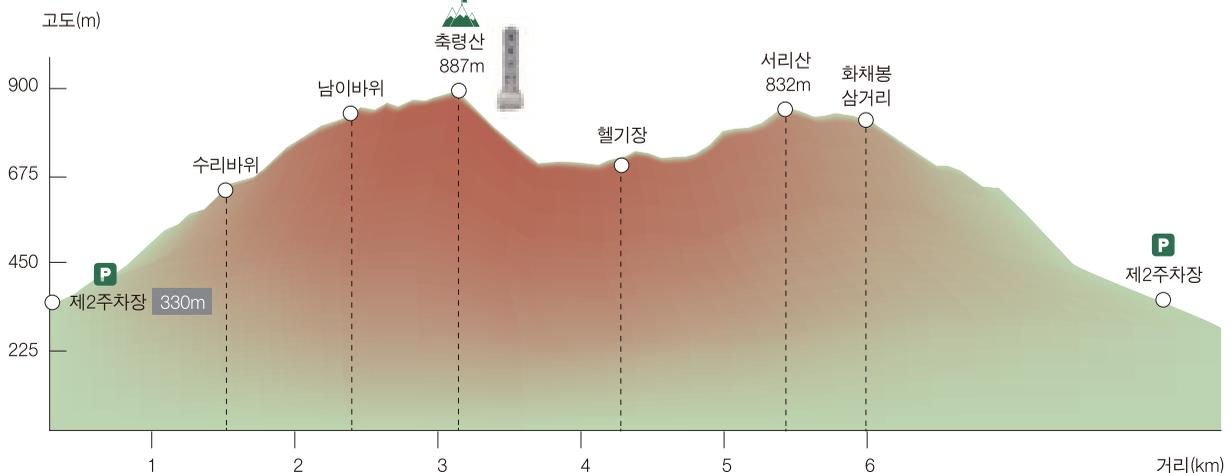
축령백림(祝靈柏林)



수리바위 단풍



남이바위



 주변관광지

 **잣향기푸른숲**

피톤치드 가득한 쾌적한 숲



축령산과 서리산 자락 해발 450~6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령 80년 이상의 잣나무림이 국내 최대 분포. 피톤치드 가득한 쾌적한 잣나무 숲에서 숲체험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산림휴양 공간

 **가평 백련사**(白蓮寺)

울창한 잣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소담한 사찰

가평군 축령산에 자리잡고 있으며 용문산과 명지산이 보이고 대금산, 운악산, 천마산, 축령산, 서리산 등이 연꽃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백련사라 함. 백련사는 경기도에서 템플스테이 명소로도 알려진 곳



 **봉선사**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까지 7차례 소실과 중건을 거친 사찰



고려 광종 20년(969년) 법인국사가 운악사로 창건하였으나 여러 차례 난리를 겪으며 폐허가 된 것을 정희왕후 윤씨(7대 세조의 왕비)가 세조의 영혼을 봉안코자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봉선사라 개칭. 대웅전 처마 밑에 큰 법당이라고 한글로 쓴 현판이 이채롭다. 임진왜란 이전에 만든 동종 중에서 몇 개 남지 않은 것으로 예종 원년(1469)에 왕실의 명령에 따라 만들었다는 봉선사 대종(보물)이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취옹예술관



아침고요수목원

● **취옹예술관**

일상을 떠나 머리를 비우고 쉬는 곳. 낮은 언덕을 계단처럼 층층이 깎아 만든 3단 한옥으로, 1단에는 한식당, 2단에는 세미나실과 미술관, 연못과 정자가 있고, 3단에는 솟을대문과 너른 마당, 텃마루, 객실과 다

실이 있음

● **아침고요수목원**

축령산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여 한국의미를 듬뿍 담은 정원들을 원예학적으로 조화시켜 설계한 원예 수목원

● **남양주 수동시온캠프**

어린이들의 다양한 이색체험이 가능한 캠핑장. 어린이 친화 캠핑장으로 어린이 축구 교실과 밤 줍기 체험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놀이터와 운동장이 있어 체험 활동하기에도 매우 좋은 곳



은혜 깊은 핑의
보은설화 報恩說話를 간직하다

치악산

雉岳山



치악산국립공원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

높 이 1,282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치악산국립공원), 원주시, 횡성군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과 횡성군 강림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태백산맥의 오대산에서 남서쪽으로 갈라진 차령산맥의 줄기로 영서지방의 명산이며 원주의 진산이다. 산세가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많은 문화유적이 있어 197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1984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다.

자연환경

황장목을 지킨 황장금표

치악산은 주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남으로 남대봉, 향로



치악산 전경



단풍이 수놓은 치악산 계곡물



단풍으로 물든 치악산

봉, 북으로 천지봉, 매화산, 서쪽으로 삼봉 등의 1,000m가 넘는 많은 고봉들과 기암이 웅장한 산군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비로봉에서 구룡사(龜龍寺)를 향하여 뺨은 북쪽의 능선과 계곡은 매우 가파른 것으로 유명하다. 예로부터 산세가 뛰어나고 험난하기로 이름이 높으며, 과거에는 단풍이 아름다워 적악산(赤岳山)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기암괴석과 층암절벽의 아름다운 골짜기가 있으며, 비로봉·남대봉 등의 산봉과 입석대·세존대·구룡폭포·세림폭포·영원폭포 등의 명소가 산재하여 있다. 남대봉 서쪽 기슭에는 합단(哈丹)의 침입과 임진왜란의 격전지였던 영원산성(鶴原山城), 해미산성지(海美山城址), 금두산성이 있는데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인 원주를 지키는 천연의 요새로서 치악산의 뒀을 입증하는 사적들이다. 남대봉 동남쪽인

상원골 입구 성남리의 성황림은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특히, 치악산 등산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은 황장금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장금표란 왕과 왕비의 관(冠)인 재궁(梓宮)과 궁궐 등의 건축 재료로 쓰인 황장목(黃腸木)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금표로 일반인의 별목을 금지하는 경계의 표시이다.

명칭유래

원주의 진산(鎭山)이며, 옛 이름은 적악산(赤嶽山)인데, 뱀에게 먹히려던 평(雉)을 구해준 나그네가 그 평의 보은으로 위기에서 목숨을 건졌다는 전설에 따라 치악산(雉岳山)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치악산의 사계

- 봄 : 진달래와 철쭉 가득한 사다리꼴
- 여름 : 구룡소 가는 길의 울창한 송림과 깨끗한 물
- 가을 : 오색 단풍의 바다를 이룬 비로봉
- 겨울 : 설경의 장관을 이룬 남대봉, 향로봉

사진명소

- 세림폭포 : 국립공원공단이 A급 코스로 분류한 등산로.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는 곳
- 비로봉 : 세 개의 돌탑과 발 아래 펼쳐지는 첩첩 산 물결을 조망할 수 있음
- 상원사 : 치악산의 남쪽 끝 남대봉(1,182m) 기슭에 있는 절로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고지대의 사찰

주요등산로

- ❶ 치악산국립공원 황골탐방지원센터 → 비로봉 → 구룡사
치악산국립공원 황골탐방지원센터 → 입석사 → 쥐너미재 전망대 → 비로봉 황장금표 → 비로봉 → 세림폭포 → 구룡사 → 구룡사매표소 → 국립공원치악산관리사무소
- ❷ 치악산국립공원 행구탐방지원센터 → 향로봉 → 치악산국립공원 성남탐방지원센터
치악산국립공원 행구탐방지원센터 → 보문사 → 향로봉 → 상원사 → 상원사 주차장 → 치악산국립공원 성남탐방지원센터
- ❸ 치악산국립공원 부곡탐방지원센터 → 비로봉
치악산국립공원 부곡탐방지원센터 → 비로봉 → 비로봉 황장금표 → 헬기장

📷 사계

📷 명소



치악산 설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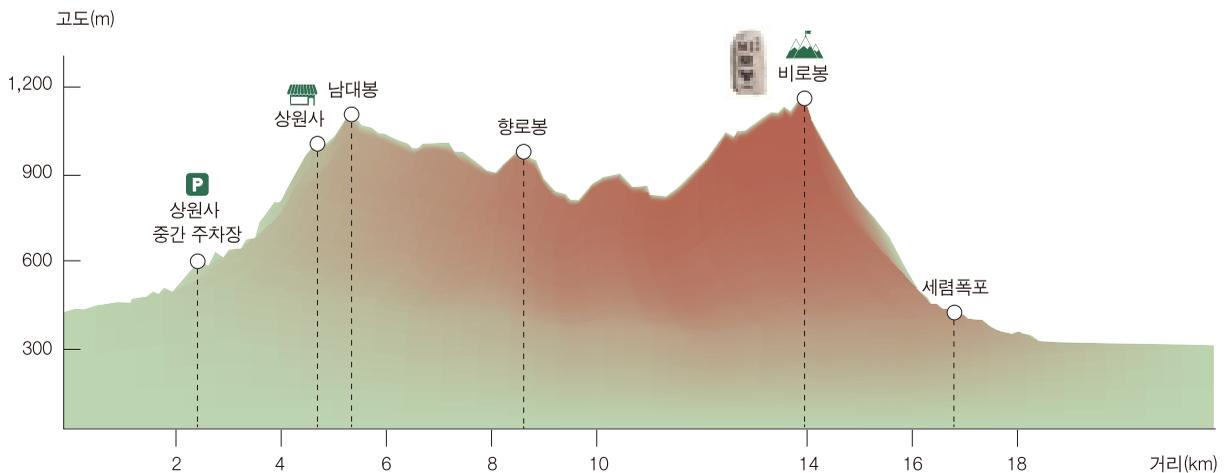
세림폭포



비로봉



상원사



주변관광지

구룡사(龜龍寺)

원주8경 중 제1경, 천년의 고찰

치악산국립공원에 자리잡고 있으며 고찰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주변 소나무 숲의 푸른 절개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명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도 진행하고 있음



원주 법천사지

고려시대에 가장 번창했던 사찰의 터



명봉산 기슭에 있는 통일신라 시기에 창건된 법천사의 사찰터. 2005년 대한민국의 사적으로 지정. 현재 절터에는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연화문대석, 석탑재 등이 있고 절터 남쪽 약 800m 지점에는 높이 280cm로 완전한 형태의 신라시대 당간지주가 남아 있음. 국보 지광국사탑도 법천사지로 돌아옴

강원감영

조선왕조 500년 강원감영

원주시 도심에 위치. 다른 지역의 감영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전했던 것과는 달리 조선왕조 500년 동안 원주에만 있었다는 사실에서 역사적으로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곳. 현존하는 감영 가운데 감영의 중심건물인 선화당(각 도의 관찰사가 집무하는 정당)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



함께 가 볼 만한 곳



반계리 은행나무



용소막성당

반계리 은행나무

원주시 문막읍에 소재한(1964. 01. 31. 천연기념물로 지정) 나무로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으나, 대략 8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 오랜 세월을 크고 균형 있게 잘 자란 이 나무는 은행나무 중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가을 단풍철에는 일대 장관을 선사하는 곳

용소막성당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작은 성당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곳. 강원특별자치도에 세 번째로 설립된 성당. 마치 명동성당의 축소판같이 고딕양식의 붉은 벽돌 건물로 지어져 한쪽의 그림 같은 풍경으로 엄숙하고 근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음

치악산둘레길

‘치악산둘레길’은 치악산 국립공원 외곽을 한 바퀴 걸을 수 있는 장거리 트래킹코스. 총 거리 약 140km로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을 경유하며 산길, 임도, 마을길, 들길 등 국형사, 구룡사, 태종대, 짜리치 등 코스 내 관광 명소도 만날 수 있으며 모두 11개 구간으로 구성



충남 알프스의 주봉
일곱 개의 명당을 감추다

칠갑산 七甲山



청양군청

위 치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정산면·장평면

높 이 559.7m

관리주체 청양군

개요

칠갑산은 충청남도 청양군의 중앙부에 위치한 산이다. 높은 산은 아니지만 이 산을 중심으로 사방 50리 근방에서 가장 높다. 크고 작은 봉우리와 계곡을 지닌 명산으로 자연 그대로의 울창한 숲을 지니고 있다. 197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크고 작은 봉우리와 계곡을 지닌 명산

산정에서 방사상으로 뻗은 능선이 면계를 이룬다. 북쪽으로 한치고개를 지나 대덕봉(大德峰 472m), 동북쪽으로 명덕



칠갑산 전경



칠갑산 정상석



칠갑산 등산로

봉(明德峰 320m), 서남쪽으로 정혜산(定惠山 355m) 등과 이어진다. 따라서 하계망도 방사상을 띤다.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정산면·장평면에 걸쳐 있다.

서북쪽의 대치천(大峙川), 서남쪽의 장곡천(長谷川)·지천(芝川), 동남쪽의 잉화달천(仍火達川), 남쪽의 중추천(中秋川), 동북쪽의 잉화천(仍火川) 등은 금강의 상류부 지류들이다. 계곡은 깊고 사면은 급하며 지형윤화단계에서 장년기(壯年期) 초기에 해당하는 지형이 대부분이다. 계곡에 퇴적된 암설(岩屑: 풍화 작용으로 파괴되어 생긴 바위 부스러기)은 조대(粗大)하며 사면도 암설로 덮여 있는 곳이 많다. 지형조건은 정상에서부터 산능선이 방사상으로 뻗어나가 사면이 급하고 계곡은 깊은 편이며, 비교적 두꺼운 토양층으로 덮여 있다. 또한 계

곡의 크기에 비하여 유량이 부족한 편이다. 칠갑산에서 흘러내리는 계류들은 맑은 계류와 자연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승을 이루어 지천구곡(芝川九曲)을 형성한다.

명칭유래

칠갑산은 산정을 중심으로 산줄기가 일곱 군데로 뻗어 있으며, 또한 금강의 상류인 지천천(芝川川)과 잉화천(仍火川)을 보고 일곱 군데의 명당자리가 있다고 하여 칠갑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본래의 명칭은 칠악산(七岳山)으로 알려졌다.

칠갑산의 사계

- 봄 : 벚꽃 터널길
- 여름 : 맛있는 바람, 솔바람 길
- 가을 : 단풍색이 짙고 깊은 장곡로
- 겨울 : 예쁜 빙벽 칠갑산 얼음분수

사진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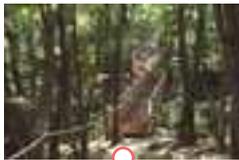
- 아흔아홉골 : 많은 계곡과 산봉우리로 이뤄진 칠갑산의 대표적인 자연 경관
- 천장호 출렁다리 : 칠갑산 끝자락에 자리한 호수로 국내 최대 길이를 자랑
- 용호장군 잉태바위 : 예부터 출산 등 소원을 기원하면 성취된다고 알려진 천년의 전설을 간직한 바위

주요등산로

- 1 칠갑 주차장 → 칠갑산(정상) → 천장호 출렁다리
칠갑 주차장 → 칠갑광장휴게소 → 칠갑산 천문대 → 칠갑산(정상) → 천장호 출렁다리 → 천장호출렁다리 입구 → 천장리(버스정류장)
- 2 장곡 주차장 → 칠갑산(정상) → 청양 장곡사
장곡 주차장 → 청양 알프스공원 → 삼형제봉(칠갑산) → 칠갑산(정상) → 청양 장곡사 → 칠갑산 장승공원
- 3 칠갑산자연휴양림 → 이정표
칠갑산자연휴양림 → 칠갑산수련원 → 이정표
- 4 도림(버스정류장) → 칠갑산(정상)
도림(버스정류장) → 도림사지~정상 간 등산로 입구 → 도림사지 삼층석탑 → 칠갑산(정상)

📷 사계

📍 명소



시원한 여름 등산로



아흔아홉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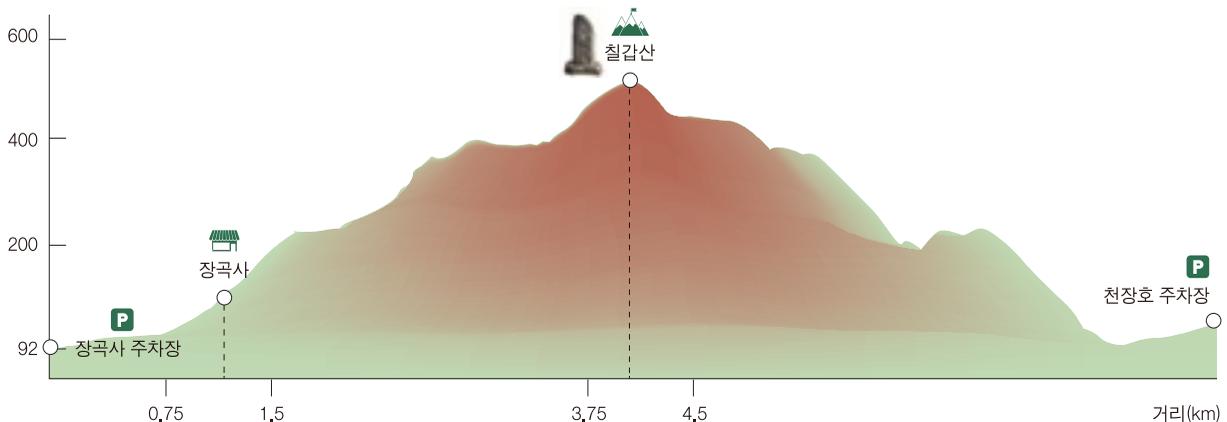


천장호 출렁다리



용호장군 잉태바위

고도(m)



주변관광지

장곡사 (長谷寺)

칠갑산 남쪽기슭에 자리한 고찰



다른 사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하 대웅전이 있으며, 약사여래기도 도량으로도 널리 알려진 곳.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귀중한 문화재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천년고찰. 장곡사 벚꽃길은 나선형 도로와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길 100선에 꼽힘

칠갑산 장승공원

장승 350여 개가 재현되어 있는 테마공원

장승에 대한 각종 전설과 유래가 많은 곳으로 수백년 전부터 장승제를 올려오는 등 이미 한국 최고의 장승문화 보존지역으로 알려진 고장. 전국 최대의 칠갑산 대장군과 칠갑산 여장군(높이 11.5m)이 있고, 전국의 장승이 재현되어 있는 민속학습장



지천구곡

아흔아홉 굽이에 숨은 아홉가지 경관



칠갑산에서 발원하여 어울하천, 작천, 지천, 금강천이 협곡과 아름다운 산수경을 이루는데, 흐르는 물굽이가 기묘하고 기암괴석이 아름다워 지천구곡이라 칭함

함께 가 볼 만한 곳



모덕사



고운식물원

천장호 출렁다리

2009년 개설된 청양의 명물로 총 길이 207m. 천장호는 동쪽으로 뻗어 내린 칠갑산 자락 끝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로 청양명승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출렁다리를 건너면 전망대와 칠갑산으로 향하는 등산로로 연결됨

모덕사

조선후기 학자이며 충신이었던 면암 최익현 선생(1833 ~ 1906)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과 유물관, 생가가 있는 곳. 문화재자료. 고종 황제가 내린 밀지의 구절에서 모(慕)자와 덕(德)자를 취해 모덕사라 칭해짐

고운식물원

자연이 주는 쉼을 즐길 수 있는 힐링장소일 뿐만 아니라 광릉요강꽃 등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물 35종을 돌보고 있는 생물자원보전 장소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식물원

구 — 흥

태백산 / 태화산 / 팔공산 / 팔봉산 / 팔영산 / 한라산 / 화악산 / 화왕산
황매산 / 황석산 / 황악산 / 황장산 / 희양산

등을 밀어준 사람

그것은 손끝이었네
손가락 끝
사알짝
댄 듯 만 듯

무너지듯 주저앉아
아이처럼
서럽게 울고 싶던
숨막히는 오르막길

그 산을 넘는 힘은
누군가의 손끝이었네
고요히 등 뒤에서
살짝만 밀어주던

고창영



증후한 웅장함으로 하늘과 땅을 아우른다

태백산 太白山



태백산국립공원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높 이 1,566.7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태백산국립공원), 태백시, 봉화군

개요

설악산·오대산·함백산 등과 함께 태백산맥의 영산으로 불린다. 최고봉인 장군봉과 문수봉을 중심으로 비교적 산세가 완만하며 웅장하고 장중한 맛이 느껴지는 산이다. 태백산도립공원으로(1989. 05. 13.) 지정되었다가 22번째 국립공원으로(2016. 08. 22.) 지정되었다.

자연환경

민족의 영산이자 명산

태백산은 한반도 이남에서는 젓줄이 되는 뿌리 산으로 천제단이 있는 영봉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장군봉, 동쪽



태백산 전경



태백산 정상석



태백산 주목 군락지

으로는 문수봉, 영봉과 문수봉 사이에 자리한 부쇠봉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높은 봉우리는 태백시의 서쪽에 있는 함백산(1,572m)이다.

태백산은 경치가 아름답고 만경대·상일사·백단사·백련암 등의 사찰을 품고 있다. 만경대에서는 해 뜨는 동해 바다가 잘 내려다 보인다.

매년 6월 초에는 태백산철쭉제가 열리고 1월 말에는 태백산눈축제가 개최된다. 또한, 1991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태백산 천제단을 비롯하여 1995년 강원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태백산 석장승, 2010년 대한민국 명승으로 지정된 태백 검룡소 등의 문화자원 3점을 포함하

고 있어 생태·경관,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명칭유래

태백산은 ‘크게 밝은 피’이며 ‘한밤달’로 부르는 단군신화와 연관이 있다. 하늘을 상징하는 것은 태양이며 태양은 밝은 빛을 의미하니 천신자손(天神子孫)인 우리민족을 밝은 민족(白民)이라 하였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산을 밝은 산이라 하였다. 밝은 산(白山)에 제사 지내는 풍습을 가진 우리민족을 배달겨레라 하였다. 태백산은 밝은산 가운데 가장 크게 밝은 산이라는 뜻이다.

태백산의 사계

- 봄 : 산철쭉, 진달래 군락지가 맞아주는 등산로
- 여름 : 울창한 수목과 차고 깨끗한 계곡물
- 가을 : 고원에 온 가을 단풍 축제
- 겨울 : 천년 주목 군락의 눈부신 설경

사진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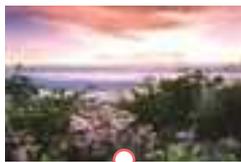
- 주목 군락지 : 수령 500년 이상 된 우리나라 주목 서식지 중 가장 큰 군락지
- 검룡소 : 용이 트림을 하는 것 같다는 ‘용의 트림’
- 천제단 : 국가 지정 중요민속자료.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설치한 제단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꼭대기에 큰 제단

주요등산로

- ① 태백산국립공원 유일사탐방지원센터 → 장군봉 → 태백산(정상)
태백산국립공원 유일사탐방지원센터 → 태백사 → 유일사 → 장군봉 → 태백산(정상)
- ② 청원사 → 태백산(정상) → 백단사 입구
청원사 → 태백석탄박물관 → 태백산 단군성전 → 너래폭포 → 대한불교조계종 망경사 → 태백산(정상) → 약수암 → 백단사 입구
- ③ 백천탐방지원센터 → 태백산(정상)
백천탐방지원센터 → 문수봉등산로 → 부쇠봉 → 태백산(정상)
- ④ 금천주차장 → 태백산(정상)
금천주차장 → 탐방로안내 → 소문수봉 → 문수봉 → 부쇠봉 → 태백산(정상) → 문수봉

📷 사계

📍 명소



봄에 핀 태백산 철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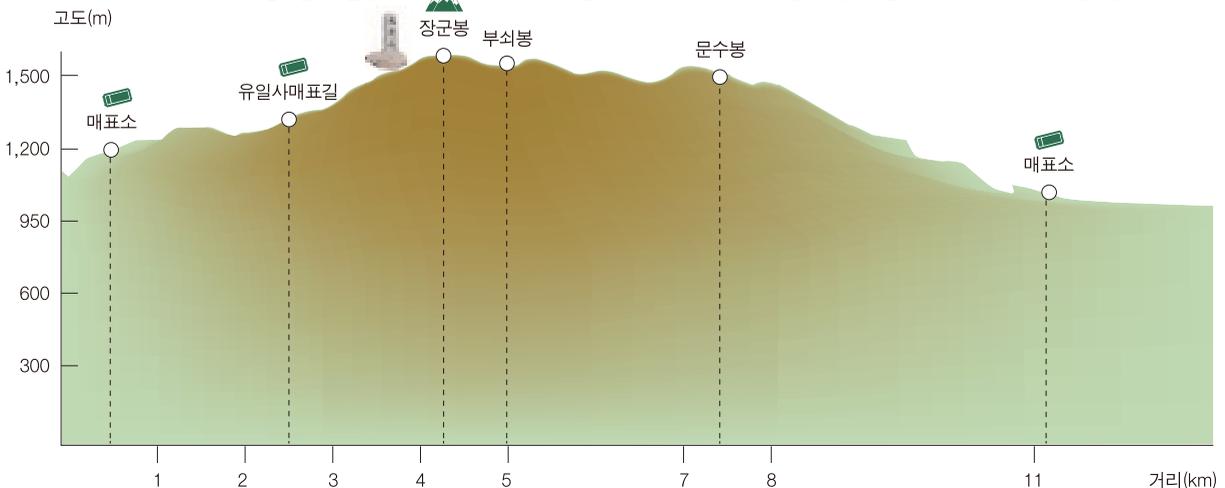
주목 군락지



검룡소 용의 트림



천제단



 주변관광지

 오로라파크

태백의 밤하늘을 주제로 꾸며진 곳

폐역인 통리역에 조성된 문화체험공원. 파크 내에선 갯차도 체험, 백두대간 및 동해안 지역의 산세를 조망할 수 있는 눈꽃 전망대는 높이 49.2m로 태백시 유일의 타워 전망대. 세계의 고원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기차역을 직접 둘러보고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가상공간



 태백석탄박물관

산업과 문명을 발전시킨 석탄 재조명

 한국 석탄산업의 변천사와 석탄생성의 과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동양 최대의 석탄전문 박물관. 근대화의 역군이었던 광산 근로자들의 업적을 되새기고 석탄산업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설립. 남한 최초로 석탄이 발견되어 국가 산업발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태백시 석탄산업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음

 용연동굴

약 3억 년전부터 생성된 석회동굴

해발 980m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국내 최고 높은 지역에 자리한 국내에서 유일한 건식 동굴. 동굴 내부에는 종유석과 석순 등 다양한 동굴 속 생물물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에는 길이 130m, 폭 50m, 높이 30m 이상의 대규모 광장이 위치



함께 가 볼 만한 곳



두문동재 분주령



황지연못

● 두문동재 분주령

1993년 환경부 지정 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멸종위기 야생식물 7종을 비롯 500여 종의 다양한 희귀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 자원의 보고, 완만한 능선으로 이루어진 최대 야생화 군락지

● 황지연못

『동국여지승람』이나 『대동지지』 등의 옛 문헌에서도 나타나듯 황지연못은 낙동강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연못으로, 못에서 솟아나는 물이 드넓은 영남 평야로 유유히 흘러감

● 검룡소

검룡소는 용신이 사는 못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 가는 길은 아이와 함께 산책 삼아 걷기에 좋은 평탄한 비포장길로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음



남한강을 휘감고
부드러운 능선길이 이어지다

태화산 太華山



영월군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김삿갓면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높 이 1,027.5m

관리주체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김삿갓면과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 태백산맥의 줄기인 내지산맥에 속하며 산세가 험하지 않은 편이라 다양한 연령대의 등산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자연환경

사계절 변화무쌍한 능선길, 가족산행지로 적격

북서쪽에 국지산(菊芝山 626m), 동북쪽에 응봉산(鷹峰山 1,013m), 동남쪽에 마대산(馬岱山 1,052m) 등이 있다. 산의 북쪽에서 동쪽을 거쳐 남쪽까지 남한강이 감싸안아 흐른다. 북쪽



태화산 전경



태화산 능선



태화산과 남한강

약 7km 지점에는 영월읍이 있다. 남한강변 각동리 길론골 절벽에는 196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영월 고씨굴이 있다. 고씨굴 건너편의 나루터였던 진별리 나루두둑마을은 최근 고씨굴과 연결되는 다리가 놓였다.

남한강이 산자락을 휘감아 흐르고 있는 태화산은 4억 년의 신비를 간직한 고씨동굴이 있으며 이곳의 사계절 변화무쌍한 부드러운 능선길은 아름다운 비경을 자랑한다. 주봉인 태화봉을 중심으로, 서쪽에 의상봉, 동쪽에 오봉산이 솟아 있고 산세가 웅장하고 수려하여, 조선 시대에는 왕실의 사냥터로 사용되기도 했다. 산의 기슭에는 문썩처럼 생겼다 하여 문바위라 부르는 큰 바위가 있고 그 뒤에는 둥글고 넓은 너럭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대여섯

사람이 비를 피할 수 있는 방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잘바우라 한다. 태화산을 오르다 보면 기암괴석과 폭포 등 다양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명칭유래

태화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대화산(大華山)으로 되어 있으나, 대(大)와 태(太)는 혼용하기도하므로 태화산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태화산이 있는 흥월리(興月里)는 근래에 새로 만든 지명인데, 흥교(興教)와 월휴리(月休里)에서 각기 한 글자씩 따와서 만든 이름이다.

태화산의 사계

- 봄 : 소복하게 피어난 진달래를 안고 있는 듯 편안하게 어울리는 경관
- 여름 : 하늘까지 닿을 듯 솟은 고목 소나무의 푸르름
- 가을 : 아담한 억새밭의 가을바람
- 겨울 : 고사목에 내려앉은 겨울 눈꽃의 정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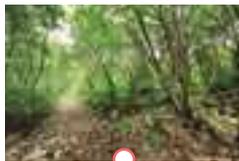
사진명소

- 문바위 : 문짝처럼 생겨서 부르는 이름의 큰 바위
- 너럭바위 : 둥글고 넓은 바위로 대어섯 사람이 비를 피할 수 있는 방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잘바우라 함
- 태화산성 : 삼국시대 치열했던 역사현장으로 남한강 상류에 있는 성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

주요등산로

- 1 홍교 태화산농장 → 태화산(정상) → 고씨동굴
홍교 태화산농장 → 태화산(정상) → 고씨동굴
- 2 남한강북벽펜션 → 태화산(정상) → 큰골(버스정류장)
남한강북벽펜션 → 화장암 → 세이봉 → 태화산(정상) → 큰골삼거리 → 큰골(버스정류장)
- 3 큰골(버스정류장) → 태화산(정상) → 태화산입구(버스정류장)
큰골(버스정류장) → 큰골삼거리 → 태화산(정상) → 태화산성 → 태화산입구(버스정류장)
- 4 화산골 → 화장암 → 태화산(정상)
화산골 → 화장암 → 세이봉 → 태화산(정상)

- 📷 사계
- 📍 명소



태화산의 여름



문바위



너럭바위



태화산성



 주변관광지

 **고씨굴**

4억 년의 신비를 자랑하는 동굴

196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학술적, 자연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동굴. 비공개 구간에서 자라는 흑색을 띠는 동굴생성물은 고씨굴만의 자랑



 **장릉**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의 능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청령포에 유배되었다가 17세에 죽임을 당하여, 그 주검이 동강에 버려졌던 비운의 왕. 후환이 두려워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데 영월호장 엄홍도가 그 시신을 거두어 지금의 장릉에 모셨으며, 이후 숙종 때인 1698년에 이르러 단종이 왕으로 복위되고 왕릉으로 정비되면서 묘호를 단종, 능호를 장릉이라 함. 단종역사관이 있고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선돌**

푸른 강과 층암절벽이 절경을 이루는 곳

영월읍 방절리 서강 안에 절벽을 이룬 곳에 위치하는 마치 큰 칼로 절벽을 쪼개 내리다 그친 듯한 형상을 이룬 입석으로 푸른 강과 층암절벽이 어우러져 마치 한쪽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줌



함께 가 볼 만한 곳



청령포



어라연

● **청령포**

영월군 남면 광천리 남한강 상류에 위치.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된 단종이 머무르던 곳. 아름다운 송림이 뺨뺨이 들어차 있고 서쪽은 육륙봉이 우뚝 솟아 있으며 삼면이 깊은 강물에 둘러싸여 나룻배를 이용하지는 않고 출입할 수 없는, 마치 섬과도 같은 곳. 수려한 절경으로 인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

● **어라연**

하천지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천혜의 보고. 영월읍에 있는 명승지. 동강 상류에 속하며 동강의 맑은 비경 중에서도 가장 경치가 빼어나기로 유명하고 2004년 명승으로 지정. 예로부터 강물 속에 뛰노는 물고기들의 비늘이 비단같이 빛난다 하여 '어라연'이라 이름이 붙었음

● **요선암 돌개구멍 & 요선정**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주천강 화강암반 위에 형성된 지형. 요선암 돌개구멍(Pothole) 암석에 구멍이 동그랗게 파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사암이나 화강암과 같은 단단한 암석에 잘 만들어지며, 이곳은 흑운모 화강암임. 위 쪽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로 등록되어있는 요선정에서 내려다보는 조망도 좋음



원호 구도의 길을 따라
하늘정원에 다다르다

팔공산

八公山



팔공산국립공원

위 치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영천시, 군위군, 칠곡군, 경산시

높 이 1,192.3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팔공산국립공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개요

대구광역시 동구, 군위군과 경상북도 영천시의 경계부에 있는 산으로 1980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202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다.

자연환경

전설과 역사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져 만드는 경건한 아름다움

팔공산은 태백산맥의 보현산(普賢山 1,124m)에서 서남쪽으로 연결된 산이다. 최고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봉(東峰)과 서봉(西峰)이 양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으로 솟아 있다. 팔



팔공산云海



팔공산 가을



팔공산 케이블카

공산을 중심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에 형성된 환상(環狀)의 산지는 이른바 팔공산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구분지의 북부를 병풍처럼 가리고 있다.

팔공산은 대구광역시의 중심에서 북동 방향으로 약 20km 지점에 태백산맥이 남으로 힘차게 내딛다가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곳에 우뚝 멈추어 장엄하게 솟은 산으로 정상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봉(일명 미타봉 1,155m)과 서봉(일명 삼성봉 1,150m)이 어깨를 나란히 자웅을 겨루고 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속하고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등 4개 시군을 경계로 총면적이 30.593㎢이다. 또한 불교문화의 중심지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찰이 산재해 있

고 많은 기암과 계곡이 있으며 연중 볼거리가 풍부한 명산이다.

명칭유래

팔공산의 옛 이름은 공산·부악(父岳)이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중악(中岳)에 비겨 중사(中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중악’이나 ‘공산’의 명칭은 『삼국유사(三國遺事)』,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의 기록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공산’은 현재의 팔공산을 칭하는 것이고, ‘중악’이라는 것은 신라 오악(五岳)의 하나로 불리던 명칭이었다.

팔공산의 사계

- 봄 : 팔공산 벚꽃 축제
- 여름 : 무더위를 잊게 하는 팔공산 케이블카
- 가을 : 온 산을 붉게 물들인 늦가을 단풍
- 겨울 : 하늘정원 가는 길에 피어난 멋진 눈꽃행렬

사진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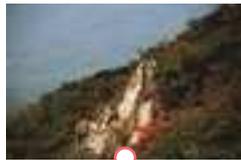
- 갯바위 : 보물로 지정된 관봉석조여래좌상 앞에서 정성스레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로 사시사철 붐비는 곳
- 동봉 석조여래입상 : 동봉으로 가는 길에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석조여래입상 약사불
- 하늘정원 : 팔공산 정상 비로봉에 꾸며진 정원

주요등산로

- 1 동화사 입구 → 비로봉
동화사 입구 → 팔공산 인공암벽장 → 스카이라인 → 대구팔공산 마애약사여래좌상 → 비로봉 → 동봉 → 염불암 → 대구 동화사 염불암 마애여래좌상 및 보살좌상 → 동화사 → 동화사 정보박물관
- 2 팔공산 수태골 등산로 → 부인사
팔공산 수태골 등산로 → 낙타봉 → 대구 팔공산 마애약사여래좌상 → 대구 팔공산 동봉 석조약사여래입상 → 부인사
- 3 동화사 → 동봉 → 팔공산 인공암벽장
동화사 → 대구 동화사 염불암 마애여래좌상 및 보살좌상 → 동봉 → 팔공산 동봉석조여래입상 → 스카이라인 → 팔공산 인공암벽장

📷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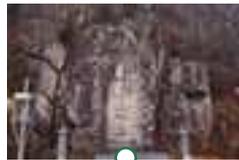
📷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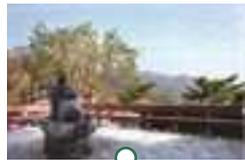
팔공산 단풍



갯바위



동봉 석조여래입상



하늘정원



주변관광지

동화사 (桐華寺)

수려한 자연과 소중한 문화재를 담은 사찰



팔공산의 동학동 골짜기에 자리잡고 있는 유서깊은 신라 고찰. 493년 창건 당시는 유가사라 하였으나, 그 뒤 832년에 중창하면서 겨울철임에도 절 주위에 오동나무 꽃이 만발하였다고 동화사로 고쳐 불렀다고 전해짐

은해사 (銀海寺)

영천9경 중 1경, 신라 천년 고찰

신라 헌덕왕 원년에 창건된 사찰로서 백홍암, 운부암, 중암암 등 8개의 암자를 거느린 천년 고찰. 영천시 팔공산 동쪽 기슭에 자리잡아 수려한 산세와 계곡이 아름다워 등산이나 산책을 즐기며 둘러 보기에 좋은 곳



팔공산 케이블카

팔공산과 대구 시내 전경 전망



해발 820m까지 편안하게 올라가 팔공산과 대구 시내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음. 케이블카 정상역 주변에는 산책로, 등산코스, 전망대, 소원의 언덕, 사랑의 터널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달성공원



수성못유원지

달성공원

연못빛 신록으로 빛나는 숲.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심 공원으로서 옛 토성과 관풍루 등의 문화유적이 있고, 대구 유일의 동물원이 있어 가족여행객에게 인기가 많음. 대구 시민의 추억이 깃들여 있는 문화유산의 공간

수성못유원지

주변의 완만한 산지와 수성못을 끼고 자연의 경관미를 보여주는 유원지. 시민을 위한 수변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며 연중 풍부한 경관을 연출.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해 가족나들이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적격

임고서원

고려 말 충신이자 유학자인 정몽주를 기리는 사액서원으로 경상북도기념물로 지정된 곳. 서원 내에는 포은유물관, 조용대, 선죽교, 충효문화수련원 등이 있음



산과 강을 동시에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다

팔봉산

八峰山



홍천군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

높 이 328.2m

관리주체 홍천군

개요

해발 328m의 나지막한 산으로 여덟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홍천8경의 하나이다. 여덟 봉우리마다 비경과 기암괴석이 산허리를 감싸고 홍천강이 삼면을 둘러싸고 있다.

자연환경

작지만 강단 있는 여덟 봉우리

=산은 300m가 조금 넘는 낮은 산이지만 바위와 암벽이 많고 능선이 험하여 산행시간이 많이 걸린다. 여덟 봉우리가 모두 바위로 되어 있어 하늘금이 둥근 툇날처럼 역동적이고 스릴이 넘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산이지만



팔봉산 암릉



멀리서 바라 본 팔봉산



팔봉산 초입

대개의 등산객들은 팔봉을 다 넘지 못한다. 철계단과 쇠줄까지 있는데도 마지막 봉우리는 포기하고 돌아서기 쉽상이다. 작아도 강단 있는 산이다.

등산로가 기암과 절벽 사이에 있어 재미있는 등산이 가능하다. 또한 팔봉산을 안고 흐르는 홍천강이 있어, 등산의 즐거움과 강변의 여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동쪽 봉우리를 1봉이라고 하고 서쪽 물가의 끝봉을 8봉이라고 한다. 2봉에는 삼부인당(三婦人堂)이라는 당집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안녕과 질병이나 재액, 풍년과 흉년을 주재하는 세 여신을 모신다. 3봉은 높이가 가장 높고 4봉에서는 홍천강과 삼악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8봉은 가장 험한 코스로 가파른 암릉으로 올라갔

다가 다시 내려와야 하는데 이때 급경사에 로프를 잡고 내려와야 한다.

팔공산 정상인 비로봉은 출입이 통제되어 오를 수 없다. 그러나 나란히 있는 동봉과 서봉은 등반이 가능하다. 동봉에서는 사방 전망이 좋고, 서봉은 북서쪽 골바람의 영향으로 눈이 내리지 않는 날에도 상고대 형성이 잘 되어 운이 따른다면 환상적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명칭유래

봉우리가 여덟 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 이 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 홍천현 편에 ‘탄 이름은 감물악(甘勿岳)’이다. 『관동지』에는 감물악 별칭을 한자로 ‘감물악(甘勿嶽)’으로 기

록하고 있다.

팔봉산의 사계

- 봄 : 운무에 싸인 암봉과 초록의 조화
- 여름 : 8봉 하산 후 홍천강 강변의 벼랑길에서 느끼는 바람
- 가을 : 능선을 따라 펼쳐지는 붉은 단풍
- 겨울 : 여덟 봉우리와 어우러진 설경

사진명소

- 2봉 전망대 : 팔봉산 2봉에 오르면 설치되어 있는 철 판으로 된 전망대
- 해산굴 : 4봉을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굴로 산모의 고통을 체험하는 것이 해산굴의 묘미
- 정상 : 홍천강 줄기가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

주요등산로

동팔봉산 관광지 → 팔봉산(정상) → 8봉
 팔봉산 관광지 → 팔봉산등산 안내센터 → 팔봉산
 등산로 입구 → 해산굴 → 팔봉산(정상) → 8봉

산행 tip!

야영 중에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물이 밀려들 때에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말고 신속히 대피하여야 함.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교량)는 절대로 건너지 말아야 함

📷 사계

📍 명소



강변의 벼랑길



2봉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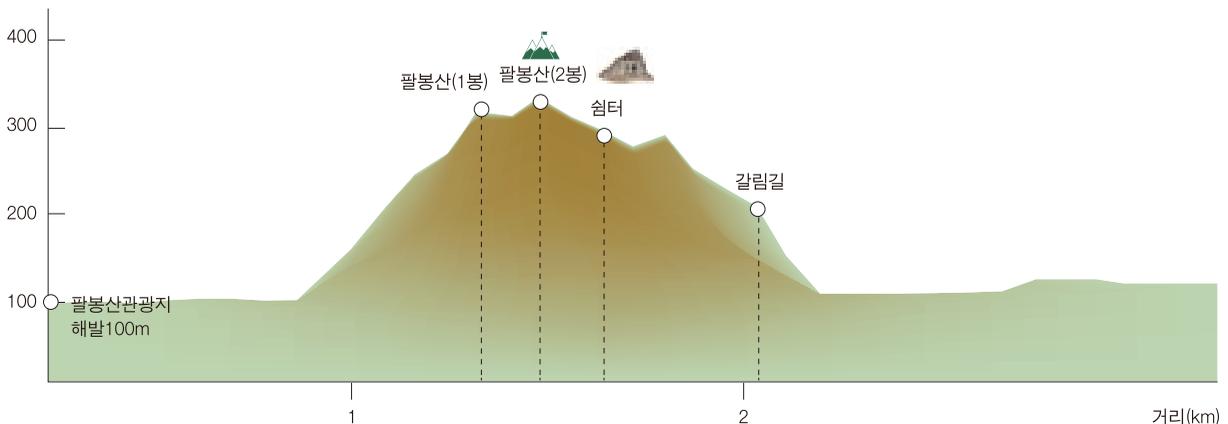


해산굴



정상

고도(m)



👁️ 주변관광지

📍 홍천강오토캠핑장

홍천군청에서 관리하는 홍천강오토캠핑장

충분한 그늘 수목을 식재하고 홍천강까지 데크가 연결 되어 있어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홍천강이 굽이치고 있어 주변관광을 즐길 수 있음. 또한 인근에서 홍천강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 캠핑과 수상레포츠 일석이조의 즐거움.



📍 홍천 하이트 공장

첨단 설비와 완전 자동시스템을 갖춘 환경 친화형 공장



물이 맑고 깨끗한 공기로 유명한 홍천 도둔산 백두대간 자락에 위치한 환경 친화 공장. 전시장 곳곳에 예술작품이 전시되어 단순한 맥주 공장이 아닌 홍천의 문화공간으로서 그 구실을 독특하고 있음

📍 소노벨 비발디파크

사계절 내내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복합레저 공간

매봉산 자락에 자리한 종합레저 단지로 스키월드, 정규골프장CC, 오션월드, 퍼블릭골프장 등 각종 부대시설과 2,600여 객실을 갖추고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팔봉참살이마을



홍천 은행나무숲

● 팔봉참살이마을

깨끗한 공기와 자연이 가득한 힐링마을. 대다수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깨끗한 공기와 자연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

● 밤별유원지

홍천강 유원지로 널리 알려진 밤별 강변은 모곡 명사십

리라고도 부르며, 유난히 모래가 곱고, 빛깔이 깨끗한 곳. 오토캠핑장과 물놀이하기 좋은 강가는 무료. 홍천 노지 캠핑지로 알려지면서 캠퍼들의 인기를 얻고 있음

● 홍천 은행나무숲

노란빛 일렁이는 비밀스런 가을 명소. 국내 최대 규모의 은행나무숲으로 개인이 가꾸놓은 사유지. 은행나무숲은 5m 간격으로 은행나무만 2,000그루가 심어져 있음. 2010년부터 1년 중 딱 10월에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인들에게 개방됨



여덟 봉우리가
다도해의 푸른 빛과 만나다

팔영산

八影山



산림청

위 치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영남면

높 이 606.9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 팔영산지구)

개요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1998. 07. 30.) 중앙의 성주봉(聖主峯)을 비롯해 유영봉(幼影峯)·팔응봉(八應峯)·월출봉(月出峯)·천주봉(天主峯) 등 8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편입됐다.

자연환경

빼어나면서도 웅장한 산세

고흥10경 가운데 으뜸인 팔영산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봉우리가 병풍처럼 이어지며 다도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



팔영산 전경



정상에서 보이는 다도해



팔영산 8봉

는 산이다. 팔영산은 백두대간에서 뺏어 내려온 산줄기의 남쪽 끝자락으로, 고흥반도의 동쪽에 있으며 북서면의 경사가 다소 급한 편으로 해발 400m 이상의 정상부는 암석이 노출되어 절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북쪽 사면으로는 8개의 암석 봉우리가 있다. 이 8개의 봉우리는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서부터 제1봉으로 간주하여 가장 높은 곳에 제7봉이 위치하고 제8봉은 고도가 조금 낮은 곳에 있다.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와 함께 호남 4대 사찰로 꼽히던 능가사를 비롯하여 경관이 빼어난 신선대와 강산폭포 등 명소가 많다. 북서쪽 기슭에 있는 능가사는 1천 5백여 년 전 이도(阿道)가 세워 처음엔 보현사라 했던 것을 정현이 인도의 명산을 능가한다 하여 능가사라 이름을 바꿨

다고 한다.

명칭유래

팔영산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금닭이 울고 날이 밝아 햇빛이 바다 위로 떠오르면 이 산의 봉우리가 마치 창과에 떨어진 인쇄판 같은 모습을 보여 ‘영(影)’자가 붙었다는 설, 또는 세숫대야에 비친 여덟 봉우리의 그림자를 보고 감탄한 중국의 위왕이 이 산을 찾았다고 명하였는데, 신하들이 고흥에서 이 산을 발견한 것에서 유래하였다는 설 등이 있다.

팔영산의 사계

- 봄 : 능가사에 고즈넉하게 내려앉은 봄꽃
- 여름 : 암봉 사이로 일렁이는 초록물결
- 가을 : 여덟 봉우리를 연결하는 형형색색 단풍
- 겨울 : 깃대봉에서 바라보는 눈 내리는 다도해

사진명소

- 두류봉 : 다도해 절경을 볼 수 있는 봉우리
- 통천문 : 산 정상 주변 바위 틈으로 난 바위굴
- 능가사 : 삼국시대 고구려의 아도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고흥을 대표하는 사찰이자 문화유산

주요등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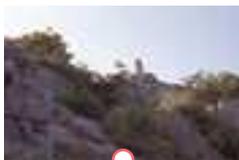
- ① 평촌 → 팔영산 8봉 → 선녀봉
 평촌 → 고흥 능가사 추계당 및 사영당 부도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팔영산자동차
 야영장 → 팔영산 8봉 → 선녀봉 → 선녀1봉
 → 팔영산 선녀봉경유입구
- ② 남포미술관 → 팔영산(정상) →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사무소
 남포미술관 → 팔영산(정상) → 적취봉(8봉)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산행 Tip!

밝은 색의 옷이나 헤어스프레이, 향수 등은 곤충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피하고, 남은 음식도 꼭 덮어놓아서 벌레들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해야 함

📷 사계

📍 명소



암봉사이 초록물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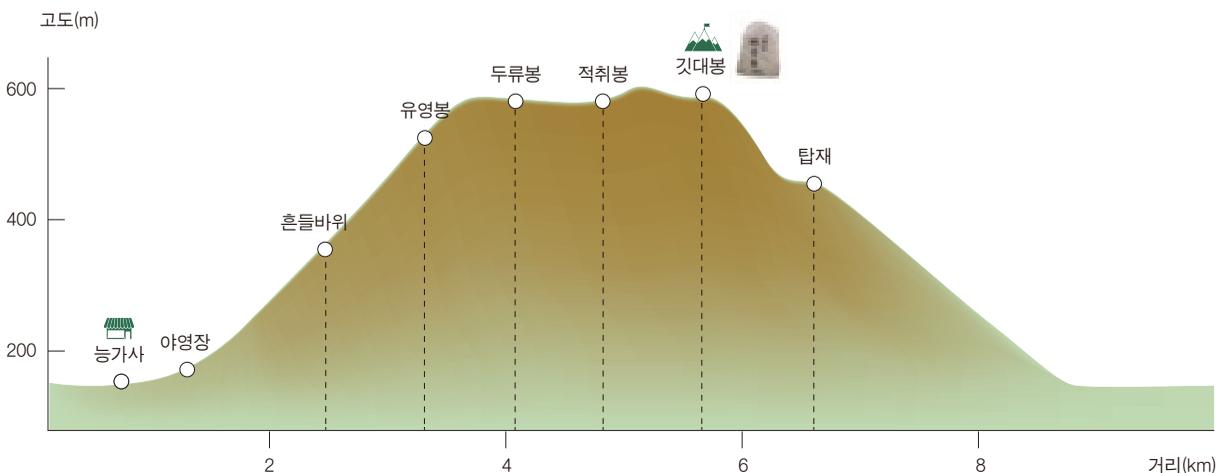
두류봉



통천문



능가사



 주변관광지

 **고흥 나로우주센터**

세계 13번째 우주센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나로도 2개의 섬 중 외나로도에 위치. 나로 우주 센터와 나로호의 이름이 이 섬에서 유래됨. 상설 전시장과 3D 입체 영상관, 4D 동영상관, 야외 전시장도 갖추어 우주 과학기술 관련 교육 및 다양한 체험 학습 가능

 **예술의 섬 연흥도**

지붕없는 예술관이라 불리는 예술의 섬

오래된 후박나무가 만드는 그늘, 해안을 따라 늘어선 아기자기한 조형물, 골목골목 자리한 담장 벽화, 그리고 섬 전체를 관통하는 유쾌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이 되는 곳. 섬 곳곳에 위치한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해안 돌레길에서 바라보는 노란 등대, 좀바끝 해안에서 바라보는 노을도 장관



 **팔영산 편백 치유의숲**

천혜의 자연경관 편백숲을 보유한 국립공원



심신의 회복과 휴양, 생활습관 개선 등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서 체력과 면역력을 길러주는 여러 체험형 프로그램들도 경험해 보고, 이색적인 숲속 경관도 체험해 볼 수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쑥섬



미르마루길 탐방로

● **쑥섬**

쑥이 향긋하고 질이 좋아 쑥섬이라 불리게 된 쑥섬은 사람의 손으로 가꾼 해상정원과 자연이 만든 400년 난대림이 공존하는 곳. '고양이 섬'으로 불리기도 하며, 고양이와 주민이 공생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음

● **미르마루길 탐방로**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 및 나로호 발사의 역사적인 순간을 간직한 우주 발사전망대,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는 용바위와 사자바위 등 고흥군의 생태문화까지 즐길 수 있는 명품 탐방로

●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수변캠핑장, 물놀이장, 야외공연장, 미로공원, 오감체험 숲 등 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봄철에는 고흥만 일대에 샛노랗게 피어난 유채꽃 군락과 4km 구간의 꽃 터널이 상춘객들을 맞이하는 명소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제주도 전역을 아우르다

한라산

漢拏山



한라산국립공원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높 이 1,947.3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한라산국립공원)

개요

1966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2002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08년 물장오리오름 산정화구호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다.

자연환경

3대 영산 중 하나
세계적인 경관

한라산은 제주도의 전역을 아우르며, 동심원상의 등고



한라산 전경



한라산 정상석



한라산 백록담

선을 나타내어 순상화산(楯狀火山)에 속한다. 한라산은 약 360개의 측화산(側火山)과 정상부의 백록담, 해안지대의 폭포와 주상절리(柱狀節理: 다각형 기둥 모양의 금) 등의 화산지형, 난대성기후의 희귀식물 및 고도에 따른 식생대의 변화 등 남국적인 정서를 짙게 풍겨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다. 그리하여 1970년에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 3대 영산 중의 하나인 한라산은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한에서 가장 높다. 또 다양한 식생 분포를 이뤘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고 동식물의 보고로서 한라산천연보호구역(1966. 10. 12. 천연기념물)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또한, 한라산 주변에는 360여 개의

‘오름’들이 분포되어 있어 특이한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명칭유래

한라산이라는 이름에서 한(漢)은 은하수(銀河水)를 뜻하며, 라(羅)는 맞당길나(相牽引) 혹은 잡을나(捕)로서 산이 높으므로 산정에 서면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한라산의 사계

- 봄 : 철쭉 가득 피어 붉게 문든 선작지왓
- 여름 : 고도가 높아서 정상에서 느끼는 청량함
- 가을 : 만세동산에서 바라보는 단풍 든 어리목 계곡
- 겨울 : 눈 덮인 백록담 설정

사진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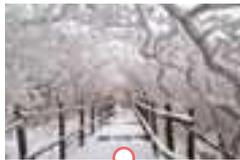
- 어승생악 : 가벼운 등산을 원하는 탐방객이 즐겨찾는 오름으로서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자연학습 탐방로로 활용
- 성판악 : 대부분 숲으로 형성되어 있어 삼림욕을 즐기며 탐방하기에 최적의 장소
- 백록담 : 한라산 정상에 있는 타원형 분화구로 순상 화산의 원지형이 잘 보존되어 학술 가치가 크고 빼어난 경관을 보여주는 화산 지형

주요등산로

- 1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지구 안내소 → 한라산(정상) → 성판악 탐방 안내소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지구 안내소 →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 탐방로 → 탐라계곡 화장실 → 제주도 특전사 순직비 → 개미목 → 한라산 삼각봉 대피소 → 용진각 현수교 → 한라산(정상) → 사라오름 → 성판악 탐방 안내소
- 2 한라산둘레길 입구 → 시오름입구 → 충혼묘지광장(버스정류장)
한라산둘레길 입구 → 하원마을 쉼터 캠핑장 → 항일운동발상지 → 시오름 입구 → 남성대 대피소 → 한라산국립공원 돈내코지구 안내소 → 충혼묘지광장(버스정류장)

📷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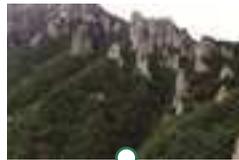
📷 명소



한라산의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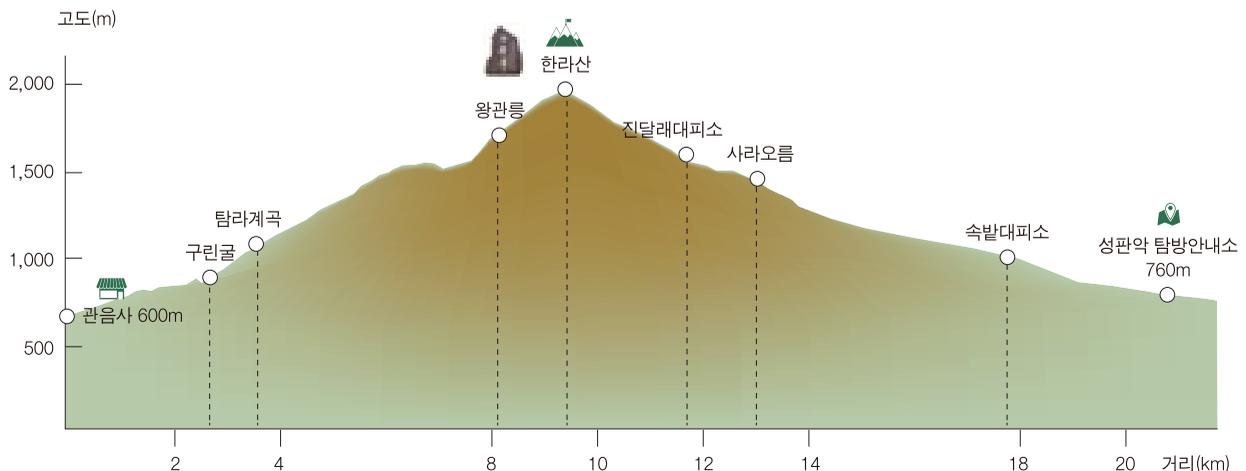
어승생악



성판악



백록담



 주변관광지

 성산일출봉

제주도의 다른 오름들과는 달리 마그마가 물속에서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수성화산체



2000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빼어난 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우도

제주의 대표적인 부속섬

완만한 경사와 옥도, 풍부한 어장, 우도팔경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관광지로서 한해 약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검멀레해변이나 우도봉, 홍조단괴해변, 하고수동해변 등이 유명



 만장굴

총 길이가 7.4km에 이르며, 부분적으로 다층구조를 지니는 용암동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위치. 만장굴 내에는 용암종류, 용암석순, 용암유석, 용암유선, 용암선반, 용암표석 등의 다양한 용암동굴 생성물이 발달하며, 특히 개방구간 끝에서 볼 수 있는 약 7.6m 높이의 용암석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사려니숲길



남원큰영해안

● 사려니숲길

제주의 숨은 비경 31곳 중 하나로, 비자림로를 시작으로 물찾오름과 사려니 오름을 거쳐가는 삼나무가 우거진 숲길로 사려니오름까지 이어지는 숲길이기 때문에 사려니숲길로 부름. 2002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 생물권 보전지역(Biosphere Resev)

● 거문오름

해발 456m(둘레 4,551m)의 오름으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를 형성한 모체로 숲이 우거져 검게 보여 검은 오름이라 하였다고 전함. 제주도의 오름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됨. 자연유산등재 이후 트레킹은 예약제로 운영

● 남원큰영해안

때묻지 않은 기암절벽이 아름다운 해양 경승지. '영'이란 제주도 방언으로 언덕을 뜻함. 큰 바위가 바다를 집어 삼킬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언덕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 해안절벽을 따라 2km의 산책길이 있으며 갯바위 낚시터, 조용한 휴식처나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



경기 제일봉으로 우뚝 솟다

화악산

華岳山



산림청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경기도 가평군 북면
- 높이** 1,446.1m
- 관리주체** 화천군, 가평군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과 경기도 가평군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경기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동쪽의 응봉(鷹峰 1,436m), 서쪽의 국망봉(國望峰 1,167m)과 함께 광주산맥(廣州山脈)에 속하는 산으로 서쪽에 국망봉(國望峰)을 이루며 화악산을 중심으로 동쪽에 매봉, 서쪽에 증봉이 있어 삼형제봉이라고도 불린다.

자연환경

중후하지만 험한 산세

화악산은 38선이 정상을 가르고 있어 한국전쟁 때는 격전



화악산 전경



화악산 증봉



화악산 맑은물

지로 비극의 역사를 안고 있다. 운악, 관악, 감악, 송악산과 함께 불리는 경기 5악 중 가장 험하다. 수려한 삼일계곡, 법장사, 화음동정사지, 촛대바위 등과 같은 관광지들이 있으며 촛대바위는 높이 20m 정도 되는 긴 바위 끝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산세가 중후하고 험하며 산중턱에는 잣나무 숲이 울창하다. 화천군 쪽으로는 수려한 삼일계곡·용담계곡·촛대바위·법장사 등이 있으며 조선 현종 때의 성리학자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이 벼슬을 그만두고 정사(精舍)를 지어 후학을 가르치며 은둔하던 화천 화음동정사지(華陰洞精舍址)가 있다.

증봉에서는 화악산 정상인 신선봉과 응봉을 조망할 수 있고 남쪽으로는 애기봉과 수덕산, 남서쪽으로는 명지산을 볼 수 있다. 북위 38선의 바로 남쪽에 주봉이 위치하며 6.25전쟁 당시의 격전지로 유명하며 정상 주변은 군사지역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남쪽 오름계곡에 있는 승원폭포와 옥녀탕, 서쪽 조무락골에 있는 쌍룡폭포와 복호등폭포가 있다.

명칭유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부의 서쪽 90리에 있고 영평(永平) 사람들은 백운산(白雲山)이라고 일컫는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춘천읍지』에는 “부의 북쪽 90리에 있는데 영

평 사람이 백작산(白作山)이라 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대동지지』에 “서쪽으로 90리에 있으며 백운산(白雲山)은 서북쪽으로 100리 영평현(永平縣, 지금의 가평) 경계에 있으며 백운산을 화악산이라 불렀다.”고 설명하고 있다.

화악산의 사계

- 봄 : 야생화 천국에 온 봄소식
- 여름 : 조무락골 계곡의 시원스런 물소리
- 가을 : 화악터널에 온 단풍
- 겨울 : 계곡의 바위와 얼음 위 소복하게 쌓인 눈

사진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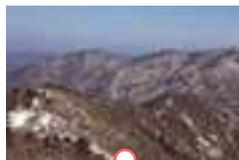
- 가마소 폭포 : 가눌 수 없는 깊이의 폭포
- 중봉 : 군사 시설이 있어 정상 대신 오를 수 있는 전망
- 촛대바위 : 화악산 기슭에 있으며 20m 바위 끝에 소나무가 있음

주요등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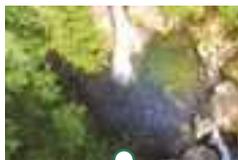
- ① 화악터널 앞 → 헬기장 → 전망대
화악터널 앞 → 헬기장 → 전망대
- ② 왕소나무(버스정류장) → 옥녀탕
왕소나무(버스정류장) → 화악산 등산로 입구
→ 천도교 화악산수도원 쉼터 → 옥녀탕
- ③ 관청교 → 화악산(정상) → 가마소 폭포
관청교 → 애기봉 → 화악산(정상) → 가마소 폭포
- ④ 건들레 종점(버스정류장) → 촛대봉 정상
건들레 종점(버스정류장) → 매봉(응봉) → 신선봉 → 화악터널썸지공원 → 촛대봉 정상
→ 노씨터 입구(버스정류장)

📷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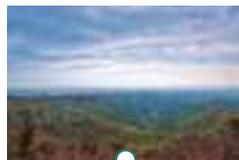
📷 명소



눈내린 화악산



가마소 폭포



중봉



촛대바위



 주변관광지

 곡운구곡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품고 있는 계곡 명소



신비롭게 흘러내리는 물과 선명한 초록빛을 머금은 소, 하얀 포말을 뿌리며 떨어지는 크고 작은 폭포들이 장관을 연출

 파로호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하는 인공호수

산 속에 있지만 마치 바다인 듯 일렁이며 푸른빛을 내는 호수. 10억 톤이라는 엄청난 담수량과 주변의 수려한 경관으로 '산속의 바다'라 불림



 토속어류생태체험관

강원북부 유일의 토속어류 전시관



화천의 북한강과 파로호에 서식하는 다양한 토속어류들의 생태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

함께 가 볼 만한 곳



백암산 케이블카



탄산유원지

● 백암산 케이블카

민간인통제선 안에 설치된 유일한 케이블카. 북한강 상류 DMZ구역 내 남북한의 물길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곳. 파로호 주변의 생태환경과 DMZ 내 백암산전망대 등을 이어주는 관광벨트의 랜드마크

● 아를테마수목공원

화천군 거례리에 위치한 '사랑 나무' 또는 '나홀로 나무'

로 불리는 큰 나무 한 그루가 자리해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는 곳. 수목공원 산책로 끝에 반지 모양의 반지교가 있어 프리포즈, 커플사진을 찍기에도 좋은 곳

● 탄산유원지

탄산은 화천읍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산으로, 물가에 홀로 섬처럼 두둥실 떠 있는 작은 동산임. 탄산유원지는 북한강과 파로호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공폭포와 빙벽이 있고, 노지 캠핑과 차박을 즐길 수 있는 유원지. 하류지역 수심이 낮아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와 낚시와 물놀이 등을 즐기는 곳



몽환적인 은빛 물결이
역사 평원에 펼쳐지다

화왕산

火旺山



창녕군청

위 치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고암면

높 이 757.7m

관리주체 창녕군

개요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과 고암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경상남도 중북부 산악지대에 있으며 낙동강과 밀양강이 둘러싸고 있는 창녕의 진산이다.

자연환경

거대한 화산 분화구의 광활한 분지

화왕산은 용암의 분출로 형성된 화산으로, 용지(龍池)를 비롯해 3개의 분화구가 있고, 정상부에는 사적으로 지정된 화왕산성이 있다. 산성 안에는 18만 5천여 m²에 달하는 넓은 초원이 펼쳐지는데, 가을이면 온 들판이 참억새로



화왕산 전경



화왕산 노을



화왕산 정상석

뒤덮여 황금 물결을 이룬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참억새 군락을 보기 위해 화왕산을 찾고 있으며, 10월 초순경에는 화왕산갈대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화왕산갈대제가 정상에서 열린다.

창녕읍의 진산으로 관룡산과 함께 화왕산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화왕산하면 역사를 떠올릴 만큼 역사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화왕산성에 들어찬 19만 8천여 m²에 달하는 역사평원은 마치 광대한 대해와도 같다. 산세는 삼면이 뚜렷한 각을 이룬다. 특히 산정은 외각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 산을 등진 창녕읍은 배산임수의 본모습을 보여준다. 낙동강이 휘돌며 빚어낸 창녕의 비옥하고 광대한 벌판이 산 아래 펼쳐진다. 생태계의 보고로 알

려진 국내 최대 규모의 우포늪도 이 곳에 자리한다. 또한 진흥왕 척경비(국보),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장마면 고인돌·술정리 동3층석탑·석빙고·500년이 넘는 하병수 씨 가옥·화왕산성(사적)·목마산성(사적) 등 문화유산이 즐비하다.

명칭유래

화왕산 명칭은 현재 임금 ‘왕(王)’ 자가 아닌 성할 ‘왕(旺)’ 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신조실록』 1598년(성조 31) 기록에서 처음으로 ‘화왕산(火旺山)’이라 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 이후의 사료와 고지도에서는 두 글자를 혼용하고 있다가 『1872년 지방지도』 이후부터는 ‘왕(旺)’ 자의

용례만 확인된다. 따라서 ‘왕(旺)’ 자 지명은 1598년에 처음 사용된 이래로 혼용되다가 1872년 이후부터는 ‘왕(旺)’ 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화왕산의 사계

- 봄 : 화왕산성을 따라 피어난 진달래 군락
- 여름 : 녹음과 어우러진 계곡의 물소리
- 가을 : 정상부 원형분지의 은빛 억새물결
- 겨울 : 억새에 핀 빙화

사진명소

- 창녕 화왕산성 : 삼국시대 성곽으로 대한민국 사적. 창녕 읍내의 동쪽 화왕산에 돌로 쌓은 산성
- 배바위 : 크고 웅장한 바위로 위쪽에 물웅덩이가 있음
- 전망대 : 우포늪을 전망할 수 있는 지점

주요등산로

- 1 자하곡 주차장 → 화왕산(정상)
자하곡 주차장 → 생명의 숲 → 전망대 → 배바위 → 화왕산(정상)
- 2 자하곡 주차장 → 화왕산(정상)
자하곡 주차장 → 생명의 숲 → 화왕산성 → 화왕산(정상)
- 3 자하곡 주차장 → 화왕산(정상)
자하곡 주차장 → 도성암 → 화왕산(정상)
- 4 옥천 주차장 → 화왕산(정상)
옥천 주차장 → 허준 세트장 → 화왕산성 → 화왕산(정상)
- 5 옥천 주차장 → 화왕산(정상)
옥천 주차장 → 관룡사 → 관룡사 용선대 → 허준 세트장 → 화왕산(정상)

- 📷 사계
- 📍 명소



봄에 핀 진달래



창녕 화왕산성



배바위



전망대



 주변관광지

 용선대

천년을 이어 온 통일신라시대의 불상



역세로 유명한 창녕 화왕산의 소박한 사찰 관룡사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석조여래좌상으로 유명한 용선대는 보물로 지정돼 있으며 아래에서 보면 까마득한 벼랑 같지만 관룡사에서는 가깝게 느껴지는 곳. 우포늪, 화왕산 역사밭과 함께 창녕을 찾은 관광객들이라면 꼭 찾아봐야 할 창녕의 보물

 우포늪

국내 최대의 내륙 습지

1998년 람사르협약 등록 습지로 1999년 환경부에 의해 습지보호지역, 2011년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으로 지정되었으며, 같은해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한국관광 으뜸명소 8곳에 선정됨



 옥천계곡

창녕의 대표 계곡



화왕산에서 시작하여 계성으로 흘러 최종적으로는 낙동강과 만나는 물이 흐르는 계곡. 산 정상 해발 757m에서 골짜기마다 굽이굽이 흘러내린 물길로 형성된 계곡은 시원하고 장쾌한 물줄기와 화왕산 숲에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으로 여름철 피서객들의 최적 휴양지로 주목받고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산토끼노래동산



부곡온천 관광특구

● 산토끼노래동산

창녕군 이방면 이방초등학교 뒷산에 위치한 동요 '산토끼'를 모티브로 한 체험 시설. 산토끼노래동산은 이름처럼 토끼마을, 토끼동굴, 토끼먹이체험장 등 토끼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 부곡온천 관광특구

국내에서 유황 성분을 많이 함유한 온천. 국내 유수의 온천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수온인 78℃를 유지하는 곳. 부곡온천 관광특구에는 호텔과 콘도, 골프장, 온천분수대 등 온천을 기반으로 한 종합 휴양 시설과 다양한 온천장이 들어서 있음

● 만옥정공원

창녕공원이라고도 부르며, 면적 1만㎡의 작은 공원이지만 지정문화재와 봄철 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곳. 공원 곳곳에 조선 후기의 관아 건물인 창녕객사, 통일신라 후기 퇴천삼층석탑, 창녕 척화비 등의 다양한 문화재도 품은 공원



만개한 철쭉의 바다,
분홍빛 물결이 일렁이다

황매산

黃梅山



합천군청

위 치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대병면, 산청군 차황면

높 이 1,113.1m

관리주체 합천군, 산청군

개요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과 대병면에 걸쳐 있는 황매산은 합천의 진산이지만, 산행 서적이나 관광 지도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무명의 산이었다. 덕분에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골짜기를 간직하고 있는 산이다.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가야산과 함께 합천을 대표하는 명산이 되었다.

자연환경

억새·철쭉·호반 명산

영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며 700~900m의 고위평탄면 위



황매산 전경



황매산 맷돌바위



황매산 가을역새

에 높이 약 300m의 뭉툭한 봉우리를 엮어놓은 듯한 모습이며 준령마다 굽이쳐 뻗어나 있는 빼어난 기암괴석과 그 사이에 고고하게 휘어져 나온 소나무와 철쭉이 병풍처럼 수놓고 있어 영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린다.

고려 시대 호국 선사 무학대사가 수도를 행한 장소로서 황매봉을 중심으로 동남쪽으로 뻗은 기암절벽이 형성되어 있으며 정상에 올라서면 주변의 풍광이 활짝 핀 매화꽃잎 모양을 닮아 마치 매화꽃 속에 홀로 떠 있는 듯 신비한 느낌을 준다. 합천의 진산으로 5월 초순에 절정을 이루는 철쭉이 유명해 황매산철쭉제가 열린다. 황매산 서북쪽 능선 정상부에 펼쳐진 수만㎡의 황매병전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고산 철쭉의 정경이 뛰어나다.

명칭유래

‘황매산’의 ‘황(黃)’은 부(富)를, ‘매(梅)’는 귀(貴)를 뜻하며 전체적으로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한뢰산으로 넓고 평평한 산이란 뜻에서 비롯된 이름인데 한자표기어로 황매(黃梅)에 산(山)을 붙여 황매산이 되었다.

황매산의 사계

- 봄 : 철쭉이 산천을 분홍빛으로 수 놓는 수십만㎡의 철쭉 군락지
- 여름 : 산자락에서 풍성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계곡물
- 가을 : 하얗게 물결치는 억새 들판
- 겨울 : 새하얀 눈과 흑한의 바람이 머무는 은빛 설경

사진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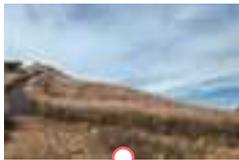
- 모산재 : '신령스런 바위산'이란 뜻으로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바위덩어리로 보이는 고개
- 황매평전지대 : 해발 800m~900m에 위치한 대규모 철쭉 군락지
- 국사당 : 조선 태조 이성계가 등극을 위해 기도 했다는 곳. 지금은 지역 주민이 나라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냄

주요등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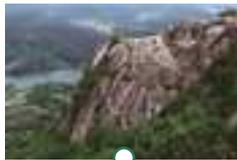
- 1 모산재 주차장 → 모산재정상
모산재 주차장 → 뚝대바위 → 모산재정상 → 국사당
- 2 대기마을 → 모산재정상
대기마을 → 누룩덤 → 828고지 → 철쭉군락지 → 모산재정상
- 3 정상 주차장 → 황매산수목원
정상 주차장 → 철쭉군락지 → 황매산정상 → 상봉 → 황매산수목원
- 4 덕만 주차장 → 억새군락지
덕만 주차장 → 정상 주차장 → 철쭉군락지 → 황매산정상 → 억새군락지

📷 사계

📍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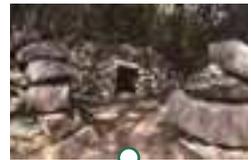
황매산 억새들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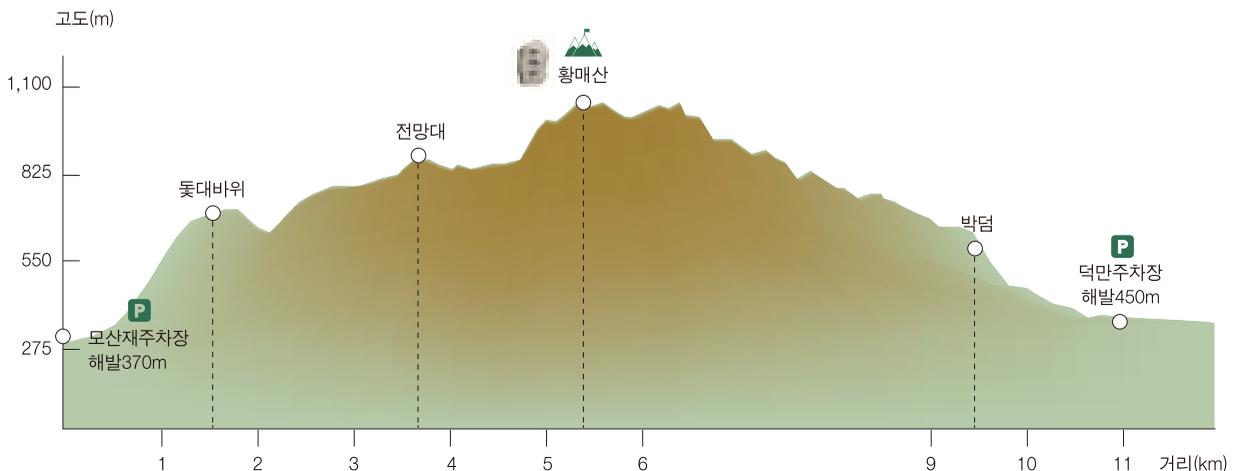
모산재



황매평전지대



국사당



 주변관광지

 황매산 법연사

태조 이성계가 왕을 기원한 천하명당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폐사지 위에 대법전(165m), 집회장, 요사채 및 박물관을 비롯하여 부속건물을 합쳐 약 5,200㎡의 규모로 재조성된 현대적인 사찰.

 합천호와 백리벚꽃길

호반도로가 벚꽃으로 뒤덮여 장관을 연출하는 드라이브의 명소

1988년 합천댐을 만들면서 생긴 인공호수. 합천군에서는 그 당시 아름다운 호반도로 조성을 위해 벚나무를 많이 심었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합천호 백리벚꽃길은 합천8경의 하나로 꼽힘



 합천 옥전 고분군

4세기에서 6세기 전반의 가야고분군



최고 수장급의 고분에서 발견되는 유물이 거의 망라되어 있는 가야 지배자의 무덤. 용봉환두대도나 철제갑옷, 금동장투구, 철제말투구에서 가야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분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됨

함께 가 볼 만한 곳



함벽루



연호사

● 함벽루

대야성 기슭에서 황강 정양호를 바라볼 수 있는 누각. 합천8경 중 제5경. 대야성 기슭에 위치. 오래전부터 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풍류를 즐기는 장소. 이황, 조식, 송시열 등과 같은 조선시대 최고 문인들의 글이 누각 내부 현판에 걸려 있으며, 뒤 암벽에는 함벽루라 새긴 송시열의 글씨가 있음

● 합천 영상테마파크

드넓은 자연이 어우러진 시대물 오픈세트장. 1920년대에서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등 190여 편의 촬영장. 전차, 마차 등을 이용해 둘러 볼 수도 있고 보이는 곳마다 사진 찍기도 좋은 곳

● 연호사

합천읍 남쪽 황강변 절벽 아래에 위치한 신라시대의 사찰. 전통사찰로 지정되었으며, 경상남도 유형 문화재로 합천 연호사 신중탱화를 비롯해 다수의 지정·비지정 문화재를 소장



하늘과 맞닿을 듯
숫구친 암봉을 만나다

황석산

黃石山



함양군청

위 치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높 이 1192.5m

관리주체 함양군, 거창군

개요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에서 북동쪽으로 약 15km 떨어져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과 안의면의 경계에 자리잡고 있다.

자연환경

암릉과 역세가 조화로운 산

남덕유산 남녘에 솟아있는 범상치 않은 바위산이다. 백두대간 줄기에서 뻗어 내린 네 개의 산인 기백산, 금원산, 거망산, 황석산 가운데 가장 끝자락에 흡사 비수처럼 솟구쳐 있다.



황석산 전경



황석산 바위



황석산성

황석산은 바위산으로서 기백산을 북쪽으로 마주 보고 있으며 덕유산에서도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정상 일대는 2개의 커다란 암봉(巖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봉(南峰)은 북봉(北峰)보다 더 뾰족하여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 금원산과 기백산 사이의 심진동에는 유명한 용추계곡이 있는데 안의면에 있는 화림동계곡(남계천 일부), 거창군 위천면 원학동계곡을 합쳐 화림 삼동(三洞)이라고 부른다.

가을철에는 거망산에서 황석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광활한 억새밭이 장관을 이룬다. 황석산에는 정자가 특히 유명하며 농월정·동호정·거연정·군자정 등 경상도의 정자 문화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명칭유래

『세종실록지리지』안음에는 황석산의 위치와 주요 역사 경관에 관해 “황석산은 현 서쪽에 있다. 황석산 석성은 현 서쪽 25리(약 9.8km)에 있다.”라고 기록되었고, 『함양군지』에는 “서하면과 안의면의 경계에 있다. 월봉산의 남쪽이 이 산이다.”라고 기재되었다. 『조선지도』, 『지승』, 『1872년 지방지도』, 『대동여지도』 등의 군현지도에서도 황석산이 표기되어 있다.

‘성이 함락되자 성안의 부녀자들은 왜적의 칼날에 죽느니 차라리 깨끗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리고 수십 척의 높은 바위에서 몸을 던져 순절하고 말았다. 꽃다운 여인들이 줄줄이 벼랑으로 몸을 던졌으

니 이 어찌 한스러운 비극이 아니겠는가. 그때의 많은 여인들이 흘린 피로 벼랑 아래의 바위가 붉게 물들었다. 피바위에는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피땀한 한이 스며들어 그 혈흔(血痕)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피바위 위로는 죽히 수십 m쯤 되는 가파른 벼랑이 산성으로 이어졌다.

황석산의 사계

- 봄 : 눈 녹은 능선길에 피어난 야생초
- 여름 : 용추계곡에서 즐기는 여름휴가
- 가을 : 산성길 따라가며 감상하는 단풍
- 겨울 : 첩첩산중 고봉준령들의 설경

사진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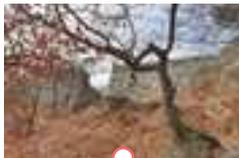
- 용추계곡 : 용추사 옆에 있는 맑고 깨끗한 계곡
- 황석산성 : 사적으로 삼국 시대의 산성으로 남북쪽에 남아 있는 성터의 석벽
- 거북바위 : 북봉 등산로 옆에 위치한 거북모양의 바위

주요등산로

- ① 청량사 입구 → 북봉 → 황석산(정상)
청량사 입구 → 청량사 → 북봉 → 함양 황석산성 → 황석산(정상)
- ② 황석산 주차장 → 황석산(정상)
황석산 주차장 → 진석사방댐2호 → 황석산성 → 황석산(정상)
- ③ 유동마을회관 → 황석산성 (북장대추정지)
유동마을회관 → 영암사 → 황석산 북봉 → 황석산(정상) → 황석산성 (북장대추정지)
- ④ 숲속의집 주차장 → 금원산(정상)
숲속의집 주차장 → 유안청폭포 → 금원산 동봉 → 헬기장 → 금원산(정상)

📷 사계

📷 명소



산성길 단풍



용추계곡



황석산성



거북바위



 주변관광지

 용추자연휴양림

계곡과 풍부한 수원, 다양한 수종으로 이루어진 자연경관이 수려한 휴양림



주위 계곡은 황석산, 기백산, 금원산 등의 고봉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골짜기가 깊고 계곡물의 양이 늘 풍부한 편. 너럭바위가 많고 계곡이 넓은 데다 일년 내내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상림공원

도심 속에서 느끼는 신선의 정취

통일신라 말에 최치원이 이곳 천령군(함양군의 옛이름)의 태수로 와서 조성했다는 상림.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림이며 도심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봄의 신록,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등의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역사와 자연을 배우는 학습의 장으로 그 가치를 더하는 곳



 용추사

화엄경 강의가 이루어지던 현존하는 유일한 사찰



옛 장수사의 흔적을 간직한 보물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음. 과거 설파상언 대사가 전국의 승려들을 모아놓고 화엄경을 강의했던 유명한 곳

함께 가 볼 만한 곳



대봉산휴양밸리



거연정

● 대봉산휴양밸리

대봉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종합휴양 관광단지. 자연 속에서 스틸을 즐길 수 있는 모노레일과 쥘라인,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과 캠핑 시설, 자연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산림욕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명소

● 거연정

함양 봉전마을 앞에 흐르는 남강천의 암반 위에 건립된 정자. '안의 3동'의 하나인 화림동 계곡에 있는 거연정과 주변 일대는 농월정, 용유담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관광명소

● 남계서원

영주 소수서원에 이어 정여창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지방민의 유학교육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건립된 서원⁽¹⁵⁵²⁾. 조선 시대 서원 초기 건물 배치의 전형을 제시한 건물로,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 9곳에 들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



직지사를 품은 대간의 줄기를 만나다

황악산

黃岳山



김천시청

위 치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높 이 1,111.4m

관리주체 김천시

개요

경상북도 김천시의 대항면 운수리와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상촌면 궁촌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 황악산은 추풍령에서 삼도봉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중간에 있는 산으로 이 일대에서 가장 높다.

자연환경

울창한 수목과 경관 좋은 계곡

산세는 평평하고 완만하며 비단같이 부드러운 편이며, 초입 일대 계곡 양쪽으로 늘어선 노송과 참나무가 하늘을 덮어 장관을 이룬다. 이 산은 김천시에서 서쪽으로 12km



황악산 전경



황악산 정상석



황악산 겨울

떨어진 소백산맥 가운데 위치한다. 황악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여시골산·패방령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는 형제봉·바람재로 이어진다. 산의 남쪽 기슭에는 신라 시대에 창건된 큰 사찰인 직지사(直指寺)가 있다. 정상에 서면 서쪽으로 민주지산, 남쪽으로 수도산과 가야산, 동으로 금오산, 북으로는 포성봉이 보인다.

서남쪽에 연봉을 이룬 삼도봉(三道峰)·민주지산(眠周之山)과 함께 소백산맥의 허리부분에 솟아 있다. 주봉(主峰)인 비로봉과 함께 백운봉·신선봉·운수봉이 치솟아 있으며, 산세는 평평하고 완만한 편이어서 암봉(岩峰)이나 절벽 등이 없고 산 전체가 수목으로 울창하다. 특히 직지사 서쪽 200m 지점에 있는 천룡대로부터 펼쳐지는 능여(能如)계곡

은 대표적인 계곡으로 봄철에는 진달래, 벚꽃, 산목련이 볼 만하고 가을철 단풍 또한 절경을 이룬다. 그밖에 내원(內院)계곡과 운수(雲水)계곡의 경관도 뛰어나다.

등산 시에는 직지사와 운수암을 거쳐 주능선에 도달하는 3~5시간 정도 되는 산행을 하게 되는데, 계곡길은 가파르지만 능선길은 경사도 완만한 편이다. 겨울의 설화(雪花)와 가을의 단풍이 아름다운 산으로 알려져 있다.

명칭유래

험준하고 높은 봉우리라는 뜻에서 '큰 산 악(岳)'자를 쓰는 높은 산임에도 석산(石山)이 아닌 토산(土山)이어서 흙의 의미를 담은 '누를 황(黃)'을 써서 황악산(黃岳山)이라 한다. 과

거에 학이 많이 살아서 황학산(黃鶴山)이라고도 한다.

황학산의 사계

- 봄 : 능여계곡을 수놓은 진달래, 벚꽃, 산목련
- 여름 : 울창한 소나무 숲과 깊은 계곡 맑은 물
- 가을 : 백두대간 능선 길 사이 흩날리는 낙엽
- 겨울 : 눈 쌓인 직지사의 호젓한 겨울 풍경

사진명소

- 직지사 : 황학산 기슭에 있는 사찰로 사명대사가 출가한 곳
- 전망바위 : 김천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황학산 최고의 조망지
- 선유봉 : 탁 트인 전망으로 정상보다 더 넓게 볼 수 있는 곳

주요등산로

- ① 극락전 주차장 → 황학산(정상)
극락전 주차장 → 입산통제소 → 백련암 → 황학산(정상)
- ② 극락전 주차장 → 망월봉
극락전 주차장 → 입산통제소 → 명적암 주차장 → 내원계곡폭포 → 내원계곡과 등산로합류점 → 신선봉
- ③ 기날(버스정류장) → 쾌방령표지석
기날(버스정류장) → 직지사복암 주차장 → 직지사 복암 → 직지사 노인요양원 → 건강문화원 → 건강문화원 주차장 → 평화의탑 → 김천시립박물관 → 태봉산 → 여시굴 → 여시골산 → 수원함양 보안림 → 쾌방령 표지석

📷 사계

📷 명소



황학산 여름



직지사



전망바위



선유봉



 주변관광지

 세계도자기박물관

세계 도자기 역사를 둘러보는 도자기 박물관



한국의 도자기뿐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도자기와 크리스탈, 유리, 그 외의 소장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도자기의 제작과정과 나라별 도자기의 특징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꾸며진 박물관

 김천시립박물관

김천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김천에서 출토된 다양한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음. 기획전시실과 영상실, 강당,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김천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어린이 문화체험실과 VR패러글라이딩체험 등의 체험시설이 운영



 사명대사공원

체류형 관광테마공원



백두대간 황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인근 직지사 등의 문화·역사 자원을 연계하여 자연 속에서 쉬어가며 체험하는 공원. 김천의 역사와 문화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관광지를 테마로 주요 시설로는 평화의 탑, 건강문화원, 솔향다원, 여행자센터 등이 있음

함께 가 볼 만한 곳



녹색미래과학관



교동 연화지

● 녹색미래과학관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창의과학 놀이터를 표방한 과학관. 생활과 자연의 에너지를 생각하고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과학 실습장. 4D 풀동영상 관람, 주말 과학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교동 연화지

김천시 교동에 위치한 저수지로 물이 맑고 경관이 좋아 풍류객들이 못 가운데 섬을 만들고 봉황대라는 정자를 지어 시를 읊고 술잔을 기울이며 노닐던 장소로 벚꽃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함

● 부항댐 출렁다리

댐 수면 위에서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는 명소로 근처에는 국내 인공구조물 최고 높이인 94m 타워형 짚와이어, 스카이워크, 하늘그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 스릴감을 만끽할 수 있음



황장목 골짜기 사이
깊은 원시림이 펼쳐지다

황장산

黃腸山



문경시청

위 치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높 이 1,078.9m

관리주체 국립공원공단(월악산국립공원)

개요

백두대간이 지나는 산으로서 월악산국립공원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황장목이 많고 작성(鵲城)과 봉산(封山) 표석이 있는 산이며 울창한 계곡과 암릉이 많다.

자연환경

멋진 바위와 부드러운 능선의 백두대간

골짜기가 깊어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있고 암벽 등이 빼어나며 부근에 문수봉(文繡峰 1,162m)·도락산(道樂山) 등 유명한 산이 모여 있다. 정상에서는 북쪽으로 도락산과 문수봉, 서쪽으로는 대미산, 남쪽으로는 공덕산(功德山 912m), 운



황장산 전경



황장산 황장목



황장산 정상

달산(雲達山 1,097m)이 보인다.

황장산의 증거가 되는 황장금표(黃腸禁表) 표석이 북쪽 산 자락 명전리에 있다. 백두대간 마루금이 지나가는 산으로 능선 여기저기에 바위가 많다. 베바위·멧등바위·투구봉·감투봉·수리봉·치마바위 등이 있으며, 수리봉에는 긴 암릉도 있다.

동서로 길게 뻗은 흘산인데도 문안골·우망골·토시골 등의 좋은 계곡이 있다. 특히 문안골은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50평쯤의 반석도 있다. 상선암·중선암·하선암이 있는 북쪽 단양천 유역과 함께 월악산국립공원의 동쪽 끄트머리다.

명칭유래

『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에는 작성산(鶴城山)으로 표기되어 있고, 문경군지(1982)에는 황장봉산(黃腸封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정확한 이름은 황장산이라 부르는 것이 옳다. 그것은 황장목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고, 1925년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에서 발행한 『조선의 산악 명칭과 소재 높이』에 황장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마을주민들도 황장산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황장산의 사계

- 봄 : 짙은 녹색 사이 부드러운 바람
- 여름 : 깊은 원시림에서 느끼는 시원함
- 가을 : 계곡길에 곱게 물든 단풍
- 겨울 : 감투봉에 핀 설화

사진명소

- 멧등바위 : 암릉을 이루는 긴 바위로 간간이 노송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
- 주능선 : 당재 가까이 소나무 가득 완만한 능선길
- 촛대바위 : 황장산 최고 절경으로 꼭대기의 소나무가 운치를 더해 촛대봉이라는 지명을 낳게 한 곳

주요등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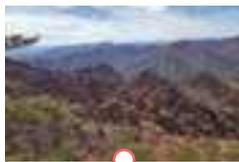
황장산 주차장 → 황장산(정상) → 누운폭포
 황장산 주차장 → 생달2리마을회관 → 황장산
 공원지킴터 → 작은차갯재 → 황장산(정상) →
 누운폭포 → 황장산공원지킴터

산행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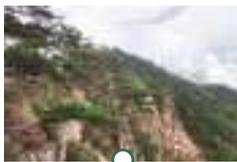
뱀에 물렸을 때는 몸을 눕혀 안정시킨 뒤 움직이지 않게 하고 물린 부위가 부풀어 오르면 5~10cm 위 쪽을 묶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함. 독사가 아니면 당황할 필요는 없으며 독사에 물렸을 경우 입에 상처가 없다면 물린 부위를 약간 절개하고 입으로 독을 빨아냄. 독사는 머리가 삼각형에 목이 가늘며 물리면 2개의 독이빨 자국이 남

📷 사계

📍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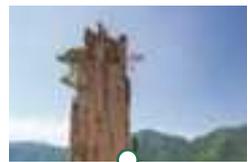
황장산의 단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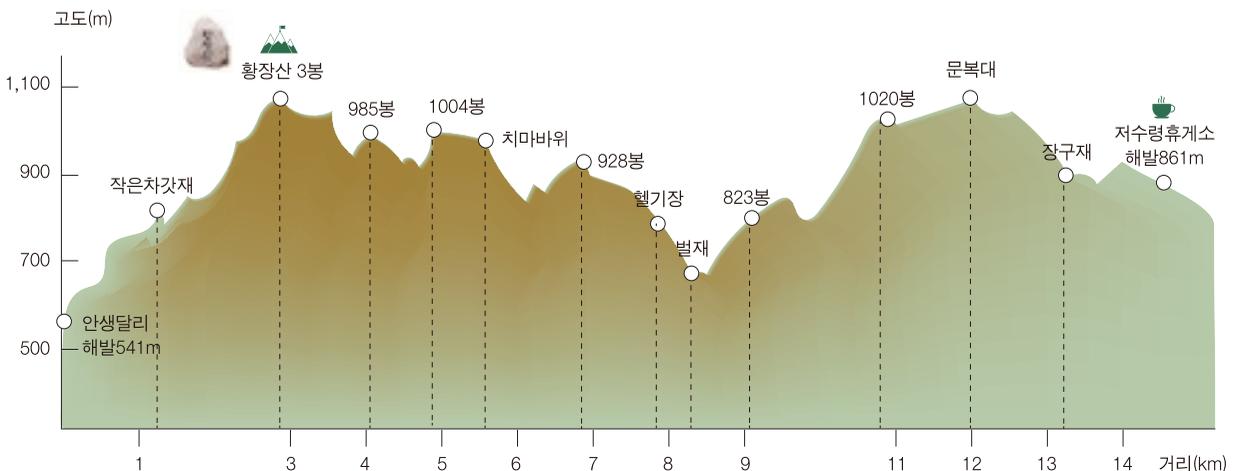
멧등바위



주능선



촛대바위



 주변관광지

 경천호

자연경관과 낚시터로 유명한 곳



문경8경 중 하나로 경상북도 문경시에 위치하며 낙동강 지류인 금천을 막아서 만든 전형적인 계곡형 저수지로 물이 맑고 수심이 깊은 광활한 호수.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로 선정한 포토존으로 호수 주변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

 진남교반

경북 제1경으로 꼽히는 영강 위에 놓인 문경

기암괴석과 깎아지른 듯한 층암절벽이 이어지고 강 위로 철교·구교·신교 등 3개의 교량이 나란히 놓여 있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이루는 절경



 문경에코월드

생태와 기술, 문화콘텐츠의 만남



국내 최초 문화 생태 영상을 테마로 하는 문화 콘텐츠 테마파크. 기존의 석탄박물관과 가온오픈세트장에 야외 자이언트 포레스트 시설과 에코 타운이 더해진 공간

함께 가 볼 만한 곳



문경힐링휴양촌

● 문경힐링휴양촌

우리나라 두 번째 가톨릭 사제인 최양업 신부의 선종지주변을 중심으로 조성된 휴양시설. 숙박동 밑에 위치한 양업명상센터는 신도와 일반인 등 대상별 영상프로그램을 운영



옛길박물관

● 옛길박물관

문경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잘 살려 건립된 박물관으로 옛길 위에서 펼쳐졌던 각종 문화상을 담아내고 있는 박물관

● 윤강 이강년기념관

문경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대한제국 시대에 의병을 일으켜 빛나는 승리를 거둔 도창의대장 윤강 이강년 선생(1858~1908)의 업적을 기리는 곳. 유물전시관, 사당, 관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항일 운동의 역사를 전해주는 곳



화강암 암벽으로
백두대간을 잇다

희양산

曦陽山



문경시청

위 치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높 이 996.4m

관리주체 문경시, 괴산군

개요

소백산맥에 속하여 있으며 북쪽으로 시루봉, 동쪽으로 백화산, 서쪽으로 장성봉·대야산·조항산 등과 이어지고 문경분지의 서쪽을 이룬다.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도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사면에는 조령천(鳥嶺川)이 흘러 주위의 풍경이 아름답고 명소가 많다. 북쪽에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간의 교통로인 이화령(梨花嶺)이 있다.

자연환경

신령스러운 암봉의 거대한 돌산

희양산은 동서남 3면이 화강암 암벽으로 이루어져 산 전



희양산 전경



희양산 암벽



희양산 겨울

체가 하나의 바위처럼 보이는 거대한 돌산이다. 북쪽으로 시루봉(915m), 동쪽으로 백화산(白華山 1,064m), 서쪽으로 장성봉(長成峰 915m)·대야산(大野山 931m)·조항산(鳥項山 951m) 등과 이어지고 문경분지의 서쪽에 이르고 있다. 문경새재에서 속리산 쪽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줄기로 빼어난 경치와 천년고찰 봉암사(신라 헌강왕 5년, 서기 879)를 안고 있으며 암산과 육산의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다.

정상에 서면 봉암사가 있는 봉암용곡 너머로 대야산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백두대간을 연결시키는 장성봉과 악희봉·민주지산 등이 바라보인다. 북쪽은 참나무 숲에 가려 시루봉의 일부만 보인다. 그러나 동북쪽으로는 백화산·운달산·주흘산 줄기가 막힘없이 조망된다.

명칭유래

희양산은 이름에서 햇볕 희(曦), 별 양(陽)자를 쓰는데 날이 좋을 때 햇빛을 받은 희양산 봉우리가 햇빛처럼 환하게 빛을 발한다는 뜻이다.

희양산의 사계

- 봄 : 바위 틈새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무에 돌아
난 새싹
- 여름 : 기암 바위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 가을 : 단풍과 함께 즐기는 기암
- 겨울 : 흰 눈에 쌓인 바위산이 만드는 겨울 산수화

사진명소

- 정상 전 암릉구간 : 암릉과 어우러진 소나무 군락
- 호리골재 방향 산책로 : 바위 의자와 함께 명상하기
좋은 산책로
- 희양산성 : 돌로 만든 산성터로 신라와 후백제의 치열
했던 국경 쟁탈전의 흔적

주요등산로

- 1 은티마을 주차장 → 희양산(정상) → 구왕봉
은티마을 주차장 → 희양폭포 → 희양산(정상)
→ 지름티재 → 구왕봉
- 2 시루봉 쉽터 → 희양산(정상) → 해골바위
시루봉 쉽터 → 정상석 → 희양산(정상) →
지름티재 → 해골바위
- 3 은티마을경로당 → 악희봉
은티마을경로당 → 마법의성 → 악희봉
- 4 희양산펜션민박 → 마분봉
희양산펜션민박 → 주치봉 → 은티재 → 마분봉
→ 은티마을경로당
- 5 모선재 → 시루봉휴게소
모선재 → KBS연풍 Dtv방송중계탑 → 시루봉
휴게소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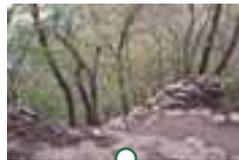
명소



희양산 여름



정상 전 암릉구간



호리골재 방향 산책로



희양산성



 주변관광지

 화양구곡

문화와 역사가 깃든 휴식처



청천면 화양리에 위치한 계곡으로 넓게 펼쳐진 반석 위로 맑은 물이 흐르고, 주변의 울창한 숲이 장관을 이룸. 화양구곡은 제1곡인 경천벽을 출발점으로 제9곡인 파천까지의 3.1km 거리를 가리킴

 우암 송시열 유적

우암 송시열이 은거하였던 곳에 세워진 서원

화양동계곡 안에 있는 화양서원터와 만동묘터를 중심으로 송시열과 관련된 사적들로 구성된 지역 일원. 화양서원은 조선시대 학자들의 결집장소였으며 1999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됨



 봉암사백운대

1년에 단 하루, 석가탄신일만 개방되는 봉암사백운대



지증대사가 창건한 절로서 신라 구산선문의 하나로 유명하며, 보물 삼층석탑을 비롯하여 9개의 문 화재와 암벽이 웅장한 회양산 봉암사 계곡에 위치한 고찰

함께 가 볼 만한 곳



산막이옛길



괴산 한지체험박물관

● 산막이옛길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사오랑 마을에서 산골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됐던 총 길이 4km. 옛길에 덧그림을 그리듯 그대로 복원된 산책로. 산막이옛길을 따라 펼쳐지는 산과 물, 숲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은 괴산의 백미

● 괴산 한지체험박물관

원풍리 옛 신흥분교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종 닥나무를 이용한 많은 연구와 한지 관련 유물을 관람하고 전통 한지뜨기, 야생화 뜨기, 한지 소원만들기 등 직접 만드는 체험도 가능한 문화공간

● 천주교 연풍성지

조선 정조 신해교난 이후 연풍 땅에 은거하여 신앙을 지켜가던 교인들이 순조 신유교난 때 처형당한 자리로 1974년부터 천주교회에서 성역화한 곳

알고가면 더 재미있는
산악 안전수칙

숲의친구
크리
크루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3C)

- 1단계 : 위급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Check)
- 2단계 : 도움을 요청하는 것(Call)
- 3단계 : 응급의료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Care)



구조 요청 시 꼭 알려야 할 정보

- 응급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 부상자의 상태 정도
-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응급조치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의 급성질환이 발생했을 때

- 등산을 하다가 극심한 가슴통증이 발생했다면 심장혈관, 즉 관상동맥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 특히, 가슴이 터질 듯 하거나 짓누르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일 때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해야 하며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 심혈관계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무리한 등산을 피해

야 하며 혈관확장제를 미리 준비하여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복용하는 것이 좋다.

-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을 때에는 등산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해야 하며 호흡을 깊게 천천히 하도록 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겨울철 디카, 휴대폰 랜턴 배터리 방전 보호

- 리튬이온 배터리는 온도가 낮으면 작동에 무리가 가거나 방전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평상시 배터리를 따뜻한 체온으로 보호하여 방전 및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유의한다.
- 추운 날씨에는 자켓 안에 넣어 다니며 손난로 등으로 함께 보관하면 효과적으로 배터리 방전을 예방할 수 있다.
- 랜턴 배터리의 경우 사용 중인 배터리와 배터리 사이에 종이를 넣어둠으로 절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고혈압 및 빈혈 환자 등산 시 주의 사항

- 평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에 오르면 혈압이 더욱 상승하게 된다.
-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은 뇌출혈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빈혈환자 역시 등산을 하게 되면 운동량이 증가하여 몸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데 이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골절

-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먼저 손상 부위를 차갑게 유지하고 부목을 대고 고정시켜야

한다.

- 나뭇가지나 두꺼운 종이 등을 사용하여 옷가지 등으로 묶으면 된다.
-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으면 직접 압박으로 지혈을 하고 부목을 대도록 한다.
- 뼈가 외부로 노출된 개방성 골절 부상을 입었다면 뼈를 억지로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지 말고 만약 뼈가 안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의료진에 알리도록 한다.
- 개방성 골절은 노출된 부위를 통해 감염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환부를 깨끗한 가제나 수건으로 덮고 부목으로 고정시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다리에 쥐날 때

- 만약에 왼쪽 다리에 쥐가 나는 등 근육이 경직 혹은 경련이 일어날 경우 왼쪽 손등의 새끼 손가락 중간 마디를 오른 손 검지 손톱 등으로 꼭 눌러본다.
- 특별히 아픈 부위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당 부위를 누르게 되면 일시적으로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다.
- 오른쪽 다리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손등의 새끼 손가락 중간 마디 부위를 지압한다.

머리손상

- 머리를 다쳤을 때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토하거나 두통을 계속 호소한다면 반드시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이 때는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실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뱀에 물렸을 때

- 몸을 눕혀 안정시킨 뒤 움직이지 않게 하고 물린 부위가 부풀어 오르면 5~10cm 위쪽을 묶어 독이 퍼

지지 않게 한다.

- 입에 상처가 없을 때 물린 부위를 약간 절개하고 입으로 독을 빨아낸다.
- 뱀에게 물린 경우 뱀의 모양을 잘 살펴야 한다.
- 독사는 머리가 삼각형이고 목이 가늘며 물리면 2개의 독이빨 자국이 난다.
- 독사가 아니면 당황할 필요는 없다.
- 소독을 주된 처치로 하면 되는데 비누와 흐르는 물로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고 옥시폴 등의 소독약으로 소독한 다음 거즈 같은 청결한 천으로 덮는다.
- 동물에게 물린 상처는 여러 가지 감염증의 원인이 되므로 처치가 끝났으면 조속히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 만약 독사에 물린 사람이 있을 때는 우선 환자가 안정하도록 바닥에 눕힌다.
-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독소가 빨리 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 상처부위를 물로 잘 씻어 내고 소독을 한 다음, 상처보다도 심장에 가까운 곳을 가볍게(표면의 정맥을 압박할 정도로) 묶어둔다.
- 구조자는 환자의 상처부위에 직접 입을 대고 독소를 빨아낸다. 강하게 빨아내고 빨아내거든 재빨리 뱀을 버린다.
- 이러한 처치를 몇 번 되풀이하고 독소를 빨아낸 사람은 깨끗이 양치질을 한다.
- 상처의 처치가 끝나면 환자를 들것 같은 것에 태워서 안정한 상태 그대로 서둘러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한다.
- 치료가 늦어지면 독소가 전신에 퍼져서 쇼크상태에 빠지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벌레에 물렸을 때

- 밝은 색의 옷이나 헤어스프레이, 향수 등은 곤충을 유인할 수 있으므로 피하고, 남은 음식도 꼭 덮어놓아서 벌레들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한다.
- 산행 중에는 긴 상하의가 모기를 막는 일차적 방책이다.
- 그 외 초음파를 발생시켜 모기를 퇴치한다는 초음파 모기 퇴치기, 바르는 모기약 등을 병용한다.
- 또한 손목에 걸어 착용할 수 있는 모기퇴치 용품도 휴대한다.

벌에 쏘였을 경우

- 산행 중 벌에게 쏘이는 경우, 억지로 독침을 빼려 하지 말고 신용카드 같은 얇은 도구를 이용하여 살살 긁어 주면 곧 벌침이 빠진다.
- 이후 환부를 절대로 문지르지 말아야 한다.
- 계곡물이나 생수 등으로 차가운 물수건을 만들어 상처 부위를 덮어준다.
- 이 때 얼음물에 적신 물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이 가신다.
- 한편 얼음 등으로 물린 부위를 찜질하고 암모니아수 등을 바르면 큰 문제는 없다.
- 또한 보통 대응으로 우유를 바르는 것도 좋다.
- 전신적인 쇼크나 알레르기 반응 시 병원에 입원,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

여름철에 잡목 숲을 산행할 때

- 날씨가 무더운 한 여름, 가시냉쿨로 뒤덮힌 잡목 숲을 산행할 경우 피부보호를 위해 가급적 긴 팔을 입어야 한다.
- 그러나 더위로 인해 여의치 않을 경우 반팔에 토시

를 착용하여 산행길이 좋으면 토시를 벗고 잡목구간 출연 시는 다시 입는 형태로 수시로 갈아 입도록 함으로 가시냉쿨에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토시: 손목을 감싸는 천으로 만든 것. 일명 "소대"라고 함)

열상

- 찢어져서 생긴 상처를 열상이라고 한다.
- 열상은 출혈도 많고 때로는 피부속의 근육과 인대 등도 밖으로 보일 수 있다.
- 특히 머리부위의 열상은 출혈량이 많아서 상처부위 범위가 작더라도 심한 출혈을 발생시킨다.
- 열상이 있을 때에는 열상의 정확한 부위를 확인한 후 거즈를 덮고 손으로 눌러주면 지혈이 된다.
- 이 때 지혈제를 사용하면 지혈제 가루가 상처 사이에 박혀 세척으로도 완전히 제거 되지 않아 나중에 봉합해도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열상은 대부분 상처를 봉합해야만 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예기치 못한 눈길 상황 발생시

- 예상치 못한 폭설 등으로 산길이 눈으로 덮였을 시, 비상 아이젠을 착용하여야 하나 상황이 위급하다면 대응으로 신발 위에 양말을 벗어 신고 산행한다. 또는 아이젠 대응으로 배낭에 항상 9mm 줄을 예비하여 눈길 발생 시 발에 줄을 감고 산행하도록 한다.

저체온증

- 저체온증은 체온이 35°C 이하로 내려간 상태를 말하는데 추운 겨울철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땀 등으로 옷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발생

할 수 있다.

- 특히, 체력이 저하되고 탈진한 상태라면 더욱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움직임이 둔화되기 때문에 스스로 정상체온을 회복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 따라서 날씨가 크게 춥지 않은 가을철이라도 등산을 할 때에는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재질의 등산복과 여벌의 옷을 준비하고 탈진되지 않도록 수분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해야 한다.
- 만약 체온이 저하되었다면 옷이나 담요 등을 덮어 보온을 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며 피부를 강하게 문질러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좋다.
- 무엇보다 빨리 도움을 요청해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주변에 응급환자 발생 시

- 우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 당황하게 되면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응급처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환자를 더욱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
-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환자 상태가 나쁘거나 급할수록 주변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대는 응급환자 신고접수 후 5분 안에 현장에 출동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119로 전화 가능하다.
- 추락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환자를 옮기려고 서두르게 되면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구급대를 기다린다.
- 응급처치가 항상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불필요한 처치를 하거나 응급실 도착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 예를 들어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칼에 손을 베인 경우에 출혈이 멈추도록 상처부위를 거즈로 감싸거나 손으로 누르는 것은 좋지만 약국에 달려가 지혈제나 항생제를 사다가 상처에 뿌리고 응급실에 오는 것은 잘못이다.
-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유지를 위한 호흡과 심장운동이다. 이를 위하여 기도 유지, 인공호흡, 심장압박 등이 다른 처치에 우선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고개가 앞으로 젖혀져 있으면 기도가 막힐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눈에 보이는 사지의 출혈에만 신경쓰다보면 숨을 못쉬어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 병원응급실로 옮겨야겠다고 결정이 되면 가장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환자를 옮겨 1차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
- 무조건 큰 병원만 고집하여 멀리 떨어진 대학병원 등으로 옮기다 보면 치료시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

찰과상과 절상

- 등산 시에는 날카로운 나뭇가지나 등산장비 등에 피부를 긁히거나 베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 사소한 부상이라면 소독 후 반창고를 붙이도록 하고 만약 피가 멈추지 않거나 출혈이 심각할 때는 환부를 심장보다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고 피가 나는 부위는 압박을 통해 지혈하도록 한다.

치아 손상

- 치아가 뿌리째 빠진 경우는 식염수나 우유에 빠진 치아를 담가서 치과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가져 가면 적절한 이식치료를 받을 수 있다.

🌲 탈진

-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등산을 하면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쉬는 동안에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하며, 알코올이나 고단백 음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만약 등산로에서 길을 잃고 오랜 시간 해마다 탈진 증세가 나타날 때에는 그늘에 편한 자세로 눕도록 하고 등산화와 양말을 벗고 조이는 옷과 허리띠 등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이 좋다.
- 물을 충분히 공급하며 이때 소금물이나 염분제를 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

🌲 발목염좌

- 발목을 '삐었다' 혹은 '접질렀다'고 표현하는 발목 염좌는 울퉁불퉁한 바위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다.
- 다리가 균형을 잃으면서 발목이 돌아갔을 때 걷기 힘들어지고 부위가 부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인대의 일부 혹은 전체가 늘어나거나 파열됐기 때문이다. 가벼운 발목 염좌의 경우 따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게 되지만 2~3일이 지났는데도 지속적으로 발목 부위에 통증을 느낀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 단순 염좌라 생각하여 방치했다가 뒤늦게 골절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인대가 손상된 경우라면 3~4주간 석고부목 고정을, 인대가 파열된 상황이면 4~6주간 석고 고정을 해야 한다.

- 발목 염좌를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다친 부위를 반복적으로 삐게 되거나 만성적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에 오를 때는 어떻게 할까?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해지기 한 두 시간 전에 마친다.
- 하루 8시간을 산행하고, 체력의 30%는 비축한다.
- 일행 중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한다.
- 될 수 있으면 30kg 이상의 짐을 지지 않는다.
- 배낭에는 기상이변 등을 대비 랜턴, 우의, 휴대전화(예비 축전지), 상비약품을 준비하고 손에는 될 수 있으면 물건을 들지 않는다.
-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통기성과 방수성이 좋은 것을 신는다.
- 산행 중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섭취한다.
- 산에서는 아는 길도 자주 지도를 보고 확인한다.
-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는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확인한다.
- 등반로 외의 산행을 삼가고,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계곡을 피하여 능선으로 올라간다.
- 등산화 바닥 전체로 지면을 밟고 안전하게 걷는다.
-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항상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
- 발 디딜 곳을 잘 살피며 천천히 걷는다.
- 처음 몇 차례는 15~20분 정도 걷고 5분간 휴식하고, 차츰 30분 정도 걷고 5~10분간 휴식한 다음 산행에 적응이 되면 1시간 정도 걷고 10분간씩 휴식하는 것이 좋다.
- 산행 시에는 수시로 지형과 지도를 대조하여 현재

위치를 소방서에서 설치한 위치판 고유번호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내려갈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발아래를 잘 살펴 안전하게 디딘다.
- 썩은 나뭇가지 풀, 불안정한 바위를 손잡이로 사용하지 않는다.
- 급경사 등 위험한 곳에서는 보조 자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산에서 캠핑할 때는



- 야생동물이나 곤충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고, 뱀 등이 나타나면 절대로 공격하면 안 된다.
- 계곡에서 캠핑할 때는,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려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물 가까이 텐트를 치지 않는다.
-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바닥이 평평해야 하며, 뒤에 암벽이나 언덕이 없어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에 텐트를 친다.
- 벌레에 물리면 비눗물로 즉시 씻고,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바른다.
- 휴대용 랜턴, 라디오, 밧줄(로프), 구급약품 등을 준비해둔다.
- 호우주의보 발령 시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기상상태를 주시한다.
- 등산 중일 때에는 빨리 하산하거나 급히 높은 지대로 피신하되, 물살이 거센 계곡을 절대로 건너지 않는다.
- 야영 중에 물이 밀려들 때에는 절대로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말고 신속히 대피한다.
- 집중호우 시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교량)는 건너지 않는다.

산행 안전 국민행동요령

- 등산로를 미리 파악하고 통신장비 등 기본 등산장비를 휴대하며 음주, 단독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고 해지기 한 두 시간 전에 마쳐야 합니다.
- 하루 산행은 8시간 이하로 하며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합니다.
- 배낭 무게는 가급적 가볍게 하고 발에 맞는 등산화를 신어야 합니다.
- 사고를 대비하여 비상식량을 챙기고 산행 중 음식물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습니다.
- 등산로가 아닌 곳은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빨리 되돌아가야 합니다.
- 우천 시 계곡산행은 피해야 하고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급류로 바뀐 때에는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 낙석이 자주 일어나는 경사진 곳과 바위벽 아래를 지날 때에는 낙석에 유의합니다.
- 산행 중 조난 또는 길을 잃었을 경우에는 계곡을 피하고 능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자료출처〉

• 산의 기본정보

가야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0700&menuNo=7020084>
 가평군 문화관광포털, <http://m.gptour.go.kr/>
 강북구 문화관광포털, <https://www.gangbuk.go.kr/tour/index.do>
 강화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tour/
 경주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gyeongju.go.kr/tour/index.do>
 계룡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0200&menuNo=7020086>
 고성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goseong.go.kr/tour/index.goseong>
 고창군 문화관광포털, <https://tour.gochang.go.kr/>
 관악구청 문화관광포털, <https://www.gwanak.go.kr/site/gwanak/area/areaMain.do?cateCont=Area02>
 광양시 문화관광포털, <https://gwangyang.go.kr/tour/>
 구미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gumi.go.kr/tour/main.do>
 금산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geumsan.go.kr/tour/>
 금산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geumsan.go.kr/tour/>
 김제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gimje.go.kr/tour/index.gimje>
 김천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gc.go.kr/culture/main.do>
 남양주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nyj.go.kr/culture/index.do>
 남해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namhae.go.kr/tour/main.web>
 내장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0600&menuNo=7020087>
 다도해해상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1200&menuNo=7020088>
 단양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danyang.go.kr/tour/527>
 달성군 문화관광포털, <https://dalseong.daegu.kr/culture/index.do>
 담양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damyang.go.kr/tour/index.damyang>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daegu.go.kr/cts/index.do>
 덕유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0800&menuNo=7020089>
 도봉구 문화관광포털, <https://tour.dobong.go.kr/>
 동두천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ddc.go.kr/tour/index.do>
 무등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2000&menuNo=7020090>
 문경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gbmj.go.kr/tour/main.do>
 밀양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miryang.go.kr/tur/index.do>
 밀양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miryang.go.kr/tur/index.do>
 보은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boeun.go.kr/tour/>
 봉화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tour/>
 부산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busan.go.kr/index>
 부안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buan.go.kr/tour/index.buan>
 삼척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samcheok.go.kr/tour.web>
 삼척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samcheok.go.kr/tour.web>
 설악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0400&menuNo=7020093>
 소백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1600&menuNo=7020094>
 속리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0500&menuNo=7020095>
 순창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sunchang.go.kr/tour/index.sunchang>
 순천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suncheon.go.kr/tour/>
 신안군 문화관광포털, <https://tour.shinan.go.kr/>
 양구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ygtour.kr/Home/index>
 양산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yangsan.go.kr/main.do>
 양평군 문화관광포털, <https://tour.yp21.go.kr/www/index.do>

영동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yd21.go.kr/tour/>
 영월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yw.go.kr/tour/index.do>
 예산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yesan.go.kr/tour/index.do>
 오대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0900&menuNo=7020096>
 완주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wanju.go.kr/tour/index.wanju>
 울릉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ulleung.go.kr/tour/index.do>
 울주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ulju.ulsan.kr/tour/main.do>
 월악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1400&menuNo=7020097>
 월출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1700&menuNo=7020098>
 인제군 문화관광포털, https://tour.inje.go.kr/tour/around/around_look?cid=473&mode=read
 장성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jangseong.go.kr/home/tour_new/
 장수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jangsu.go.kr/tour/index.jangsu>
 장흥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jangheung.go.kr/tour>
 정선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jeongseon.go.kr/tour>
 제천시 문화관광포털, <https://tour.jecheon.go.kr/base/main/view>
 주왕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1000&menuNo=7020099>
 지리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0100&menuNo=7020100>
 진안군 문화관광포털, <https://jinan.go.kr/tour/>
 창녕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cng.go.kr/tour.web>
 창원특례시 문화관광포털, <https://culture.changwon.go.kr/index.changwon?contentId=9>
 청양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cheongyang.go.kr/tour.do>
 춘천시 문화관광포털, <http://tour.chuncheon.go.kr/#ink>
 치악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1300&menuNo=7020101>
 태백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2200&menuNo=8000275>
 통영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utour.go.kr/utour.web>
 파주시 문화관광포털, <https://tour.paju.go.kr/user/tour/main/index.do>
 평창군청 문화관광포털, <https://tour.pc.go.kr/Home/index>
 포천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pocheon.go.kr/ktour/index.do>
 포천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pocheon.go.kr/ktour/index.do>
 포항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pohang.go.kr/phtour/index.do>
 한라산국립공원, <https://www.jeju.go.kr/hallasan/index.htm>
 함양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hygn.go.kr/tour.web>
 합천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hc.go.kr/06573/06623/09042.web>
 해남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haenam.go.kr/tour/index>
 홍천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hongcheon.go.kr/tour/index.do>
 화천군 문화관광포털, <https://tour.ihc.go.kr/hb/portal>

• 산에 대한 추가정보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search>
 두산백과, <https://ko.wikipedia.org/w/index.php?search>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https://www.damyang.go.kr/tour/index.damyang>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N문화, <https://www.nculture.org/man/main.do>

• 산의 명칭유래

[산의 명칭유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Search>
 『한국지명요람(韓國地名要覽)』(건설부 국립지리원, 1982)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67)

한국지명유래집(중부권),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08, 574.

계방산 명칭유래, 월간산, <https://san.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30do?parkId=120700&menuNo=7020084>

가평군 문화관광포털, <http://m.gptour.go.kr/>

강북구 문화관광포털, <https://www.gangbuk.go.kr/tour/index.do>

강화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tour/

경주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gyeongju.go.kr/tour/index.do>

계룡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0200&menuNo=7020086>

고성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goseong.go.kr/tour/index.goseong>

고창군 문화관광포털, <https://tour.gochang.go.kr/>

관악구청 문화관광포털, <https://www.gwanak.go.kr/site/gwanak/area/areaMain.do?cateCont=Area02>

광양시 문화관광포털, <https://gwangyang.go.kr/tour/>

구미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gumi.go.kr/tour/main.do>

금산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geumsan.go.kr/tour/>

금산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geumsan.go.kr/tour/>

김제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gimje.go.kr/tour/index.gimje>

김천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gc.go.kr/culture/main.do>

남양주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nyj.go.kr/culture/index.do>

남해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namhae.go.kr/tour/main.web>

내장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0600&menuNo=7020087>

다도해해상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1200&menuNo=7020088>

단양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danyang.go.kr/tour/527>

달성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dalseong.daegu.kr/culture/index.do>

담양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damyang.go.kr/tour/index.damyang>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daegu.go.kr/cts/index.do>

덕유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0800&menuNo=7020089>

도봉구 문화관광포털, <https://tour.dobong.go.kr/>

동두천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ddc.go.kr/tour/index.do>

무등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2000&menuNo=7020090>

문경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gbmng.go.kr/tour/main.do>

밀양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miryang.go.kr/tur/index.do>

밀양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miryang.go.kr/tur/index.do>

보은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boeun.go.kr/tour/>

봉화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bonghwa.go.kr/open_content/tour/

부산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busan.go.kr/index>

부안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buan.go.kr/tour/index.buan>

삼척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samcheok.go.kr/tour.web>

삼척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samcheok.go.kr/tour.web>

설악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0400&menuNo=7020093>

소백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1600&menuNo=7020094>

속리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0500&menuNo=7020095>

순창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sunchang.go.kr/tour/index.sunchang>

순천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suncheon.go.kr/tour/>

신안군 문화관광포털, <https://tour.shinan.go.kr/>

양구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ygtour.kr/Home/index>

양산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yangsan.go.kr/main.do>

양평군 문화관광포털, <https://tour.yp21.go.kr/www/index.do>

영동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yd21.go.kr/tour/>

영월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yw.go.kr/tour/index.do>

예산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yesan.go.kr/tour/index.do>

오대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0900&menuNo=7020096>

완주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wanju.go.kr/tour/index.wanju>

울릉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ulleung.go.kr/tour/index.do>

울주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ulju.ulsan.kr/tour/main.do>

월악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1400&menuNo=7020097>

월출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1700&menuNo=7020098>

인제군 문화관광포털, https://tour.inje.go.kr/tour/around/around_look?cid=473&mode=read

장성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jangseong.go.kr/home/tour_new/

장수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jangsu.go.kr/tour/index.jangsu>

장흥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jangheung.go.kr/tour>

정선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jeongseon.go.kr/tour>

제천시 문화관광포털, <https://tour.jecheon.go.kr/base/main/view>

주왕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1000&menuNo=7020099>

지리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0100&menuNo=7020100>

진안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jinan.go.kr/tour/>

창녕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cng.go.kr/tour.web>

창원특례시 문화관광포털, <https://culture.changwon.go.kr/index.changwon?contentId=9>

청양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cheongyang.go.kr/tour.do>

춘천시 문화관광포털, <http://tour.chuncheon.go.kr/#ink>

치악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1300&menuNo=7020101>

태백산국립공원, <https://www.knps.or.kr/front/portal/visit/visitCourseMain.do?parkId=122200&menuNo=8000275>

통영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utour.go.kr/utour.web>

파주시 문화관광포털, <https://tour.paju.go.kr/user/tour/main/index.do>

평창군청 문화관광포털, <https://tour.pcg.go.kr/Home/index>

포천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pocheon.go.kr/ktour/index.do>

포천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pocheon.go.kr/ktour/index.do>

포항시 문화관광포털, <https://www.pohang.go.kr/phtour/index.do>

한라산국립공원, <https://www.jeu.go.kr/hallasan/index.htm>

함양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hygyn.go.kr/tour.web>

합천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hc.go.kr/06573/06623/09042.web>

해남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haenam.go.kr/tour/index>

홍천군 문화관광포털, <https://www.hongcheon.go.kr/tour/index.do>

화천군 문화관광포털, <https://tour.ihc.go.kr/hb/portal>

꼭 한번 가 볼 우리 100대 명산

도전해 볼 100대 명산

발행일 2024. 4. 5.

발행인 산림청장

발행처 산림청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481-8876, 4122(숲길등산레포츠팀)

기획·제작 원고제작 및 디자인 / 주식회사 이야기담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원중길 43-5, 1층(태장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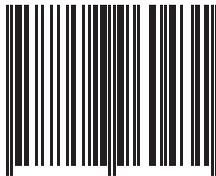
전 화 : 033-742-4800

발간등록번호 11-1400000-000886-01

* 이 책의 저작권은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 담긴 내용은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FSC® 인증을 받은 종이로 제작하였습니다.



9 7 8 8 9 8 8 9 6 0 4 3 1

ISBN 978-89-88960-43-1



The life-changing
100 bucket list mountains
in Korea

100대 명산 당신만의 서사(敍事)가 되다

01.가리산

날짜 20

02.가리왕산

날짜 20

03.가야산

날짜 20

04.가지산

날짜 20

05.감악산

날짜 20

06.강천산

날짜 20

07.계룡산

날짜 20

08.계방산

날짜 20

09.공작산

날짜 20

10.관악산

날짜 20

11.구병산

날짜 20

12.금산

날짜 20

13.금수산

날짜 20

14.금오산

날짜 20

15.금정산

날짜 20

16.깃대봉

날짜 20

17.남산

날짜 20

18.내면산

날짜 20

19.내장산

날짜 20

20.대둔산

날짜 20

21.대암산

날짜 20

22.대야산

날짜 20

23.덕숭산(4덕산)

날짜 20

24.덕유산

날짜 20

25.덕항산

날짜 20

26.도락산

날짜 20

27.도봉산

날짜 20

28.두물산

날짜 20

29.두라산

날짜 20

30.마니산

날짜 20

31.마미산

날짜 20

32.명성산

날짜 20

33.명지산

날짜 20

34.모악산

날짜 20

35.무등산

날짜 20

36.무학산

날짜 20

37.미륵산

날짜 20

38.민주지산

날짜 20

39.빙랑산

날짜 20

40.방태산

날짜 20

41.백덕산

날짜 20

42.백암산

날짜 20

43.백운산(포천)

날짜 20

44.백운산(광양)

날짜 20

45.백운산(경성)

날짜 20

46.별산

날짜 20

47.북한산

날짜 20

48.비슬산

날짜 20

49.삼악산

날짜 20

50.서대산

날짜 20

51.선운산

날짜 20

52.설악산

날짜 20

53.성일봉

날짜 20

54.소백산

날짜 20

55.소요산

날짜 20

56.속리산

날짜 20

57.신불산

날짜 20

58.연화산

날짜 20

59.오대산

날짜 20

60.오봉산

날짜 20

73.점봉산

날짜 20

74.조계산

날짜 20

75.주왕산

날짜 20

88.태백산

날짜 20

89.태화산

날짜 20

90.팔공산

날짜 20

61.용문산

날짜 20

62.용화산

날짜 20

63.운문산

날짜 20

76.추출산

날짜 20

77.지리산

날짜 20

78.지리산(통영)

날짜 20

91.팔봉산

날짜 20

92.팔명산

날짜 20

93.항라산

날짜 20

64.운악산

날짜 20

65.운갑산

날짜 20

66.월악산

날짜 20

79.천관산

날짜 20

80.천마산

날짜 20

81.천성산

날짜 20

94.화악산

날짜 20

95.화왕산

날짜 20

96.황매산

날짜 20

67.월출산

날짜 20

68.유명산

날짜 20

69.응봉산

날짜 20

82.천태산

날짜 20

83.청량산

날짜 20

84.추월산

날짜 20

97.황석산

날짜 20

98.황악산

날짜 20

99.황강산

날짜 20

70.장안산

날짜 20

71.재악산

날짜 20

72.적삼산

날짜 20

85.죽령산

날짜 20

86.치악산

날짜 20

87.칠갑산

날짜 20

100.회양산

날짜 20

01-25		26-50		51-75		76-100	
가리산	1050.9m	도락산	965.3m	선운산	334.7m	주흘산	1108.4m
가리왕산	1561.9m	도봉산	740.2m	설악산	1708.1m	지리산	1915.4m
가야산	1432.6m	두류산	703m	성인봉	986.5m	지리산(통영)	399.3m
가지산	1241m	두타산	1357m	소백산	1439.7m	천관산	724.3m
감악산	675m	마니산	472.1m	소요산	587.5m	천마산	810.3m
강천산	585.8m	마이산	687.4m	속리산	1058.4m	천성산	920.2m
계룡산	846.5m	명성산	922m	신불산	1159.3m	천태산	715.2m
계방산	1579.1m	명지산	1252.3m	연화산	524m	청량산	869.7m
공작산	887.4m	모악산	795.2m	오대산	1565.4m	추월산	731.2m
관악산	632.2m	무등산	1186.8m	오봉산	777.9m	축령산	887.1m
구병산	876.3m	무학산	761.4m	용문산	1157.1m	치악산	1282m
금산	704.9m	미륵산	458.4m	용화산	877.8m	칠갑산	559.7m
금수산	1051.8m	민주지산	1241.7m	운문산	1195.1m	태백산	1566.7m
금오산	976.5m	방장산	734m	운악산	934.7m	태화산	1027.5m
금정산	800.8m	방태산	1435.57m	운장산	1125.8m	팔공산	1192.3m
깃대봉	381.8m	백덕산	1350.1m	월악산	1095.3m	팔봉산	328.2m
남산	495.1m	백암산	741.2m	월출산	810.7m	팔영산	606.9m
내연산	711.3m	백운산(포천)	904.1m	유명산	864m	한라산	1947.3m
내장산	763.5m	백운산(광양)	1222.2m	응봉산	999.7m	화악산	1446.1m
대둔산	878.9m	백운산(정선)	883.5m	장안산	1237.4m	화왕산	757.7m
대암산	1312.6m	변산	508m	재악산	1108m	황매산	1113.1m
대야산	931m	북한산	835.6m	적삼산	1030.6m	황석산	1192.5m
덕숭산(수덕산)	495.2m	비슬산	1083.4m	점봉산	1426m	황악산	1111.4m
덕유산	1614.2m	삼악산	655.8m	조계산	887.3m	황장산	1078.9m
덕항산	1072.9m	서대산	904.1m	주왕산	722.1m	희양산	996.4m



산림청 선정

100개의 명산



산의 높이

- 0 ~ 500m
- 500 ~ 1,000m
- 1,000 ~ 1,500m
- 1,500 ~ 2,000m

가리왕산	1050.9m	금수산	1051.8m	덕유산	1072.9m	북한산	835.6m	조계산	887.3m
가리왕산	1561.8m	금오산	976.5m	도락산	965.3m	비슬산	1083.4m	주왕산	722.1m
가야산	1432.6m	금정산	800.8m	도봉산	740.2m	삼악산	655.8m	주흘산	1108.4m
가지산	1241m	깃대봉	381.8m	두륜산	703m	서대산	904.1m	지리산	1915.4m
감악산	675m	남산	495.1m	두타산	1357m	선운산	334.7m	지리산(통영)	399.3m
강천산	585.8m	내연산	711.3m	마니산	472.1m	설악산	1708.1m	천관산	724.3m
계룡산	846.5m	내장산	763.5m	마이산	687.4m	성인봉	986.5m	천마산	810.3m
계방산	1579.1m	대둔산	878.9m	명성산	922m	소백산	1439.7m	천성산	920.2m
공작산	887.4m	대암산	1312.6m	명지산	1252.3m	소요산	587.5m	천태산	715.2m
관악산	632.2m	대야산	931m	모악산	795.2m	속리산	1058.4m	청량산	869.7m
구병산	876.3m	덕숭산(수덕산)	495.2m	무등산	1186.8m	신불산	1159.3m	추월산	731.2m
금산	704.9m	덕유산	1614.2m	무학산	761.4m	연화산	524m	추령산	887.1m
				무성산(광양)	1222.2m	오대산	1565.4m	치악산	1282m
				백운산(경산)	883.5m	오봉산	777.9m	칠갑산	559.7m
				백운산(포천)	741.2m	용문산	1157.1m	태백산	1566.7m
				백운산(전남)	904.1m	용화산	877.8m	태화산	1027.5m
				백운산(충청)	1222.2m	운문산	1195.1m	팔공산	1192.3m
				벼산	508m	운악산	934.7m	팔봉산	328.2m
						운장산	1125.8m	팔영산	606.9m
						월악산	1095.3m	한라산	1947.3m
						월출산	810.7m	화악산	1446.1m
						유명산	864m	화왕산	757.7m
						응봉산	999.7m	황매산	1113.1m
						장안산	1237.4m	황석산	1192.5m
						재약산	1108m	황악산	1111.4m
						적상산	1030.6m	황장산	1078.9m
						점봉산	1426m	희양산	996.4m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깃대봉 381.8m

